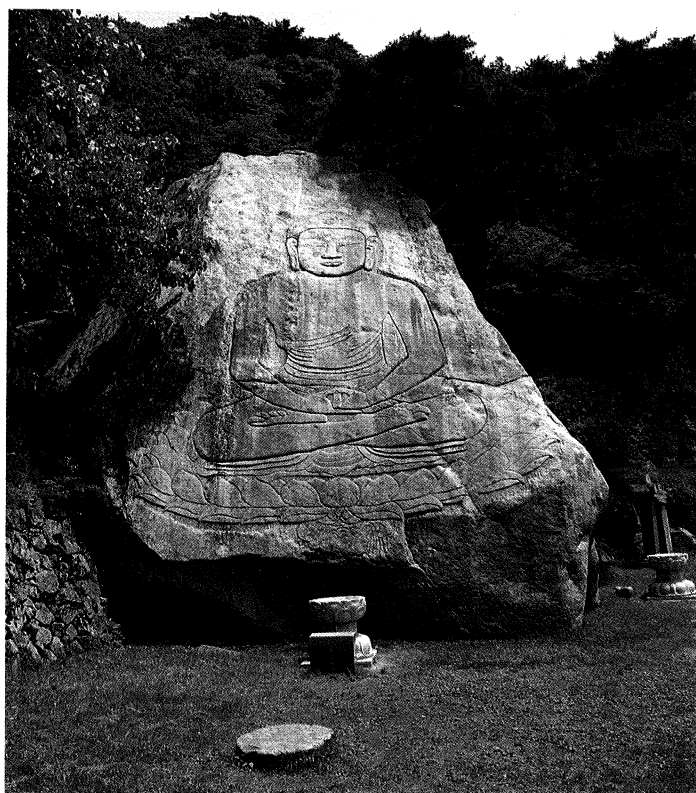


第三篇 高麗時代



桐華寺 念佛庵 磨崖如來坐像(有形文化財 第14號)

- 第1章 後三國鼎立期の 大邱地域と
公山戦闘
- 第2章 大邑中心の 郡縣制度 整備と
大丘縣の 變遷
- 第3章 民亂と 外侵
- 第4章 高麗の 文化と 大邱

第三編 高麗時代

第1章 後三國 鼎立期の 大邱地域과 公山戰鬪

918년 왕건의 고려 건국이후 936년의 고려에 의한 후삼국통일까지는 고려와 후백제, 신라가 병립해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신라는 이미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그 인근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그 지역 토착세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후삼국 중 상대적으로 신라가 가장 취약했던 당시의 상황은 결국 신라의 영역인 경상도지역이 고려와 후백제의 세력확장을 위한 주요 쟁패지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대구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후삼국정립기에 있어서의 대구지역은 신라 9주의 하나인 良州관내로서 현재의 市域과 대비해 본다면 대체로 수성군과 그 영현이었던 대구현·화원현·하빈현 및 장산군과 그 관내의 해안현 등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상에 나타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대체로 신라 경덕왕때 군현의 명칭을 포함한 일차적 변화가 있었으며, 그 후 고려 태조 23년과 현종 9년에 행정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삼국정립기에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조직체계의 변화를 전해주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이들 지역이 양주관내의 屬군현으로서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다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비록 외형적 제도상으로는 그대로 양주관내의 소속 군현으로 계속 편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각 지방의 향호들이 할거하는 당시의 혼란상과 신라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제로 있어서 신라중심의 지방제도는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태조 23년에 州府郡縣의 명칭을 개편한 사실이 단순한 명칭만의 개편이 아니라 행정조직체계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수반하고 있음을 전제할 때,¹⁾ 특히 良州의 경우 신라 9주의 하나로서 신라시대에는 그 관내에 1소경·12

1) 김운곤, 《高麗郡縣制度의 研究》, 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83.

군·6정·34현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태조 23년의 개편과정에서는 梁州로 명칭이 바뀐과 아울러 안동대도호부—경주대도독부 관내의 한 주로서 東平縣과 機張縣의 두 현만을 영현으로 두게 되었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의 성숙기 즉, 오랜 기간의 과도기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대구지역의 존재양태를 전해주는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구지역이 부각되었던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927년(고려 태조 10년) 9월의 공산싸움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²⁾ 그래서 팔공산지역에서 있었던 고려와 후백제간의 공산싸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대구지역의 존재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第1節 公山戰鬪의 發生背景

공산전투는 후백제의 견훤이 영천지방을 습격하고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꺾박할 즈음에 위기를 느낀 신라가 고려의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한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공산싸움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삼국사기》의 본기에서는 경애왕 4년(927) 11월조에 견훤의 경주 침공사실과 공산전투를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책의 견훤열전에는 같은 해 10월에, 그리고 《고려사》의 태조세가에는 같은 해 9월에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상의 차이에 대한 원인과 진위를 분명히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공산싸움이 있었다고 기록한 10월과 11월에 견훤에 의한 벽진군침공 사실과 왕건에게 국서를 보낸 사실을 따로이 기록하고 있어 보다 더 신뢰성이 간다. 그러면 이때의 사정과 관련해서 《고려사》 태조세가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³⁾

1) 9월에 견훤이 近品城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나아가 신라의 高鬱府를 습격하여 교외에까지 꺾박하니 신라왕이 連式을 보내어 급함을 고하였다. 왕(태조)이 侍中 公萱, 大相 孫幸, 正朝 聯珠등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우리와 더불어 同好한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 급박하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고 공훤 등을

2) 공산전투에 대한 자료 역시 《삼국사기》의 견훤전과 《고려사》의 태조세가 등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내용만 소략하게 전하고 있으며, 고려가 패한 전투였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삼국사기》 권 12, 경애왕 4년조와 같은 책, 권 50, 견훤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내어 병사 1만으로서 가게 하였더니, 이르기 전에 견훤이 갑자기 신라의 도성에 들어갔다. 이때에 신라왕은 妃嬪 宗戚과 더불어 포석정에 나와 놀며 주연을 베풀고 오락을 하다가 갑자기 적병이 왔음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과 부인은 달아나 성 남쪽의 離宮에 숨고 從臣 伶官 宮女들은 모두 잡혔다. 견훤은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고 왕궁에 들어가 거처하면서, 좌우로 하여금 왕을 찾게 하여 軍中에 두고서 핍박하여 自盡케 하였고, 왕비를 강제로 능욕하고 그 수하를 풀어 빈첩을 난행케 하였다. 왕의 表弟인 金傅를 세워 왕으로 삼고 王弟 孝廉과 宰臣 英景 등을 포로로 하였으며, 자녀들과 百工과 兵仗과 珍寶를 모조리 掠取하여 돌아갔다. 왕(태조)이 이를 듣고大怒하여 사신을 보내어 弔祭하고 친히 精騎 5천을 거느리고 견훤을 公山桐蔭에서 맞이하여 크게 싸웠으나 불리하여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함이 매우 급한지라 大將 申崇謙과 金樂이 力戰하다가 전사하고 모든 군사가 패배하고 왕은 겨우 단신으로 모면하였다. 견훤은 승세를 타고 大木郡을 攻取하고 田野에 쌓여있는 곡식을 불살라 버렸다.⁴⁾

공산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결과가 소개된 위의 자료는 그 내용이 소략하여 당시의 공산싸움에 대한 구체적 실상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것은 왕건과 견훤의 쟁패지로 대구의 공산지역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즉, 왕건이 견훤군의 경주침공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왔음에도 왜 하필이면 공산지역에 머물면서 견훤군을 기다렸을까 하는 점과, 견훤 역시 경주를 함락시키고서 굳이 공산지역으로 가는 길을 택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의 요체인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의 견훤전에는 견훤이 공산으로 가는 과정을 「自隧以歸」라고 표현하여 공산지역이 견훤의 퇴로구실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면서, 영천을 공략하고 이어서 경주를 침공하는 거점구실을 하였을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의 해결은 당시 후삼국정립기의 역학관계 속에서 팔공산을 포함한 대구 지역의 존재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나아가서 소백산맥을 격한 후백제가 경상도 각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기반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가 성립한 918년 이후 936년의 후삼국 통일까지 《삼국사기》와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는 후백제군이 경상도의 각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략을 아래의 도표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4) 《고려사》 권 1, 태조 10년 9월조

〈表 1-1〉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 상황

시	기	내	용	비	고
918.	7. 25	청주 영군장군 견금 來見			
	8. 10	북방 골암성 성주 윤선 귀순			
	23	웅주·운주등 10여 주현 모반, 후백제로감			
	9. 23	상주 아자개 귀순			본기에는 7월
	10. 21	청주 진선 반란			
919.	8. 9	청주 무마, 성을 쌓음			
920.	正.	강주 윤웅 귀순			본기에는 2월
	10.	㉔ 대량·구사군 탈취, 진례군으로 진격			고려가 구원·양국불화
922.	6. 8	하지현 원봉 귀순			본기에는 9월
	7. 20	명주 순식 귀순			〃
	11. 5	진보성 홍술 귀순			
923.	3. 27	명지성 성달 귀순			본기에는 7월
	8. 1	벽진군 양문 귀순			〃
924.	7.	㉔ 수미강·양검 조물군 공격, 실패			
925.	9. 24	매조성 능현 귀순			
	10. 10	고을부 능문귀순→위로하여 보냄			
		유금필 파전, 후백제와 교전			
	16	조물군에서 후백제와 교전			
	12.	㉔ 거창 등 20여성 공취			본기에만 기록됨
926.	4. 경진	㉔ 인질 사망 문제로 웅진으로 진격			
927.	正. 3	웅주 함락시킴			
	3. 10	웅주 공격, 성주 궁준 격파			
	13	근품성 공격			
	4. 임술	강주 공격, 그외 4鄉함락			
	을축	웅주 공격, 실패			
	7. 9	재충·김락등 대량성 격파, 추허조 포획			
	8. 8	강주 순행, 고사같이성 홍달 귀순			
		백제 여러 성주 투항			
	9.	㉔ 근품성·고을부 공격, 경주 함락			
		공산전투, 대목군 탈취, 곡식불사름			
	10.	㉔ 벽진군 침공, 대목·소목군 곡식 빼어감			
	11.	㉔ 벽진군 곡식 불사름, 고려의 색상 전사			
928.	正. 25	명주 순식 찾아옴			
	28	㉔ 초팔성 홍종이 강주 구원하려는 고려군 격파			
	5. 16	㉔ 강주 습격, 유문 항복			
	7. 13	삼년산성 공격, 실패			
	8.	양산 격파 ㉔ 퇴각중 대량성 의지, 대목군 곡식			

시	기	내	용	비	고
928	11.	배어감, 무어곡 확보→죽령차단			
929.	7. 12	㉔ 오어곡성 함락시킴, 양지·명식등 6인 ㉔에 항복			
	14	기주 순행			
	9. 9	㉔ 의성부 침공 홍술 전사, 순주 침공 원봉 도망			
	10. 1	강주 순행			
		후백제 일길찬 염혼 귀순			
	12.	㉔ 가은현 포위, 不克			
		㉔ 고창군 포위			
930.	正. 2	재암성 선필 귀순			
	21	병산전투 승리, ㉔순주 함락, 왕건 회복			
	25	영안·하곡·직명·송생 등 30여성 귀순			
	2. 1	명주~홍례부의 동쪽 연해주군 확보			
	6	니어진 순행			
		북미질성 흰달이 남미질성 성주와 귀순			
	6. 7	대목군 순행			
	11	청주 순행			
	9. 7	개지변 항복 청함			
932.	6. 15	백제장군 공직 투항			
	7. 11	일모산성 정벌			
	9.	㉔ 예성강으로 와서 염주·백주·정주공격			
	10.	㉔ 해군장군 상애등이 대우도 침략			
	11.	일모산성 격파			
934.	正. 갑진	서경으로가 북방지역 순행			
	9. 20	운주 정벌, 백제의 웅진이북 30여성 항복			
935.	3.	㉔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			
	6.	견훤이 나주로 와서 항복			
	9. 2	서경으로 가서 황주와 해주 순행			
	10. 1	신라가 입조 청함			
	12. 11	신라 항복			
936.	2.	견훤사위 박영규 귀순			
	9.	후백제 멸망			

※ 비교란의 본기는 《삼국사기》의 본기, 내용란의 ㉔은 後百濟가 주체

왕건이 즉위하면서 궁예로 부터 계승한 지역은 대체로 運州(洪州) 熊州(公州) 靑州(淸州) 槐壤(槐山) 國原(忠州) 興州 蔚珍 등의 이북지역이었으며, 尙州의 아자개가 그해 7월에 귀부해 음으로써 충청도의 공주와 경상도의 상주를 하한선으로 한 지역이 고려의 세력권이었다.

그러나 그해 8월과 10월에는 왕건의 즉위에 거부의를 갖고 있었던 웅주 운주 청주등 후백제와 접경하고 있던 10여주군현이 후백제에 귀부함으로서 충청도지역에서의 고려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태조 2년(919)에는 烏山成을 禮山縣으로 고치고 大相 哀宣과 洪儒를 파견하여 유민을 안집시키는 등 이 지역의 변방개척에 주력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경우 태조의 즉위초에는 아직 내외적 기반이 공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백제와의 군사적 충돌은 가급적 자제하였으며, 후백제의 경우 또한 고려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쇠하였고, 과거 백제를 멸망시킨 국가를 공략한다는 것과 같은 명분마련에 유리하였던 신라지역으로의 진출을 원하였기 때문에 고려와의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였다. 그래서 견훤은 왕건의 즉위에 축하사절을 파견하였고 고려는 이를 厚禮로 환대하였다. 또한 고려 태조 3년(920) 9월에도 견훤이 고려에 사절을 파견하여 孔雀扇과 지리산의 竹箭 등을 예물로 헌상하여 화친을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의 이러한 일시적 우호관계는 바로 다음달에 견훤이 大良郡과 仇史郡을 탈취하고 진례군으로 진출함으로써, 그리고 고려가 이를 구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붕괴되었다.⁵⁾

위의 <표 1-1>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시기 이후 고려와 후백제간의 쟁패와 세력권의 확보는 주로 경상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후백제는 건국초기인 901년(신라 효공 4)부터⁶⁾ 이미 경상도지역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야성(경남 합천지역)에 대한 공격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대야성이 후백제의 주된 공격대상이 된 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경상북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라도지역에서 경상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피해 가야산자락과 지리산자락의 중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였으며, 합천지역이 바로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견훤은 920년 10월의 군사행동에서도 그 주된 공격대상을 대량군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여 大良·仇史의 두 郡을 빼앗고 進禮郡에 이르니 신라가 아찬 金律을 보내와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니 견훤이 이를 듣고 물러갔는데, 이때부터 우리와 틈이 생겼다.⁷⁾

5)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9월에 있었던 견훤의 고려에 대한 사절파견은 후백제가 신라지역을 공략함에 있어 고려의 견제 또는 신라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후백제의 연원은 892년(진성여왕 6)부터 비롯되지만, 이는 자칭의 성격이 강하며, 관서와 관직을 정비하고 국내외적으로 국가로서의 공인을 받은 시기는 900년부터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 50, 견훤전 참조. 실제로 《삼국사기》 본기의 기사에서도 892년 이후 900년까지의 시기는 후백제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전무할 정도로 국가적 체제정비가 미흡한 시기였다.

7) 《고려사》 권 1, 태조 3년 10월조.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때 대량군과 더불어 탈취하였다는 仇史郡의 존재이다. 이 구사군의 위치비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고해 볼 수 있다.

仇史部曲；府의 서쪽 60리에 있다. 본래 신라의 麻珍良縣인데, 珍은 彌로도 썼다. 경덕왕이 餘糧縣으로 고쳐 獐山郡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뒤에 낮추어 부곡으로 하고,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⁸⁾

위의 자료에는 비록 구사군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구사부곡이 바로 구사군과 동일지역을 의미한다 생각된다. 즉 ‘구사’지역의 읍격을 ‘郡’으로 표현한 것이 사료상의 오기가 아니라고 전제할 때, 여랑현이 신라후기 또는 후삼국 격변기의 어느 시기엔가 ‘구사군’으로 승격되었다가 920년 10월에 이르러 후백제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그 후 고려정부에 의해 부곡으로 강등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허용된다면 구사군의 위치비정은 대구에 인접한 현재의 경산군 진량면지역으로 볼 수 있다.⁹⁾

전환이 합천지역과 경산의 진량지역을 확보하였다면, 합천에서 진량에 이르는 교통로에 위치한 고령, 달성, 대구지역 또한 후백제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즉, 대구를 비롯한 이들 지역이 이 시기 이후 후삼국 쟁패기의 와중에서 후백제의 세력권하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이 추론을 보완해 봄으로서 고려와 후백제간의 전투가 공산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에 어느 정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위의 <表 1-1>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환의 후백제군이 경상도의 각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하였는데, 세력기반을 전라도지역에 두고 있는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군사활동을 가능케하는 경상도지역의 교두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가 된다.

둘째는 앞의 사료 1)에 나타난 927년의 경주 함락시에 서쪽의 상주를 공략하고 곧 동쪽방면의 영천 및 경주를 공략하였다는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후백제의 경상도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이 대체로 합천, 고령, 대구로 연결되는 선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양 방향으로 진행되고

8)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속현조.

9) 《경상북도지명유래총람》의 진량면연혁에는 “신라시대부터 본면의 縣內洞에 仇史縣 또는 麻珍良縣의 置縣傳說이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연은 仇史郡을 “古之屈自郡 今義安郡”이라 하여 지금의 창원지역에 비정한 바 있다. (《삼국유사》 권 3, 탑상 4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그러나 이러한 《삼국유사》의 위치비정을 여타의 지리지에서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며,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견해를 수용할 경우에는 합천과 창원지역의 확보를 통한 경상도 북부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의 마련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후백제가 924년에 大耶城과 聞韶城의 군사로 曹物城을 공격하였다는 다음의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同光 2년(924) 秋 7월에 (견훤)이 아들 須彌强을 보내어 大耶 聞韶 2城의 군사를 내어서 曹物城을 공격케 하였다. 城에 있는 사람들이 태조(왕건)를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키면서 나와 싸우지 않으니 수미강이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¹⁰⁾

여기서의 문소성은 지금의 의성지역을 의미한다. 즉 《고려사》 지리지의 의성현조에

의성현; 본래 召文國으로 신라가 이를 취하였다. 경덕왕이 고쳐 문소군이라 하였고, 고려초에 올려 의성부로 삼았으며, 현종 9년에 (안동부에)내속하였다. (하략)¹¹⁾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은 후백제가 합천지역과 의성지역의 병력으로 조물성을 공격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 기록을 신빙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의성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천에서 고령, 대구, 군위로 이어지는 지역에 대한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의성지역이 후백제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시기는 자세하지 않지만 920년 10월의 고령, 대구, 경상지역에 대한 확보가 결국 그후 의성지역으로의 진출을 가능케한 기반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조물성의 공격시 훨씬 남쪽인 합천의 병력동원은 기록되면서 고령이나 대구 또는 군위지역의 병력동원 사실이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점은 하나의 의문이다. 단지 상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선 합천지역은 앞에서 그 지리적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경상도지역의 진출을 위한 군사적 전진기지로서, 대규모의 병력집단이 주둔해 있으면서 경상도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의성지역은 그 확보된 시기는 자세하지 않지만 후백제의 입장에서 고려의 남하를 견제하고 저지하기 위한 최전선으로서, 대구 또는 군위와 같은 인근지역의 후백제병력 및 그 지원세력이 집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다음의 자료에서 보이듯이 이 의성지역은 929년(고려 태조 12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다시 고려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10) 《삼국사기》 권 50, 견훤전.

11) 《고려사》 권 57, 지리 2 안동부 의성현조.

견훤이 甲卒 5천으로 의성부를 치니 성주장군 洪術이 전사하였다. 왕이 통곡하여 말하기를 ‘나의 左右手를 잃었다’ 라고 하였다.¹²⁾

즉 견훤이 929년에 의성부를 공략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전시기에 의성부는 고려의 세력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전사한 의성부의 성주장군 홍술은 본래 진보성주로 있다가 922년에 고려에 귀부하였던 홍술과 동일인으로,¹³⁾ 홍술이 의성부의 성주장군으로 변모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홍술의 전사시에 왕건이 ‘나의 左右手를 잃었다’ 고 한 표현으로 미루어 홍술은 왕건이 신뢰할 수 있었던 심복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성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의 방비를 맡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왕건의 애통해 함은 홍술이라는 인재의 상실과 더불어 의성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의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역사자료에 왕건에 귀부한 향호(성주장군)는 나타나고 있으나, 견훤에 귀부한 향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도표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表 1-2〉 향호의 귀부 상황

시 기	지 역	향 호	귀부대상	비 고
918. 7. 25	청주	견 금	고 려	
8. 10	골암성	윤 선	〃	
8. 23	웅주·운주등 10여 주현		후백제	고려에 모반후
9. 23	상주	아자개	고 려	본기에는 7월로
920. 正.	강주	윤 응	〃	본기에는 2월로
922. 6. 8	하지현	원 봉	〃	본기에는 9월로
7. 20	명주	순 식	〃	본기에는 9월로
11. 5	진보성	홍 술	〃	본기에는 9월로
923. 3. 27	명지성	성 달	〃	본기에는 7월로
8. 1	벽진군	양 문	〃	본기에는 7월로
925. 9. 24	매조성	능 현	〃	
10. 10	고을부	능 문	〃	경주와 가깝다는 이유로 돌려보냄
927. 8. 8	고사갈이성의 외 여러성	홍 달	〃	
5. 16	강주	유 문	후백제	전쟁에 패함
930. 正. 2	재암성	선 필	고 려	
正. 25	연안·하곡·직명·송생등 30여성		〃	
2. 6	북미질성·남미질성	훤 달	〃	북미질성 성주
9. 7	개지번	최 환	〃	최환은 향호가 파견한 사자
934. 9. 20	웅진 이북 30여성		〃	

12) 《고려사》 권 1, 태조 12년 7월 신사조.

13) 문경현, 《신라사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3, pp. 332~334 참조.

위의 표에서 찾아지는 현상은 고려에 귀부한 경우는 그 지역명과 아울러 향호들의 이름이 적기되어 있는데 비하여 후백제의 경우는 918년 8월과 10월의 충청도지역 일부 외에는 귀부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귀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호들의 명칭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¹⁴⁾ 경상도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성주, 상주, 문경 등의 서쪽 방면과 진보, 영천 등의 동쪽방면 및 안동 이북지역은 고려에 귀부한 예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고령, 대구, 군위, 의성으로 이어지는 중앙지역은 고려에 귀부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향호의 존재에 대한 흔적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¹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도지역은 후백제와 고려간의 활발한 군사적대립이 지속되었던 곳이었으며, 후백제의 경상도지역에서의 군사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각 고을들이 유독 고려에만 귀부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고령, 대구, 군위로 이어지는 연결로 및 그 인근 고을만 유독 성주장군으로 칭해지는 향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 또한 부자연스럽다. 이는 결국 이들 지역이 일정기간 후백제의 세력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중심의 역사서술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여겨진다.¹⁶⁾

이러한 측면은 후삼국 정립기에 있어서 대구지역이 후백제의 세력권하에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공산전투가 일어나게된 배경 즉, 왜 하필이면 대구의 공산지역에서 고려와 후백제간의 대규모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의 일단을 해소해 주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한편 920년 10월의 후백제에 의한 대량군과 구사군의 탈취 이후 고려와 후백제 양국은 경상도지역에서 그들의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하였다. 922년의 6월과 7월 그리고 11월에는 하지성(풍산 부근)과 명주성, 진보성이 고려에 귀부하였는데, 왕건은 하지성을 귀부에 대한 포상의 의미로서 순주로 승격시켰다.¹⁷⁾ 그리고 이듬해인 923년 7월에는

- 14) 이 지역 향호들의 명칭 또는 세력기반과 관련해서는 《고려사》 권 125, 반역 1 이혼암전에 나타나는 웅주태수 이혼암, 《고려사》 권 92, 열전 5 배현경전에 나타나는 청주출신 임춘길 등의 예와 비교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 50, 견훤전의 928년 정월조의 왕건이 견훤에 보낸 답서의 내용에 나타나는 海岸지역의 尹卯, 함천지역의 鄒(許)造, 충남 연기의 吉奐 등이 후백제를 지지하는 향호들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 15) 예로서 현 대구지역에 해당하는 수창군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4개의 영현을 거느린 巨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에 향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 16) 《고려사》의 편찬 당시 참고되었던 후삼국 및 고려초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고려위주였을 것임은 당연하며,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본문의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후백제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구체적 날짜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
- 17) 다른 지역의 귀부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러한 하지성에 대한 읍격의 승격은 후백제의 복진을 견제하고 고려의 남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지역적 중요성이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명지성(문경 부근)과 경산성(성주)이 고려에 귀부하였고, 925년 9월과 10월에는 매조성과 고을부(영천지역)¹⁸⁾ 또한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경상도지역에 대한 진출의 확대는 후백제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후백제의 견훤은 이의 견제를 위해 앞서의 자료에서도 예시한 바와 같이 924년에 아들인 수미강(금강)과 양검으로 하여금 대야성과 문소성의 군사로 조물성을¹⁹⁾ 공격케 한 바 있으며, 이듬해 매조성과 고을부가 고려에 귀부한 직후 조물성에 대한 재차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 두번째의 조물성전투에서는 견훤과 왕건이 직접 조우하였으며, 전세가 불리해진 고려가 화의를 요청하여 왕건이 견훤을 尙父라 칭하고 서로 인질을 교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²⁰⁾

이러한 질자교환을 통한 양국간의 화해분위기는 이듬해인 926년 4월 후백제측에서 고려에 파견한 질자 眞虎가 사망하기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양국이 직접적 군사대결을 자제하였고, 후백제는 925년 12월에 거창을 비롯한 인근지역 20여성을 확보하는 등 경상도 남쪽지방의 세력확장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후백제가 고려에 인질로 파견한 진호가 고려에서 사망함에 따라 양국간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으며, 진호가 고려측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인식한 후백제가 고려측에서 보낸 인질인 王信을 투옥하고서는²¹⁾ 웅진으로 진군함으로써 이후 양국간의 군사적 대결이 재개되었다.

경상도지역에 세력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후백제는 이를 활용하여 龍州(예천 용궁)와 近品城(상주지역)을 함락시키는 등 경상북도지역에서 적극적 군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고려 또한 927년 4월에 康州(경남 진주)지역을 공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3개월후인 7월에 후백제의 경상도 진출을 위한 세력거점인 합천지역을 격파하는 등 적극적 반격을 시도하였다.

후백제가 합천지역을 상실한 여파는 다음달인 8월에 고사갈이성(문경지역)의 홍달을 비롯한 백제 여러성의 성주들이 고려에 귀부하는 예에서 나타나듯이 경상도 전역에 파급되었던 것으로

18) 고을부의 장군 능문이 귀부하였을 때, 왕건은 그 성이 신라의 왕도에 가까우므로 그를 위로하여 돌려 보내었다(《고려사절요》 권 1, 태조 7년조). 경주와 인접하고 있는 고을부가 고려에 귀부의사를 표하였다는 것은 당시 신라의 국력이 얼마나 쇠잔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19) 조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금릉군 조마면으로 비정하는 견해와 《한국사》 중세편 p. 42), 안동부근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김상기, 《고려시대사》 p. 29 및 이형우, 〈고창지방을 둘러싼 여제양국의 각축양상〉 《교남사학》 창간호, p. 62).

20) 당시의 戰勢에 대한 상황과 화의를 먼저 요청한 주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간에 기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문의 서술은 《삼국사기》를 신빙하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용하였다.

21) 《삼국사기》의 견훤전에서는 왕신을 투옥하였다고 하였으나, 《고려사》의 세가에서는 왕신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인다. 이때에 고려에 항복했다고 표현되는 「百濟諸城守」는 아마 경상도지역에 있었던 후백제의 지지세력으로 여겨지며, 의성지역을 비롯한 대구의 팔공산 이북지역들이 대체로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²⁾

후백제의 국운을 건 전투 즉, 936년 9월의 一利川전투가 본래 후백제의 세력근거지인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에서도 느껴 볼 수 있듯이, 경상도지역의 확보 및 신라의 복속은 후삼국통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경상도지역에 있어서 후백제세력의 급속한 약화는 후백제의 입장에서는 심대한 타격이었다.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곧 경주침공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공산전투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第2節 公山戰鬪의 進行過程과 結果

927년 9월에 있었던 후백제군의 군사적 행동은 앞 절의 사료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근품성을 공격하여 이 지역을 불사르는데서 비롯되어 곧이어 고을부와 경주를 함락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근품성을 공격한 후 이 지역을 불살랐다는 의미는 단순히 근품성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의 계속된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이 지니고 있었던 고려의 세력기반 내지는 군량제공처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보여진다.

그리고서 곧 고을부를 습격하였는데, 현재의 영천지역인 고을부는 경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문으로서 925년 10월에 고을부의 능문이 고려에 투항하였을 때, 신라 수도에 가깝다는 이유로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돌려 보낸 예에서 처럼 이 지역은 신라의 홍망과 직결되는 곳이었다. 후백제가 이전에 경상도지역에서 잦은 군사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이 지역에 대한 침공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신라지역민의 민심이 이반되는 것과 고려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고을부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22) 한편 현재의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서 운문사방면으로 동쪽에 地龍山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는 축조된 산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虎踞山城, 雲門山城 또는 地龍山城이라 불리워지는 이 산성은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는 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되었다고 한다. 산성의 이름이 지룡산성이라 불리워지게 된 까닭도 견훤이 지령이의 아들이라는 설화에서 연유하고 있다. (《운문담수물지구지표조사보고서》 1992, pp. 148~149 참조).

곧이어 신라의 수도인 경주마저 함락시켰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도지역에서의 세력열세로 인한 후백제의 위기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려는 이러한 후백제의 군사적 행동과 신라의 구원요청에 대해 1만의 병력을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였으나, 이 병력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주는 함락이 되었다.

신라의 수도가 후백제에 의해 유린이 되고 또한 왕마저 살해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경상도지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해가고 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왕건이 직접 5천의 정예병력을 거느리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왕건이 온 행적은 대체로 충주지역에서 鷄立嶺을 넘어 문경방면으로 온것으로 파악된다. 계림령은 충청도지역에서 경상도지역으로 넘어오는 교통로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개척된 곳으로²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문경새재의 기원을 기록하면서 왕건이 견훤의 군사를 무찌르기 위해 계림령을 넘어 문경으로 갔음을 적고있다. 그러나 문경지역에서 대구의 팔공산까지 이르는 과정은 자세하지 않다. 문경에서 대구로 오는 길은 예천지방을 거쳐 안동,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점촌지방을 거쳐 상주, 선산방면으로 진행하는 두가지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왕건이 패한 후 그 도주로가 성주지역으로 향하였던 점, 후백제가 공산싸움에서 승리한 후 성주와 칠곡지역을 공략한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주를 공격하기 전에 상주지역이 공격대상으로 선택되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대구의 공산지역까지 온 왕건의 고려군은 영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견훤의 군사와 조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왕건의 구원병이 경주지역까지 쫓겨들어가지 못하고 팔공산권역에서 멈추게 된것은, 견훤의 후백제군이 곧 대응하여 병력을 이끌고 온 탓도 있겠지만 이 시기의 대구지역이 후백제의 세력권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삼국사기》 견훤전에서 후백제군이 공산지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自隨以歸’ 즉, ‘되돌아갔다’고 표현한 것은 대구지역이 영천과 경주지역의 침공로였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이곳이 후백제의 세력권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위와 같은 자료에 나오는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국서의 내용 중, 공산싸움과 관련한 표현에서

23) 《삼국사기》에 의하면 계림령은 156년(아달라이사금 3년)에 이미 개척되었다고 하였으며, 죽령은 이보다 2년 늦은 158년에 개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桐藪望旗而潰散’라고 하여 왕건이 공산에 왔을 때 桐藪²⁴⁾의 병력이 고려군의 旗를 보고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고 하였다. 이는 동화사를 중심으로 한 공산일대에 군사력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집단이 존재해 있었을 가능성과 아울러 이들의 성향이 반고려적인, 즉 후백제지지 입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고려군이 후백제의 정규군과 조우하기에 앞서 인적 물적인 소모는 물론 시간적 낭비까지 초래하였을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산지역에서 벌어졌던 고려군과 후백제군 사이의 전투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자료에 구체적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팔공산일원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각 지역에는 이 공산전투와 관련하여 비롯된 지명이나 설화 또는 속전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의 대략을 재구성해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려군의 진행로는 대체로 팔공산의 서쪽방면에서 동쪽방면으로 진행되었다. 현재의 동구 서변동지역에는 ‘無怠’라는 지명이 전해져오고 있는데, 그 지명의 유래는 왕건이 병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 하지말고 태만함이 없도록 하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날 때, 이 지역 주민들의 부지런함을 보고 태만한 자가 없는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두 설의 진위를 살필 수는 없으나 무태라는 지명이 왕건과 관련하고 있음은 사실이라 하겠다. 이 무태지역에서 동화천을 따라 북동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研經’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된다. 이 연경이라는 지명 또한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날 때, 마을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와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고려군은 이 연경에서 계속 동화천을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여 지묘동과 미대동을 거쳐갔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백안동 또는 내학동부근에서 《삼국사기》의 견훤전에서 언급한 桐藪의 병력을 제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동수 즉 동화사의 병력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대체로 동화사 인근의 지역민들이거나 또는 동화사의 隨院僧徒들이 아닌가 한다. 《고려사》兵志에

또 僧徒를 뽑아서 降魔軍을 삼았다. 國初에 중앙과 지방의 寺院에는 모두 수원승도가 있어서 勞役을 담당하였는데 마치 군현의 居民과 같았고, 恒産을 가진 자가 많아서 千百에 이르렀다. 매번 국가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마다 역시 중앙과 지방의 여러 사원의 수원승도를 징발하여 諸軍에 分屬시켰다.²⁵⁾

24) 桐藪는 팔공산 桐華寺로서 「藪」가 사찰을 의미함은 기왕의 연구에서 정리된 바 있다. (대구직할시·경북대학교, 《八公山》, 1987. pp. 32~33).

25) 《고려사》 권 81, 병지 1, 병제조.

라고 하여, 고려초에 이미 각 사찰에는 ‘수원승도’라 표현되는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의 통제에 의해 군대에 소속된 것으로 미루어 소속사찰의 필요에 따라 군사적 기능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러한 수원승도들이 동화사에도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며, 후백제의 세력권하에 있었던 동화사의 수원승도 또는 동화사 인근의 지역민들이 왕건의 정예병력을 만나서는 대항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궤산하였던 것이다.

팔공산의 동화사 아래를 통과한 왕건의 고려군은 후백제군을 격파하기 위하여 능성고개를 넘어 계속 영천방면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

太祖旨；고을 서쪽 30리쯤 되는 곳에 있는데 전하는 말에,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패해서 퇴병하여 公山 밑 한 조그만 봉우리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²⁷⁾

라고 하여 비록 俗傳이긴 하지만 고려와 후백제가 영천에서 전투를 벌였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영천군의 邑治로부터 30리쯤 떨어져 있다는 太祖旨는 대체로 은해사 입구로 추정되고 있는데,²⁸⁾ 현재는 그러한 지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태조지의 전투에서 패한 고려군은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후퇴로는 대체로 그들이 진출하였던 길과 동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화천변을 낀 이 퇴로길을 따라 진행하다 보면 지묘1동과 지묘3동사이에 나팔고개라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나팔고개의 지명유래와 관련해서는 ‘고려군이 이 고개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후백제군을 향해 나팔을 불면서 진군했다는 설’과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에워싸고 진격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설’,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격파하고 이 고개를 넘어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설’ 등 나팔을 분 주체가 서로 다른 설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양국간의 전투 진행상황을 추론해 볼 때, 나팔고개의 명칭은 바로 고려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 같으며,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나팔을 불었던 주체를 후백제로 상정한 설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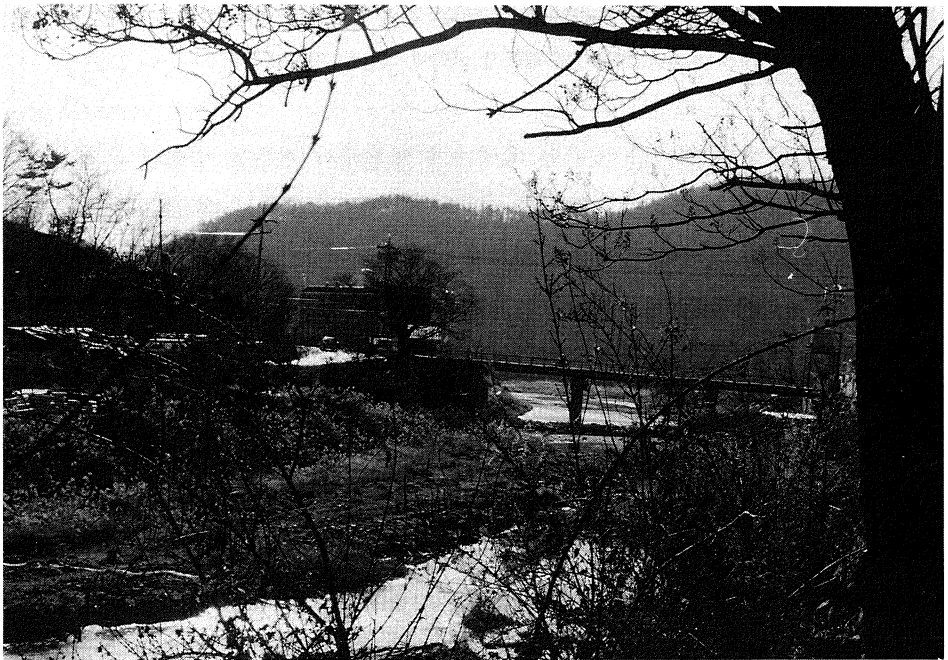
고려군이 후백제군과의 첫 접전에서 패배한 후, 후퇴하여 군사를 재정비한 곳은 현재 서변천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살내[箭灘]로서, 이 하천을 경계로 양군이 대치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 살내라는 명칭도 양군이 하천의 양쪽에 서로 대치하여 싸울 때, 서로

26) 이상선, 〈高麗時代의 隨院僧徒에 대한 考察〉 p. 4 참조.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2, 영천군 고적조.

28) 문경현, 《新羅史研究》 p. 338. 이 시기의 은해사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현재 운부암의 아래자락인 해안평에 위치해 있었다.

쏟은 화살이 강을 이루었다는데서 유래하고 있다. 이 살내를 중심으로 양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고려의 장군인 신숭겸과 김낙이 이끄는 증원병이 합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시 원기를 회복하여 전열을 정비한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밀어붙이면서 진출한 곳이 美利寺앞이었다. 현재 미리사터로 추정되는 곳은 파군재에서 동화사로 올라가는 길과 파계사로 올라가는 길 사이에 위치한 지묘동의 王山아래 산기슭으로서, 현재 신숭겸장군의 순절단과 신숭겸장군이 순절한 곳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긴 비각이 있는 표충단이 서 있으며, 그 뒷산을 왕산이라 한다.



〈사진 1-1〉

공산전투의 격전지로 여겨지는 왕산아래 동화천변

이 미리사 앞에서의 전투가 공산전투의 과정중 가장 치열했던, 양국이 전력을 다한 전투였던 것이다. 미리사가 위치해 있었던 왕산아래서 전개된 전투는 현재 동화사와 파계사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시작되는 파군재라는 곳에서 고려군의 참담한 패배로 결말이 났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후백제군은 경주를 함락시킨 사기와 경주지역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확보한 군량이 풍부했던 반면에 고려군은 5천의 정병이 개경으로부터 팔공산지역까지 급히 달려오느라 군사들이 피로에 지쳤으며, 또한 확보된 군량조차 후백제에 비해 열세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지역의 동향이 후백제지지 입장이어었다는 것이 왕건으로 하여금 전쟁수행에 더욱 고초를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패를 한 왕건은 그 병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자료는 전하고 있으며, 왕건 자신도 신숭겸과 김락 등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다. 즉, 전하는 바로는 신숭겸이 후백제군의 눈에 잘 드러나는 왕건의 戰服을 자신의 전복과 바꾸어 입고 후백제군을 자신에게로 유인함으로서 왕건의 위기를 구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명칭이 智妙洞으로 전해지게 된 원인도 왕건을 구한 그 지혜가 교묘하였다는데서 연유한다.

겨우 몸을 돌보게된 왕건의 도주로는 파군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동화천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지묘동의 동남쪽에 위치한 鳳舞洞에는 토성의 산기슭에 왕건이 도주하다가 앉아서 쉬었다는 속전이 전해지는 ‘獨座巖’이라는 바위가 남아있으며, 그 남쪽인 不老洞에서 동화천을 따라 道洞과 坪廣洞쪽으로 진행되는 곳에는 아직도 왕건과 관련된 설화가 남아 있다. 현재의 동춘비행장 서쪽에 위치한 도동은 원래 章山郡의 영현인 解顔縣의 邑治가 위치해 있었던 곳인데, 속전에 의하면 왕건이 해안교 다리가 있는 부근의



〈사진 1-2〉

평광동 ‘시랑이’마을의 신숭겸상군 영각 유허비각

들판을 지날 때 혹 후백제군이 나타날까 걱정하였으나 무사하게 되자 마음이 놓여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고 하여 이곳을 해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지리지에 의하면 雉省火縣이었던 이곳을 해안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신라 경덕왕때라고 밝히고 있어,²⁹⁾ 이곳의 지명과 관련한 속전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단지 왕건과의 관련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도동을 거쳐 역시 동화천변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평광동에 이른다. 이 평광동의 동쪽 끝은 동화천이 발원하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산에 의해 길이 가로 막히게 된다. 산 아래 마을은 속칭 ‘시랑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원래 ‘失王里’였던 마을이름이 점차 음이 변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실왕리’라는 마을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속전에서는 왕건이 도주 중 이 평광동의 뒷산으로 숨었는데, 이곳에서 쉬면서 나뭇군을 만나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래었으며, 후에 나뭇군이 나무를 다하고 내려와 보니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을 잃은 곳’이라 하여 이곳을 ‘실왕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현재 신승겸장군을 기리는 影慕齋와 신승겸장군의 영정을 모셨던 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각이 보존되고 있다. 비문의 뒷면에 새겨진 글에 의하면 이곳은 왕건이 신승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美利寺와³⁰⁾ 智妙寺 그리고 大悲寺중 신승겸의 영정을 모시는 대비사가 있었던 곳이라 하고 있다. 신승겸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이곳에 관련유적이 있다는 것은 왕건과 관련된 앞의 속전에 신빙성을 보태고 있다.

동화천변을 따라 평광동의 시랑이마을까지 이르렀던 왕건은 이곳에서 길이 막히자 산을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산을 넘어 이를 수 있는 곳은 동쪽으로 환성산을 넘어 현재의 경산군 河陽邑으로 가는 길과 동남쪽으로 산을 넘어 현재의 安心지역인 대구시 동구 梅余洞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속전에 전하는 왕건의 관련 행적으로 미루어 매여동방면의 길을 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안심지역은 속칭 ‘半夜月’이라 불려지며, 그 이름의 유래가

29) 《삼국사기》 권 34, 지리 1 장산군조.

30) 조선후기에 세워진 이 비의 비문과 지묘동의 표충단 안내간판에는 미리사가 신승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졌다고 하였으나, 미리사는 이미 그 전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의 신승겸전에는 지묘사만 보이고 있으며, 《삼국사기》 견훤전의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국서의 내용 중 ‘左將 金樂의 해골을 미리사 앞에서 드러내게 하고’라 하여 이미 미리사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리사터로 추정되는 곳은 왕산 바로 아래로서 현재 교회와 表忠齋가 서있는 곳의 사이인데, 지묘사터가 현재의 표충단위치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100M 정도 밖에 되지를 알아, 겨우 100M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사찰을 거의 같은 시기에 창건하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왕건이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 반달이 떠서 그 도주로를 비춰주었다고 한데서 연유한다. ‘安心’이라는 이름 또한 왕건이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고 전하는 속전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왕건의 행적이 전해지는 대구의 남쪽방면에 있는 속칭 앞산지역까지는 그 도주로의 연결선이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금호강을 건너 지금의 경산 押梁지역이나, 현재 대구지역에 포함된 수성구 顧母洞방면을 지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곳을 지나 앞산지경에 이르면 왕건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속전들이 주로 사찰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왕건의 도주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로 川邊을 이용하거나, 또는 적대세력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산기슭의 외곽을 이용하였는데, 속칭 ‘앞산’ 지역에 이르러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산지역에 있어서 왕건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선 隱跡寺를 들 수 있다. 앞산의 아랫봉인 비파산의 동쪽자락에 위치한 은적사의 창건유래는 ‘隱跡’이라는 용어에서도 느껴지듯이 왕건이 이곳에 은신하여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고려 태조 18년(936)에 영조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서쪽방면으로 진행하면 역시 비파산의 서북쪽자락에 安逸寺라는 사찰이 있다. 이 안일사의 창건유래 또한 왕건이 이곳에서 편안히 쉬어 간 곳이라는데서 유래하고 있어 왕건의 자취를 느껴 볼 수 있다. 또한 앞산의 아랫자락에는 속칭 ‘안지랑골’이라고 있는데, 이곳에는 왕건이 이곳에 이르러 물을 마셨다는 王井이 남아 있으며 이 물을 將軍水라고 부르고 있다. 은적사에서 안일사 그리고 안지랑골로 이어지는 서쪽방면으로 앞산 순환도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 대덕산의 서쪽자락으로 현재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臨休寺라는 사찰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사찰의 창건유래 또한 왕건이 이곳에 臨하여 쉬어 간데서 연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사료적 뒷받침이 없는 속전의 내용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렇게 왕건의 도주로를 상정해 볼 때, 왕건은 대체로 팔공산자락에서 동화천변을 따라 해안현지역을 거쳤으며, 현재의 안심지역을 경유한 후 대구의 앞산지역에 이르러서는 서쪽방면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왕건이 무사히 개경까지 돌아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금까지 살펴 본 왕건의 진행방향으로 볼 때, 대체로 星西지역을 거쳐 낙동강변을 따라 성주지역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한다. 성주지역이 처음으로 고려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된 것은 923년 8월에 벽진군의 장군 良文이 귀부하면서부터 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계속하여 고려의 세력권 내지는 지지세력에 속하였다고 보여진다. 특히 927년 11월에 있었던 후백제의 벽진군 침

공시에는 素湘이 전사하였는데, 이 색상에 대하여서 《고려사》 세가의 같은조에서는 관직명이 正朝로, 또 같은 책에 실린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국서에서는 都頭라는 관직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공산전투를 즈음한 시기에는 성주지역이 완전히 고려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왕건이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그 도주로가 성주지역으로 향하였던 것이 그가 목숨을 부지하여 재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견훤이 공산전투에서 승리한 후, 성주에 이르는 길목인 대목군을 탈취하여 곡식을 불사르고, 그 다음달인 10월과 11월에 걸쳐 벽진군(성주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데서도 느껴볼 수 있다. 이후 대구지역을 포함한 경상북도 중부권의 그 이남은 일정기간 후백제의 장악하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견훤은 이러한 세력을 기반으로 경상북도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다음의 《고려사》에 실린 자료에서 그 대체적 분위기를 느껴 볼 수 있다.

- 1) 을해에 원운 金相, 정조 直良 등이 康州를 구원하러 가는 길에 草八城(경남 초계)을 지나다가 성주 興宗에게 패한 바 되어 김상은 전사하였다.³¹⁾
- 2) 8월에 왕(고려 태조)이 충주로 갔다. 그 때에 견훤이 장군 官昕을 시켜 陽山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왕은 命旨城 원보 王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쳐서 패주케 하였다. 관흔은 퇴각하여 大良城을 의지하여 군사를 풀어서 대목군의 곡식을 베었다. 또 그 다음에는 烏於谷에 군사를 나누어 주둔하니 竹嶺길이 막히었다. 왕이 왕충 등에게 명령하여 曹物城에 가서 형세를 정찰케 하였다.³²⁾
- 3) 겨울 11월에 견훤이 날랜 병사를 뽑아 오어곡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戊卒 1천을 죽였는데, 장군 楊志, 明式 등 6명이 나아가 항복하였다. 왕이 명하여 군사들을 毬庭에 모아 놓고 6인의 처자들을 그 앞에서 조리를 돌리고 저자에서 처형하였다.³³⁾
- 4) 신사일에 견훤이 군사 5천으로 義城府를 침범하였다. 성주장군 홍술이 여기서 전사하였다. (중략) 견훤이 또 順州를 침범하니 장군 元奉이 도망하였다.³⁴⁾
- 5) 견훤이 加恩縣(경북 문경)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³⁵⁾
- 6) 12월에 견훤이 古昌郡을 포위하므로 왕이 친히 가서 구원하였다.³⁶⁾

31) 《고려사》 권 1, 태조 11년 정월 을해조.

32) 위의 책, 권 1, 태조 11년 8월조.

33) 위의 책, 권 1, 태조 11년 11월조.

34) 위의 책, 권 1, 태조 12년 7월조.

35) 위의 책, 권 1, 태조 12년 11월 병신조.

36) 위의 책, 권 1, 태조 12년 12월조.

위의 자료들은 공산전투가 끝난 이듬해인 928년부터 929년 사이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전횡이 승리한 전쟁이든 또는 패한 전쟁이든 경상도지역에서 일정한 세력기반을 가져야만 가능했던 전쟁들이었다. 특히 2)와 3)의 사료에 보이는 오어곡성은 죽령으로 통하는 요충지로서, 이 지역이 후백제의 세력권화 하였다는 것은 공산전투 이후 경상도지역에서의 고려의 세력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려 태조 11년 8월에 후백제에 복속되었던 오어곡이 3개월 후에 다시 후백제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고려의 반격을 통한 오어곡의 확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는 같은 해 11월 후백제의 재차 공격에서 이 지역을 상실하게 된다. 사료 3)의 기록을 살펴 보면 이때의 싸움에서 戊卒 1천이 죽고 양지와 명식 등 6명의 장수가 후백제에 항복하였다고 하며, 왕건은 이들 6명의 가족들을 저자거리에서 처형하였다고 하고 있다. 자료의 문맥으로 보아 후백제에 항복한 6명의 가족들은 개경이나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곧 6명의 장수가 고려의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정규군의 지휘관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어곡이 고려의 입장에서 경상도지역의 진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였음을 말해주며, 이 지역의 상실이 고려에 미친 영향은 후백제에 항복한 장수의 가족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처벌에서도 느껴 볼 수 있다. 또한 사료 5)와 6)의 가은현과 고창군에 대한 침공은 사료 4)에 보이는 의성지역에 대한 확보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대구지역에서의 공산전투 이후 고려 태조 12년까지는 경상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후백제가 장악하였다.³⁷⁾ 그러나 다음해인 930년 정월에 들어서면서 고려는 경상도지역에서의 세를 만회하고 역전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정월의 정묘에 재암성(진보)의 선필이 귀순하고, 같은 달의 병술에는 후백제와의 병산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며, 경인에는 永安·河曲·直明·松生 등 30여군현이 고려에 귀부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달인 2월에는 溟州(강릉)에서 興禮府(울산)에 이르는 동쪽 연해의 주군들을 확보하고, 泥於鎭(경주지역)까지 순행하게 되며, 경북 흥해지방으로 비정되는 北彌秩夫城의 성주 萱達 또한 南彌秩夫城의 성주와 더불어 귀순하게 된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경상도지역의 주도권이 완전히 고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같은 해 6월에 왕건이 대목군(인동)까지 순행하여 大丞 弟弓을 天安都督府使로, 元甫 嚴式을 副使로 임명하였던 시점을 전후하여서는 대구지역 또한 고려의 세력권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7) 이 시기에 왕건이 지방을 순행한 기록들을 보면 경상북도지역의 경우 929년 7월의 基州(풍기)와 같은 해 9월의 剛州(영주)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주와 풍기지역이 이 시기 고려의 활동 하한선으로 보여진다.

이후 후백제는 경상도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으며, 932년 9월에 예성강을 통하여 鹽州·白州·貞州를 침공한다던지, 10월에 해군장군 尚哀 등이 大牛島(평북 용천)을 침공하는 등 후백제의 활동양상이 水軍중심이 되고, 그 지역 또한 서해안 방면으로 편중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경상도지역에서의 세력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것이다.

第2章 大邑中心의 郡縣制度 整備와 大丘縣의 變遷

第1節 郡縣制의 整備와 變遷

大丘縣은 신라 때 良州 관내의 壽昌郡 領縣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고려시기에 이르러 尚州牧 京山府 관내의 屬邑으로 편제되었다. 신라의 총 9 州중에서 良州와 尚州는 2州로써 그 관내 군현도 각기 달리 편제되어 있었으며, 또 고려초기에 이르러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이 여러차례 단행되었지만, 그 두 행정기구의 관할구역은 여전히 각기 구분 존치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살펴 볼 때, 고려시기에 이르러 大丘縣의 행정계통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행정계통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常駐外官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기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구현의 행정적 편제가 領縣에서 속읍으로 바뀔에 따라 常駐外官의 파견없이 鄉吏層에 의한 통치 행정기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같은 변천은 고려적 郡縣制度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아래에서 이 군현제의 특수성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대구현의 연혁과 행정체계 등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大丘縣이 屬邑으로 확정된 시기에 관해서 먼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고려사》지리지의 상주목 경산부조에서,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大丘縣이 “현종 9년에 경산부 관내로 來屬하였으며, 인종 21년에 현령을 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책》지리지에서, 대구현을 영현으로 두고 있었던 壽昌郡도 현종 9년(1018)에 동경(경주)유수관의 관내로 來屬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來屬’이라 함은 그 관내의 屬邑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구현과 수창군이 각기 다른 관내의 속읍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현종 9년(1018)은 고려 태조 즉위년(918)으로부터 만 100년이 경과했던 때이다.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은 후삼국간의 각축 및 고려건국의 초창기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 등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신라시대의 군현조직이 그대로 존속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다시 예를 들어 말하면, ‘壽昌郡의 領縣 大丘縣’과 같은 조직이 그대로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조직은 이미 붕괴되고 과도기적 지배체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에 관한 구체적 서술은 2節의 「大丘縣과 嘉昌郡護府의 關係」부분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壽昌郡의 領縣이었던 大丘縣은 상주목 경산부의 속읍으로, 그리고 壽昌郡은

東京留守官의 속읍으로 각각 분리되었다는 사실과 또 수창군과 대구현이 동경유수관과 상주목의 관내로 각각 분리되어 속읍이 되었던 시기는 똑같이 현종 9년이었음을 이미 앞에서 주목한 바 있다.

오늘날 대구직할시의 관할범위는 대구현과 수창군의 지역뿐만 아니라, 장산군·해안현·화원현·하빈현·팔려현·자인현·하양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재의 市域에 포함되어 있거나 동일 생활권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에서의 대구지역 행정조직에 대한 변화양상은 이들 지역 전체를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 대부분 常駐外官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읍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군현조직 및 외관의 직제는 이들 지역을 관장하였던 界首官을 중심으로 章과 節을 달리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위의 두 지역 외에도 장산군과 해안현·자인현·하양현 등은 동경유수관 관내로, 화원현·하빈현·팔려현 등은 상주목의 경산부 관내로 來屬되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조직체계와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군현제 전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위에 동경유수관과 상주목 및 상주목 관내 경산부의 행정조직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선 고려의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변화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한 후 대구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I. 高麗前期 大邑中心 郡縣制의 成立과 實狀

일반적으로 군현제도라 함은 중앙집권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에 동일한 政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지방관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아래 지방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설정한 행정구획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군현단위의 행정구획을 통하여 인적요소인 戶口와 물적요소인 田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조부·공역의 부과와 수취를 자행하고자 하였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지방제도의 정비는 이미 태조대부터 시작되었다. 즉 《고려사》지리지의 서문에 의하면 고려 태조 23년에 “비로소 여러 州府郡縣의 명칭을 고쳤다”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국의 주부군현에 대한 부분적인 개편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개편은 단순한 지역명칭의 개편이 아니라 그 조직체계의 구조적인 개편을 수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고려초기의 군현제도에 신라시대의 군현조직이 어떻게 해체되고 또한 수용되어 왔는가를 신라의 9주 중 대구지역이 속해 있었던 良州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삼국사기》 지리지를 중심으로 良州 관내 군현의 고려전기까지 변천상황을 도표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表 2-1〉 양주관내의 군현과 고려전기 변천상황

時期 位置 番號	新羅 景德王時		高麗 前期				摘 要
	州·郡	領 縣	「今因之」	「今未詳」	更 名	合屬地	
1	良 州				梁 州		蔚州의 母體
2		嶺陽縣	○				
3	東安郡					東 京	
4		虞風縣				蔚 州	
5	臨關郡					東 京	
6		東津縣				蔚 州	
7		河曲縣			蔚· 州		
8	商城郡					東 京	
9		南畿停				〃	
10		中 〃				〃	
11		西 〃				〃	
12		北 〃				〃	
13		莫耶停				〃	
14	大城郡				清道郡		清道郡의 母體
15		東畿停				東 京	
16		約章縣				〃	
17	密城郡		○				
18		尚藥縣			靈山縣		
19		密津縣		○		靈山縣?	
20		烏丘山縣				清道郡	
21		荊山縣				〃	
22		蘇山縣				〃	
23	火王郡				昌寧郡		
24		玄驍縣			玄豐縣		
25	東萊郡		○				
26		東平縣	○				
27		機張縣	○				
28	金海小京				金 州		

時期 位置 番號	新羅 景德王時		高麗 前期				摘 要
	州·郡	領 縣	「今因之」	「今未詳」	更 名	合屬地	
29	義安郡	義安郡	○				
30		漆隄縣			漆園縣		
31		合浦縣	○				
32	義昌郡	熊神縣	○				
33		義昌郡			興海郡		
34		安康縣	○				
35		髻立縣			長髻縣		
36		神光縣	○				
37		臨汀縣			迎日縣		
38		杞溪縣	○				
39		音汁火縣				安康縣	安康縣의 領域으로 編入
40	臨阜郡				永 州 竹 長		今 永川의 母體로 發展
41		長鎮縣			伊部曲		
42		臨川縣				永 州	永州(川)의 領域으로 編入
43	獐山郡	道同縣				〃	〃
44		新寧縣	○				
45		睪白縣				新寧縣	新寧縣의 領域으로 編入
46		獐山郡			章山郡		
47		解顔縣	○				
48	壽昌郡	餘糧縣			仇史部曲		
49		慈仁縣	○				
50		壽昌郡			壽城郡		
51		大丘縣	○				
52		河濱縣	○				
53		花園縣	○				
54		八里縣			八居(莒)縣		
計	14	40	17	1	17		

위 <表 2-1>을 살펴보면 신라시대 양주관내의 군현은 양주를 포함하여 14개의 州·小京·郡과 40개의 停·縣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6개의 停과 13개의 군현은 「合屬」되고 1개의 현(密津縣)은 「今未詳」 등으로 감소되었으며, 「今因之」「更名」 등의 군현은 존속해 온 셈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군현중에서 약 37%가 감소하고 63%가 존속한 셈이다. 이처럼 군현이 감소하게 된 요인은 「合屬」과 「今未詳」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

「今未詳」은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 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 그 군현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고려초기에 신라시대의 군현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재편하면서 대부분 혁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今未詳」의 廢縣지역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신라 9州 중에서 양주 1, 상주 4, 강주 6, 삭주 8, 명주 5, 웅주 1 등 25현 뿐이며, 이 밖에 한주 전주 무주 등지에는 1현도 없다. 성종 14년(995)에 10道의 “所管州郡 共五百八十餘”라고 한 것에 그 25현을 비교해 보면 별로 비율이 높지 않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9州소관 군현이 고려초기에 이르러 군현의 단위면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合屬」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나, 양주 관내만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많은 「합속」의 사실이 나타난다. 다시 예를 들어 말하면 강주(진주) 관내의 군현중에 「합속」되었다고 한 경우는 1현도 없으며, 상주 관내의 군현중에도 古昌郡의 영현이었던 高丘縣만이 의성부에 「합속」되었을 뿐인데 비하여 양주 관내의 경우 6개의 停과 13개의 군현이나 합속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수도였던 서라벌을 동경유수관으로 개편하면서 주로 양주관내의 군현을 흡수 통폐합했기 때문에 나타난 특수현상이었다.

따라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군현제도를 서로 비교해 볼 때 그 군현의 단위면에서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군현조직 내부의 체계적 구조면에 있어서는 근본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바로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의 시대적 변천이자 고려시대 군현제의 특색이 되는 것이다. 그 변화의 특색을 良州를 예로 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梁州(중략) 삼랑주를 고쳐 良州라 하여 九州의 하나로 설치하였다. 태조 2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防禦使를 두었다.¹⁾

즉 태조 23년(940년)에 良州를 梁州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만의 개칭이 아니라 신라 9주의 하나인 良州를 경주대도독부-안동대도호부의 관내 한 주로 편성한 것이다. 즉 신라시대의 良州는 그 관내에 1소경·12군·6정·34현이 소속되어 있었던 신라 9주의 하나였으나, 태조 23년에 良州를 梁州로 개편한 이후부터는 안동대도호부-경주대도독부 관내의 4주 중 한 주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任内로서는 東平·機張의 두 현만이 《고려사》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조 23년의 주부군현의 정비가 단순한 그 명칭만의 개칭이 아니라 신라시대 군현조직의 체계를 새로운 군현조직으로 구조적 개편을

1) 《고려사》 권 57, 지리지 2, 양주조.

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한편 고려정부가 상주외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가 건국된지 60여년이 지난 성종 2년(983)에 12목을 설치하면서부터 였다. 그동안 수도를 제외한 지방은 대체로 그 지방의 鄉豪세력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국초에도 중앙의 명을 받아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今有·租藏과 轉運使 등의 이름으로 불린 외관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금유·조장」은 태조의 심복막료였던 「王親權勢之家」들로서 이들은 유민의 안집 혹은 조세·부역의 독촉과 감독, 그리고 각 지방 촌락의 田丁·戶口·寺院田 등을 조사하는 직임을 띤 外邑使者로서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금유·조장」이 혁파된 것은 성종 2년의 일로 12목의 설치와 때를 같이 한 것이 주목된다. 즉 《고려사절요》의 성종 2년 2월조에

비로소 12牧을 두고 今有 租藏을 혁파하였는데, 今有 租藏은 모두 外邑使者의 號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인데, 이는 12목의 설치와 「금유·조장」의 혁파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목의 설치의 외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승로의 上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그의 상서문 28조는 대부분의 내용이 민폐의 발생요인과 그 폐단의 제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성종이 “경관 5품이상은 각기 封書를 올려 時政의 득실을 논하라”고 한 명에 의해서 그의 상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소위 「民弊」로 인한 사태진전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금유·조장」이 그동안 자기의 직임을 충실히 수행해오지 못했다는 반증으로서,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권리를 남용함으로서 원성을 듣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금유·조장」의 폐지와 12목의 설치 및 외관의 파견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성종대의 12목은 대부분 「道」를 소관해 왔다. 「尚州所管爲嶺南道」「晉州所管爲山南道」 등이 그 예들이다. 그리고 12목은 대부분 12주 절도사의 주재지(다만 溟州는 제외되고 昇州가 절도사의 주재지가 됨)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당시 12목은 오늘날 지방 거점도시와 같은 구실을 담당했던 것이다. 고려왕조의 이와같은 정책은 지방의 토착세력까지 왕성인 개경으로 모두 흡수할 수 없었던 고육책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 성공은 첫째, 지방의 토착세력-향리세력을 관인신분층으로 흡수하여 고려왕조의

지지세력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점이며, 둘째, 대읍중심의 군현조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 등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행정조직의 단서는 성종 2년의 12목 설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지방관제는 하나하나 정비되어 갔다. 즉 같은 성종 2년에 호장·부호장 등의 吏職이 개편되고 주·부·군·현·관·역에 公須田이 지급되며, 동왕 5년에는 12목의 관원으로 하여금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어서 동왕 6년에는 12목 마다 경학박사·의학박사 각 1인 씩을 뽑아 보내 지방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동왕 12년에는 兩京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고 또 주·현 등에 公須柴地를 지급하는 규정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비작업을 토대로 하여 고려의 지방제도가 다시 크게 바뀌는 것은 성종 14년(995)의 일이다. 즉 이 해에 開州가 開城府로 개칭되고, 10道가 신설되며, 또 종래의 12州牧은 12軍으로 개편되면서 그 지방관도 節度使로 바뀌고 아울러 都團練使 7, 團練使 11, 刺使 15 등이 설치되고 都護府使 5, 防禦使 21 등으로 증가시켰다. 물론 12州牧制 시기에도 외관은 점차 추가 설치되어 왔었지만²⁾ 성종 14년에 이르러 이처럼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증설된 것은 지방관제상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2州牧制에서 성종 14년의 節度使體制로의 개편은 일종의 군정적인 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지방토착세력을 견제하는 등 중앙집권화정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다.

한편 고려시대의 지방관제는 성종조에 이어 목종을 거쳐 현종대에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특히 현종 9년의 지방관제 정비로서 고려일대의 지방관제의 기본구조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현종조의 지방관제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종대의 군현제는 현종 3년에 12절도사체제가 혁파되고 5都護 75道安撫使制가 성립되었으며, 현종 9년에 안무사가 없어지고 4都護 8牧 56知州郡事 28鎮將 20縣令이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고려의 지방관제는 4개의 도호부와 8개의 목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외관이 상주하는 56개의 주·군과 28개의 진, 20개의 현으로 편성되어 중앙의 행정력이 군·현단위에 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고려의 외관제는 다소의 출입이 있었으나 기본체제는 큰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고려의 지방제도도 현종 9년에 일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고려사》 권 3, 세가 3, 성종 7년 2월조.

II. 高麗後期 大邑中心 郡縣制의 變化

현종대에 기본골격이 갖추어진 고려의 지방제도는 예종대에 이르러 일대 변환을 맞이하게 된다. 즉 고려초기에 아직 중앙관리가 파견되지 않고 지방세력으로서의 향리를 중심으로 자치영역에 있던 일반군현의 任內인 屬邑 등에 監務를 설치함으로써 중앙의 통치력을 지방에 적극적으로 침투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예종대에 이르러 현령과 감무들을 속읍에 두기 시작한 배경이 무엇일까. 이 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현종대로부터 예종·인종대로 내려오면서 「문벌귀족」의 정치 사회와 전 시과체제는 발전의 궤를 같이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시과체제는 향리층이 지방군현의 일선에서 조부·공역을 원활히 집행할 때 그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었으며, 또한 「문벌귀족」의 정치 사회가 유지 발전되는데 그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시과체제와 「문벌귀족」의 정치 사회는 표리의 관계에 있었으며, 향리층은 그 양자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유지 발전하는데 일정한 몫을 담당해 왔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서 거란과 여진의 침략위협이라는 대외적 정세를 문벌귀족정치-仁州李氏의 세도정치세력이 농민의 불만저항을 무마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그러나 인주이씨가 외척세력-세도정치의 세력으로 등장한 문종대부터 이들이 몰락한 인종대에 이르기까지, 지방 농민들의 유망과 저항현상이 현저하였음을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자료 중 감무관의 파견과도 관련된 예종 원년의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詔書를 내리기를, “요즘 서해도의 儒州·安岳·長淵 등 縣의 사람들이 유리도산하므로, 비로소 감무관을 차출해서 이들을 안무하여 드디어 유민이 점차 돌아와 산업이 날로 성하게 되었다. 지금 牛峰·兎山 등 24현의 사람들이 또 점차 유리도산하니, 마땅히 儒州의 예에 준하여 감무를 두어서 招撫하라” 하였다.³⁾

이 자료에서 예종은 농민들의 유망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서 감무의 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예종 원년 경에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현상은 더욱 증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종 원년부터 3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만 하더라도 경기 12, 충청 25, 경상 7, 전라 7, 강원 3, 황해 12, 평안 1 등 모두 67읍에 감무관이

3) 《고려사절요》 권 7, 세가 12, 예종 원년 4월조.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감무관의 증치는 곧 농민의 유망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세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유망의 확산은 곧 국가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는 결국 대읍중심의 군현제도에서 속읍지방민의 이해를 모두 파악할 수 없었던 결함을 감무제의 설치로서 그것을 보완하여 속읍지방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고려 의종 24년(1170)에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소위 무신정권시대가 개막되었다. 이 무신정권시대는 그 후 江華京에서 출륙하여 開京政權이 수립되기까지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고려시대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그 중에서 지방군현제도에 있어서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예종대에 비롯된 감무제를 더욱 확립케 하여 대읍영속관계의 변천을 촉진케 한 점이며, 둘째는 문과출신의 사환로였던 소위 「州縣外補」를 무신들이 독점하거나, 또는 文武較差制의 시행 등으로 종래의 군현체계를 이완시킨 점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부터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武臣亂 직후인 명종 2년(1172)부터 6년(1176)까지 전국의 군현 중에서 감무를 파견한 곳은 58읍이나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고려말의 공양왕 3년에 이르러 전국의 속읍은 161읍만이 남게 되었다. 성종대의 10道 「所管州郡 共五百八十餘」 중에서 73의 外官만이 파견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간에 얼마나 많은 변천이 있었든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속읍이 전국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고려초기의 대읍중심 군현조직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무교차제」의 시행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外官 「문무교차제」란 지방행정관원의 보임에 있어서 한 지방의 장·차관을 반드시 文武 同數로 한다는 뜻이다. 이와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직후인 명종 3년(1173) 10월의 制에서

京 4都護 8牧에서 부터 郡縣館驛에 이르기까지의 직임은 무인을 병용케 한다.⁴⁾

라고 하였다. 여기서 무신들은 3경·4도호·8목 뿐만 아니라 군·현·관·역의 직임까지 차지하

4) 《고려사》 권 19, 명종 3년 10월 임술조.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신들의 지나친 권력독점 현상은 집권 무신층 중에서도 자성론이 대두될 정도로 비판적 여론을 야기시켰으며, 그 결과로서 약간 완화되어 실시된 것이 外官 「文武較差制」이다. 그러나 外官의 문무교차제 창안은 무신들이 그 직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문무교차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外官직을 모두 독점하였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州縣外補」는 문과출신자들의 出仕路에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것이며, 外補를 거치지 않고는 중앙관료로의 진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무신의 外官독점 현상으로 문과출신자들의 仕宦이 순탄치 못하게 되었으며, 外官 상호간의 분열 대립을 초래한 병폐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무교차제」는 무신집권기가 종식된 후에도 문·무 양자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혁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여기서의 대립이란 농민층의 이익을 위한 대립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으며, 그 결과로 군현제도는 이완되어 농민층의 유망 현상은 점증하였다. 또한 이들 농민층의 유망으로 인하여 고려말의 국가재정 또한 파탄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第2節 大邱地域 郡縣들의 沿革

I. 大丘縣과 嘉昌都護府의 關係

高麗時期的 大丘縣은 尙州牧 京山府(星州牧) 관내의 屬邑으로서 통치되어 왔다. 이 사실은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곧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려사》 지리지의 상주목 경산부조에서, 신라 때 壽昌郡의 領縣이었던 “大丘縣은 (高麗) 현종 9년에 (京山府의 관내로) 來屬시켰으며, 그 뒤 인종 21년에 縣令을 두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요컨대, 新羅 때 壽昌郡 領縣이었던 大丘縣이 고려 현종 9년(1018)에 상주목 경산부 관내로 來屬 했다는 것이다. 여기 來屬은 京山府 관내의 屬邑으로 편입되었던 사실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현은 수창군 領縣으로부터 京山府의 屬邑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 중앙정부에서 大丘縣에 外官을 처음으로 파견한 것은 인종 21년(1143)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구현에 그 이전까지 外官이 常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大丘縣은 인종 21년까지 常駐外官이 없는 상태에서 鄉吏層에 의하여 통치되어 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이전시기 즉 新羅의 말엽에 비하면 큰 변화로서, 지방행정조직의 변화가 그

지방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때, 이와같은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문들을 제기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앞서 大丘縣이 尚州牧 京山府의 관내로 來屬한 것이 현종 9년이라고 하였는데, 良州 관내의 壽昌郡 領縣이었던 大丘縣을 尚州牧 京山府의 속읍으로 과연 일거에 변천케 할 수 있었을까. 우선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고려왕조의 건국부터 현종 9년까지 그 사이의 행정체계는 어떠했을까. 다시 말하면 고려 태조 즉위년(918년)부터 현종 9년(1018)까지, 그 기간은 만100년의 세월이 경과 했던 셈인데, 그 사이의 행정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었을까. 우선 이 기간에 신라 때 수창군의 영현체제 그대로 大丘縣의 행정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전제해 두고, 고려왕조의 이전시기 즉 新羅말엽 大丘縣의 행정체통과 그 위치 등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신라때 9州 중의 하나인 良州 관내의 壽昌郡은 大丘縣·八里縣·河濱縣·花園縣 등의 4 領縣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⁵⁾ 여기서 大丘縣은 수창군의 4 領縣 중에서 하나의 행정조직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大丘縣의 상위 행정기구인 壽昌郡이 신라왕조가 멸망하고 고려시기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변천하였다고 한다. 즉 수창군은 ‘高麗 初’에 壽城郡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종 9년에 동경유수관의 관내로 來屬되었다는 것이다.⁶⁾

여기서 新羅때 壽昌郡이 ‘高麗 初’에 壽城郡으로 개칭된 것과, 또 현종 9년(1018년)에 東京留守官으로 來屬되었다고 한 것 등이 먼저 주목된다. 특히 大丘縣이 尚州牧 京山府의 관내로 來屬한 것과 같은 시기인 현종 9년에 壽昌郡이 동경유수관으로 來屬했다고 한 점이 더욱 주목된다. 현종 9년에는 비단 수성군과 대구현의 두 지역 뿐만 아니라 많은 郡縣의 移屬이 있었으며, 이때 지방제도의 정비는 高麗 특유의 郡縣制度—大邑중심의 군현제도를 거의 완성케 하였던 마무리 작업이었던 것이다.

高麗초기에 壽昌郡을 壽城郡으로 고쳤다고 한 것은 단순히 그 이름만 고쳤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이름의 개칭과 함께 행정구조의 개편까지 단행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 중 어느 것도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高麗초기 郡縣名の 개칭은 단순히 그 이름만의 개칭이 아니라 행정구조의 개편까지 포함한 지방행정제도 개편의 단행으로 보아야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따른 논증과 또 ‘고려 초 개칭’이란 태조 23

5) 《삼국사기》 권 34, 지리지 1, 양주 수창군조.

6) 《고려사》 권 57, 지리지 2, 동경유수관의 속읍조.

년(940년)의 군현제개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 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요컨대, ‘高麗 初’ 즉 태조 23년(940년)에 壽昌郡을 壽城郡으로 개편한 것은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개칭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개칭과 동시에 高麗의 郡縣制로의 개편작업이 이미 단행되기에 이르렀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시대의 壽城郡은 新羅 때와 같이 그 관내에 4개의 領縣을 둔 大郡의 형태를 《고려사》지리지 등의 자료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경상도지리지》의 수성현조에서, 고려시기의 연혁에 관해서 대략 아래와 같이 주목할만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

(a) 고려시기에 수성군으로 개칭하였으며, 諺傳으로 嘉昌都護府라고 한다. 또 降等하여 監務로 삼았다. 그 升降의 연대는 알 수 없다. (b) 靈宗 때 壽城郡司를 鷄林府에 예속시켰다. (c) 공양왕 경오년에 解顔縣을 겸하여 監務를 두었다.⁷⁾

위 자료를 설명의 편의상 (a) (b) (c) 등 3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먼저 (b)와 (c)를 보기로 한다. (b)의 靈宗은 곧 현종이며, 그 내용은 현종 9년에 수성군이 東京 관내로 來屬되었던 사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 (c)는 “공양왕 2년에 監務를 설치하여 解顔縣까지 겸임케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b)와 (c)는 《고려사》의 지리지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의 “諺傳으로 嘉昌都護府라고 했다”는 부분부터는 본 지리지를 제외한 다른 문헌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특히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한다. 즉 수창군을 “高麗 때 수성군으로 개칭하였으며, 諺傳으로는 嘉昌都護府라고 했다”면, 수성군이 곧 가창도호부란 의미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성군을 가창도호부로 칭하였다고 한 것이 諺傳, 즉 속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諺傳’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여기 嘉昌이란 명칭은 그전부터 壽昌이란 郡名과 병칭되어 왔었다고 한다.⁸⁾ 이를 통하여 가창도호부의 가창은 수창 혹은 수성 등의 지명과 병칭되어 왔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嘉昌이란 地名만으로 볼 때 ‘諺傳’의 신빙성을 따져 볼 필요없이 壽城地方의 오랜 지명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가창에 과연 都護府의 설치가 실제적 사실이었을까? 이점이 의문으로 남게 되었다.

7) 《경상도지리지》의 수성현조 중에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6, 大丘都護府, 屬縣 壽城縣조에서 “壽昌郡一作嘉昌”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후삼국시기 신라나 후백제 등에 의하여 도호부를 어느 지방에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아직 발견된 바 없다. 그러나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각 지방에 도호부를 설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도호부는 태조 즉위년(918)에 설치된 平壤大都護府였다. 도호부는 중국의 경우 새로 정복한 異民族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 지방에 설치하였던 군사적 조직의 행정기구였으며, 고려왕조 또한 초기에는 군사적 요충지에 도호부를 설치하였으나 점차로 일반 행정기구화 하였다.

가창도호부의 설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려건국 이후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 설치 시기에 관해서 좀 더 부연한다면, ‘高麗 初’에 수창군을 수성군으로 개칭하였다고 한 사실이 바로 가창도호부의 개편과 동일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것 같다. 신라 때 수창군은 大丘縣·八里縣·河濱縣·花園縣 등 4현을 領縣으로 두고 있었던 主郡이었다. 이같은 主郡·領縣의 체제가 후삼국의 혼란기에 원래의 형태로 존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고려건국의 초창기에 그 체제를 일거에 해체했을 것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라시대 州·郡·縣의 체제가 고려시대 大邑중심의 군현제도로 전환하기까지는 반드시 과도기적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런 해석이며, 가창도호부가 바로 그 좋은 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부연한다면, 수창군이 수성군으로 개편되기까지, 가창도호부는 그 과도기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지방지배조직으로 여겨지며, 高麗의 郡縣制度 성립기의 과도기적 지배조직체제로 나타난 하나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을성 싶다. 요컨대, 신라 때 良州 관내의 14개 郡중의 하나이었던 수창군을 ‘高麗 初’에 수성군으로 개편, 즉 가창도호부의 체제로 개편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믿는다. 이 체제로의 개편은 곧 군사적 지배조직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후삼국시기에 있어서 壽城 즉 嘉昌 지역은 전략적 군사요충지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여기서 참고로 崔致遠의 撰인〈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등루기〉⁹⁾의 내용을 잠깐 一瞥해 보기로 한다.

- (1) 天祐 5년(908년) 戊辰 겨울 10월에 護國義營都將 重關餐인 異才가 南嶺에 八角燈樓를 세웠다. 나라의 경사를 기원하고 전쟁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 (2) 이 (義)堡의 서쪽에 佛佐塘이 있고, 동남쪽에 佛體池가 있다. 그 동쪽에 또 하나의 別池인 天王池가 있고, 서남쪽에 古城인 達佛城이 있으며, 城의 남쪽에 佛山이 있다.
- (3) 重關餐은 偉大夫이다. 마침내 높은 산 언덕지대를 선택하여 ‘義堡’를 축성 하였다. 流水에 다달아 높이 솟은 모양은 斷岸과 같고, 험한 산을 등지고 우뚝 솟은 모양은 長雲과 같다.
- (4) (중알찬은) 이 지역을 按撫하고 손님을 맞이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구름 같았으나 이들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바다같이 넓었다.

9) 《최문창후전집》 권 1, 성군관대 대동문화연구원, pp. 83~88 및 《동문선》 권 64, 記 등 참조.

- (5) 알찬은 진실로 在家大士요 奉國忠臣이다. 般若로써 干戈로 삼고 菩提로써 甲冑로 삼아 능히 온 경내를 안온하게 한 것이 10년 남짓 되었다.
- (6) (알찬은)그 해(효공왕 12년, 908년) 초겨울에 燈樓를 세우고, 11월 4일에 公山桐寺의 홍순대덕을 맞이하여 座主로 삼고, 재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태연대덕·영달선대덕·경적선대덕·지념연선대덕 및 홍륜사의 融善呪師 등등 고승들이 모두 모여들어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등루기〉의 전체 내용 중에서 임의로 위와같이 (1)~(6)을 적출하여 나눠 놓았다. 이것은 天祐 5년(908년) 즉 후삼국시기의 壽昌郡內 형편을 대략 살펴보고, 그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4)(5)등은 護國城 팔각등루를 설립한 異才의 신분과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자료이며, 또 (2)(3)등은 ‘義堡’의 위치와 그 주위 환경을 살펴 볼 수 있게 한 자료이다. 그리고 (6)은 燈樓를 세우고 이에 따른 儀式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긴 하나 그 당시 公山桐寺의 홍순대덕을 비롯한 여러 고승대덕과 등루를 세운 중알찬 異才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 또한 있다고 할 수 있다. (1)에서 (6)까지 위와 같이 그 내용이 각각 다르긴하나 모두 중알찬 異才의 행적과 그가 축성하였던 ‘義堡’에 관한 것 등이다. 이 전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新羅의 護國義營都將 重闕絜인 異才는 落鄉하여 壽昌郡內에 살면서 天祐 5년 즉 효공왕 12년(908년) 10월에 팔각등루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義堡’를 축성하기도 하였다. 팔각등루를 세운 것은 “나라의 경사를 기원하고 전쟁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했다. ‘義堡’도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지역주민의 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성하였을 것이다. 특히 ‘義堡’는 높은 산 구릉지대를 의지하여 축조했다고 한것으로 봐서 山城을 개축하여 새로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이 堡의 “서쪽에 佛佐塘, 동남쪽에 佛體池, 그 동쪽에 天王池, 서남쪽에 古城인 達佛城, 城의 남쪽에 佛山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며, 다만 추측컨데, ‘義堡’는 현재도 일부 남아 있는 大德山城을 따라 구축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 ‘燈樓’를 쌓았던 시기에 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燈樓’를 세웠던 시기인 신라의 효공왕 12년(908년)은 甄萱이 후백제를 건국한지 17년이 되는 해이며, 또 弓裔가 마진국을 건국한지 8년이 되는 해 등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燈樓’를 세웠던 시기는 후삼국 정립의 초기 단계이며, 신라측으로 볼 때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때였다. 따라서 壽昌郡內의 ‘燈樓’를 세우고 ‘義堡’를 축성하게 된 저의도 그 지역민의 평온과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려는 데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창군지역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신라왕조를 지키는데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의 구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창군에 ‘義堡’를 축성하였던 異才는 낙향한 뒤에, 위의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지역민을 按撫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교를 통하여 지역민과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최치원이 “알찬(異才)은 在家大士요 奉國忠臣이며, 般若로써 干戈로 삼고 菩提로써 甲冑로 삼아 능히 온 경내를 안온하게 한 것이 10년이 되었다”고 하였던 점을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6)에서 그가 불교와 그 행사를 통하여 수창군내의 인민을 단합케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 방어케 하였음과 이에 따른 효과를 거두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羅末의 수창군 지역은 異才의 활동에 의하여 분열 대립하지 않고 안온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삼국 사회를 완전히 통일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고려로서는 이 지역의 지배조직을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층 강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가창도호부를 설립하게 된 요인의 하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밖에 당시 지리적으로도 수창군지역 일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 같다. 대구지방에서 풍각 청도 등지를 경유하여 경주 혹은 밀양 김해 등지로 진출하려면 수창 즉 가창은 그 교통로의 요충지에 해당된다. 이같은 교통로는 朝鮮후기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 같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大邱 邑治에서 ‘壽城古縣’과 南倉 등을 경유하여 팔조령을 넘어 청도, 그리고 경주로로 이르는 길을 자세히 그려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地圖에서, 청도·풍각·창령 등지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壽城을 경유하는 大邱路를 서로 연결시켜 놓았으며, 또 壽城古縣 바로 이웃산인 성불산에 山城 등을 표해 놓았다. 그리고 성불산과 법이산의 사이에 嘉昌川을, 또 법이산과 팔조령에 각각 烽火臺를 그려 놓았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수성 즉 가창은 청도·풍각·창령 및 경주 등지로 진출하는데 있어 교통로의 요지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말여초에 壽昌郡 領縣의 조직이 해체되고 수성군 즉 가창도호부의 체제가 성립되면서 이 지역은 군사적 조직으로 개편 지배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현종 9년(1018)에 수성군은 동경유수관의 관내로, 그리고 대구현은 상주목 경산부 관내로 각각 來屬되기까지 가창도호부의 체제로 존속해 왔을 것으로 믿는다.

《고려사》지리지 등에 나타나 있는 것만으로 보다면, 원래 良州 관내의 수창군과, 그 領縣인 대구현등이 각각 현종 9년(1018)에 동경유수관과 상주목 경산부등의 관내로 분리되어 나갔던 것처럼 보인다. 고려왕조는 태조 즉위년(918)부터 현종 9년(1018)까지 그 사이 만 100년 동안

지방군현조직을 새로 정비하지 않고 후삼국시대의 혼란기 상태로 방치할리가 없었다면, 수창군 領縣의 조직 또한 새로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새로 정비한 조직이 곧 가창도호부의 체제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수창군을 ‘고려 초’에 수성 즉 가창으로 그 이름을 고쳤다고 한 것은 그 한 예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당시의 郡縣名의 개칭이 단순한 그 이름만의 고침이 아닌 군현조직 개편작업의 일환이었음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다음은 가창도호부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논급해 보기로 한다. 처음 ‘고려 초’ 즉 태조 23년(940년)경에 가창도호부가 설립되었다면, 이로부터 어느시기까지 그것이 존치되어 왔을가가 의문시 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가창도호부가 태조 23년경에 설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존속기간은 현종 9년(1018)에 수성군이 동경유수관의 속읍으로 되기까지 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창도호부의 존재는 ‘諺傳’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고려의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호부의 설치기준에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제도적 지속을 하지 못한 것에,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경상도지리지》의 편찬 당시의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성 싶다. 다시 말하면 본 지리지의 편찬 당시에 자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 자료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은 가창도호부의 변천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예시한 자료 (a)를 다시 보면, “가창도호부를 또 강등하여 監務로 삼았는데, 그 升降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호부(사)를 강등하여 감무로 삼았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술의 편의상 그 강등의 연대보다 먼저 감무의 설치시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각 지방의 속읍에 감무를 두기 시작한 때는 예종(1106~1109)초기부터 었다. 그런데 위의 자료 (b)에서 “영종 때 壽城郡司를 鷄林府에 예속시켰다”고 했다. 이것은 현종 9년(1018)에 수성군이 계림부 즉 東京(경주)의 속읍이 되었던 사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현종 9년 이전에 가창도호부(사)를 감무로 강등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종 9년에 수성군이 東京의 관내로 來屬하기 이전에 감무의 존치를 기록해 놓았으므로, 감무의 설치시기는 그 이전이라는 말이 자연 성립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종 9년(1018)에 수성군이 계림부 즉 東京(경주)의 속읍이 되었으므로, 이전에 도호부(사)를 감무로 강등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도호부를 강등하여 감무로 삼았다”고 한 것은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류로 단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지방제도 개편은 태조 때로부터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의 州·府·郡·縣과 關·驛·江·浦 등의 이름을 개칭하고 또 節度使를 12州에 파견하기도 했었다. 특히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5都護・75道 安撫使를 설치했으며, 조금 후에 안무사를 폐지했다”는 것이다.¹⁰⁾ 여기 도호(부)와 안무사 등의 치폐 사실이, 위에서 본 “도호부와 감무의 승강”등으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믿는다.

《경상도지리지》의 편찬 당시에 자료가 불확실할 경우에 ‘언전’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을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고려시기에 河陽縣은 동경유수관의 속읍으로 존치되어 왔는데,

縣人 상장군 吳仁穎이 사신을 모시고 元나라를 왕래했던 공로가 있어 승격하여 監務로 삼았다. 이것은 諺傳이다.¹¹⁾

고 했다. 요컨대, 속읍이었던 하양현에 감무의 파견이 있게 된 것은 오인영의 공로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등의 문헌에 吳仁穎이란 인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사》의 世家에서, 高宗代로부터 충선왕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吳仁永이란 이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이 吳仁永은 將軍 혹은 大將軍으로서 元에 잦은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 이 吳仁永과 앞 吳仁穎은 영자의 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대장군으로 후자는 상장군으로 각각 그 지위도 달리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자는 동일인이 거의 틀림없을 듯하다. 고려시기의 表記慣例上으로 미루어 볼때 ‘永’과 ‘穎’의 글자는 서로 통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대장군과 상장군의 착오도 구전상으로는 있을 수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하면, 대장군 吳仁永을 상장군 吳仁穎으로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은 《경상도지리지》 편찬 당시에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諺傳 嘉昌都護府”라 표현했을 때의 ‘諺傳’도 《경상도지리지》의 편찬 당시 자료의 불확실성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성 싶다.

요컨대, 신라시대의 수창군은 ‘고려 초’에 이르러 가창도호부로 개편되었으며, 또 현종 9년(1018)에는 수성군이라는 명칭으로 동경유수관의 속읍으로 편제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현은 수창군의 영현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대구현은 상주목 경산부의 속읍으로, 또 수성군은 동경유수관의 속읍으로 각각 소속처가 다르게 되었던

10) 《고려사》 권 56, 지리지 1, 序조.

11) 《경상도지리지》 하양현조.

12) 앞의 책, 권 31, 충렬왕 21년 2월 甲午조에 “大將軍 吳仁永은 元에 가서 황태자의 탄신을 하례하였다”고 한 것이 그 일례이다. 그는 충렬왕때 여러번 훈작을 받은 바 있으며, 또 충선왕 즉위년 7월에는 ‘密直副使 判衛尉寺事’에 除授되었다.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 현종조에 이르러 대구현과 수성군은 그 소속처면에서 볼 때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는 고려왕조 특유의 군현제도 즉 大邑중심의 군현제도 성립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라때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大丘·八里(居)·河濱·花園 등 4현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모두 京山府(성주)의 속읍이 되어 버렸으며, 단지 그 主郡이었던 수창군만이 동경유수관의 속읍이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간단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라와 고려왕조의 교체라는 시대적 변천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성에서 팔조령을 넘으면 청도에 이르게 되며 이 청도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수창은 그 관문을 수호하던 전략적 요새지 구실을 한 셈이다. 그리고 수창과 그 영현들인 대구·화원·하빈·팔리 등이 자리잡고 있던 지역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넓은 곡창지대이며, 이 곡창지대는 수창군의 관할지역이었다. 그러나 수도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바뀌면서 그 기능도 자연히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개성쪽에서 보면 경주에서 수성의 지역적 위치를 보는 것과 비교하여 그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수창군의 영현들을 경산부의 속읍으로 이속시킨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현종 9년으로부터 125년이 경과한 인종 21년(1143)에 대구현은 縣令官으로 승격되고, 수성군은 공양왕 2년(1390)에 감무의 파견이 있게 된다. 그러나 수성군은 결국 독립 행정단위로 존속하지 못하고, 대구에 합속되기에 이르게 된다. 이 모두가 시대적 상황의 변천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II. 大丘縣의 縣令官으로 昇格과 發展

대구현은 인종 21년(1143)에 縣令官으로 승격함으로써, 비로소 중앙에서 파견한 外官이 상주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까지 향리층에 의하여 천단되었던 대구현의 행정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인 현령에 의하여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현령이 상주함에 따라 향리층의 천단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현의 비약적 발전이 있게 되었을 성 싶다. 대구현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기에 이른 것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고려사》 지리지의 상주목 경산부조에서, 대구현에 “인종 21년에 縣令을 두었다”하고, 그 뒤를 이어서 花園縣과 河濱縣의 각각에 “後移屬大丘”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두 현이 모두 대구의 속읍이 되었다는 뜻이며, 이는 곧 대구현령의 통치영역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後’의 시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없다. 그 ‘後’는 현종 9년(1018)이후부터 고려왕조 말엽까지 중에서 어느 한 시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대구현령의 파견이후로 추정하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성 싶다.

다음 대구현에 義城縣이 병합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두기로 한다. 의성현은 “충렬왕 때 대구에 병합되었다가 곧 원상 회복되었다”¹³⁾고 한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현재 알 길이 없다. 즉, 지리적 조건으로 보거나 각 현의 소속처별로 보거나, 어느면에서도 大丘와 義城의 두 현이 합병될 만한 까닭을 발견할 수 없다. 여기 소속처별이라고 한 것은 대구현은 경산부에, 의성현은 안동부에 각각 속읍으로 존치하였던 사실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의성현도 대구현과 동일하게 현종 9년에 안동부의 속읍이 되었다가, 인종 21년에 縣令官이 되었다. 그러나 의성현은 신종 2년(1199)에 농민봉기군에게 함락되었던 죄과 때문에 감무로 강등된 바 있다. 어떤 원인에 근거하였던 간에 의성현이 대구현에 병합됨으로써, 대구현령의 통치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성현이 대구현에 병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확장되고 있었던 大丘縣勢를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인종 21년(1143)에 대구와 의성의 두 현에 현령이 파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해에 비단 위의 두 현 뿐만아니라, 모두 7현에 현령을, 또 6현에 감무를 각각 설치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대구현 등지에 常駐外官을 새로 둔 것은 이들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고려왕조 군현제도의 변혁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구직할시의 관할범위는 대구현과 수창군의 지역뿐만 아니라, 장산군·해안현·화원현·하빈현·팔려현·자인현·하양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재의 市域에 포함되거나 일일 생활권의 범위에 위치해 있다고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군현들의 연혁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 순서는 동경유수관과 상주목의 任內 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동경유수관의 관내군현 중에서 현재 대구지역과 대구지역의 생활권에 속하는 인접지역은 수성군을 포함하여 장산군과 해안현, 자인현, 하양현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수성군의 연혁에 관한 것은 위에서 이미 논급한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13) 앞의 책, 권 57, 지리지 2, 상주목 안동부 의성현조.

章山郡; 고려초에 獐山郡을 章山郡으로 고쳤다. 이 군은 현종 9년(1019)에 동경의 속읍이 되었으며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두었다. 충선왕 즉위년(1308)에는 왕의 이름을 피하여 慶山郡으로 개칭하였다. 충숙왕 4년(1317)에는 一然國師의 출신지라 하여 현령관으로 승격시켰으며, 또 공양왕 2년(1390)에는 왕비 盧씨의 출신지라고 하여 知郡事로 승격시켰다. 본군의 별호는 玉山이다.

解顔縣; 고려시대도 그 이전의 명칭인 해안현을 그대로 변화없이 사용하였으며, 현종 9년(1018)에 동경유수관의 속읍이 되었다. 공양왕 2년(1390)에 본현에 감무가 설치되긴 하였지만 수성군의 감무가 그 직을 겸임하였다.

慈仁縣; 위의 해안현과 같이, 고려시대도 그전시기의 명칭인 자인현을 그대로 변동 없이 사용하였으며, 현종 9년에 동경유수관의 속읍이 되었다. 여기서 참고로 餘糧縣에 관해서 언급해 두기로 한다. 본 縣은 위에서 본 해안현 및 자인현과 더불어 모두 신라 때 장산군의 영현 이었다. 본래 麻珍(彌)良縣이었는데 경덕왕때 여량현으로 고쳐 장산군의 영현으로 삼았으나, 후에 仇史部曲으로 강등되었다¹⁴⁾고 한다. 부곡으로 강등된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여량현이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으며 「仇史」의 이름만 보인다. 예컨대, 태조 3년(920) 10월에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大良·仇史 2郡을 침공하고 進禮郡에 이르렀다”¹⁵⁾고 한 것에서 그 명칭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여량현은 ‘속 仇史部曲’이라 하였다. 여기서 고려시대에는 여량현이 구사부곡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변천하게 된 요인에 대하여 현재 알 수 없지만, 신라말 내지는 후삼국시대의 격변기에 이 지역의 인구감소로 현의 단위로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여량현은 慶州府의 서쪽 60리에 있었다고 하나, 고려초에는 이미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참고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자인현의 治所에서 북쪽 10여리 지점에 餘糧古邑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자인현의 경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여량현의 후신인 구사부곡이 후에 자인현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한다.

河陽縣; 본 현은 성종 14년(995)에 河州刺史를 두었다고 하였을 뿐, 그 이전의 연혁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본래 신라는 이 지역에 읍을 설치했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고, 고려초에 河州로 개칭하였으며 성종 14년에는 자사를 두었다고 한 사실에서 河州의 성립을 고려초기까지 소급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종 9년에 하주를 하양현으로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1, 경산부 속현조.

15) 《고려사》 권 1, 세가 1, 태조 3년 10월조.

고쳐 동경유수관의 속읍으로 삼았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 이 감무를 둔 시기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경상도지리지》에서 이 지방 출신인 “상장군 吳仁穎이 元에 사신으로 갔다 온 공으로 승격시켜 감무를 두었다”하고 “이것은 世俗으로 전해오는 말이다”고 하였다. 여기 吳仁穎에 관한 언급은 이미 앞에서 한 바 있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吳仁穎이 고종대부터 충선왕대까지 활동하였던 吳仁永과 만약에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하양현의 감무설치 시기 또한 충렬왕대 중엽에서 충선왕대 초기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주목 관내의 군현중에서 현재의 대구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구지역의 생활권에 속하는 인접지역은 대구현, 화원현, 하빈현, 팔려현 등이다. 이중에서 대구현의 연혁에 관한 것은 이미 앞에서 논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신라때 舌火縣이 花園縣으로, 多斯只縣(혹은 奮只)이 河濱縣으로, 八居里縣(혹은 北恥長里·仁里)이 八里縣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 3현은 모두 현종 9년에 경산부의 속읍이 되었다.

끝으로 팔려현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라 경덕왕때 팔거리현에서 팔리현으로 개칭된 바가 있다. 이 팔리현이 고려초에 다시 八居縣으로 개칭되었다가 후에 「居」字가 「菴」로 바뀌게 되었다.¹⁶⁾

한편 상주외관이 파견되지 않고 대읍으로부터 간접지배를 받았던 속현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급행정조직의 구조적 개편은 내부적으로 租賦·貢役체제의 변화 등 새로운 지배질서에 대한 적응을 요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第3節 東京·尚州 등 界首官內 郡縣들의 行政體系

I. 東京留守官과 尚州牧의 職制와 行政組織

오늘날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고려시기의 郡縣들은 모두 東京留守官과 尚州牧의 두 계수관에 분산 통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종 21년(1143) 대구현에 현령이 파견되기전까지 모두가 常駐外官이 파견되지 않은 속읍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중앙정부의 연결성은 주읍에 파견되어 이들 속읍들을 관할하는 界首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 속해 있었던 속읍들의 존재형태를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해하기

16) 앞의 책 지리지에 의하면 「居」字의 음이 와전되어 려가 되었다고 하였다.

위해서는 대구지역에 포함된 속읍들의 계수관 지역인 동경유수관과 상주목의 직제와 행정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시대의 상주목과 동경유수관은 다같이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계수관이었다. 다만 상주목은 신라시대에 있어서 上州 上洛郡 尚州 沙伐州 등으로 변천되어 오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尚州로 개칭된 후 성종대에 이르러 12목 중의 하나로 확립되게 된 반면에, 동경유수관은 신라시대의 서울이었던 서라벌을 중심으로 성립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더 큰 변화가 있었다.

동경유수관의 관내군현은 성종대에 9주·35현, 현종대에 7의 屬郡·10의 屬縣·5의 領郡이었는데, 이 중 현재 대구지역과 대구지역의 생활권에 속하는 인접지역은 수성군을 포함하여 장산군과 해안현, 자인현, 하양현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상주목 관내의 경산부는 1의 屬郡·14의 屬縣 등 모두 15의 속읍을 두고 있었으며, 이 중 현재의 대구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구지역의 생활권에 속하는 인접지역은 대구현, 화원현, 하빈현, 팔려현 등이다.

다음에 동경유수관의 직제가 어떻게 형성 변천되어 왔던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태조 18년(935)에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 투항함과 함께 신라의 수도는 경주라는 호칭이 생겼으며, 왕이었던 김부는 고려의 새로운 지배체제하에서 사심관이 되어 副戶長 이하의 官職等事를 관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고려시대 특유의 事審官制度가 성립되었으며, 그결과 외관→향리→농민이란 지배체제와 함께 사심관→향리→농민이란 지배체제가 병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심관은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 경주지방의 통치에 있어서는 사심관보다 「州長」에게 더 큰 실권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주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고려사》에

태조가 처음에 경주를 설치하고 魏英으로서 州長을 삼았는데, 그는 즉 富倫의 증조이다.¹⁷⁾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 시기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경주란 명칭이 태조 18년에 생겼으므로 김위영을 州長으로 삼은 시기 또한 같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東京志》의 名宦條에서 경순왕 김부가 고려에 投降과 함께 김위영을 주장으로 삼은 것이, 그 때가 같았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고려왕조는 지방명칭을 고침과 함께 그 조직체제의 개편도 동시에 단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주는 태조 23년(940)에 廣平(評)省吏 白文色에 의해서 안동대도호부로 개편되었으며, 성종대에 이르러 다시 동경유수관으로 개편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관료조직도 거의

17) 《고려사》 권 97, 김부일전.

완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성종 14년에 전국을 10道로 나누면서 동경유수관은 嶺東道の 관내에 속하게 되었다. 東京留守使는 이 당시 계수관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영동도의 소관 9주 35현을 관할하는 직임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종대에 이르러서는 그 기능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다.

현종 3년(1012)에 동경유수관이 폐지되고 경주방어사로 강등되었으며, 현종 5년에 안동대도호부로, 현종 9년 7월 13일에 경주대도호부로 각각 개편 되었다. 그리고 현종 18년에는 광평성의 貼으로써 12목을 개편하였는데, 이 중에 경주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주목은 현종 21년에 다시 동경유수관으로 개편되었다. 동경유수관에 대한 개편이 이처럼 빈번했던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는 동경유수관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고 당시 지방제도에 대한 잦은 개편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東都歷世諸子記》에서 목종 11년에 “경주를 낙랑군으로 고쳤다”고 했다. 여기서 이때 “州府郡縣의 이름을 고쳐 別號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경주를 낙랑군으로 고친 것은 별호를 붙인 것에 불과할 뿐 행정조직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종대의 경우는 이와는 차별성이 있다. 즉 《고려사》 지리지의 동경유수관조에 따르면 신종 7년에 동경유수사는 知慶州使로 강등되고, 그 관내의 주·부·군·현·향·부곡 등을 빼앗아 안동·상주 등지에 분속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초래된 원인은 역시 같은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지방 야별초의 반란을 도화선으로 하여 「신라부흥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 6년(1219)에 동경유수관으로 복구되었으며, 충렬왕 34년(1308)에 鷄林府로 고쳤다. 동경유수관이 계림부로 개편된 것은 원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중앙과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 계림부는 고려왕조가 운명을 마칠때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동경유수관이 계수관이기 때문에 계수관의 관료조직과 관내 군현의 관계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동경관내 관원의 녹봉표를 아래에 제시해 보았다.

〈表 2-2〉

東京管内 官員의 祿奉額

地域 祿俸額	東 京	蔚 州 (蔚山)	禮 州 (寧海)	金 州 (金海)	梁 州 (梁山)	密城郡 (密陽)	備 考
223石	留守使						
100石		防禦使	〃	〃	〃		
66石10斗	副留守						
86石10斗	判 官					使?	
46石10斗	司 錄		副防禦使	〃			
40石	掌書記	副防禦使			副防禦使	副使?	密城郡의 경우는 「食貨志」에 그것이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同郡과 같은 급인 陝州·安東·京山 등의 例로 봐서 알 수 있다.
33石 5斗			判 官	〃			
30石 5斗		判 官			判 官		
20石	法 曹						

위의 〈表 2-2〉는 문종대에 동경유수관 관내의 군현 중에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된 지역과 그들이 각기 지급받았던 녹봉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동경의 경우를 보면, 유수사로부터 法曹에 이르기까지 녹봉액은 각각 차이가 있다. 이것은 대체로 품계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유수(4품이상)는 판관(6품이상)보다 무려 20석이나 적다. 품계는 낮 으면서 녹봉이 도리어 많은 것은 비단 부유수와 판관의 경우 뿐 아니고, 부유수와 방어사(5 품이상), 동경사록(7품이상)과 蔚州·梁山 두 州의 副방어사(6품이상) 등등도 같은 예들이다.

또 같은 부방어사이면서도 禮州와 金州는 蔚州와 梁山에 비해서 6석 10두나 많다. 이와 같은 녹봉액의 차이는 직책과 지역 등의 경중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녹봉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행정조직상의 서열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위 표에 의해서 동경관내 군현의 편성체제와 계수관인 동경유수관 및 그 領郡의 관계 등을 대략 파악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市域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대구현·화원현·하빈현·인동현·팔려현 등을 관할하였던 京山府와 또한 경산부를 領知事府로 두고 있었던 상주목의 연혁을 통하여 그 조직체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상주목의 건치연혁과 또 官秩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성종 2년(983)에 설치된 尚州牧은 그 읍치가 尚州로서, 신라때는 沙伐州였는데 태조 23년의 지방제도 개편과정에서 상주로 되었으며, 그 후 안동도독부로 개편되었다가 성종 2년의 12목 설치시 그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성종 14년의 12州節度使 파견시 상주절도사의 호칭은 歸德軍이라 하였으며

嶺南道에 소속케 하였다. 이 당시 상주 관내는 岱州(星州)·剛州(榮州)의 都團練使와 龍州(龍宮) 稽州(永同) 善州(善山) 吉州(安東) 등지의 刺史를 두고 있었으며, 영남도 관내는 12주 48현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종 3년(1012)에 전국의 절도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주는 다시 안동대도호부로 개편되었으며, 2년 후인 현종 5년에 다시 상주로 고치고 安撫使가 파견되었다. 현종 9년에 8牧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상주목은 그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고려말까지 명칭에 변동이 없었다.

상주목에 파견되었던 牧使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일례를 통해 간단히 부연해 두기로 한다.

성종 5년 5월에 하교하기를…너희 12목과 諸州鎮使는 지금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잡무를 다 중지하고 오로지 농사를 장려하는 일에만 종사하도록 하라. 나는 장차 사신을 보내어 검열 조사케 하여 田野의 荒闕과 牧守의 勤怠로써 상과 처벌을 결정할 것이다.¹⁸⁾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목의 외관은 각 지방 ‘州·鎮使’와 동일한 기능을 띠고 있었던 방백이었으며, 考課의 기준은 ‘田野의 荒闕’과 ‘守令의 勤怠’ 등이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목사를 포함한 각 지방 군현의 방백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임이었던 것이다.

한편 牧의 직임에 대한 변화는 《고려사》 백관지의 외직조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즉 먼저 “예종 11년에 大都護(府)와 牧의 判官을 通判으로 삼았으며, 그 후에는 단지 使·判官·司錄만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하여 이 당시 상주목의 관직체계도 바뀌었을 듯 하다. 그리고 “각 牧의 員吏와 品秩은 大都護府와 동일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또 충선왕 2년(1310)에 “때로는 宰相을 使로 삼았다”고 했다. 이때 목사를 재상의 級으로 삼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지방조직의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 같다.

한편 상주목의 관내에는 7속군, 17속현 외에 京山, 安東 등 2곳의 領知事府가 있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현 등을 속현으로 두었던 경산부의 연혁과 조직체계를 통하여 대구지역의 행정적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래 신라의 本彼縣이었던 경산부는 신라 경덕왕때 新安縣으로 개칭되어 星山郡의 領縣이 되었다가, 그 후 碧珍郡으로 개칭되는 과정을 거쳐 태조 23년에 경산부가 되었다. 앞의 1절에서

18) 《고려사》 권 79, 식화지 2, 농상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 태조 23년에 전국의 주부군현의 명칭을 고친 것은 단순한 명칭만의 개칭이 아니라 고려왕조의 개창과 함께 새로운 지방통치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거국적인 사업이었으며, 「경산부」의 설립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 후 경산부는 경종 6년(980)에 廣平郡으로 강등되었으며, 성종 14년(995)에는 兪州의 호청과 함께 都團練使가 파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도단련사의 제도가 생긴 것은 성종대이며 이는 州府를 관장하는 직임을 맡은 외관이였다. 이 당시의 외관으로서는 도단련사 외에 단련사·자사·관찰사 등도 있었는데, 모두 목종때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산부의 경우는 현종 3년(1012)에 이르러서야 도단련사가 폐지되었다고 한다.¹⁹⁾ 이것은 목종때 단련사 자사 등의 폐지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지방의 사정에 따라 아직 잔존한 곳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현종 3년에 경산부의 단련사가 폐지되고 6년후인 현종 9년에 知京山府事가 파견되었다. 단련사가 폐지되고 지경산부사가 파견되기까지, 경산부를 관장한 외관의 명칭이 어떠하였던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 경산부와 같은 邑格의 위치에 있었던 안동부에서, 현종 3년부터 9년까지 안무사가 관장하고 있다가 知吉州使로 개칭되는 것으로 보아서, 또 현종 3년에 75道 안무사를 설치했다가 현종 9년에 폐지한 것으로 보아서, 경산부도 그동안 안무사의 관장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종 3년에 도단련사가 폐지되고 안무사가 파견됨으로써 이 지방의 통치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이다. 도단련사·단련사·자사 등은 군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안무사는 “백성의 疾苦를 묻고 수령들의 殿最를 살피는 것”²⁰⁾이 그 직임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산부 지방의 통치방식이 군사적인 통치로부터 일반행정관료의 지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후기인 충렬왕 21년(1295)에는 경산부가 興安都護府로, 또 충렬왕 34년(1308)에 星州牧으로 각각 승격하였다. 그러나 충선왕 2년(1310)에 각 지방의 牧을 정비하면서, 성주목은 다시 경산부로 강등되었다.

경산부는 1곳의 속군(고령군)과 14곳의 속현 등 15곳의 속읍을 두고 있었는데, 《고려사》 지리지의 중심으로 경산부의 전체적 체제와 각 속읍의 간단한 연혁을 도표화 해보면 아래 <表 2-3>과 같다.

19) 앞의 책, 권 77, 백관지 2, 외직조.

20) 위의 책, 권 77, 백관지 2, 외직 안무사조.

〈表 2-3〉

京山府의 管内郡縣

年代 郡縣名	太祖 23	景宗 6	成宗 14	顯宗 3	顯宗 9	仁宗 21	明宗 5	明宗 6	忠烈 王21	忠烈 王34	忠宣 王2	忠宣 王5	恭讓 王2	備 考
京 山	京 山	廣平 郡	岱州 都團 鍊使	廢	知京 山府 事				興安 都護 府	星州 牧	京山 府			
高靈郡	來屬?						監務							景德王 改今名 麗初來屬
若木縣	來屬?													麗初 改今名 來屬
仁同縣					來屬								監務	若木縣 屬之
知禮縣					來屬								監務	景德王 改今名, 開寧郡 領縣
加利縣					來屬									麗初 更今名
八莒縣					來屬									麗初改爲八居
金山縣					來屬								監務	本新羅 金山縣, 開寧郡 領縣
黃洞縣					來屬									高麗仍舊名
														景德王 改今名 永同郡 領縣
														後置監務 恭愍王 3年 後來屬
管城縣					來屬	縣令						知沃 州事		景德王 改今名
安邑縣					來屬									麗初 更今名
陽山縣					來屬			縣令						景德王 改今名
利山縣					來屬			監務						景德王 改今名
大丘縣					來屬	縣令								景德王 改今名
花園縣					來屬									景德王 改今名 後移屬 大丘
河濱縣					來屬									景德王 改今名 後移屬 大丘

II. 大丘縣 등 屬邑의 行政體系 및 鄉吏組織

고려 때 대구현 및 대구지역 군현의 행정체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된 원인은 앞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대구지역과 관련된 당시 군현들이 대체로 常駐外官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과 속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모든 州·府·郡·縣에 外官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大邑 중심으로 外官을 파견 하였던 것이다. 즉, 고려의 地方郡縣은 外官이 파견된 主邑과 外官이 파견되지 아니한 屬邑이 있었을 뿐이었다. 물론 外官이 파견된 곳도 京 都護府 牧과 領知事府州郡 및 縣令官 그리고 領防禦州郡鎭(兩界를 비롯한 邊境地帶) 등의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려의 지방행정체계는 중앙과 이들 外官이 파견된 행정기구 사이에 直牒되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지방관이 없는 屬邑은 主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과 연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大丘縣의 행정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屬邑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무를 관리하고 장악하였던 鄉吏層의 존재형태와 그들이 고려 지방제도하에서 지닌 의미의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대체적 윤곽을 그려 볼 수 밖에 없다.

고려시대 외관을 보좌하여 지방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은 보통 長吏 또는 外吏라고 불리우는 향리층이었다. 이들은 각기 그가 속한 지역에 따라 州吏·府吏·縣吏·部曲吏 등의 명칭을 띠고 있었다. 향리들은 대민업무의 실질적 종사자로서 租稅와 力役의 징수를 비롯하여 간단한 소송을 처리하는 등의 여러가지 일을 맡고 있었고 그 직을 세습했던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귀족관인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던 田柴科제도는 지방군현의 향리들이 일선에서 ‘收租權’에 따른 행정을 원활히 집행할 때 그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고려 귀족관인의 정치체제가 확립 발전해오는데 향리층은 큰 몫을 담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시과제도와 군현제도 등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향리층은 귀족관인층의 亞流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중앙에서 파견한 常駐外官의 수가 소수로 제한되어 있고 지방토착세력인 향리층의 수가 다수로 편제되었던 고려 군현제의 특징상 향리층은 전시대의 말단 행정담당자들에 비해 그들의 재량권도 많이 부여되었다. 그만큼 상주외관들의 감시 감독을 덜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읍에 다수의 속읍을 소속시킨 대읍중심의 군현제 하에서 주읍의 향리들이 활동할 공간은 그만큼 많이 확보된 셈이고,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읍의 경우 향리가 사실상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대구지역을 포함한 인근의 속현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한편 이러한 職役을 담당한 향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토착성을 바탕으로 한 家業田을 계승함으로써 지방사회의 유력자로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며, 吏職의 세습을 통해 향리층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 이후 향촌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鄉役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농업생산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과중한 조세부과는 실무담당자인 향역의 苦役化현상을 빚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향리들의 免役 내지 避役현상을 촉구하는 격이 되었다. 따라서 이후 지방에 남게 된 향리들은 다만 身役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추이 속에서 변화해갔던 고려시대의 향리는 나말려초의 지방토착세력에서 기원하며, 그 전환의 시기는 성종 2년으로 추정된다. 즉 고려 개국 이래 堂大等·大等 등을 칭하면서 兵部·倉部 등 중앙정부에 비견될만한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던 향호들이 성종 2년에 이르러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마련되는 鄉吏職制 속에 개편 편입되었던 것이다.

고려왕조는 태조이래 羅末麗初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민의 안집과 租賦 貢役의 효과적 부과 징수를 위해 이미 군현의 구조적인 개편과 함께 새로운 직제를 설치하기도 하고, 관원을 임명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지방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城主·將軍들에게 지방통치를 위임하여 효과적인 군현통치를 기하고자 하였다. 태조 18년에 신라의 경순왕 김부가 투항해오자 신라의 수도를 경주로 삼고 김위영을 州長으로 삼는 한편²¹⁾ 태조 23년에 이르러 광평성으로 하여금 경주의 관리를 새로 임명케 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天福 5년 경자년에 廣平省吏 白文色이 신라 국호를 제거하고 安東大都護府를 설치했다. 邑號는 慶州司都督府로 하고, 경주의 堂祭 10명을 크게 고쳐 임명하였다.²²⁾

위 기록에서 白文色에 의해 改差된 10명의 ‘堂祭’의 실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뒷날 향리층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한다. 위의 ‘堂祭’가 설사 향리층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앙의 관인에 의해 지방의 행정기구와 관리 등이 개편 통제되고 있었던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고려초기부터 중앙정부의 관원에 의하여 지방 군현이 지배 통제되고 있었다는 하나의 징표인 것이다. 고려 태조 당시의 지방행정관리의 존재는 비단 경주 뿐만이 아니고 金海와 密城 등지에서도 排岸使와 府吏 등이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²³⁾

특히 고려 태조는 건국 초창기부터 귀순한 성주·장군에게 本邑, 혹은 他邑을 祿으로 사여하여 지방통치를 실시함으로써, 귀순한 성주·장군 및 새 왕조의 창건을 지지 협찬한 여러 세력의 利害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민의 안집 및 조부공역의 수취와 관련한 여러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은 崔承老의 외관설치의 건의상소에서 “향호가 매양 공무를 가탁하여 백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의 대상인 鄉豪이다. 이들 향호는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외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성주·장군에게 郡邑을 祿으로 사여한 군읍통치의 위임시대에 일선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 즉 성주·장군의 자손들로서 ‘堂祭’, ‘堂大等’, ‘豪右’, ‘豪家’, ‘豪富’ 등으로 불리면서 뒷날의 戶長과 같은 존재로서 本邑의 향직담당자였다. 이들 堂祭 등 향직담당자의 改差는 향호층에 대한 개별적 국가지배를 위한 것으로서, 태조이래 王親權勢之家에

21) 《고려사》 권 97, 김부일전

22) 《東都歷世諸子記》, 《韓國中世社會資料集》所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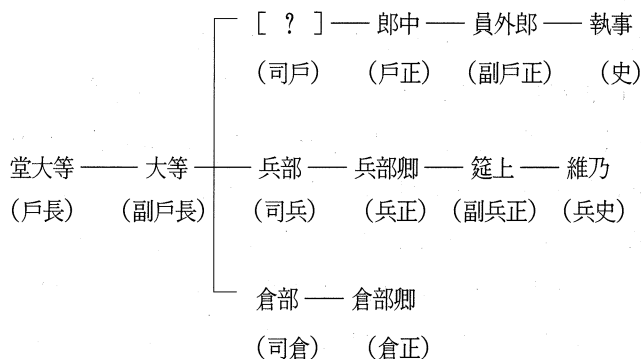
23) 《삼국유사》 권 2, 가락국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6, 밀양도호부의 祠廟조.

해당하는 今有·租藏의 파견과 함께 지방통치의 근본 목적인 조부공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향직의 담당자인 향호들이 매양 공무를 가탁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民不堪命’의 사태가 속출하고 外邑使者인 금유·조장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 원성의 적이 되자 성종 2년 금유·조장 制의 혁파와 12목의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군현제의 실시와 더불어 鄉吏職制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성종 2년에 주·부·군·현의 이직을 개정하여 병부를 사병으로 하고, 창부를 사창으로 하고, 당대등을 호장으로 하고 대등을 부호장으로 하고 낭중을 호정으로 하고 원외랑을 부호정으로 하고 집사를 사로 하고 병부경을 병정으로 하고 연상을 부병정으로 하고 유내를 병사로 하고 창부경을 창정으로 하였다.²⁴⁾

위의 기사를 도표화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는 개정후의 명칭임.

이 吏職개편의 특징은 먼저 新羅의 遺制의 청산에 있다. 당대등이나 대등과 같은 신라식 명칭을 호장, 부호장으로 고친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리제의 기원을 성종 2년으로 인식하여 왔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관련시켜 볼 때, 吏職개정은 향리제의 시작을 명시해주는 자료라기 보다 이전의 吏職을 정비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吏職개정과 더불어 고려정부는 12목을 지방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성종 6년

24) 《고려사》 권 75, 선거지 3, 전주 향직조.

8월, 12목에 각각 經學博士와 醫學博士 등을 파견하여 諸生들을 훈육시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그들을 관료로 등용하겠다는 뜻을 내외에 천명하였다.²⁵⁾ 이것은 경학과 의학의 교육을 통하여 12목을 지방 據點都市로 육성시키는 동시에 지방토착세력의 자손 즉 鄉豪=堂大等の 자제들을 관인신분층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왕조의 이와 같은 정책은 지방의 토착세력까지 왕성인 개경으로 모두 흡수할 수 없었던 교육책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첫째, 지방의 토착세력인 향리세력을 관인신분층으로 흡수하여 왕조의 세력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요, 둘째, 대읍중심의 군현조직의 형성 발전으로 인해 향리들의 광활한 활동무대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성종 2년의 州府郡縣의 吏職改編에 이어 동왕 6년 9월에 주군의 병기를 몰수하여 私兵세력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諸村의 大監 弟監을 각각 村長 村正으로 삼았다”고²⁶⁾ 한다. 향리와 촌장은 다같이 郡邑의 말단행정을 담당하였던 계층이며, 그 연원도 대략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州府郡縣의 향리와 各 村의 촌장은 그 기능면에서 각각 완전히 다르다. 신라의 州郡縣체제의 군현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읍중심의 군현제도를 창설함에 따라 촌장세력들의 활동은 종식을 고하였다. 대읍중심의 군현제도의 성립으로 인해 대읍지방의 토착세력-향리들은 성장기반이 더욱 확고하게 된 반면에 속읍지방의 토착세력-촌장들은 몰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대구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속읍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 9년(1018)에 이르러 州縣의 大小를 丁의 多寡에 두고 그에 따른 향리의 정원을 책정하고, 향리의 公服을 제정하였다. 고려시대의 州府郡縣 중에 최고 1,000丁 이상으로부터 최하 20丁 이하에 이르기까지 등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성종 2년 2월에 제정되었던 주부군현의 공해전시의 지급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주부군현의 등차에 따라 公廩田柴의 지급액을 차이가 있게 책정해 놓은 것은 관리, 특히 향리층의 정원을 달리 책정해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현종 9년에 이르러 주부군현의 戶長으로부터 말단 史에 이르기까지 각각 定員을 제정하였다. 이때 제정된 향리의 정원수에 대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表 2-4>와 같다.

25) 앞의 책, 권 2, 성종 6년 8월.

26) 위의 책, 권 75, 선거지 3, 전주 향직 성종 6년 9월 무진조.

〈表 2-4〉

郡縣의 단위별 향리 정원

州·縣別 鄉吏層 丁單位	一般州府郡縣				東西防禦使·鎮將·縣令官			
	戶長 副戶長	兵倉正 副兵倉正	史類	計	戶長 副戶長	兵倉正 副兵倉正	史類	計
1千丁 以上	12名	8名	64名	84名	8名	8名	36名	52名
5百丁 以上	9名	8名	44名	61名	—	—	—	—
3百丁 以上	7名	8名	36名	51名	—	—	—	—
1百丁 以上	—	—	—	—	6名	8名	38名	52名
1百丁 以下	5名	4名	22名	31名	3名	4名	22名	29名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부군현의 등급에 따라 향리의 정원도 최고 84명으로부터 최하 31명에 이르기까지 달리 책정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호장·부호장의 정원이 12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닌다. 다수의 속읍을 대읍에 영속시킨 채, 외관의 극소화와 향리의 수적 극대화가 이루어진 대읍중심의 군현제하에서 대읍의 戶長·副戶長을 비롯한 향리 세력들이 만약 종적인 결합을 한다면 큰 정치적 집단이 될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각 속현들의 丁의 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위 표의 적용이 쉽지 않다.²⁷⁾ 즉, 이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邑格의 昇降은 地域連坐制의 실시와 지리적 환경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군현 마다의 邑勢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⁸⁾

한편 현종 9년의 향리공복 제정은 향리계층이 귀족관인층의 亞流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고려사》輿服志의 長吏公服條에 “현종 9년에 州府郡縣 長吏의 공복을 제정했다”하고, 호장으로부터 諸壇史에 이르기까지 각각 紫·丹·緋·綠·深青·天碧衫 등의 彩衫을 입게 하고, 또 靴·笏 등을 착용케 하였다. 이러한 향리들의 공복제정은 농민의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단이었을 것이다.

향리층은 고려 문벌귀족사회가 확립 발전해가는데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귀족관인의 아류—동반자로서 존재해 왔으며, 토착적 세력기반과 지방통치조직을 바탕으로 농민의 지배와,

27)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각 군현단위로 丁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대구군의 경우 수성현은 戶數 264, 男丁 644, 女丁 704, 하빈현은 351호에 남 1249정, 여 818정, 해안현은 198호에 남 1203정, 여 2061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경산현의 경우 318호에 남 1337정, 여 1712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28) 《고려사》식화지의 공해전시조에는 公須田의 지급기준을 丁의 단위로 하면서 州縣의 경우 1,000정 이상에서 20정 이하까지 세분하고, 鄉部曲의 경우 또한 1,000정 이상과 50정 이하를 포함한 네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鄉과 部曲이라 하더라도 州縣보다 丁이 많을 수 있으며, 같은 읍격의 州나 縣이라 하더라도 인구수의 분포가 다양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해왔던 것이다. 12·13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전국적 농민항쟁의 와중에서 항쟁군의 중요한 공격대상의 하나가 지방의 향리층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정치집단화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왕조는 대읍에 수령을 보좌하는 判官, 司錄, 掌書記 등의 관원을 파견하여 上戶長 등과 함께 군현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속읍을 순찰케 하여 주읍과 속읍의 향리들의 결합을 방지하고, 속읍의 행정을 감독케 하였던 것이다. 지방관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임무인 奉行六條의 하나에 吏職에 대한 감찰 조목이 설정되는 한편²⁹⁾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戶長을 직접 擧望하여 給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³⁰⁾ 및 이직에 대한 9단계의 단계적 승진규정의 제정³¹⁾ 향리들의 세력화 및 지방군현민에 대한 수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향리들은 고려 지방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궤를 같이하여 점차 苦役化하였으나, 대구현의 경우 인종조에 縣令官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그리고 여타 속현의 경우 또한 후대에 常駐外官을 파견하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들 향리들의 통제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구지역에 포함된 고려시대 속현들의 행정체계는 앞서 살펴 본 향리들의 존재양태를 통하여 그 대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III. 慶·尙州道를 비롯한 交通路와 驛站

고려시대에 있어서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할 때 가장 중요시되었던 원칙은 농민에게 租賦·貢役을 부과하고 이를 원활히 징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상주외관이 정비되기 전인 국초에 이미 조세 부역을 독촉하고 감독하는 「금유·조장」이 파견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이 대체로 태조의 막료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그 중요성을 느껴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1절에서 언급된 고려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은 정확한 戶口·田結의 파악 및 그에 따른 조부 구역의 부과와 징수를 위한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수취체계의 정비에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교통망의 관리와 확충을 통한 운송체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육로 및 수로의 운송을 담당한 대표적 교통기관은 驛站과 漕倉이었다. 이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실시되고 있었으며, 그 후 고려시대에 와서 보다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속 발전해 왔다.

29) 《고려사》 권 75, 선거지 3, 전주 선용수령조.

30) 위의 책, 권 75, 선거지 3, 전주 향직조.

31) 위의 책, 권 75, 선거지 3, 전주 향직조.

고려시대의 역참제는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운송, 공무를 띤 출장관리의 왕래 숙박 등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의 관용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육상운수체계를 형성한 교통망이었다. 이외에도 역참은 군대의 수송, 군수물자의 운반 등 군사적 목적과 아울러 앞서 언급한 貢物의 수송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도 긴요하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제의 정비는 고려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22驛道 525驛이라는 방대한驛조직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역의 조직을 간단히 살펴 보면, 각 역에는 驛長, 驛吏, 驛卒, 驛丁을 두어 驛路를 정비케 하고 驛馬를 갖추어 出張官吏로 하여금 이용케 하는 한편 驛田과 公須田, 紙田, 長田 등을 두어 그 조세로서 경비에 충당케 하였다. 또 역에 소속된 驛丁의 家戶를 「驛戶」라 하여 역의 모든 勞役을 부담케 하였는데, 역의 업무량에 따라 역의 등급(6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驛丁의 배치가 달랐다. 즉, 업무가 가장 많고 번잡한 역은 1등급(1科)으로 하여 70丁을 배치하고, 다음 2등급(2科) 역에는 60丁, 이러한 순서로 최하위인 6등급(6科) 역에는 7丁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驛丁의 노동력으로써 역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驛村에 있는 白丁의 자손이 보충되기도 하였다.

역의 전달방식은 驛丁에 의하여 역에서 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에 있는 각 관청에서 지방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먼저 尚書省에 보고하여 발송의 허가를 받은 후 곧 근교인 靑郊驛의 館驛使(巡官)에게로 보내어 전송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역사가 그 공문을 빼앗아 자세한 사유와 함께 상서성으로 돌려 보냈으며, 상서성에서는 그 위법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청교역으로 보내진 공문을 각 역에서 해당지방에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달방식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懸鈴式의 전달방식을 택하였다. 현령식의 전달이란 서류를 넣은 가죽자루에 방울을 달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3急(特急)時에는 3현령, 2急(中急)時에는 2현령, 1急(보통)時에는 1현령을 달아 완급에 따라 행하였다. 또한 일의 완급에 따라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달랐다. 즉 그 주행거리가 2월부터 7월까지의 하루에 3급이 6역, 2급이 5역, 1급이 4역이 여정이었고, 8월부터 다음해 정월까지의 주행거리가 1역씩 단축되었다. 다음으로 奉使의 왕래는 주로 驛馬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供驛署에서 발부되는 公卷이 필요하였다. 이 공권을 받음으로써 역마를 탈 특전이 승인되어 奉使는 역으로부터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의 관장은 兵部의 소관이었으며, 공역서가 그 실제사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교통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22驛道 525驛의 역로를 갖추고 있었다. 《고려사》兵志의 站驛條에 의거하여 이를 도표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表 2-5〉

高麗時代의 驛道狀況(驛道와 管轄驛站數)

驛	道	名	管 轄 驛 站 數
狻	貌	道	狻貌(開城) 등 10驛
金	郊	道	金郊(江陰=今 平山) 등 16驛
岳	嶺	道	岳嶺(鳳州=今 鳳山) 등 11驛
興	郊	道	興郊(博州=今 博州) 등 12驛
興	化	道	長寧(黃州) 등 29驛
雲	中	道	長壽(西京=今 平壤) 등 43驛
挑	源	道	挑源(松林=今 長湍) 등 21驛
朔	方	道	孤山(衛山=今 宅安) 등 42驛
青	郊	道	青郊(開城) 등 15驛
春	州	道	保安(今 春川) 등 24驛
平	丘	道	平丘(南京=今 서울) 등 30驛
溟	州	道	大昌(今 江陵) 등 28驛
廣	州	道	德豐(今 廣州) 등 15驛
忠	清 州	道	同和(今 宅安) 등 34驛
全	公 州	道	參禮(今 公州) 등 21驛
昇	羅 州	道	青巖(今 羅州) 등 30驛
山	南	道	盤石(今 全州) 등 28驛
南	原	道	銀嶺(今 南原) 등 12驛
慶	州	道	活里(今 慶州) 등 23驛
金	州	道	德山(今 金海) 등 31驛
尙	州	道	幽谷(虎溪=今 聞慶) 등 25驛
京	山 府	道	安堰(今 星州) 등 25驛
計 22			525驛

이러한 역로중에서 대구지역이 속해 있었던 경상북도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慶州道の 23역 중 22역, 尙州道 전체, 京山府道の 25역 중 17역, 金州道와 平丘道の 각 5역, 溟州道の 4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들과 어떠한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경상북도지역 각 역의 현재위치 비정을 통하여 지도위에 재구성해보기로 한다.

〈慶州道〉

活里：慶州府北 6리³²⁾
 牟良：慶州府西 23리
 阿弗：慶州府西 45리
 知里
 奴谷：慶州府南 26리
 仍已(仍甫)：慶州府南 55리
 仇於旦：慶州府東 48리
 長守：新寧縣西 5리
 淸通：永川郡西 3리
 新驛(淸景)：永川郡東 38리
 加火
 凡於：大丘府東 9리
 押梁：慶山縣東 12리
 六叱(神光)：慶州 75리
 安康：慶州府北 30리
 松羅：淸河縣北 1리
 仁比：慶州 76리
 柄谷：寧海府北 6리
 赤冗(醴州)
 阿叱達(平海)
 酒現(盈德)
 南驛：盈德府南 21리
 琴田(英陽)

〈尙州道〉

幽谷(虎溪)：聞慶縣南 40리
 洛原：尙州北 16리
 洛東：在洛東江東 1리
 靑路：義城縣南 32리
 鐵波：義城縣北 5리

경주시내
 월성군 건천면 모량리
 월성군 서면 아화리
 경주관내(미상)
 월성군 내남면 노곡리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월성군 외동면 구어리
 영천군 신령면 왕산
 영천군 영천읍
 영천군 고경면 청경
 영천관내(미상)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경산군 압량면 압량
 영일군 신평
 월성군 안강읍 두류리
 영일군 송라
 영일군 기계면 인비리
 영덕군 병곡면 병곡
 영덕군 영해관내
 울진군 평해관내
 영덕군관내(미상)
 영덕군 남정면 남정 ?
 영양군 영양

문경군 점촌읍 유곡
 상주군 상주읍 낙상리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32) 이하 각 역의 里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역원조에 의거하였다.

智保：龍宮縣東 35리

通明(甫州)：甫州東 7리

德通：咸昌縣東 7리

甕泉：安東府北 34리

安基：安東府北 3리

安郊：在豐山縣 距府(安東) 37리

聊城：聞慶縣東 2리

守山(多仁)

雙溪(比屋) 比安縣東 10리

安溪：比安縣北 29리

琴曹：安東府東 30리

通山(臨河)

松蹄(臨河)：在臨河縣 距府(安東) 76리

連鄉：善山府東 21리

仇放：善山府東 1리

牛谷：義興縣南東 10리

上林：海平縣 距府(善山) 54리

曹溪：軍威縣南 41리

文居：安德縣 10리

和目：安德縣西 20리

〈京山府道〉

安堰：星州南 28리

踏溪：星州北 10리

安林：高靈南 14리

水鄉(八莒)

緣情(八莒)

舌火：花園縣西 5리

戊淇(加利)：星州南 59리

金泉：金山郡南 10리

長谷(知禮)

作乃：知禮縣北 10리

洛陽：尙州西 3리

예천군 지보면 지보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상주군 함창면 덕통리

안동군 북후면 옹천리

안동시 안기동

안동군 풍산읍 안교동

문경군 문경읍내

의성군 다인면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의성군 안계면

안동군 임하면 금소동

임하관내(미상)

안동군 길안면 목계동 ?

선산군 해평면 산양동 ?

선산군 선산읍

군위군 의흥

선산군 장천면 상림리

군위군 효령면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청송군 현서면 송목리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성주군 성주읍 ?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칠곡관내(미상)

칠곡관내(미상)

달성군 화원면 설화리

고령군 성삼면 무계리

금릉군 감천면 금송리 ?

금릉군 대덕면 관기리

금릉군 귀성면 작내리

상주읍 낙양리

洛上

秋風：金山西 35리

常平(中牟)：尚州西 57리

安谷：善州西 35리

長寧(化令)：東距尚州 51리

扶桑：開寧縣南 30리

〈金州道〉

省乙峴：在清道郡省峴下

楡川：清道郡南 40리

西之：清道郡東 81리

買田：清道郡東 50리

竝山

〈溟州道〉

壽山(守山)：蔚珍南 12리

德新：蔚珍南 45리

興府(興富)：蔚珍北 32리

祖召(造召)：蔚珍西 65리

〈平丘道〉

昌樂：豐基西 13리

平恩：榮州東 26리

昌保：榮州西 9리

幽洞(甘泉)

道深(奉化)：奉化南 5리

상주관내(미상)

금릉군 봉산면

상주군 모동면

신산군 무궁면 안곡리

상주군 화동면

금릉군 남면 부상리

청도군 화양읍 송금동

청도군 청도읍 유호동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

청도군 매전면 동산동

달성군 현풍관내(미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울진군 북면

울진군 서면

영풍군 풍기읍 창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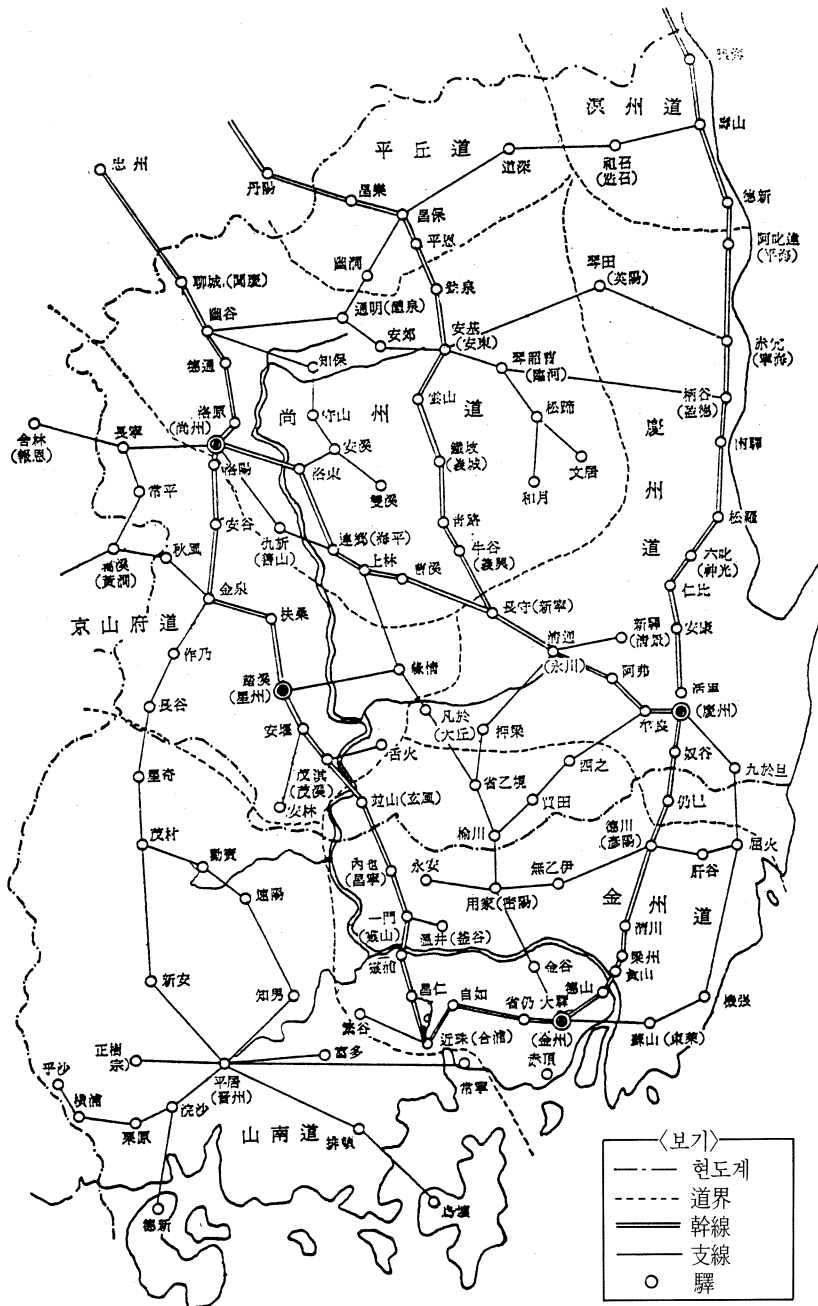
영풍군 평은면 평은리

영주시

예천군 감천면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

이상에서 《고려사》병지의 역참조에 있는 경상북도 소재 역참들을 현재의 지명으로 비정해 보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고려시대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의 교통망을 지도상에 옮겨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圖 2-1〉

高麗時代 慶尙道地域의 驛道

위의 지도를 통하여 보면 영남의 大邑인 상주, 경주, 김해 등지를 연결하는 길이 주요 幹線이며, 오늘날의 도로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경과 영남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幹線은 개경 - 남경 - 충주 - 문경 - 영주 - 동경(경주) - 김해의 선, 상주 - 성주 - 창령 - 함포(마산)의 선, 개경 - 원주 - 제천 - 단양 - 영주 - 안동 - 영주(영천) - 동경의 선 등이 있었다. 동경유수관과 상주목 경산부의 관내 군현이었던 대구 및 인근지역들은 <경주도>의 범어역과 압량역, <경산부도>의 설화역과 연정역이 주된 교통근거지로서 동경유수관과는 영천지방의 청통역 등을 통하여, 그리고 경산부와는 연정역을 통하여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과 역 사이에는 站이, 要路나 인가가 더문 곳에는 院이 설치되어 외지로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대동지지》에는 대구지역에 驛외에도 官門站과 梧桐院站이 기록되어 있으며, 《대구부읍지》에는 洛中院(府南 40리), 大櫓院(府西 6리), 沙丘院(府西 10리), 觀方院(府西 20리), 馬川院(府西 30리), 南川院(府西 30리), 梧桐院(府南 30리), 朴谷院(府西 26리) 등 8곳의 院이 기록되어 있다.³³⁾ 이들 院과 站의 설치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각 역을 연결하는 간이 역으로서 고려시대에 이미 외지로의 출입을 위한 교통로 구실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특히 《대동지지》에는 각 站들이 「驛站」조의 步橫항에 기록되어 있으며, 院 또는 站간의 거리가 《대구부읍지》의 사구원과 관방원, 마천원 등의 예에서 보이듯이 대략 10리 이내로 형성되어 있어, 마필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외지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驛院이나 站이 설치된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의 필요에 의하여 개척된 小路들이 외곽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고 여겨진다. 즉, 개척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앞 장의 2절에서 언급한 팔조령이 그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

33) 《대구부읍지》에 나타난 8院 중 오동원을 제외한 7院은 「今無」라 하여 이미 《대구부읍지》의 편찬 당시에는 없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第3章 民亂과 外侵

第1節 武臣政權과 農民·賤民의 抗爭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지배층의 억압에 대한 피지배층의 저항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소극적 수단으로 그저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 自殺로 부터 유언비어나 투서로써 지배층을 자극하는 소극적인 형태에서, 유리·도망하는 租稅抵抗運動,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봉기 항쟁의 형태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¹⁾ 고려시대의 농민·천민의 항쟁(이하 농민항쟁이라 함)도 이미 문종대 부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무신집권기에 대규모의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²⁾

그들은 처음에는 토호나 지방관의 탐학에 대한 불만에서 봉기하였으나, 지방관의 탐학이 고려 봉건사회의 모순에서 기인하였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고려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鄉·所·部曲 등의 부곡제 영역, 각 지역 지방관의 농민에 대한 탐학의 정도, 토지점병의 문제, 양계 같은 특수지역, 부역의 강도 등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주변 지역민들의 공감을 받아 대규모의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고려시대의 농민항쟁은 1170년 무신정권의 성립과 함께 폭발하기 시작하여 1200년대 초반까지 즉 명종·신종조의 약 30년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최씨정권의 강압적인 진압과 뒤이어 1230년대 이후 고려와 원과의 30년간의 지루한 전쟁을 치루는 가운데서도 농민항쟁은 산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삼별초의 대몽항전이 끝난 1270년대 까지 지속되었다. 근

1) 농민·천민의 저항의 양상 일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貞信,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 연구》, 1991.

洪順敏, 〈17세기말 18세기초 농민 저항의 양상〉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1992.

2) 고려시대 농민·천민의 항쟁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의 연구성과들이 참고된다.

金錫亨, 《봉건지배계급에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 고려편, 1960.

邊太燮, 〈농민·천민의 난〉 《한국사》 7, 1973.

朴宗基, 〈무인정권기 농민항쟁 연구론〉 《한국학논집》 12, 1989.

——, 〈12·13세기 농민항쟁의 원인에 대한 고찰〉 《동방학지》 69, 1991.

李貞信, 위의 책.

金皓東, 〈고려시대 경북지역의 의거와 의병〉 《경북의병사》, 1990 등.

1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농민항쟁은 나말여초의 사회변환기에 발생하였던 9세기의 농민항쟁,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노정되면서 일어난 19세기의 농민항쟁 등이 각 시기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기능하였던 것 처럼 원간섭기라는 새로운 지배체제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먼저 농민항쟁의 전개양상을 정리하여 보고,³⁾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하였던 발생요인을 검증하여본 다음 그 의의를 서술하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전개양상은 시기별로 질적인 편차와 무신정권기의 역사적 사정에 주의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모순 즉 생산력의 수취체제와 그러한 관계의 종합이라고 하는 지방제도의 구조와 모순에 유의하고자 한다.

I. 農民·賤民 抗爭의 展開樣相

무신정권기 농민항쟁의 前史로서 12세기 초와 중반의 流民과 盜賊의 발생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예종대인 12세기 초반에 이르면 특히 경기·황해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민이 발생하였으며 인종대와 의종대 초반에는 도적의 발생이 빈번하였다. 유민과 도적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민의 움직임은 의종 13년(1168) 濟州道民 守良의 봉기와 명종 2년(1172) 6월 昌州·鐵州·成州의 3주민의 항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명종 2년 창주(창성)·철주(철산)·성주(성천) 3주민의 봉기를 《고려사절요》에서는 이들이 庚寅亂 이후 橫恣해져서 분란을 일으켰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령의 탐오와 주구에 의하여졌을 것이며, 더욱이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州鎭軍에 편성된 군인들이었으므로 그같은 불법에 항거하여 쉽사리 봉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 이들의 봉기를 당시 西北面兵馬使 大將軍 宋有仁이 수습하지 못하여 스스로 물러나고 새로 부임하였던 대장군 于學儒 역시 능히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 기세가 대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명종 4년(1174) 9월 西京留守 趙位寵이 국정을 진단하는 李義方·鄭仲夫 등의 무인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거병하였다. 이에 당시 서북지역 40여성의 都領에 이끌린 州人이 그 중심세력이 됨으로써 조위충의 의도와는 달리 본격적인 농민항쟁으로

3) 12·13세기 농민·천민 항쟁의 일지가 朴宗基에 의해 정리되었다.

朴宗基, 앞의 논문, 1989, pp. 53~57.

4) 金塘澤, 〈무신정권시대의 군제〉 《고려군제사》, 1983, p. 267.

전환되었다.⁵⁾ 고려조정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中書侍郎平章事 尹麟瞻을 사령관으로 하는 3군을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양군은 크게 충돌하게 되었지만, 그간에 관군은 서경명에게 패배를 맞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난이 일어난지 2년이 다 된 명종 6년(1176) 6월 겨우 서경을 함락시켜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써 항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7년과 8년에 걸쳐 조위총의 餘衆 500여명이 다시 봉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해의 싸움 때에 서경을 끝까지 지키다가 함락됨에 미쳐 도망한 장정들이 있었는데, 성에 남아 관군에 항복한 자들이 도리어 저들을 反賊이라 지목하고 그들의 부녀와 재산을 약탈한 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에 격분한 500여명의 장정들은 서경의 留守·判官과 앞서 항복한 무리들을 살해하고 봉기한 것이었다. 그와 같이 하여 일어난 餘衆의 난은 처음부터 민란의 성격을 띤 것이었거니와, 이들은 3군을 편성하여 정부군에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됨에 따라 양식이 궁핍해진데다가 서북면병마사 朴齊儼이 招諭·賑恤하고 光秀·金甫 등 반군의 3軍行首들을 개경에 보내 校尉·隊正 등의 관직을 받게 함으로써 봉기는 1년 반만에 진압되었다.

그런데 이듬해에 서북면지병마사 李富가 西賊 遺種들이 틈을 타서 재차 일어날까 염려하여 이들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속여서 성내로 유인한 뒤에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牛方田 등이 무리를 모아 또 다시 봉기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봉기도 곧 진압되었지만, 조위총 및 서북인의 항거운동은 餘衆의 난과 遺種의 난까지 합쳐 거의 5년 동안 이나 계속된 셈이며, 이밖에도 조위총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西賊으로 알려진 대소의 소요가 각지에서 있었는데 金旦·康蓄·曹忠 등의 저항이⁶⁾ 그것으로 무신정권의 실정과 지방관의 가렴에 대한 서북계 주민들의 항쟁이 끈질지게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서북지방에서 조위총 등의 항거가 한창일 때 남부지방에서도 南賊이라 불리는 항쟁이 일어났다. 그러한 처음의 사건은 명종 5년(1175)에는 이미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石令史의 봉기였던 것 같다. 이는 같은 해 8월 承宣 宋智仁·進士 秦公緒 등이 석령사와 몰래 통하여

5) 《고려사》 권 19, 명종 4년 9월 기유, 권 100, 열전 조위총.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4년 9월.

서북지역의 농민항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邊太燮, 〈무인집권기 반무신란의 성격-김보당난과 조위총난〉 《한국사연구》 19, 1978.

李貞信, 〈서북지역의 농민항쟁〉, 앞의 책, 1991.

6) 《고려사》 권 19, 명종 7년 7월 경술, 8월 정해, 10월 병술, 11월 임자.

을 꾀하였다는 算業及第 彭之緒에 의한 무고로 섬으로 유배된 일⁷⁾이 있었고, 11월에는 文臣이 남적과 함께 난을 도모한다는 무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유배당하였던 것⁸⁾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남적 가운데 가장 기세를 떨친 것은 명종 6년(1176) 1월 公州 鳴鶴所에서 일어난 亡伊·亡所伊의 봉기였다.⁹⁾ 망이·망소이는 黨與를 모아 가지고 山行兵馬使를 자칭하면서 봉기하여 公州를 함락하는 한편 조정에서 召募하여 파견한 장사 3천을 패퇴시킬 정도로 그 규모나 세력이 대단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무력에 의한 토벌을 중지하고 회유책을 써 망이의 향리인 明嶺縣을 忠順縣으로 승격시키고 선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禮山縣을 공략하여 監務를 살해하는 등 더욱 기세를 올렸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정부는 다시 무력토벌로 정책을 바꾸어 대장군 鄭世猷와 李夫를 處置兵馬使로 삼아 각기 좌우도로 보내어 치게 하였던 바, 망이 등이 來降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들을 처벌하기 보다 오히려 곡식을 주어 향리로 돌려보냈는데, 이로 보면 그들의 來降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정부와의 타협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망이 등이 재차 봉기하여 伽耶寺(瑞山 소재)를 寇掠하고, 3월에는 弘慶院(稷山 소재)를 불태우고 주지승을毆박하여 개경을 점령하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반정부적인 변혁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지만,¹⁰⁾ 7월에 망이·망소이가 병마사 鄭世猷 등에 의해 체포되어 淸州獄에 수감됨으로써 진압되고 말았다.

명학소민의 봉기로부터 진압에 이르는 1년 6개월 동안 ‘南賊’으로 표현된 봉기군이 黃驪縣과 鎭州, 그리고 牙州와 淸州管内 屬郡縣 등지를 공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종 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伽耶山(충남 서산 소재)의 賊首 孫淸, 7년 2월 전라주도안찰사에게 항복한 彌勒山賊, 같은 해 3월 좌도병마사에게 사로잡힌 賊首 李光 등의 봉기가 있었다. 특히 미륵산적·이광·손청 등의 봉기가 망이·망소이와의 연합전선으로 이해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서북지역의 항쟁과 함께 당시의 무신정권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1170년대 항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무신정권이 성립된 직후인 1170년대에

7)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5년 8월.

8) 《고려사》 권 19 명종 5년 11월 임자.

9)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6년 1월.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貞信, 〈충청 전라지역 농민·천민의 봉기〉, 앞의 책, 1991.

10) 朴宗基, 앞의 논문, 1991, p. 43.

서북지역과 중부지역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농민항쟁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모두 진압되고 말았다.

그후 명종 12년(1182) 2월 충청도의 管城(沃川)·富城(瑞山)縣의 吏民들이 봉기하였다. 관성에서는 현령 洪彦의 탐학과 淫荒無度함에 대항하여, 부성에서는 현령과 현위가 서로 반목하여 그 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침에 각각 현령의 愛妓를 죽이거나, 현령을 감금하고 縣衙를 점령하기도 하였다.¹¹⁾ 3월에는 全州에서 주현의 保勝·精勇軍 旗頭 竹同 등이 官奴와 불만세력을 규합하여 全州司錄 陳大有와 上戶長 李澤民이 官船 제조의 일을 맡아 督役하면서 너무 가혹하게 부림에 반발하여 봉기하였으나, 관군의 이간책에 의해 죽동 등이 一品軍隊正과 僧徒에게 피살됨으로써 진압되었다.¹²⁾ 그러나 죽동 등의 항거에는 군인과 관노·불평의 무리들이 다같이 합세하여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된다.¹³⁾

1180년대의 농민항쟁은 70년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농민항쟁이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분산적이고 아직 그 규모도 적은 것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연합이라는 측면이 보이지 않는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점차 남부지역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90년대와 1200년대에는 12·13세기 농민·천민 항쟁 가운데 가장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항쟁이 지금까지의 서북지역과 중부지역에서 벗어나 남부지역인 경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명종 20년(1190) 東京(경주)에서 경주민 뿐만 아니라 동경관내 일대의 유망한 농민들까지 참여한 봉기¹⁴⁾가 일어나자 중앙정부는 사자를 보내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는 한편 按察副使로 하여금 이들을 토벌케 하였다. 그러나 경주민의 저항이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는 中郎將 姜純義를 南路捉賊使로 삼아 출정케 하였음과 명종 23년 2월에 東南路按察副使 金光濟가 이들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여 京兵의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11) 《고려사》 권 20, 명종 12년 2월 을사.

12) 위의 책, 권 20, 명종 12년 3월 경인.

13) 洪承基, 〈고려 무인집권시대의 노비반란〉 《고려귀족사회와 노비》, 1983, pp. 311~312.

14) 《고려사》 권 20, 명종 20년 1월.

《고려사절요》 권 13, 명종 20년 1월, 2월.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金皓東, 〈고려시대 경북지역의 의거와 의병〉 《경북의병사》, 1990.

李貞信, 〈경상도 지역 농민·천민의 항쟁〉 앞의 책, 1991.

더욱이 이들은 같은 해 7월 雲門의 金沙彌와 草田의 孝心의 봉기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¹⁵⁾에 중앙정부는 大將軍 全存傑과 將軍 李至純과 李公靖 등을 파견하여 진압케 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는 당시의 집권자였던 李義旼이 신라부흥의 뜻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의민의 아들로서 이들을 진압하여야 했을 이지순이 이들과 몰래 통하여 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들의 동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⁶⁾ 현재 이의민이 과연 기록대로 김사미·효심 등과 내통하여 신라부흥을 획책했을런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¹⁷⁾ 그것은 이의민정권의 부당성을 지적해 보려는 반이의민세력의 모략으로 이해하는 입장¹⁸⁾, 또 김사미·효심 등에게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은 신라부흥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만 이의민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견해¹⁹⁾ 등 다양하다.

김사미·효심 등의 저항세력은 크게 기세를 떨쳤던 것이며, 그와 같은 사태에 직면한 중앙정부는 같은 해 11월 상장군 崔仁을 南路捉賊兵馬使, 대장군 高湧之를 都知兵馬事로 삼아 장군 金存仁·史良柱 등을 거느리고 가서 이들을 진압케 하였다. 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듯 12월에는 得甫가 항복하고, 이듬해 2월 김사미가 자진 항복하였다. 그러나 효심은 계속 저항하여 한때는 장군 사양주를 패사케 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는 듯 하였지만 남로병마사가 거느린 관군과의 密城(밀양) 싸움에서 한꺼번에 7,000여명이 죽음을 당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²⁰⁾ 같은 해 12월 효심이 체포됨으로써 항쟁은 진압되었다.

운문·초전민의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초기 단계의 단순한 지엽적인 봉기에서 한걸음

15) 《고려사》 권 20, 명종 23년 7월.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金皓東, 〈고려 무인정권하에서의 경주민의 동태와 신라부흥운동〉 《민족문화논총》 2·3합, 1982.

_____, 앞의 논문 1990.

金光植, 〈운문사와 김사미난〉 《한국학보》 54, 1989.

李貞信, 〈경상도 지역 농민·천민의 항쟁〉, 앞의 책, 1991.

16)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23년 7월.

17) 朴菑熙, 〈이규보의 ‘동명왕편’ 시〉 《역사교육》 11·12 합, 1969, pp. 197~199.

河炫綱, 〈고려시대의 역사계승의식〉 《한국의 역사인식》 상, 1976, p. 202.

18) 金塘澤, 〈이의민정권의 성격〉 《고려무인정권연구》 1987, p. 44의 주 79).

金皓東, 앞의 논문, 1982.

19) 旗田巍, 〈고려의 무인과 지방세력—이의민과 경주—〉 《조선역사논집》 상, 1979, pp. 484~485.

20) 《고려사》 권 20, 명종 24년 4월 무술.

더 나아가 계획적이고 주변 농민들과 연합투쟁을 벌이는 단계로 발전하여, 이제는 중앙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저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역량부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권층과의 제휴여부를 둘러싼 내부의 갈등으로 지속적인 항쟁을 하지 못하고 궤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청도·밀양지역 등 경상도 일대의 항쟁은 1200년대 까지 다시 지역간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 보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에서 최충헌에 의해 이의민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종과 신종이 폐립되는 어수선한 분위기하에서 신종 2년(1199) 2월 金順이 주도하였던 경주의 농민군은 삼척과 울진을 함락한 溟州의 농민군과 대규모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²¹⁾ 이 무렵 강원도와 경상도의 동해안 일대가 농민군에 의해 일시 점령되기도 하였다. 이 항쟁은 다음달 3월 정부가 파견한 관인의 회유에 응하여 김순과 손草 등이 항복하였고, 국왕이 이들 來降者에게 酒食과 의복을 하사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진압되었다.

신종 5년(1202) 10월에는 경주의 別抄軍이 봉기하여 雲門의 농민군, 符仁·桐華寺의 승려들과 결합하여 이웃 군현인 永州(영천)을 공격하였다.²²⁾ 이는 동경관내의 屬邑으로 존재하다가 명종조 새로이 감무가 파견된 지역(영주)과 界首官 파견지역인 경주와의 대립 갈등으로 主邑-屬邑간의 지배예속관계에서 계수관-領邑관계로의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수관 지역의 자기분열에 따른 영읍의 이탈현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²³⁾ 같은 해 12월에는 경주인 裴元祐가 전라도 古阜에 유배되었던 장군 石成柱를 옹립하여 신라부흥운동을 꾀하다 석성주가 그곳의 군수에게 밀고하여 배원우는 체포되어 처형됨으로써 신라부흥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²⁴⁾

같은 때 勅佐와 利備가 이끈 경주의 농민군이 울진·운문·초전의 농민군과 연합하여 스스로 正國兵馬라 하여 인근 주군을 공격하였으며, 이듬해 1월과 2월에는 멀리 基陽縣과 杞溪縣을 공격하다 1,000여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포로가 될 정도로 패배를 맛보았으나 그 기세는 대단하였고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이의 진압을 위해 대장군 丁彦眞을 파견하였다. 같은 해 4월 이비가 체포되고 7월에 패자 역시 정언진이 보낸 隊正 威延壽에 살해되고, 8월에

21) 앞의 책, 권 21, 신종 2년 2월, 3월 무오.

22) 위의 책, 권 21, 신종 5년 10월.

23) 金晄東, 앞의 논문, 1990, pp. 81~82.

24)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5년 10월.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던 태백산의 阿之마저 체포됨으로써 이들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저항은 회종 즉위년(1208) 5월까지 지속되었지만, 큰 충돌없이 모두 진압되었다. 패좌와 이비의 봉기를 계기로 최충헌은 東京留守를 知慶州事로 강등시키고 대신에 안동도호부를 대도호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경주관내의 주·부·군·현과 향·부곡을 안동과 상주에 分隸시키고 경상도의 명칭도 尚晉安東道로 바꾸어²⁵⁾ 경주민의 재봉기를 막고자 하였다. 이는 최충헌의 ‘동경사람들이 신라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을 만들어서 주·현에 격서를 보내어 반역을 꾀하고 난리를 선동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아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을 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전자는 고종 4년(1217) 거란의 침입에 즈음하여 서경의 군졸인 崔光秀가 표면상으로는 서경병마사·상장군인 崔俞恭의 侵漁에 반발하여 동료 사졸과 함께 봉기한 것으로서, 그는 ‘句高麗復興兵馬使’를 자칭하였다. 이 명칭은 본래 ‘고구려부흥병마사’였을 터이지만, 하여튼 그는 僚佐를 署置하고 북계의 여러 성에 격문을 보내 장차 크게 일을 크게 벌이려다가 臺吏인 鄭顥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하여 실패하고 말았다.²⁶⁾ 최광수가 봉기하면서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한 것은 서북인의 무신정권 내지 고려 조정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후자는 전라도의 原栗·潭陽에서 李延年이 중심이 되어 고종 24년(1237)에 일어났다. 그는 무리를 모아 주군을 횡행하면서 ‘百賊都元帥’를 자칭하였는데, 이 명칭도 원래는 ‘백제도원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연년이 봉기를 주도하면서 백제의 부흥을 의미하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없이 이곳 백성들의 포섭을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백제의 부흥을 표방하는 봉기가 있었다는 점은 신라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종 23년(1193)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로 시작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청도·밀양지역의 봉기는 1194년 일단 진압되었으나, 이후에도 강릉·울진 지역의 농민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경상도와 강원도지역을 하나의 세력권으로 하여 약 15년간 신라부흥운동²⁷⁾을 표방,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 일대의 봉기는 결국 최충헌정권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1204년(신종 7) 5월 완전히 진압되었다. 1190년대와 1200년대에는 경주지역이 봉기의 중심권이었으나, 이 지역외에도 신종 3년(1200년) 金州에서의 雜

25) 앞의 책, 권 14, 회종 즉위년 6월.

26) 《고려사》 권 121, 열전 정의.

27) 신라부흥운동에 대해서는 金晫東, 앞의 논문, 1990이 상세하다.

人의 봉기²⁸⁾와 5년(1202)에는 탐라인의 봉기²⁹⁾ 등도 있었다.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신종 1년(1198) 5월에는 기왕의 주체와는 신분이 다른 私奴 萬積과 味助伊 延福 등이 봉기하였다.³⁰⁾ 이들의 봉기와 관련된 이해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에는 庚癸이래로 朱紫가 많이 賤隸에서 나왔다. 將相이라고 무슨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무리들만 어찌 능히 근골을 수고로이 하며 매질 밑에서 곤욕을 당하겠는가’, 둘째 ‘黃紙 수천 장을 잘라 모두 丁字를 새겨’, 세째 ‘우리들이 興國寺 步廊에 모여 毬庭으로 나아가 일시에 때를 지어 복치고 소리치면 궐내의 宦者들이 반드시 호응할 것이며, 官奴 등도 안에서 일어나 베어 죽일 것인즉 우리 무리 역시 성중에서 봉기하여 먼저 최충헌 등을 죽인 후 인하여 각기 그 주인을 살해하고 賤籍을 불태워 삼한에 천인을 없게 하면 公卿將相은 모두 우리들이 할 수 있다’ 등이다. 이를 통해 만적 등의 봉기는 우선 규모가 매우 크고 계획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그 목표는 노비신분으로부터의 해방에 있었으며, 세째 이번의 봉기를 통해 공경장상이 되어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신자의 밀고로 인하여 거사 이전에 진압되고 말았다.

신종 3년(1200) 4월에는 晋州의 公私奴隸가 봉기하였다.³¹⁾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방관과 재지세력인 州吏간의 대립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의 주리인 鄭方義가 진주지역을 장악하였다. 진주를 장악한 이후에는 주리와 진주민간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진주민과 陝州의 奴兀部曲民과 연합하여³²⁾ 주리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이듬해 주리인 정방의 세력이 진주민에게 살해되면서 진압되었다.³³⁾ 이 봉기는 농민항쟁 일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봉기의 전개과정에서 재지이족층과 공사노예, 지방관과 재지이족층, 재지이족층과 일반 농민층 등의

28) 《고려사》 권 21, 신종 3년 8월 계사.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3년 8월.

29) 《고려사》 권 21, 신종 5년 10월.

30) 위의 책, 권 129 열전 최충헌.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1년 5월.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邊太燮, 〈만적난 발생의 사회적 소지—무신난 후의 신분구성의 변질을 기반으로—〉 《고려정치제도사연구》, 1971.

_____, 〈농민·천민의 난〉 《한국사》 7, 1973.

洪承基, 〈고려 무인집권시대의 노비반란〉 《고려귀족사회와 노비》, 1983.

31)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3년 4월.

32) 위의 책, 권 14 신종 3년 8월.

33) 李貞信, 〈고려 무신정권기 진주민의 항쟁〉, 앞의 책, 1991, pp.235~268.

대립관계가 중첩된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³⁴⁾ 그리고 같은 해 밀성 관노 50여명이 봉기하여 운문의 농민군에 투항하였으며,³⁵⁾ 신종 6년(1203) 4월에는 개경 가동들의 꺾戰 사건이 일어났다. 즉 나무하러온 가동들이 東郊에서 隊를 나누어 전투연습을 하다가 최충헌이 파견한 사람에게 50여명이 체포되어 강에 던져진 사건이었다.³⁶⁾

이상과 같이 농민들의 봉기 외에도 노비 등 천민들의 봉기도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노비들에 의한 봉기는 무신정권 성립이후 전반적인 지배세력의 교체에 편성하여 기존의 신분질서를 일탈하여 새로이 지배층에 편입된 하급 신분층의 증가추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만적의 봉기에서와 같이 정권의 장악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인 처지를 개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분해방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210년대 이후의 농민항쟁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신라부흥운동을 표방하면서 이 시기 농민항쟁 가운데 최고조에 도달하였던 경상도 일대의 농민항쟁을 최충헌정권이 강압적으로 진압함으로써 회중 년간에 들어서면서는 그 기세가 크게 꺾이었을 뿐만 아니라 13세기 초 원제국의 등장과 함께 그 세력이 한반도에 직접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외압에 의해 농민항쟁 본래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종 3년(1216) 9월 興化·雲中道の 楊水尺이 최충헌의 가혹한 공물수취에 반발, 봉기하여 거란군의 향도가 되었으며,³⁷⁾ 이듬해 1월 거란군을 방어하기 위해 종군하였던 興王·景福·王輪寺 등의 승려들이 봉기하였다.³⁸⁾ 같은 달에 振威縣 令同正 李將太와 直長同正 李唐必이 자칭 靖國兵馬使, 義兵이라 칭하며 봉기하였으며, 5월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서경의 최광수가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기치로 봉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24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구체적으로 義州別將 韓恂과 郎將 多智의 봉기,³⁹⁾ 남원의 봉기,⁴⁰⁾ 남경에서 仁傑의 봉기,⁴¹⁾ 충주관노의

34) 朴宗基, 앞의 논문, 1989, p. 48.

35) 《고려사》 권 21, 신종 3년 5월.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3년 5월.

36)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6년 4월.

37) 위의 책, 권 14, 고종 3년 9월.

38) 위의 책, 권 15, 고종 4년 1월.

39) 《고려사》 권 22, 고종 6년 10월 계해.

40) 위의 책, 권 22, 고종 7년 3월 병오.

41) 《고려사절요》 권 15, 고종 14년 윤5월.

봉기,⁴²⁾ 개경근교 草賊의 봉기,⁴³⁾ 경주의 崔山과 李儒의 봉기,⁴⁴⁾ 서경인 畢賢甫와 洪福源 등의 반란,⁴⁵⁾ 전라도 담양의 이연년의 백제부흥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210년대에서 1240년까지의 농민봉기는 몽고와의 전쟁 등 외압으로 인하여 그 이전 경상도 일대의 농민봉기와 같이 조직적이고 강력한 것은 아니었으나, 봉기의 양상은 이전과 달리 지역적으로 서북지역에서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으며, 항쟁의 주체 역시 농민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피지배계층이 모두 망라되고 있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 처럼 신종년간의 신라부흥운동과 같이 이 무렵에도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이 나타나는 등 고려왕조를 부정하는 신국가건설운동이 제창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고종 40년(1253) 10월 몽고군이 楊根城을 포위하자 방호별감 尹椿이 무리를 거느리고 몽고군에 투항하여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다.⁴⁶⁾ 이와 같이 1250년대에 이르면 몽고군에 투항하여 몽고군의 앞잡이가 되어 정부를 공격하는 이른바 ‘投蒙’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예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종 43년(1256) 笠巖山城民, 45년 葦島에 入保한 博州民과 廣福山城民,⁴⁷⁾ 46년 2월 登州와 和州 등 여러 성의 貧民과 3월 북계의 艾·葛島의 驛人 등의 예가 그것이다. 또한 몽고와의 전쟁이 마무리된 후인 원종 11년(1270)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밀성군민과 개경의 관노 등이 봉기하여 삼별초군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원종 14년(1273) 고려군과 몽고군이 연합하여 삼별초 항쟁을 완전히 진압하면서 약 1세기간 끈질기게 지속되었던 농민항쟁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II. 農民·賤民 抗爭의 性格

12·13세기 농민항쟁은 약 1세기간의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지만, 그 내부에는 질적으로 다양한 편차가 있으며, 한국사의 다른 시기의 농민항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재지세력간의 갈등, 호족과 잡족인의 대립, 군현과 군현간의 갈등과 같은 지역간의 대립, 향·부곡 등 부곡제민의 봉기와 노비신분의 봉기, 삼국부흥운동과

42) 앞의 책, 권 16, 고종 19년 1월.

43) 위의 책, 권 16, 고종 19년 7월 을유.

44) 위의 책, 권 16, 고종 20년 5월.

45) 《고려사》 권 23, 고종 20년 5월.

46) 《고려사절요》 권 17, 고종 40년 10월.

47) 《고려사》 권 24, 고종 45년 5월 임술, 9월 무오.

같은 신국가건설운동, 지방관과 향리 등의 과도한 수탈의 완화를 도리어 국가에 호소하는 타협적인 성격의 것, 극히 왜곡된 모습의 투몽현상 등 항쟁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을 일탈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모습과 항쟁 지향성의 질적인 편차 등을 보여준다.⁴⁸⁾

그리고 민의 저항의 발생과 진압되는 계절에 따른 양상에서도 이 시기 항쟁의 성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고려 후기 천민들을 포함한 민의 저항이 발생된 시기를 보면, 9월에서부터 이듬해 4월에 걸쳐 주로 일어나고, 또 치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전반부는 수확기를 맞이하여 토지소유구조와 수취구조상 국가와 민, 지주와 전호, 부자와 빈자의 모순이 첨예화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이탈한 유망농민층이 격증하였고, 이들은 주변의 산골짜기 등으로 들어가 세력을 결집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농한기에 해당하는 시기이지만, 농민에게 가장 가혹한 부담으로 나타나는 각종 역역동원이 행해지는 시기이다. 특히 역역동원의 경우 일개군읍을 단위로 한 것은 물론 대읍중심의 군현체제하에서 주를 단위로, 나아가 대읍지역권 전체의 민을 동원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 역역의 장을 통해 다수의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하나로 결집되어 쉽사리 농민봉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후반부는 새로운 생산의 시기이면서도 일명 궁핍화가 극에 달하는 춘궁기이다. 민의 대부분이 굶주림속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는가 하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리대와 심지어 곡식의 종자까지도 빌려야 하는 시기이다. 바로 이 시기가 민의 저항이 일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그 극성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 민의 저항은 농민항쟁의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의 불안과 동요가 가장 심한 이 시기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의 질곡을 제거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는 기치를 표방하면서 중앙의 정변 또한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는 변변한 병장기를 갖지 못한 채 수풀더미 속에 숨어 게릴라전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항쟁세력이 낙엽이 떨어진 상황에서 몸을 노출한 채 혹한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관군에게 가장 많이 토멸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 소위 농번기 및 녹음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울창한 수풀속에서 게릴라전술을 펼칠 수 있는 적당한 시기이다. 하지만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새로운 수확의 기대감을 가지고 농장주에게 投屬하는 등 토지로 되돌아 가는 시기로서 상대적으로 농민항쟁이 위축될 수 있는 면을 갖고 있었다.

48) 朴宗基, 앞의 논문, 1989, p. 51.

III. 農民·賤民 抗爭의 發生要因

이러한 농민항쟁은 왜 일어났는가.⁴⁹⁾ 이 시기 항쟁을 촉발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의 탈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토지소유를 둘러싼 여러 계층간의 대립이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토지에서의 田租 징수가 두세번에 이르렀다’(一田之徵乃至二三)는 형식의 토지에 대한 전조징수의 문제였으며, 그것은 토지경작자였던 농민층에 대한 과중한 역부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富強兩班·富戶·務農致富者 등으로 표현되는 층들이 빈약백성과의 채무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田丁⁵⁰⁾을 탈점하는 현상이었다. 또한 그러한 탈점현상에서 이 시기 재지향촌사회에서의 일정한 생산력의 발달과 그것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방수령과 이속층의 불법적인 수탈에 편성하여 농민층의 유망과 나아가 항쟁을 촉발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권세가 혹은 재위자로 표현되는 중앙의 유력층이 양반과 군인의 수조지 뿐만 아니라 소유지를 침탈하는 현상이었다. 특히 이들의 토지탈점은 해당지역의 수령과 재지이속층을 매개로 하여 상호 결합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합구조는 이 시기 토지탈점이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시기 농민항쟁을 촉발시킨 그러한 대립구조는 토지탈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국가권력에 의존하였던 권세거나 국가권력의 대행자였던 수령과 이속층의 농민층에 대한 과다한 수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방수령과 향리들의 과중한 수탈이 농민층을 유망시키고 궁극적으로 농민항쟁을 일으키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과중한 수탈을 자행하였던 수령들은 특히 무신정권 성립이후 장사치나 군졸 등 수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들로서 이들은 당시 권력자의 비호 아래 수령으로 파견되어 무제한의 수탈을 자행한 것이 이 시기 농민의 유망과 나아가 농민항쟁을 가속화시킨 원인이었다. 이러한 수탈구조는 가까이는 무신정권기 정권담당자층들의 자의적인 지방시책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근원

49) 농민·천민 항쟁의 발생요인을 朴宗基는 《고려사》 식화지에 산견되는 명종 18년의 敎書 내용을 통해 파악하였는데(앞의 논문, 1990), 이하 서술은 이의 도움을 받았다.

50) 田丁에 대한 이해에는 金琪璽, 《고려전기 전정제연구》, 부산대학사학위논문, 1993이 참고된다.

적으로는 고려 군현제의 모순⁵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려전기의 군현제는 군현제 영역과 부곡제 영역이라는 계서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⁵²⁾ 이 가운데 부곡제 영역의 주민은 군현제 영역의 주민에 비해 특정의 역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과중한 역부담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⁵³⁾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의 유망이 군현제 영역의 주민에 비해 특히 심하였다. 부곡제 영역 주민의 유망과 항쟁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종대인 12세기 초 경기지역에서 대규모 민의 유망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정 물품의 생산을 전담하였던 所 주민의 유망이 가장 심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공주지역의 명향소를 거점으로 한 명종 6년(1176)의 망이·망소이의 봉기, 신종 3년(1200) 진주지역에서 공사노예의 봉기를 진압한 재지이족 정방의에 항거하였던 진주지역 주민들이 합주의 計勅·光明에게 투속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는데, 제발·광명의 근거지가 합주의 노을부곡이었다는 사실은 역시 부곡제 영역이 이 시기 농민항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군현제 영역내의 속현 역시 조세수취와 운반 등에 있어 주현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사정은 속현지역도 부곡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유망현상이 심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12세기 초 민의 유망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던 監務⁵⁴⁾의 대부분이 속현에 집중되었던 데서 예견된다. 명종 11년(1181) 義州에는 文武交差制에 의하여 문무 2인의 지방관이 겸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비의 부담이 과다하여 수년이 지나지 않아 의주가 황폐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그 대책으로 문관은 義州分道로 삼아 靈州와

51) 고려 군현조직의 편성과 그 조직체계 및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金潤坤, 《고려군현제도의 연구》, 경북대학사학위논문, 1983.

——, 〈나·려군현민 수취체계와 결부제도〉 《민족문화논총》 9, 1988.

朴宗基,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1990.

朴鍾進, 《고려시대 부세제도연구》 서울대학사학위논문, 1993.

52) 朴宗基, 앞의 책, 1990.

53) 金潤坤, 앞의 논문, 1988.

朴宗基, 〈고려의 수취체제와 부곡제〉, 앞의 책, 1990.

54) 監務에 대한 이해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元貞愛, 〈고려 중·후기 감무증치와 지방제도의 변천〉 《청계사학》 1, 1984.

羅恪淳, 〈고려시대의 감무에 대한 연구〉 《민병하정년기념사학논총》, 1988.

金東洙, 〈고려 중·후기의 감무과견〉 《전남사학》 3, 1989.

李仁宰, 〈고려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감무〉 《외대사학》 3, 1990 등.

威遠鎭을 의주의 속현으로 예속시키고, 무관은 靜州分道로 삼아 麟州와 龍州를 역시 속현으로 하여 이들 속현으로 하여금 각각 그 비용을 분담시키게 하였다.⁵⁵⁾ 여기서 영주와 위원진, 인주와 용주가 각각 의주와 정주의 속현이 됨으로써 이들 속현의 주민은 주현에 파견되었던 지방관의 공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속현이 주현의 재정을 보충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속현의 주민은 주현의 주민에 비하여 그만큼 가혹한 수취의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그것이 속현의 주민이 유망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지역권을 바탕으로 상호 연대책임을 지게 한 大邑 중심의 군현제도는 외관의 극소화, 향리의 숫적 극대화 속에서 국가-재지세력을 축으로 하는 대 농민지배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가, 재지세력의 민에 대한 불법적 수탈이 용이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또한 속읍보다는 주읍, 주읍 가운데 대응에 권력집중현상을 초래하여 속읍 및 향·소·부곡 등에 賦稅收取나 力役의 부담이 가중화될 수밖에 없었다. 속읍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까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주민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읍과 주읍의 관계는 마치 신하와 임금, 자식과 아버지, 비천하고 연소한 자와 지체높고 나이 많은 자, 아내와 남편 등에 비유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되면서 흔히 주읍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2세기를 전후하여 수리시설이 발달하고 연해안 저습지가 개발되어가는 농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비술이 발전하고 저습지 뿐만 아니라 산간의 척박지에도 耕種이 가능한 즉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새로운 종자가 출현하였다.⁵⁶⁾ 이로 인하여 주읍은 물론 산간벽지 및 연해지가 비교적 많은 속읍 및 향·소·부곡지역의 개발가능성의 길이 열림으로써 고려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다. 주읍보다 공권력의 침투가 미약하고 주민의 이탈현상이 그간 빈번하였던 속읍 및 향·소·부곡이 새로운 농업조건에 따라 토지사유화의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산전이나 산전개간, 특히 저습지나 연해지 개간 등은 조직적인 노동편성을 요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 노동력의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이나 재지 유력층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농민들의 역부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농업경영⁵⁷⁾조건이 열악한 속읍민들이 개발의 성과를 획득하기 보다는

55)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11년 윤3월.

56) 魏恩淑, 〈12세기 농업기술의 발전〉 《부대사학》 12, 1988.

57) 이에 대해서는 魏恩淑, 《고려후기 농업경영에 대한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4가 참고된다.

개별 자연촌락의 성장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였던 주읍민들이 속읍지역의 새로운 농업조건의 변화에 편승하여 任內인 속읍이나 부곡 등의 지역으로 침식하여 들어가는 역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흉년과 가혹한 부림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이탈해가던 농민들이 이 시기 농업발전에 편승하여 신규 개간이 가능한 땅을 찾아 옮겨감으로써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이동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원적을 떼어 현주소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다. 유망의 경우가 아닌 자발적인 경지확대나 신개척지에의 정착자들은 원적지로부터 추적되어 원적지-본읍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종전과 같이 부담해야 하였다. 본읍을 越境해 간 인간을 계속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정착하는 토지마저도 지배하였던 것이다. 대읍중심의 군현제가 확립된 이후 이러한 월경지가 도처에 생겨나 결국 주읍에 의한 속읍의 잠식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계서적인 영역으로 편성되었던 고려전기의 군현체제는 고려왕조 성립과정상의 결과물로서 당시에는 일정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이러한 체제는 도리어 민에 대한 과중한 수취를 용이하게 하는 모순구조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속읍과 부곡제 영역에 대한 지배가 주현을 통한 간접지배였고,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재지 이속층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속현과 부곡제 영역이 이때 농민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그러한 여러 조건들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농민항쟁을 촉발시킨 국가와 농민의 대립구조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권세가와 농민간의 대립으로, 또는 국가권력의 대행자였던 수령과 농민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그러한 대립구조는 토지탈점의 형태로서 혹은 농민에 대한 과다한 수탈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중앙의 정치체제에서 소외되었던 관인층이나 同正職者들이 향촌사회에 퇴거하면서 향촌사회 내부의 인적 구성상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한 것도 항쟁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종 8년의 淸州人 가운데 京籍을 가지고 청주에 퇴거하였던 자와 토착 청주인간의 갈등과 대립의 양상⁵⁸⁾은 당시 청주지역 향촌사회 내부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경적을 가지고 청주에 퇴거하였던 자들은 청주출신으로 중앙의 관계에 진출하였던 자들일 것이다. 이들이 청주의 토착세력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은 재지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갈등을 제압하지

58) 《고려사》 권 100, 열전 經대승.

못한 이유로 청주의 事審官인 慶大升·朴純弼과 牧副使 趙溫舒를 파직시켰던 것은 당시 이러한 갈등이 청주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향촌사회 내부의 분화를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경주지역의 경우에도 이의민이 주살된 이후 그의 餘賊이 이 지역 재지이족과 대립하였던 사실이 있다.⁵⁹⁾ 이는 표면적으로는 향촌사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이지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청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그것을 제압하지 못한 수령을 파직시킨 사실은 당시 향촌사회 내부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향쟁의 일반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촌사회의 갈등이 향쟁으로 전환된 것은 금주의 예에서도 잘 나타난다. 금주의 雜族人이 豪族人의 강포탐오에 대항, 봉기하여 호족인을 죽이자, 호족들이 성외로 도망하였다. 잡족인들이 관아를 포위하자 副使 李迪儒가 이들을 회유하는 한편 몰래 호족세력과 결합하여 잡족인을 협격, 이들의 봉기를 진압하였다.⁶⁰⁾ 여기서 호족인은 이 지역에 토착하면서 국가의 행정기구에 참여하였던 재지이족 세력이며, 잡족인은 타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일정한 기반을 확보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재지기구에서 배제되었던 층일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주의 호족인이 중앙에서 파견되었던 외관층과 결합함으로써 결국 향촌사회 내부구성의 분화와 그것에서 파생되었던 구성원간의 대립이 향쟁의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예와 같이 향촌사회 내부의 분화는 단순한 재지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화가 궁극적으로 향쟁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향촌사회를 주도하여 왔던 재지이속층이 이무렵 토호적 성격에서 국가관료기구의 役人으로 그 지위가 변화되면서 농민층과 점차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향촌사회로 퇴거한 품관층·동정직자와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적인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앙의 品官層과 同正職者의 향촌사회로의 퇴거는 향촌사회의 동요 뿐아니라 농민향쟁의 방향성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이들은 당시의 권력체계에서 소외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향쟁에 가담하였던 농민층과 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농민향쟁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불만을 표출시켰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삼국의 부흥운동과 같은 신국가건설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농민향쟁이 때로 정치적인 변혁운동을 지향한

59) 앞의 책, 권 21 신종 3년 8월 계사.

60) 위의 책, 권 21, 신종 3년 8월.

것은 바로 이로한 추세에 힘입은 바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농민항쟁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국가와 농민간의 대립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Ⅳ. 農民·賤民 抗爭의 限界와 그 歷史的 意義

이러한 농민항쟁의 원인과 함께 고려할 문제는 농민항쟁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된 시대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1세기에 걸쳐 지속된 농민항쟁이 모두 진압되었다는 데서 이 시기의 항쟁은 모두 실패한 셈이다. 폐쇄된 자연경제속에서의 농민항쟁은 분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중세사회의 발전기를 맞아 토지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地主·佃戶 관계가 확대 발전되는 과정에서 항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봉건적 모순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항쟁의 역량과 열기가 약화되었다. 소유토지를 상실하고 지배계급과 국가의 강제적 수탈에 생계유지를 위해 고향을 떠났던 농민의 일부는 확대되고 있던 농장에 흡수되어 단순재생산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산골짜기에 모여든 유민들도 그동안 그들이 향상시켜온 농업기술을 통해 점차 토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170년대에 활기차게 진행되었던 반봉건항쟁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봉건적 통치체제 역시 미숙한 상황이어서 투쟁대상과 성취할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던 것도 큰 한계였다. 계획적이기 보다는 누적된 불만이 다양한 형태로 폭발해 항쟁으로 전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방 상업의 발달수준이 전국적 유통망 형성과는 거리가 먼 당시의 상황에서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형성된 봉건통치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항쟁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몽고군에 대한 반침략항쟁에 있어서도 의식상으로는 전민족적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여타 객관적인 조건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항전은 전혀 불가능한 단계였던 것이다. 또한 시대적 여건상 반봉건항쟁에서 투쟁대상인 지배계급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도 중요한 한계였다. 비교적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가도 보다 광범위한 항쟁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회유와 공작전술에 말려 지휘부가 와해되고 끝내는 각개격파 당함으로써 항쟁이 쇠퇴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한계성으로 농민항쟁은 실패하였지만, 그 의의는 적지 않았다. 민의 저항은 이후의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역간의 계서적 지배질서로 이루어진 대읍중심의 군현체제가 해체되어 가고, 本貫制의 질서에 기반한 屬人主義의 인수취방식에서 貢戶制의 실시 등을 통한 屬地主義 수취방식으로 전환 등은 민의 저항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주민이 일반 주현의 주민에 비해 차별되었던 향·소·부곡도 빠른 속도로 없어지게 되었고, 잔존한 경우라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별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광범위한 아래로부터의 민의 저항이 있음으로써 무신쿠테타와 같은 정치체제의 변동도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이의민, 최충헌과 같은 무신정권의 일각이 허위적이거나, 대민 개혁안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지배층의 양보에 불과한 것이었다.⁶¹⁾ 나아가 무신정권시대의 지식인의 일부가 현실과 유리된 채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학문과 예술을 반대하고 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의 교화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한 것이나 고려말의 신흥사대부들이 농업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민의 안정화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지주-전호관계에 바탕한 주자학의 논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은 민의 저항에 따른 지배층의 대응논리의 모색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간섭기하에서의 일련의 改革政治⁶²⁾도 밑으로부터의 민의 광범위한 요구를 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개량적인 부분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름없는 민들의 활동은 외압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다만 전근대 고려사회에서 이들 민들이 지배체제에 매몰되어 독자적 계급의식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저항의 성과물은 항상 국가와 지배층에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국가, 지배층에 의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만 왜곡 변형되어 인식되곤 하였다.

第2節 桐華·符仁 兩寺를 비롯한 僧侶들의 抗爭과 中央軍의 戰術·戰略

I. 武臣政權期の 佛教界 動向

고려 초기 이래의 敎·禪宗 모든 사원의 존립과 성장은 직·간접으로 국가권력 및 집권계층과의 관계에 의하여 좌우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무신난으로 인해 왕실과 집권계층의

61) 이에 대해서는 朴宗基, 앞의 논문, 1991 참조.

62) 이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7에 수록된 ‘공동연구’(14세기 민의 동향과 개혁정치) 1992참조.

일원이었던 문반층의 정치적 부침은 그들과 연계되어 있던 사원의 성쇠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다.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도 사원과 관계를 가져 사원의 경제력과 무력적인 자원을 정권의 유지와 권력의 장악에 이용하는 상황이었다.⁶³⁾

신종 5년(1202) 10월의 부인·동화·양사 승려들의 항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무신난이후 李高·李義方·鄭仲夫·慶大升·李義旼 등의 무신집정자들과 당시 사원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협력과 대립 및 갈등 등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⁶⁴⁾ 무신난을 주도하였던 이고와 이의방은 정중부와 함께 壁上功臣이 되어⁶⁵⁾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무신정권은 성립 당초부터 난을 주도하여 권력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여서 정권의 연합적 성격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신성분도 다양하여⁶⁶⁾ 그 내부에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전개될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이고에서 이의민에 이르는 집정자의 교체가 행하여졌다.

명종 1년(1170) 1월 이의방과 蔡元에 의해 이고가 제거되었다.⁶⁷⁾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고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차 난을 도모할 때 惡小와 法雲寺의 승 修惠·開國寺의 승 玄素 등의 승도들을 동원하였다⁶⁸⁾는 것이다. 여기서 무신난 직후 전개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원세력이 특정 세력과 연계되어 권력투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의방과 사원세력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⁶⁹⁾ 이는 “궁궐에 화재가 나서 諸寺僧 및 府衛軍이 궁궐에 가서 불을 끄려 하는데, 정중부·이의방 등이 변이 있을까 두려워 하여 紫城門을 닫고 들이지 않았다. 궁궐이 모두 불타니 왕이 山呼亭에 나와 통곡하였다”⁷⁰⁾ 라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의방과 교종계통 사원의 승려와의 무력충돌이 있었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歸法寺僧 백여인이 복문을 침범하여 宣諭僧錄 彦宣을 죽였다. 이의방이 군사 천여명을 거느리고 가서 격살하여 수십명의 승려를 죽이니, 그 나머지는 다 흩어져 가버렸으며, 병졸들도 역시 사상자가 많았다. 重光·

63) 金鍾國, 〈고려무신정권과 승도의 대립 항쟁에 관한 일고찰〉 《조선학보》 21·22, 1961, pp. 579~587.

64) 이하의 서술은 金鍾國, 앞의 논문, 1961과 金光植, 〈무신난 전후의 사원동향〉 《고려 최씨무신정권의 불교계 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92 등에 힘입은 바 크다.

65) 《고려사》 권 19, 명종 즉위년 10월 경술.

66) 金塘澤, 〈이의민정권의 성격〉 《고려무인정권연구》 1987, p. 14의 표 참조.

67) 《고려사》 권 128, 열전 이의방.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1년 1월.

68)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1년 1월.

69) 金光植, 앞의 논문, 1992, pp. 22~23.

70)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1년 10월.

弘護·歸法·弘化 諸寺僧 이천여인이 성의 동문에 집결하므로 문을 폐쇄하니, 성밖의 민가를 불태워서 崇仁門을 연소시키고 들어가 의방형제를 죽이고자 하였다. 의방이 이것을 알고 府兵을 징집하여 쫓아버리고 승 백여명을 참살하였는데 부병도 역시 죽은 자가 많았다. 이에 부병을 시켜서 分守城門하고 승의 출입을 금하고 부병을 보내어 重光·弘護·歸法·龍興·妙智·福興 등의 사찰을 파괴하니 李俊儀가 말리었다. 의방이 노하여 말하기를 “만약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그 절을 불태우고 재물과 기명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니, 승도들이 중도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쳐서 빼앗아 갔으며 부병도 역시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⁷¹⁾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귀법사·중광사·홍호사·홍화사·용흥사·묘지사·복흥사 등 교종계통⁷²⁾의 2천 여명의 승도와 이의방의 부병들이 일대 혈전을 전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귀법사 승려 백여명이 승려와 사원을 관장하는 僧錄司의 宣諭僧錄 彦宣을 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이의방의 대사원정책에 대한 불만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의방이 ‘貨財器皿’을 빼앗아 간 상황을 통해 경제적 요인도 내재되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의방정권에 의하여 존립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이들 사원세력의 절박한 현실과 이준의가 이의방의 정치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⁷³⁾ “왕을 살해하고 그 第宅과 姬妾을 빼앗은 것, 태후의 여제를 협간한 것, 그리고 국정을 천단한 것”에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이의방에 대한 세간의 불만이었을 것이고 사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 바 컸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건은 이들 사원과 연계되어 있었던 왕실과 문신들이 무신난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종계통 사원들은 사원존립을 위하여 이의방을 제거하려 하였고, 그 또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⁷⁴⁾

이의방과 교종사원과의 충돌과 아울러 교종계통이 아닌 여타의 사원세력의 동향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런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명종 1년 9월의 天台宗 계열의 德素의 王師 책봉과⁷⁵⁾ 內侍 鄭仲壺가 僧科 禪選을 주관하였다는 사실⁷⁶⁾을 들 수 있다. 이는

71) 앞의 책, 권 12, 명종 4년 1월.

72) 閔賢九,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음기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36, 1973, pp. 28~29.

73) 《고려사》 권 128, 열전 이의방.

74) 金鍾國, 앞의 논문, 1961, pp. 580~581.

75) 《고려사》 권 19, 명종 1년 9월 계미.

〈寧國寺圓覺國師碑銘〉 《朝鮮金石總覽》 상, p. 400

76) 〈故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東國李相國集》 권 35.

교종계통 사원세력의 움직임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명종과 이의방의 사원정책이 기득권적인 교종계통의 사원에서 변동되어 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명종이 普濟寺에 행차하고 兩府宰樞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우재를 행하게 하였다는 것⁷⁷⁾에서 선종계통의 보제사가 명종 및 왕실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명종 1년 태자(강종)의 胎藏地로 경북 예천의 선종 사굴산문 龍門寺 주위가 설정되자, 용문사에서 명종의 축성수법회가 개최되고 田·民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데,⁷⁸⁾ 이 또한 왕실과 선종사원과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인 것이다.

그렇지만 명종과 천태종·선종과의 유대관계는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덕소의 왕사 책봉과 관련된 “碩德을 얻어 이로써 師範으로 생각하였으나, 聖意는 함부로 自專乃擇할 수 없어 禪敎 耆舊宿德들이 各封其名하여 불상 앞에 놓은 것을 부복 기도한 연후에 取一封하였다”⁷⁹⁾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즉 왕사를 선택할 때 교·선종의 원로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왕사의 선정을 신중히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명종의 미약한 왕권의 실상과 함께 사원세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한편 정중부는 명종 4년 9월에 일어난 조위충의 난의 진압에 참여한 사원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이의방을 제거하였다. 이는 “의방이 우연히 宣義門을 나가자 鄭筠이 從軍하고 있던 승려 종감 등을 비밀리 달래어 호소하여 요구할 것이 있다고 청탁하고 의방의 뒤를 따라 가다가 틈을 보아 참살하고 俊儀 형제와 高得元·柳允元 등을 모두 살해하였다. 왕은 軍中이 驚擾할까 염려하여 庾應圭를 보내어 타일렀으나, 군중은 모두 문신들이 승도를 사주하여 변을 일으킨 것이라고 의심하여 尹鱗瞻을 죽이고자 하였다. 응규가 돌아와서 보고하자 정중부가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설명하였더니, 그런 연후에야 군중의 소란이 그쳤다. 승도들이 ‘적신의 딸로 동궁의 배우자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의방의 딸을 내쫓을 것을 주청하고 보제사에 모여서 출발하지 않았는데 린첨 등은 드디어 떠나갔다”⁸⁰⁾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즉 정중부의 아들 정균은 종군승으로 참여한 종감의 힘을 이용하여 이의방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정균과 종감의 이의방 제거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다고 하며, 정균이 종감에게 사건에

77) 《고려사》 권 19, 명종 2년 11월 갑술, 3년 4월 경진.

78) 〈醴泉龍門寺重修碑〉《한국금석전문》중세하, pp. 872~874.

79) 〈寧國寺圓覺國師碑〉《조선금석총람》상, p. 400.

80)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4년 12월.

대한 동조와 준비를 시킨 것은 종감으로 대표되는 사원의 무력적 기반을 이용함과 아울러 명종의 지원을 유도하였던 것으로⁸¹⁾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종감의 승도들은 보제사와 직·간접으로 연고가 있거나 혹은 왕실과 연고가 있는 사원의 승도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 진압군의 일원이었던 하급 군인들은 정균이 이의방을 제거한 것에 대하여 ‘문신들이 승도들을 사주하여 변을 일으킨 것’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 사원과 문신과의 유대관계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고려시대의 불교는 裨補寺院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통치를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國師와 王師制度⁸²⁾의 운영이라든가, 국가로부터 田과 民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러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의방의 불교계의 탄압은 그와 같은 불교계의 존립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의방을 제외한 여타의 세력들은 국가존립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이의방을 제거하는데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력의 구심점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전위 부대로서의 무력을 제공하였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의방의 제거라는 동일한 목적에서 공동 행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명종과 정중부는 본질적으로 상호 조화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명종으로서는 왕권을 행사하려는 반면 정중부로서는 이의방을 대신하여 집권자로서 통치를 주도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명종과 정중부와의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은 이러한 현실적 이해의 상반에서 비롯되고 전개되어 갔다. 이는 “시중 정중부가 보제사를 중수하고 落成會를 베풀어 왕에게 臨幸하기를 청하니 有司가 간하여 못가게 하자, 중부가 가만히 僧錄司로 하여금 親幸하기를 주청하게 하고 盛饌을 갖추어 올리게 하였다. 왕이 久留하기를 싫어 하여 宰樞·承宣·侍臣들로 하여금 동시에 赴宴케 하였다”⁸³⁾는 명종과 정중부가 보제사 낙성회를 대하는 태도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 정중부가 선종의 보제사 중수를 통한 낙성식에 명종을 초치한 것은 보제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정치적으로 보강하려는 의도라 하겠으며, 더욱이 명종의 초치를 위하여 사원정책의 담당관청인 승록사까지 동원함을 보면 정중부가 대사원정책에서 선종 계통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려 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1) 金光植, 앞의 논문, 1992, pp. 27~28.

82) 許興植, 〈국사·왕사제도와 그 기능〉《고려불교사연구》, 1986.

83)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5년 11월.

명종은 왕실출신이라는데서, 기존 왕실과 교종계통 사원과의 기본적인 유대를 유지하였다. 왕의 아우인 冲曦는 華嚴宗의 僧統으로서 홍왕사에 주지하며 정치에 간여하였는데, 이는 “명종은 즉위 이래 지성껏 태후를 섬기고 宗戚들에게 敦睦하였다. 태후가 乳種을 앓게 되어 아우 승인 冲曦를 불러 侍病하게 하였더니, 희가 多亂宮女하고 또 공주를 간통하여 더러운 소문이 외부에 들렸다. 右司諫 崔誨이 상소하여 희의 추잡한 행위를 슬며시 돌려 말하고 내보내기를 청하니 왕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뜻밖에 사간이 우리 형제를 이간한다’하고 드디어 선을 파면시켰다. 그뒤로부터는 대간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朝臣들은 모두 희에게 아부하여 賄賂가 공공연히 행하여졌다”⁸⁴⁾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충의의 권력행사는 자연 당시 권력자였던 정중부와 갈등을 노출시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명종 7년 2월의 승통 충희와 홍왕사 승도와와 관련된 찬역음모와 관련된 홍왕사 승려의 고변이라든가,⁸⁵⁾ 다음해 1월에 역시 홍왕사 승려와 散員 高子章이 관련된 반란 음모를 홍왕사 승려가 重房에 고변한 행동⁸⁶⁾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명종은 8년에 중수된 龍巖寺와 낙성된 龍壽寺를 적극 후원하였다. 용암사는 명종 4년 手詔를 내려 조위종의 난을 佛力에 의해 극복하기 위해 중수하기로 한 사원으로, 명종의 적극적인 경제적 후원으로 중수되고 명종비의 천복을 비는 사원이 되었다. 용수사는 태백산 覺華寺의 屬庵으로 대각국사 의천의 嫡嗣였던 戒膺의 法孫들이 주지한 화엄종계통의 사원이었는데 의종 사후에는 그의 眞殿寺院⁸⁷⁾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용수사의 중창에 명종은 다향과 경찬사소를 보내 700명의 승려들을 초치함과 동시에 화엄법회 겸 낙성식을 열도록 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다.⁸⁸⁾ 이와 같은 명종의 입장은 정중부가 보제사를 중수하고 선종계통의 사원과 유대를 가지려 했던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암사와 용수사의 중창과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실무는 화엄종 승려인 雲美가 깊이 관여하였고, 그는 최충헌 등장 이후 개경에서 퇴거하였음⁸⁹⁾을 통해 그와 명종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용암사·용수사와 명종과의 긴밀성으로 보아 이 시기의 명종은 화엄종계통의 사원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84) 앞의 책, 권 12, 명종 10년 6월.

85) 위의 책, 권 12 명종 7년 2월.

86) 위의 책, 권 12 명종 8년 1월.

87) 許興植, 〈불교와 융합된 왕실의 조상숭배〉 앞의 책, 1986.

88) 許興植, 〈龍壽寺 開創記〉 앞의 책, 1986.

89) 《고려사절요》 권 13, 명종 26년 5월.

것처럼 명종과 정중부 사이에 지원한 사원세력이 각기 달랐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의 갈등은 그 깊이를 더하였을 것이다.

명종과 정중부 양편이 사원에 대해 관심과 기대치가 컸던 것은 이고·이의방·정중부 등이 권력장악과 정적의 제거에 사원의 무장세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사원이 당시 독자적인 무력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울러 정치적 변동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명종 6년 1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등의 봉기가 있었을 때 관군으로서 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자 병마사가 ‘與南賊戰不利 士卒多亡 請募僧以濟師’⁹⁰⁾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의 무력적 기반으로서의 사원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명종 9년(1179) 9월 경대승은 정중부를 제거하고 집권무인이 되었다. 그는 정권장악의 대의명분을 사직의 호위에 두었다고 했지만, 단순히 왕실과 왕권을 호위하겠다는 목적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인들의 불법한 행동에 불만을 품고 ‘復古’의 뜻으로 정중부를 제거하였다고 하였다.⁹¹⁾ 복고라는 것은 무신난이전의 기존 질서에 대한 긍정과 함께 무신난으로 인한 무신정권의 부정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신난으로 야기된 모든 변화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무신난의 결과 왕위에 오른 명종의 왕으로서의 존재도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무신난 이전의 질서를 옹호하여 사직을 지키겠다는 것이 경대승의 정중부제거의 명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명분은 사원정책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명종 10년 7월 정중부의 권력장악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선종계통으로 파악되는 종감 등 10여명의 승려를 해도로 유배하였다. 그리고 명종 10년 10월에는 고려국가 燃燈會의 개최지로서 국가와 왕실과 밀접한 연고를 지녔던 奉恩寺가 중수되어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원정책은 명종이나 이전 무신집정자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무신난 이래의 사망자의 영혼을 위한 화엄법회를 개최하였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신난으로 희생된 대상들이 대부분 문신들이고, 그 행사를 화엄종계통의 사원으로 이해되는 弘圓寺에서 거행하였던 것으로 그는 정중부와 달리 교종중심의 정책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90) 《고려사》 권 19, 명종 6년 3월.

91) 위의 책, 권 100, 열전 경대승.

그리고 명종 11년(1181) 1월 寫經院에서 銀字藏經을 간행하였는데⁹²⁾ 불경이 기본적으로 교종불교와 직결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로서도 그의 사원정책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명종 10년 7월 재추와 중방 그리고 대간이 봉은사에 모여 시장의 물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던 것⁹³⁾이나, 중방의 원당을 海安寺로 한 일,⁹⁴⁾ 仁王道場을 內觀殿에 설치하고 무신난이래 최초의 飯僧을 행하였다⁹⁵⁾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사원정책은 사직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전하겠다는 정치운용의 의지와 궤를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권수호를 위한 무력세력으로 이용하는 자세를 떠나 불교계는 국가를 비보하는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집단으로 두고자 하여 그들을 후원하고 국가의 통제력하에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⁹⁶⁾

이의민은 명종 13년 7월 경대승 사후 명종의 초치로 일약 무인집권자로 등장하였다. 경대승이 집권하여 의종의 시해자와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 하였을 때 그는 고향인 경주로 내려가서 족당세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명종이 그가 경주에서 난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고위 관직을 제수하고 개경으로 초치하였다. 이의민의 초치후 13년 9월경 太史가 내란이 있을까 염려하여 光岩寺와 攄持寺에서 佛頂消災道場과 明仁殿에서 仁王經을 강하여 재앙을 물리치기를 청하였다.⁹⁷⁾ 이를 보면 당시 명종의 정치적 불안의 소지와 그 해결책이 불사와 깊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종의 불교관은 17년 9월경의 전주의 요승 日巖을 개경의 天壽寺로 초치하는 과정에서나,⁹⁸⁾ 그의 서자들을 체발하고 사원에 거주케 하였음에도 잘 나타난다. 그들로 하여금 유명 사원에 거주케 한 것은 그 해당 사원의 관리 및 통제를 小君⁹⁹⁾으로 하여금 장악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사원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출입하여 정치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조정의 다수가 그들과 밀착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군의 사원 거주는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정상적이지 못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원의 무력적 기초를 인식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92) 앞의 책, 권 20, 명종 11년 1월 신해.

93) 《고려사절요》 권 12, 명종 10년 7월.

94) 위의 책, 권 12, 명종 10년 11월, 11년 12월.

95) 위의 책, 권 12, 명종 11년 10월.

96) 金光植, 앞의 논문, 1992, p. 38.

97) 《고려사절요》 권 13, 명종 13년 9월.

98) 위의 책, 권 13, 명종 17년 9월.

99) 許興植, 〈고려시대 소군의 신분상 특성〉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이와 같이 이의민 집권기에 명종은 소군들을 내세워 사원과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다.

반면 이의민도 독자적인 사원정책을 운용하였다. 당시 그의 아들 李至榮은 벽란도에서의 무역 및 국내 물품반입의 거점의 상업적 이익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가진 普達院을 원찰로 경영하였다.¹⁰⁰⁾ 이는 벽란도의 경제적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願堂¹⁰¹⁾ 경영을 통한 정치자금의 축적은 그의 출신지인 경주에서 발생한 김사미 효심의 봉기에 대한 대처에서도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명종 23년 7월에 발생하였던 김사미 효심 등의 봉기에 그의 아들 이지순이 관의 토벌군으로 나아가 적에게 기밀을 제공한 댓가로 적으로부터 거만의 금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를 긍정한다면 이는 당시 그 지방 사원세력과 그의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경제적 축적의 활용과 함께 난의 조정을 통한 그의 정치력의 확대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명종과 이의민은 타협적인 관계에서 명종은 소군들을 활용한 중앙에서의 사원세력 통제에 주력하였던 반면 이의민은 경제적 축적을 위한 원당 경영과 사원세력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II. 桐華·符仁 兩寺를 비롯한 僧侶들의 抗爭과 崔忠獻의 對應

명종 26년(1196) 4월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기존의 질서와 단절하기 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재현하는 가운데 정치적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명종에게 올린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封事十條’¹⁰²⁾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당시 불교계와 관련된 내용은 6조의 “지금 한들의 승려는 山人이었는데, 일찍이 왕궁을 배회하고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도 폐하가 불교에 미혹되어 매번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중이란 자가 이미 은총을 입어 여러번 청탁을 하여 聖德을 더럽혔는데도 폐하께서는 內臣에게 명하여 三寶를 관장하게 하고 곡식으로써 이식을 늘리어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100) 《고려사》 권 128, 열전 이의민.

101) 願堂에 대해서는 韓基汶, 〈고려시대 관인의 원당〉 《대구사학》 39·40, 1990이 참고된다.

102) 《고려사》 권 129, 열전 최충헌.

《고려사절요》 권 13, 명종 26년 5월.

이에 대한 분석은 朴宗基, 앞의 논문, 1991, pp. 146~151에서 행해진 바 있어 참고된다.

받아 들이니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여러 중을 물리쳐 그들로 하여금 궁궐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이식을 늘이지 못하게 하십시오”¹⁰³⁾한 것이다.

이는 권력을 자행하는 승려들의 축출과 가혹한 이식을 통한 백성들을 괴롭힘을 근절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9조에서는 “태조대에는 산천의 順逆과 비보설로서 사찰을 세웠는데 이후에는 장상군신과 무뢰승도들이 산천의 길흉을 불문하고 원당을 남설하여 문제점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음양관이 비보에 의한 기준으로 사원의 존폐를 결정하여 후대인의 본보기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상에서 최충헌은 승려와 사원이 정치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여 야기시키는 폐단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 폐단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승려와 사원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고려초기 이래 있어 온 것이었으나, 명종대의 집정무신과 사원 왕실간의 대응 또는 협조관계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사원의 정치적 경제적 부패상은 이의민 정권기의 명종과 그의 서자 소군들의 발호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력에서 배제된 일부 지배층과 왕실이 원당을 통한 사원경영도 사원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데 상승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 불교계의 행태를 비판한 최충헌은 자연 국가와 불교계와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재설정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는 상장군 吉仁이 王輪寺 승도 등을 이끌고 그를 살해하려 한다는 승려의 고변에 參知政事 李仁成·상장군 康濟·文得呂 등 36인을 살해하고 사람을 왕륜사에 보내어 동정을 살피기도 하였다.¹⁰⁴⁾ 이는 誣告로 판명되었지만, 실제 길인은 장군 俞光 朴公襲 등과 더불어 禁軍·환관·노예 천여명을 동원하여 “지금 충헌이 난을 일으켜 죄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니 화가 장차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마땅히 각기 힘을 합하여 큰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충헌에 저항하였다. 이 사건은 최충헌에 의해 이의민 무리의 발호라고 규정되었지만, 길인과 왕륜사와의 관련을 통해 최충헌에 대한 불교계 동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는 왕자로서 승려였던 소군 洪機·洪樞·洪規 등을 本寺로 돌려 보내고, 嬖僧 雲美·存道 등을 내쫓았다.¹⁰⁵⁾

당시 불교계의 반최충헌의 입장은 다음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즉 명종 27년 9월 興王寺의 불상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려 하였을 때 홍왕사 僧統 寥一과 中書令 杜景升이

103) 《고려사》, 권 129, 열전 최충헌.

104) 위의 책, 권 129, 열전 최충헌.

105) 《고려사절요》권 13, 명종 26년 5월.

최충헌을 모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받고 이를 중지하였다는 것¹⁰⁶⁾이 그것이다. 두경승과 홍왕사 승통 요일이 결합하여 최충헌을 제거하려 하였다는 것은 두경승이라는 최충헌의 政敵과 홍왕사를 배경세력으로 한 승려가 연합한 반최충헌세력 결집의 예라 할 것이다.

최충헌 제거와 관련을 지녔던 왕륜사와 홍왕사는 교종계통의 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과도 연고가 깊었으므로, 최충헌의 사원정책에 대한 반발은 여타의 사원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발은 사원세력과 유대관계를 맺어 온 왕실과 그에 연결된 사원세력에 대한 이해관계의 재조정 내지는 최충헌이 제시한 사원정책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선종의 사굴산문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 대선사 淵湛을 포함한 10여명의 승려들을 영남지역으로 유배시키는 한편 소군 홍기 등 10여명도 역시 섬으로 축출하였다.¹⁰⁷⁾ 이는 선종 중심의 교단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고¹⁰⁸⁾ 최충헌이 우선 왕실과 명종과 유관한 중앙권력으로부터 사원세력을 정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는 명종을 폐위시키고 폐위시키고 신종 1년 1월에는 山川裨補都監을 설치하여¹⁰⁹⁾ 사원세력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 그는 사원정비의 기준으로 ‘凡裨補外 輒削去’를 제시하여 비보사찰이라는 명분을 강조하였다. 이는 왕실과 유대관계가 돈독한 일부 무신 및 교종계통의 사원들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한 모의에 관여되었음을 계기로 모든 사원을 재정비할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었다.¹¹⁰⁾

고려시대의 비보사원은 주지하듯이 태조 왕건 당시 道詆의 산천비보 및 풍수지리 사상 등에 의해 설정된 고려시대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원이었다.¹¹¹⁾ 비보사원은 국가로부터 정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그 댓가로 국가와 왕실에 이념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최충헌이 사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비보사원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106) 《고려사》 권 129, 열전 최충헌.

《고려사절요》 권 13, 명종 27년 9월.

107) 대선사 연심 등은 樞密院副使 柳得義, 상장군 高安祐, 대장군 白富公 등 12인과 함께 유배되었는데, 이들이 반최충헌세력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서도 당시 불교계 일각의 최충헌에 대한 대응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고려사절요》 권 13, 명종 27년 9월.

《고려사》 권 129, 열전 최충헌.

108) 蔡尙植, 〈13세기 신앙결사의 성립과 사상적 경향〉 《고려후기불교사연구》, 1991, p. 16.

109) 《고려사절요》 권 14, 신종 1년 5월.

이재범, 〈최씨정권의 성립과 산천비보도감〉 《성대사림》 5, 1990.

110) 金光植, 〈최씨무인정권의 사원정책〉 앞의 책, 1992, p. 80.

111) 비보사원이 지닌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李炳熙, 〈고려후기 사원경제의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 p. 21의 주) 57 참조.

명분을 내세운 것은 사원의 존립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그가 관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비보사원이라는 국초로부터 고려시대 사원존립의 당위성 및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있는 사원통제의 조건을 재천명하면서 불교계를 관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불교계는 사회적 사상적으로 큰 전환기에 처해 있었다. 무신난 이후 급격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집권무신들과의 갈등은 불교계의 진로에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또한 12세기 이래의 사상적인 변질도 불교계가 당면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던 당시의 사원세력은 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더욱 유착시켜 불교계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불교계내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의 현실은 승려들의 소행은 불법에 핑계하여 利養의 길에서 허덕이며 도덕을 닦지 않고 의식만 허비하고 있다고 단언한 知訥의 지적이나¹¹²⁾ 당시 승려의 대부분이 호의호식하면서 공경사대부라는 세력가와 긴밀히 유대관계를 갖고 사원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覺訓의 지적¹¹³⁾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최충헌의 사원정책은 사원세력을 포함한 사원세력 전체에 대하여 비보의 명분에 의한 국가지원 관계의 재설정이라는 기초위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그는 선종계통의 사원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개편하고 재야승려들을 중앙으로 흡수하였다. 최충헌과 선종계통과의 유대관계는 靜覺國師 志謙과 義陽山門의 圓眞國師 承廻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충헌은 선종출신의 지겸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다.¹¹⁴⁾ 최충헌의 지겸에 대한 지원은 그가 회종 즉위년 大禪師가 된 이후 명망이 각지에 알려지면서 각지 선회의 主盟의 요청에 선종의 宗乘을 부담하고 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濟度하는 일을 적극 수용한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한다.¹¹⁵⁾ 최충헌과 지겸의 유대는 강종 1년 당시 祖宗舊例와 釋門의 重望에 의거하여 왕사를 구할즈음 최충헌의 추천으로 왕사가 되었음을¹¹⁶⁾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충헌이 지겸을 왕사로 추천하였던 것은 최충헌의 선종우위정책에 기인하였을 것이지만,

112) 〈勸修定慧結社文〉《한국불교전서》4.

113) 〈華嚴月首座〉《보한집》하.

114) 蔡尙植, 〈고려 후기 천태종의 백련결사〉《한국사론》5, 1979, p. 116.

115) 金光植, 앞의 논문, 1992, p. 86.

116) 《고려사》권 21, 강종 2년 6월 갑신.

〈故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동국이상국집》권 35.

당시 일반화된 선회의 모임에서 중심 인물로 활약하였던 지겸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한 지겸을 최충헌체제내로 흡수하여 그 선풍을 지지하였던 선사들을 정권의 후원세력화함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최충헌과 지겸과의 유대는 최충헌이 그의 아들을 剃度시킴과 동시에 그의 문도로 만들었을 때까지 이어졌다.¹¹⁷⁾

원진국사 承廻과 최충헌과의 관계¹¹⁸⁾의 긴밀성은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그는 선대로부터 여러번 부름을 받았으나 이미 물러가 숨은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을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최충헌의 招致에 응하여 義를 고집하지 않고 속세에 내려와 王公과 士女 그리고 재상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대궐의 설법하는 자리에 나가고 재상집의 시주도 받았다. 또한 승려의 직을 주면 사양하지 않고 유명한 사찰에 있게 하면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충헌의 집권이전 불교계에서 미미한 존재였던 지겸과 승형이 최충헌과 연결되면서 최충헌은 선종중심의 사원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¹⁹⁾ 이는 그가 회종 7년(1211) 개경의 동남편에 자신의 원당인 昌福寺를 새로이 건립하여 선종의 사원으로 삼았던 사실로도 입증할 수 있다.¹²⁰⁾

한편 당시 불교계의 일부 세력은 최충헌에 대한 항쟁을 그 이전과는 달리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는 《高麗史》·《高麗史節要》의 기록에서 승도들의 본거지로서 나타나는 사원의 대부분이 화엄종·법상종 계통으로 추정되는 교종세력의¹²¹⁾ 무신정권에 대한 항쟁이 대부분 최충헌 집정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교종세력과 선종세력 일각에서도 최충헌에 대해 반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최충헌이 불교계를 재편하면서 여러 계통의 교단세력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선종세력 중에서도 일부의 특정세력 즉 지눌을 중심으로 하는 修禪社만을 기반으로 불교계를 개편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¹²²⁾는 해석이 있어 참고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개경에 소재하는 교종세력의 최충헌에 대한 저항 양상이었다. 그러한 저항은 지방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두 사례로 알 수 있다. 하나는 1202년(신종 5)

117) 〈최충헌묘지〉《조선금석총람》상, p. 445.

金光植, 앞의 논문, 1992, pp. 89~90.

118) 〈寶鏡寺住持大禪師諡圓眞國師敎書〉《동문선》 권 27.

119) 金光植, 앞의 논문, 1992, p. 92.

120) 蔡尙植, 앞의 논문, 1991, p. 17.

121) 閔賢九, 앞의 논문, 1973, pp. 28~32.

122) 蔡尙植, 위의 논문, 1991, pp. 17~18.

10월 符仁寺¹²³⁾와 桐華寺의 僧徒가 慶州의 別抄軍이 永州(영천)의 官軍과 평소에 원한이 있어 雲門의 농민저항세력을 초치하여 영주성을 공격할 때 함께 참여하였던 사실이다.¹²⁴⁾ 결과는 李克仁·堅守 등에 의해 敗走하였으며, 최충헌은 宰相과 여러 장군들을 大觀殿에 모아 의논하기를 “경주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제멋대로 행하고 이제 또 무리를 모아 인근 고을을 공격하니 마땅히 군사를 내어 토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충헌의 군사적 대응은 같은 해 12월 慶尚道按察使 池資深의 “경주가 항복하기를 청하니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장군 直門下省 金陟侯를 招討處置兵馬中道使, 대장군 崔匡義를 좌도사, 攝大將軍 康純義를 우도사로 삼아 가서 토벌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주민들은 운문산과 울진·초전의 봉기군을 모집하여 삼군으로 나누어 스스로 正國兵馬라 일컫고 주군을 달래고 협박하였다¹²⁵⁾고 한다. 이때의 경주민의 대표적 인물은 利備·勃佐 등이었으며 이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상론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1206년(신종 6) 9월 최광의가 “부인사와 興州(영주)의 浮石寺와 松生縣(청송) 雙巒寺 승려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함에 명마사에게 명하여 국문하고 섬으로 귀양보내게 하였다.¹²⁶⁾ 이 사건은 지방사원의 반란이라고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후에도 최충헌은 여러 차례 승려들의 저항을 받았다. 즉 희종 7년(1211) 12월 입궁했을 때 왕과 결탁했음이 분명한 승도와 俗人 10여명이 무기를 들고 그를 죽이려 하였음¹²⁷⁾과 高宗 4년(1217) 1월 거란병이 개경가까이 왔을 때 종군했던 洪왕·홍원·경복·왕룡·修理寺의 승도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던 사건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종세력 사원의 저항에 대한 최충헌의 대응은 회유책을 채택하기 보다는 군사적 진압으로 일관하였다.

무신정권의 성립에서 최충헌의 권력장악에 이르는 과정에서 승도들의 무신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항은 당시 불교계의 형세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었다.¹²⁸⁾ 불교를 국교로 존숭하던

123) 부인사는 현종때에 이루어진 대장경이 있던 곳으로, 〈彰聖寺眞覺國寺碑〉《조선금석총람》상, p. 531에서 화엄대종사인 千熙가 주지를 역임했음을 통해 화엄종 즉 교종사원임을 알 수 있다.

124) 《고려사절요》권 14, 신종 5년 10월.

125) 《고려사》권 100, 열전 정언진.

《고려사절요》권 14, 신종 5년 12월.

126) 《고려사절요》권 14, 신종 6년 9월.

《고려사》권 100, 열전 정언진.

127) 《고려사절요》권 14, 희종 7년 12월.

《고려사》권 129, 열전 최충헌.

128) 이하의 서술은 閔賢九, 앞의 논문, 1973, pp. 29~32를 참조하였다.

고려사회에서 사원은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존재로 지배층 가운데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원세력은 왕실의 비호를 받고 문신과 연결되어 세력을 넓히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의 사원이 무신난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명백한 일이었다. 사원과 연결된 문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소화되고, 사원을 비호하던 왕실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은 곧 사원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불교계의 무신난에 대한 반응은 승도들의 무신정권에 대한 꾸준한 항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기반과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는 사원만이 무신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승도들의 항쟁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무신정권의 집정자들로부터 군사적으로 철저히 응징당하였다.

그런데 무신정권에 대하여 항쟁한 사원세력은 그와 관련된 사원의 소속종파를 살펴볼 때 대부분이 즉 교종계 사원이라는 점에서 교종세력이 항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교종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 무신정권의 집정자들은 불교 자체내에서의 교·선의 대립도 심각하였던 만큼 교종과 대립관계였던 선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무신집정자들이 불교 밖에서 관념적 세계를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선종은 그 자체가 지니는 성격으로도 무신정권과 연결될 가능성이 컸다. 왜냐하면 선종은 경전에 의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을 통한 불교신앙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禪 자체가 무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신난 당시의 불교계의 실정과 선종이 지니는 내재적 성격 때문에 무신집정자들과 선종은 밀착되었는데, 그 관계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어 상론치 않는다.

第3節 蒙古軍의 南進과 嶺南地域

I. 高麗와 蒙古와의 接觸

13세기 초엽에 이르러 동아시아의 정국에 다시 파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몽고족이 새로이 흥기하여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몽고족은 원래 지금의 몽고평원에 자리잡고 있던 유목민족으로, 遼·金 시대에는 그 지배를 받아 왔으나, 13세기 초두에 鐵木眞(테무진)이라는

영웅이 나와 주변의 부족을 정복·통일하여 마침내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한 장본인인 철목진이 바로 1206년(회종 2) 칸(汗) 즉 황제의 지위에 올라 몽고의 태조가 된 成吉思汗(징기스칸)이었다. 당시 중국 대륙의 남부에는 南宋이 자리잡고, 북부 및 만주에 걸치는 지역에는 여진족의 금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몽고의 서쪽에는 티벳족의 일파인 당구트(黨項)족의 西夏가 있었다.¹²⁹⁾ 成吉思汗은 곧 이들 나라에 대한 정복사업을 전개하게 되고 고려도 그 파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成吉思汗의 몽고군은 먼저 서하를 복속시키고, 더욱 강대해진 세력을 남쪽의 중원지역으로 확장하여, 1211년(회종 7)에는 금나라의 정벌에 착수하였다. 몽고군은 순식간에 북부의 여러 성을 공략하고 수도인 燕京(북경)을 위협하였으며, 이에 금은 하는 수 없이 화의를 청하여 일시 난국을 모면하고 도읍을 汴京(개봉)으로 옮기는 사태가 전개되는 한편 금의 영토내에서 많은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몽고군은 1214년 5월 수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마침내 금의 수도인 中都를 함락시킴으로써 금을 정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려·몽고 양국관계의 성립은 고종 5년(1218) 이후의 일이지만, 양국이 처음으로 접촉하였던 것은 회종 7년(1211)의 일이었다. 즉 몽고는 같은 해 봄부터 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금에 파견되었던 고려의 사신단이 몽고군의 습격으로 몰살당한 사건이 그것이다.¹³⁰⁾ 고려는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금에 대한 정례적인 사신 파견을 계속하였지만, 모두 중도에서 돌아오고 만다. 금에 파견된 사신단 일행이 몽고군에 의해 피살되고 그 유골만이 돌아온 고려의 몽고와의 최초의 접촉 경험은 몽고군의 극렬한 정복전쟁 확대와 함께 고려측에 위기감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이후 고려와 몽고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고종 5년 몽고군으로부터 쫓겨서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영내로 들어와 북방지역을 노략하고 수도인 개경을 위협하기 까지 하였던 契丹遺種의 정벌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몽고가 금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수행하던 1211년 금의 지역내에서 거란인 耶律留哥는 隆安(길림성 농안현)에서 군사를 일으켜 遼王을 자칭하고 咸平(開原)에 定都한 난이 일어났다. 이후 야율 유가는 部將 耶律斯布와 충돌을 일으켜 야율유가는 몽고에 투항해 버리고 야율사포가 그를 대신하여 거란부족을 통솔하였다. 야율사포는 鄜州(만주 海城)으로 거점을 옮겨 大遼收國을

129)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高柄翹, 〈몽고·고려의 형제맹약의 성격〉《백산학보》6, 1969; 《동아교섭사의 연구》1970, pp. 137~139.

姜晋哲,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쟁〉《한국사》7, 1973, pp. 335~337.

130) 《고려사》권 21, 회종 7년 5월.

세웠으나(1216) 불과 70여일 만에 피살되고 乞奴 등이 이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들은 야율유가에 의해 인도된 몽고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開州(鳳凰城)에서 금의 공격을 받게 되자 고려의 영내로 피난하였다.

거란족의 갑작스런 입경사태에 직면한 고려정부는 급거 3군을 편성, 13령의 군과 신기군을 파견하여 이를 방어케 하였다. 이것이 1216년(고종 3) 8월 18일의 일이었다. 盧之純·吳應富·金就勵 등이 지휘하는 고려의 3군은 9월초 청천강변 朝陽鎭에 당도하여, 내려오는 적을 격파하고 이어 連州·昌州·龜州·延州·泰州 등 청천강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일단 적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적의 후속부대가 뒤이어 남하하여 계속 고려를 괴롭혔고, 고려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이들을 격파하고 이들을 동북면 이북의 여진지역으로 내몰기도 하였으나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고종 5년 9월 고려정부는 趙冲을 서북면 원수로 삼고 3군을 파견하여 이들을 공략함에 거란족들은 평양 동쪽의 江東城으로 몰려 들어가 버티었다.

한편 이 무렵 만주에서는 야율유가의 반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의 장군 蒲鮮萬奴가 오히려 그에게 패배한 후 역시 금을 배반하고 자립하였다가 다시 몽고와 야율유가의 공격을 받고는 본래의 거점이었던 東京(遼陽)으로부터 지금의 간도지방으로 옮겨 東夏라는 소국을 세웠다. 이것이 史書에 나타나는 東眞國으로서 成吉思汗은 이때가 만주지역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1218년에 哈眞(카진)·札刺(자라) 두 장군에게 명하여 동진에 대한 원정군을 파견, 萬奴를 臣從케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哈眞 등은 자신이 거느린 몽고군 1만과 助戰을 위해 동진의 萬奴가 보낸 完顏子淵의 군사 2만과 연합하여 ‘거란적을 토벌한다’고 聲言하고 고려의 동북면 지방의 和州·猛州·順州·德州의 거란족을 차례로 무찌르고 곧장 저들의 주력부대가 몰려 있는 江東城으로 향하였다.

고종 5년의 몽고군의 고려 진입은 몽고로부터 離反한 동진을 복속시킨 이후의 즉흥적인 작전이 아니었다. 몽고가 이때 고려에 진입한 명분은 고려 영내의 거란족을 함께 토벌, 고려를 돕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점은 哈眞이 “황제는 거란병이 도망하여 너의 나라에 있는지 3년이 되어도 아직 소멸치 못하므로 군사를 보내 치게한 것”¹³¹⁾ 이라는 통첩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당시 몽고군은 사전에 짜여진 일정한 계획에 의거하여 고려에 들어온 것이며, 고려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몽고군의 돌연한 고려 진입에 직면한 고려정부는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31) 앞의 책, 권 103, 열전 조충.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는 “이때의 몽고 동진이 비록 적을 파하여 우리를 구한다고 명분을 내세웠으나, 몽고는 夷狄 중에서도 가장 凶悍하고 또 일찍이 우리와의 우호관계가 없었으므로, 중외가 모두 놀라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조정의 의논 역시 결단하지 못하여 회보하지 아니하였다”¹³²⁾ 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강동성에 몰려 있던 거란족에 대해서는 고려에서도 공략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마침 큰 눈이 와서 군량미의 보급이 어렵게 된 몽고와 동진의 연합군이 고려에 식량의 원조와 함께 강동성에 대한 공동작전을 제의하여 왔다. 이때 고려정부의 대응책은 위에서 살펴본 인식 때문에 마련되지 않았지만 趙沖이 결단을 내려 군량미 천석을 보내는 한편, 이듬해 1월 김취려로 하여금 精兵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한 데 이어 자신도 합세하여 哈眞·札刺 등과 함께 강동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하여 첫 접촉을 하게 된 양국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충·김취려와 哈眞·札刺 사이에 “두 나라는 영구히 형제가 되어 만세의 자손에 이르기 까지 오늘을 잊지 말 것이다”¹³³⁾ 라는 동맹을 맺었다. 몽고가 형이 되고 고려가 동생이 되는 이른바 형제의 맹약이 맺어진 것이다. 그리고서 哈眞은 강동성에 억류되어 있던 고려인 200명과 거란인 포로 700명을 고려에 돌려 주었으며, 조충은 그 가운데 거란인 포로들을 각 도의 주현의 閑曠地에 따로 모아 살게 하였는데 그곳이 契丹場으로 불리워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려는 강동성의 전역에 몽고군이 개입하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형제맹약의 체결 역시 표면상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불과하고 실은 우세한 무력을 앞세운 몽고측의 요구에 의하는 바가 컸고, 고려는 그와 반대로 시종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이 형제맹약의 조건중에는 고려가 몽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歲貢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위해 합진이 개경으로 몽고 황제의 조서를 지닌 浦里岱完 등을 파견하였을 때 그들이 고려조정에서 취한 오만불손한 태도와 無禮에서도 그 같은 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출발한 양국의 관계가 순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132) 《고려사절요》 권 15, 고종 5년 12월.

133) 위의 책, 권 15, 고종 6년 1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말과 배경 및 성격에 대해서는 高柄翹, 앞의 논문, 1969 참조.

II. 蒙古의 高麗 侵入과 嶺南地域

고종 6년 이후 고려와 몽고와의 관계는 공물의 징구를 그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몽고는 이를 위하여 사전의 약정¹³⁴⁾에 의거하여 10인내외의 사신단을 고려에 보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고종 12년(1225) 1월 몽고 사신 著古與의 피살사건¹³⁵⁾으로 관계가 단절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몽고가 고려에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한 것은 국교 단절 7년후인 고종 18년(1231) 8월이었다. 몽고의 고려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앞서 발생한 몽고사신 저고여 피살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몽고 태종의 금조 제압을 위한 동방정략의 일환으로 미리 계획된 군사행동이었다.¹³⁶⁾ 고종 18년 撒禮塔에 의해서 자행된 몽고의 고려 침략은 동왕 46년(1259) 까지 약 30여년간 5명의 지휘관을 교차하면서 총 11회 6차에 걸쳐 행해졌다.¹³⁷⁾

총 11회 6차에 걸친 몽고의 침입은 장기간 동안에 서북면·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 전국을 전장화하였고, 몽고의 침입에 대해 고려의 여러 군현지역에서 몽고군에게 대항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는 인적·경제적 자원의 손실과 불교문화재의 손실이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영남지방이 몽고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해 저항한 것은 고종 19년(1232) 살례탑에 의한 2차 침입과 唐古에 의한 고종 22년(1235) 3차 1회·25~26년(1238~1239) 3차 3회, 그리고 車羅大에 의한 고종 41~42년(1254~1255)·42~43년(1255~1256)의 6차 1회와 2회 침입시였다. 이 가운데 고종 41년부터 시작된 몽고의 침입은 몽고의 주력부대와 대규모 부대에 의하였던 것으로 경북지역은 6차 침략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고종 18년 8월에 시작된 몽고의 침입은 충주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였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작된 고려의 화친 요청으로 이듬해 1월 개경의 몽고군이 회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때

134) 〈上都皇帝陳情狀〉《동국이상국집》권 28.

135) 《고려사》권 22, 고종 12년 1월 계미.

이 사건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동향과 해석은 尹龍麟, 〈몽고의 고려 침략〉《고려대몽항쟁사연구》1991, pp. 35~34 참조.

136) 姜晉哲, 〈몽고의 침략에 대한 항쟁〉 앞의 책, 1973, p. 342.

137) 몽고의 고려 침략은 총 11회였지만, 고종 22년(1235)에서 26년까지 3회에 걸친 唐古의 침입과 41년(1254)에서 46년까지 4회에 걸친 車羅大의 침입을 하나로 묶는다면 6회였다고 한다.(尹龍麟, 앞의 논문, 1991, pp. 40~41.)

몽고의 침입으로 北界의 여러 성이 공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군사적 방어전선인 이들 여러 성에는 몽고의 達魯花赤이 分遣됨으로써 고려의 군사적 울타리는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고려는 몽고군의 철군직후 典牧司의 재추회의에서 천도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 하였으며,¹³⁸⁾ 6월 16일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江華로의 遷都가 결정되었다.¹³⁹⁾ 최이가 많은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천도를 강행하게 된 저의에는 몽고의 재침을 막을 묘책이 없었던 것과 또 몽병의 제 1 차 침입이후 草賊과 地方叛民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따른 불안이 천도배경으로 지적되기도 하며,¹⁴⁰⁾ 최이와 그 추종자들에 의한 천도의 결정에는 고종 6년 강동성 전투이후 몽고가 고려에 대해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무례한 행동이 고려의 반몽의식을 자극시킨 점과 몽고의 가혹한 경제적 징구와 군사의 조달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징구, 그리고 몽고에 의해 고려에 설치된 達魯花赤의 존재 등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¹⁴¹⁾

고려의 강화천도와 천도작업이 진행중이던 고종 19년 7월 內侍 尹復昌을 북계에 파견하여 몽고에 의해 설치되었던 達魯花赤의 무장을 해제하려 하였음¹⁴²⁾과 8월에 西京巡撫使 閔曦가 司錄 崔滋溫 등과 더불어 達魯花赤의 사살을 모의하는¹⁴³⁾ 등 몽고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몽고의 태종은 같은 해 8월 살레탐에게 재차 고려 침략을 명령하였다. 8월 부터 시작된 살레탐의 고려 침략은 洪福源 같은 附蒙分子의 영합에 힘입어 고려의 서북부 지역을 점거하였지만, 이후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유보하면서 자주 江都에 사자를 파견하여 達魯花赤 포박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東眞國 征討에 대한 助征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명분이었을 뿐이고 그들 요구의 핵심은 江都政府의 還都와 그 선행조치로서 국왕과 최이의 入朝 혹은 出陸에 있었다.

살레탐의 몽고군이 아직 북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이미 몽고군의 일부는 고려의 내륙 깊숙히 내려와 寇掠을 서슴치 않았다. 이때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은 符印寺, 安東, 海平,

138) 《고려사》 권 23, 고종 19년 2월 신미.

139) 강화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金庠基, 〈삼별초와 그의 난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1948.

金潤坤, 〈강화천도의 배경에 관해서〉 《대구사학》 15·16합집, 1978.

尹龍燦, 〈대몽항쟁과 강도시대의 전개〉 앞의 책, 1991 등.

140) 金潤坤, 앞의 논문, 1978, p. 97.

한편 金庠基는 천도를 결정하게 된 것이 고종 19년 3월 몽고에 파견되었던 사신단 중의 1인이었던 宋立章이 고려에 逃歸하여 몽고 내침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에 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pp. 124~125.)

141) 尹龍燦, 앞의 논문, 1991, pp. 147~149.

142) 《고려사》 권 23, 고종 19년 7월.

143) 위의 책, 권 23, 고종 19년 8월 기유.

慶州, 尚州, 大邱, 玄風 등이 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들만이 몽고의 침략의 피해를 입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몽고군이 이들 지역을 침략할 때 상업,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여행, 공물의 수송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 특히 중요하게 이용되는 육상교통로인 驛道¹⁴⁴⁾를 이용했을 것이라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몽고군이 침략한 경북지역은 육로를 통해 경북지역을 통하는 大院嶺, 鳥嶺, 竹嶺으로부터 상기된 경북지역에 이르는 주변지역도 해당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고 침략기의 기록이 대체로 소략하여¹⁴⁵⁾ 경북지역 외에 몽고의 침략을 입은 지역과 그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때 저들이 경유하는 곳의 佛像·梵書는 모두 불태워졌다고 한다.¹⁴⁶⁾ 특히 현종조 대거란 전쟁기에 제작되어 팔공산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소위 1차 대장경도 이때 소실되었다. 현재 팔공산 부인사터에는 통일신라기에 제작된 동서 쌍탑의 석탑을 비롯하여 석등·당간지주 등 각종 석제 조형물들과 초석·長臺石 등의 석재가 유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여서 몽고군에 의해 얼마나 철저히 유린되었는지를 보여 준다.¹⁴⁷⁾ 몽고군에 의한 대장경의 소실은 그들이 아마도 八公山頂의 公山城으로 入保하던 인근의 군현민들을 추적하던 중 부인사에 이르러 노략하며 불태운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¹⁴⁸⁾

몽고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1차 대장경이 소실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인사의 저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저항의 실상을 알려주는 사료는 없지만, 神宗 5년(1202) 10월 경주 별초군의 永州(영천) 공격시 이에 가담하였던 부인사와 동화사의 승도의 존재와 고려의 사원이 僧兵이란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符印寺 승려들은 1차 대장경의 보호와 사원의 재산과 승려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몽고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 민족수호정신에서 저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몽고에 대한 저항의 실패로 1차 대장경은 소실되고 팔공산 주위의 불교문화재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144) 고려시대의 驛道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金潤坤, 〈경북지방의 역참과 조운〉 《경상북도사》 상, 1983, p. 527의 ‘고려시대 역도’.

劉善浩, 〈고려시대 역도 분석〉 《장충식박사화갑기념논총》, 1992.

145) 尹龍燦, 〈고려시대 사료량의 시기별 대비〉 《공주사대논문집》 24, 1986.

146) 〈大藏刻板君臣祈告文〉 《동국이상국집》 권 25.

147) 符印寺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鄭永鎬, 〈팔공산부인사〉 《고고미술》 5, 1960.

秦弘燮, 〈팔공산 부인사지의 조사〉 《고고미술》 53, 1964.

慶北大博物館, 《경상북도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1, 1980.

_____, 《부인사지표조사보고서》 1986 등.

148) 尹龍燦, 〈몽고의 고려 침략〉 앞의 책, 1991, p. 60.

것은 아닌가 한다.

경북지역을 유린한 몽고군의 선발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인사에 까지 이르렀는지 사료의 소략으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중요 교통로이며 군사적 목적에 유용하게 이용되던 驛道를 통해 대구지역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몽고군의 선발대는 聞慶-尙州-洛東-上林-凡於-大邱 경로를 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같은 해 12월 處仁城(용인군 남사면)전투에서 金允侯와 處仁部曲民들에 의해 살해됨이 살해되는 등 결정적 타격을 받고 副將 鐵哥의 지휘로 철군하였던 몽고군은 고종 21년(1234) 拔都·貴由 등의 유럽제국, 皇子 潤端·曲出 등의 南宋征伐과 함께 이듬해 7월 唐古에 의한 고려의 3차 침략을 추진하였다. 이때에 침략한 몽고군의 한 부대가 약 2개월후에 경북지역을 침략하였다. 그것은 동년 9월 중순경에 몽고군이 안동에서 경주로 향한 사실¹⁴⁹⁾과 일주일 이후 해평에서 여·몽간에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¹⁵⁰⁾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종 22년 9월 중순경 안동과 해평에 나타난 몽고군은 주력부대가 아닌 그 선발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왕 22년 7월에 침략한 唐古의 주력부대가 대동강 이북지역을 점령한 이후 9·10월경에는 대동강 이남 서해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지역적으로 동떨어진 안동과 해평 지역에 나타난 몽고군을 그 주력부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안동에서 경주로 향하던 몽고군은 경주까지 이르지 못하고 해평지역을 공략하였던 것 같다.¹⁵¹⁾ 이때 몽고군은 당시 驛道인 안동에서 해평을 통하는 丹陽-竹嶺-榮州-安東, 安東-長守-海平의 두 경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몽고군의 해평공략시에 저항이 있었음은 “李裕貞 등이 몽고병을 海平에서 치다가 패하여 一軍이 모두 陷沒되었다”¹⁵²⁾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때의 이유정은 崔瑀의 都房 夜別抄 都領으로서 스스로 적을 치겠다고 하여 군사 160명과 함께 파견되었던 인물이다.¹⁵³⁾ 그의 파견이

149) 《고려사》 권 23, 고종 22년 9월 신미.

150) 위의 책, 권 23, 고종 22년 9월 무인. 그런데 고종 22년 9월 신미와 무인의 기록은 몽고의 3차 침략이 제 3년 혹은 4년의 사실로서 추정하고 있다(池內宏, 〈몽고의 고려정벌〉 《만선사연구》 중세 3). 그러나 尹龍麟은 이때 경상도에 침략한 몽고군은 당고가 지휘한 본군이 아니라 그 선봉부대였던 사실과 이유정의 파견이 고종 20년 8월 신헌로서 해평에서 전투가 벌어진 시기와 거의 1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기왕의 몽고군 전략형태에서 그 선발대가 경상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때 몽고군의 경상도 침입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앞의 논문, 1991, pp. 67~69)고 하였다.

151) 尹龍麟, 앞의 논문, 1991, p. 67.

152) 《고려사》 권 23, 고종 22년 9월 무인.

153) 위의 책, 권 23, 고종 22년 8월 신헌.

비록 영남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의 보호와 확보, 영남지역민의 山城入保와 방비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몽고군을 치겠다고 자청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그와 160명의 죽음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이유정 등 160명의 항전이었지만, 여기에는 해평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민들의 가세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평전투는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와 지방 군현민의 협조와 연합에 의한 대몽항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¹⁵⁴⁾

다시 경북지역이 몽고의 침략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고종 25년(1238) 3차 3회 때이다. 그것은 같은 해 겨울 경주 소재의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⁵⁵⁾ 이때 경주에 남침한 몽고군은 익년 2월까지 경상도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李奎報의 詩 “2월 몽고군이 아직 남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二月虜兵有在南)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몽고군은 2~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 주둔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경주와 그 주변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경주지역에 남침한 몽고군이 어떤 역도를 이용하였는지 사료의 부족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고종 22년 9월 몽고군이 長守에서 북상하면서 익혀 두었던 노선을 역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때 몽고군이 경주를 침략한 노선은 충주-상주-해평-장수-경주의 경로라고 할 수 있겠다.

몽고의 2차·3차 침략때 부분적이고 비주력부대에 의해서 寇掠을 당하였고, 4차·5차 때는 직접적인 寇掠을 면하였던 경북지역이 6차 때는 車羅大의 주력부대에 의하여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침략을 당하였다. 그것은 몽고군이 경상도에 진입한 10월 大廟에 祈告한 “백성은 勢가 궁하여 死者는 해골을 묻지 못하며 生者는 노예가 되어 부자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처자가 서로 보존하지 못한다”¹⁵⁶⁾, “諸道郡縣의 山城과 海島에 入保한 자들을 모두 出陸케 할 때 공산성에 입보한 백성들이 굶어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¹⁵⁷⁾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경상도 지역에 침략한 몽고군의 남침경로와 그 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2·3차 때와 달리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는 차라대의 주력부대가 경북지역으로 남침하기 직전인 고종 41년 9월부터 북상하는 익년

154) 金皓東, 앞의 논문, 1990, pp. 103~108.

155) 《고려사》 권 23, 고종 25년 윤4월.

《삼국유사》 권 3, 탑상 제 4 황룡사 9층탑에서는 ‘고종 16년 무술 冬月’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두 자료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무술은 고종 25년의 간지이므로 《고려사》의 기록을 따르고, 같은 해 9월이후 몽고군이 남진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따라야 한다.(尹龍燦, 앞의 논문, 1991, pp. 74~78.)

156) 《고려사》 권 24, 고종 41년 10월

157) 위의 책, 권 24, 고종 42년 3월 병오.

정월까지 《고려사》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몽고군은 고종 41년 9월 충주산성의 공략에 실패한 다음 상주로, 10월에는 상주에서는 黃嶺寺僧 洪之의 공격으로 대패한 다음 대구로, 12월경에는 陝州·丹溪(경남 산청)지역에 주둔하였다가 다음해 정월 북상하였다. 이러한 몽고군의 남진과정을 통해 그들은 충주-상주-대구-협주 단계의 노선을 이용하였음과 차라대의 주력부대는 3~4개월 이상 경상도 지역에 머물렀음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몽고군의 병력 규모는 수천명이나 되는 대규모 부대였는데, 이는 차라대가 압록강을 건널 때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들 병력은 충주산성 전투에서 타격을 입었을 것이나, 상주를 침략할 때 계속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몽고의 경상도 침략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몽고군의 상주침략시 상주민들의 저항은 “車羅大가 尚州山城을 치거늘 黃嶺寺僧 洪之가 第四官人을 사살하고 士卒의 죽은 자도 過半數나 되매 드디어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¹⁵⁸⁾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때의 상주산성은 상주지역의 대표적 산성이었던 白華山城과 屏風山城 가운데 방어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주민의 入保處였던 백화산성이었다고 한다. 상주산성에서의 저항은 지역민들의 순수한 자위적 항전이었다는 점과 지휘자가 관리가 아닌 현지의 승려였다는 점 그리고 전투의 결과가 매우 큰 승리로 귀착되었다는 점 등에서 고종 19년(1232)의 처인성 전투와 더불어 높이 평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¹⁵⁹⁾

고종 41년 이후 경북지역은 또 한 차례 몽고의 대규모 병력에 의하여 寇掠을 당하였다. 이는 “몽고병이 大院嶺을 넘으니 충주에서 정예한 군사를 내어서 천여명을 추격하여 사살하였다”¹⁶⁰⁾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大院嶺은 죽령·조령 등과 더불어 충청도와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따라서 몽고군이 대원령을 넘었다는 것은 곧 경북지역에 대한 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원령을 넘었던 몽고군의 경북지역 침입실상은 다음해 4월 초순 현풍현 사람들이 40여척의 배로 몽고병의 병란을 피하다가 약탈, 피납된 사실¹⁶¹⁾에서 알 수 있다. 몽고군이 대원령을 넘은 이후 경북지역에서 이들이 기록에서 나타나고 않고 있다가 이때 현풍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시기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풍지역에 나타난 이들이 대원령을 넘은

158) 앞의 책, 권 24, 고종 41년 10월 무자.

159) 金皓東, 앞의 논문, 1990, pp. 108~112.

尹龍燦, 〈고려의 몽고에 대한 항전〉 앞의 책, 1991, pp. 312~316.

160) 《고려사》 권 24, 고종 42년 10월 을축.

161) 위의 책, 권 24, 고종 43년 4월 무진.

몽고군과 동일한 부대였다¹⁶²⁾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몽고군이 현풍지방을 침략한 노선은 충주-대원령-문경-현풍의 경로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대원령에서 충주 군사에게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고군이 계속 현풍지방으로 남침한 것을 보면 이때 현풍지역을 침략한 몽고군은 천명이상의 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이들 몽고군이 대원령을 넘으면서 숫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면 계속 남침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대원령을 넘어 현풍지방으로 침략한 몽고군의 규모는 수천여명 이상의 대병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몽고군은 약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경북지역에 주둔하면서 약탈을 자행했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경북지역의 접경지인 대원령을 넘은 시기가 42년 10월인데 현풍에 나타난 것은 익년 4월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대원령을 넘어 경북의 현풍지역으로 남침한 몽고군은 다수의 병력이었으나, 주력부대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몽고군이 현풍에 나타난 고종 43년 4월 초순경은 몽고군의 주장인 차라대가 전라도 지역을 주로 공격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몽고군의 경북지역 침략개황과 그에 대한 저항사례와 몽고침입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각 시기별로 살펴 보았다. 그 가운데 특히 차라대에 의한 6차 침입시 몽고의 주력부대와 대규모 병력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침략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불교문화재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몽고군들이 고려를 침략할 때 마다 유독 불교문화재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에 대해 “그것은 그들의 성격이 잔인·흉폭·우매·혼미하여 불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¹⁶³⁾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생각되지만, 오히려 고려의 사원이 지닌 경제력과 관련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고려의 사원은 국가와 정권의 담당자와 당시의 지배집단으로부터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기진반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고군은 그들의 군사적·경제적 목적하에 사원을 철저히 공격하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원과 그 부속물 그리고 승려와 노비를 소실·살상·피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인적·물적인 피해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현풍현 지역에서의 6개월 이상 몽고병의 주둔과 위에서 제시하였던 현풍현의 피해 사례, 그리고 전국적인 피해 사례라 할 수 있는 “이해(1241)에 몽고병에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여명이며, 살륙된 자는 가히 헤아릴

162) 金皓東, 앞의 논문, 1990. p. 108.

163) 주) 146과 같음.

수 없으며 몽고병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몽고의 병란이 있는 이래로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¹⁶⁴⁾ “兵荒이래로 해골이 들을 덮고, 포로되었던 백성이 京城으로 도망하여 오는 자들이 連絡不絶하므로 都兵馬使는 一日에 米一升씩을 주어 이를 구제하였으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¹⁶⁵⁾ 등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 온 대구민의 존재¹⁶⁶⁾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第4節 倭寇의 侵入과 大邱

I. 倭寇의 侵入과 그 被害

倭寇란 倭人들의 寇盜集團이 침입한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단순히 ‘倭人들이 무엇을 寇掠하였다’라는 뜻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여말에 이르러 이들의 약탈행위가 잦아지면서 하나의 술어로 변하여 왜인들의 寇盜行爲를 표현하는 명사가 되었다. 이리하여 왜구라는 말은 고려말로부터 조선초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寇盜行脚을 하던 일본인 해적집단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¹⁶⁷⁾

왜구가 우리 나라에 침입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이었지만, 이들이 고려에 침입한 것은 사료상 고종 10년(1223) 5월에 경상도 金州(金海)에 침입한 것이¹⁶⁸⁾ 그 처음이었다. 이때부터 충숙왕대 까지 100여년간에 왜구의 침입횟수는 13회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대상 지역도 남해안의 경상도 일원에 집중되었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이 단행되는 등의 특수한 여건이 조성된 시기도 있었지만, 고려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었다. 왜구는 일정한 규모와 강도를 유지하였던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 침입의 양상을 달리하였는데, 이들의 노략질이 본격적으로 격심해지기 시작한 때는 忠定王2년(1350)인데, 이는 “2월의 왜인이 固城·竹林·巨濟·合浦에 침구하므로 千戶 崔禪과 都領 梁瑄 등이 싸워 처

164) 《고려사》 권 24, 고종 41년 12월.

165) 위의 책, 권 24, 고종 42년 4월.

166) 위의 책, 권 24, 고종 42년 1월 계묘.

167) 李鉉淙, 〈왜구와 대외정책〉 《조선전기대일교섭사연구》 1964.

——, 〈왜구〉 《한국사》 8, 1974.

羅鐘宇, 〈고려말기의 여일관계—왜구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 1980.

168) 《고려사》 권 22, 고종 10년 5월 갑자.

부수어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3백여급이었다. 왜구의 침입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¹⁶⁹⁾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더욱이 충정왕 재위 2년동안 11회의 침구기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구의 규모가 커지고 各處의 漕船을 掠取하며 殺掠까지 자행하게 됨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이때를 왜구 침입의 시발로 잡는 것이다.

이후 공민왕대(1352~1374)에는 재위 23년간 왜구의 침입이 115여회에 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구략지역은 점차 시일이 경과하면서 경상도와 전라도·충청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어 각 지역의 연해안 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진출하여 漕船과 漕倉米를 약취하거나 부녀자를 잡아 갔고, 더욱이 개경 가까이의 昇天府와 江華·喬桐·禮成江에 까지 자주 출몰하여 서울에 계엄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¹⁷⁰⁾ 禡王代(1375~1388)에는 재위 14년간 그들의 침구횟수가 무려 378회에 달할 정도로 절정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고려정부는 内地로 遷都코자 할 정도였다.¹⁷¹⁾ 그러나 창궐하던 왜구도 우왕 13년을 기점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왜구의 발생과 창궐요인은 일본 및 고려의 국내 사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일본쪽의 사정을 보면, 이 무렵 일본 국내는 南北朝 爭亂期로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정세속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과 또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진 하급 무사, 여기에다 농업에 불리한 對馬·壹岐·松浦의 열악한 입지조건 그리고 이 시대에 변경까지 침투한 상품화폐경제의 압박 등등의 조건들이 서부 연안일대의 중소 영주층과 영세 농어민을 자극하여 해적이 되게끔 하였으며, 이들이 고려에 침입하였던 것이다. 왜구의 근거지에 대해서는 이전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對馬·壹岐·松浦·博多·下關 등의 변경지방이 그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듯하다.

다음 고려의 사정을 보면, 고종 3년(1216)부터 거란 유민이 入寇하여 여러해 동안 북쪽 지방이 소란하였고, 동왕 12년(1225)부터 16년(1229)까지는 東眞이 침입하여 북방에 대한 방비에 힘쓰다 보니 각 해안에 대한 방비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 뒤이어 고종 18년(1231)에 비롯된 몽고의 침략으로 전국이 초토화되고, 끝내는 몽고의 駙馬國이 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두 차례나 몽고의 일본원정에 협력한 관계로 국력이 고갈되었다. 이 같이 겹친 외침과 고려 말기의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민심이 이반되다가 軍制의 해이로 軍丁이 부족되어 왜구방어에 전력을 다하지 못해 왜구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169) 앞의 책, 권 37, 충정왕 2년 2월.

170) 위의 책, 권 39, 공민왕 6년 5월 무자.

171) 위의 책, 권 133, 열전 신우 3년 5월.

고종 10년에서 공양왕 4년(1392) 까지 169년간 고려는 총 529회나 왜구의 내침을 당하였고, 그들의 침입횟수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경남(85)·경기(56)·경북(54)·충북(53)·전남(31)·황해(27)·전북(24)·충남(9)·함남과 평북(8)·평남(4)·제주(1)의 순으로¹⁷²⁾ 삼남지방과 경기지역에 대한 침입횟수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왜구의 침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양곡의 약탈이요, 다른 하나는 인민의 虜略이었다. 특히 이들이 양곡약탈에 혈안이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들의 주거지인 대마·일기·송포 등지의 자연조건이 농업에 적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연 그들은 식량의 공급을 외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때에 따라서는 약탈적인 방법도 사용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을 노략한 것은 우선 俘虜는 노비로써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노예로써 팔기도 하며, 적당히 속신료를 지불하고 송환하도록 하려는 이유에서 였다. 그외에는 군사상 병력증강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로서는 노를 젓는 일이나 배의 잡역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우선 그들의 주된 침입 목적이 미곡의 약탈에 있었으므로 漕穀을 운반하는 漕船과 양곡을 저장한 창고(특히 漕倉)를 습격하여 한때 漕運의 불통으로 백관의 녹봉도 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¹⁷³⁾ 또한 왜구들이 침입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무렵 왜구의 잔혹상은 守城(壽城)人 曹希參과 京山(星州)人 裴仲善의 딸, 靈山人 辛斯천의 딸 등에 얹힌 ‘三人節孝’의 이야기가 잘 말해 주고 있다.¹⁷⁴⁾

또한 權近의 〈寧海府西樓記〉¹⁷⁵⁾에서 “왜구가 일어나고 부터는 날로 쇠체하더니 신유년(우왕 7년 1381)에는 그 화가 더욱 격렬하였다. 성과 읍은 폐허가 되고 閭閻은 불타 버렸다. 두어 해 동안을 적의 소굴이 되게 내버려 두니 관리들은 다른 고을에 가서 붙어 살고 범과 산돼지는 옛마을에 와서 날뛰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그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실례로 미루어 보아 연해지방은 물론 내륙 깊숙히 쳐들어와 분탕질한

172) 羅鍾宇, 앞의 논문, p. 32.

李鉉淙, 〈왜구와 대외정책〉《조선전기대일교섭사연구》1964, p. 13.

金潤坤, 〈경북지방의 역참·조운과 왜구대책〉《경상북도사》상, 1983, p. 533.

李慶喜,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대외정책의 일단면〉《부산여대사학》10·11합집, 1993, pp. 273~274.

173) 《고려사》권 133, 열전 신우 4년 12월.

174) 《고려사절요》권 31, 신우 8년 6월.

175) 《신증동국여지승람》권 24, 영해도호부, 누정 서루.

왜구의 만행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삼남지방이 심하였고 경북의 일원이었던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가 왜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은 우왕 8년(1382) 6월(왜가 慶山·大丘·花園·鷄林等處에 침구하고 또 通溝縣에 침구하였다)과 이듬해 7월(왜가 大丘·京山·善州·仁同·知禮·金山 등처에 침구하였다)의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구 인근의 경주(3년 4월, 5년 5월·6월)·청도(5년 6월)·성주(6년 8월)·경산(5년 6월)·김천(6년 8월)·영천(7년 6월 9일, 8년 3월, 9년 6월) 등이 침입을 받을 때 마다 대구도 왜의 침입에 따른 피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온갖 잔악한 행위를 자행한 왜구의 규모는 각양각색이었지만 대체적으로 50척 또는 130척에서 200척 내외의 경우가 많으며, 큰 집단의 경우는 우왕 6년(1380)의 500척으로 침입한 사례도 있었다. 인원상으로는 “많으면 천백의 무리를 이루고, 적으면 십 오로 대를 이루어 침입하였다”¹⁷⁶⁾는 것으로 그 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데 우왕 5년(1379) 진주에 침입하였던 왜구의 수는 步騎를 합하여 2700명 규모이며,¹⁷⁷⁾ 그 밖에 3000명으로 침입한 사례도 있다.¹⁷⁸⁾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피해와 고통도 컸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假倭의 활동이다. 가왜는 왜구가 가장 심하였던 우왕때부터 나타났다. 이들 가왜는 禾尺·才人 등이 거짓으로 왜구 노릇을 한 것으로서, 公廨와 民戶를 불사르고 여러 지역을 寇掠하였다. 한번에 붙잡힌 남녀가 50여명이나 되고 말이 200여필이나 되었다고 하니¹⁷⁹⁾ 가왜의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대 가왜에 대한 처벌은 주모자나 명령 불복종자만 참하고 그 나머지는 제주에 분치시켜 일반 백성과 비등하게 일을 시키면서 되도록 회유하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하였다.¹⁸⁰⁾

이와 같은 사정은 昌王 때에도 계속되었지만, 여말의 사회상태가 이미 기강이 무너지고 혼란한 데다가 공신, 권문세가들이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가왜의 근절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들 가왜는 대체로 才人·禾尺 등 천민계급중에서도 특수한 층들이 가왜로서 구도 행각을 하였던 바, 이는 賤隸人의 반항의식의 일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정과 사회상의 혼란에다 생활고가 겹쳐서 집단화하여 가왜로서 구도 행각을 한 것이라 보여진다.

176) 《고려사》 권 112, 열전 설손 부 설장수.

177) 《고려사절요》 권 31, 신우 5년 5월.

178) 《고려사》 권 40, 공민왕 13년 5월.

179) 위의 책, 권 134, 열전 신우 8년 4월.

180) 孫洪烈, 〈고려말기의 왜구〉 《사학지》 9, 1975, pp. 43~44.

II. 倭寇防禦體制의 構築과 大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말기 왜구의 침입과 그 피해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그럼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책은 어떠하였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단순히 왜구의 침입 사실과 그 피해를 나열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침입에 대해 당시 고려가 어떻게 대응해서 물리쳤던가를 알아 보는 것이 더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크게 외교적 교섭과 군사적 대응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몽군의 일본 정벌이후 고려가 일본정부와 공식의 교섭을 갖게 된 것은 恭愍王 15년(1366) 11월 檢校中郎將 金逸과 萬戶 金龍을 파견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우왕 1년(1375) 2월에는 判典客寺事 羅興儒를, 3년 6월에는 판전객사사 安吉祥을, 동년 9월에는 大司成 鄭夢周 등을 幕府 장군에게 또는 九州探題(지방관리) 등에게 파견하여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의 국내 사정으로 제대로 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위와 같은 외교적 교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적극적인 왜구토벌책을 시행하여 많은 왜구들을 소탕하였다. 왜구의 방어와 소탕을 위해 戌所와 邑城 등을 수축하기도 하고,¹⁸¹⁾ 종래의 軍役制度를 재조직하거나 官人閑散軍과 노예군인 烟戶軍의 편성 및 水軍의 강화 그리고 軍令體系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¹⁸²⁾ 이를 바탕으로 무력적 토벌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崔瑩의 鴻山大捷, 羅世 등의 鎭浦 싸움과 李成桂의 荒山大捷, 鄭地의 南海大捷 등 일련의 승전들이 무력적 토벌에 의한 성과였다.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 대체로 연해지방에서는 화포로, 내륙지방에서는 성을 쌓아서 격퇴와 방비를 한 것 같다. 화포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羅世·沈德符·崔茂宣 등이 출전하여 최무선이 제조한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진포 싸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왜구를 포함한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 내지 격퇴의 교두보로서 읍성과 산성 등의 성곽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성곽의 수축문제도 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181) 車勇杰, 〈고려말의 왜구에 대비한 置戌와 築城〉《고려말·조선전기 대외관방사 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1988.

18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閔賢九, 〈고려후기의 군제〉《고려군제사》, 1983.

吳宗祿, 〈고려말의 도순문사-하삼도의 도순문사를 중심으로-〉《진단학보》 62, 1986.

李崇仁의 記에 “일찍이 《孟子》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地理가 人和만 못하다는 대목이 있었다. 그렇다면 城郭이나 城池가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말초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春秋》의 ‘虎牢에 城을 쌓다’라는 대문을 읽기에 이르러서 그 書法을 보면 (성곽의 수축을) 옳게 여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 성현의 말씀들은 본말과 선후의 순서가 있으니 어느 것이고 世道를 위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中原에 봉사한 적이 두 번 있었는데 지나는 길에 비록 몇 집되지 않은 읍이라도 모두 보장하는 것(성곽)이 있음을 보았다. 지형을 점거하고 성을 쌓는 일을 어찌 작은 문제로 여길 수 있겠는가. 우리 동방에도 국가제도가 있고 중국을 배울 줄 알았지만, 소박·간략하고 문체가 적어 선조 이래로 백성을 休養하고 生息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태평한 그 속에 살고 죽고 한지 4백년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文으로 制治할 수 없었고 武로는 난을 평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다 섬의 고약한 것들이 감히 연변에 침입하였으니 경인년(충정왕 2: 1350)에 침입한 도적이 바로 그것이다. 짓밟힌 것이 경신(우왕 6: 1380)·신유(우왕 7: 1381) 두해 동안에 이르도록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아! 치안이 극진하게 되면 사세가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적을 막고 방비하는데 있어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¹⁸³⁾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성곽의 수축은 결국 백성들의 휴양과 생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외적을 막고 방비하는데는 문무 보다도 성곽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성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을 당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곽의 수축도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축성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李詹의 記에 “《춘추》에 성에 대해 쓴 것이 24개나 되는데 모두 성을 수축하도록 허여하지 않은 것은 곧 시기가 아니요, 의리에 해로우며 또 그 제도가 아니라 해서 그런 것이다.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쓴 것은 백성을 수고롭게 한 것을 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비록 공자가 지금 세상에 낳더라도 성이 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역사를 (행함에) 때를 어기지 않으며 일이 의리에 맞게 되면, 반드시 특서해서 상을 주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어찌 그대로 두고 말겠는가” 하였다.¹⁸⁴⁾

축성의 지침은 축성의 원동력이 백성들의 노역이므로 그 때를 잘 택하여 백성들의 수고를 최소로 하면서 외적의 방비에 있어서 최대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경북지역의 각 군현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성곽들이 옛부터 수축되어 있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왜구의 침입에 즈음하여 축성을 서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로 내륙지방에서 경주읍성은 석축으로서

18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3, 경상도 영일현 성곽 읍성.

184) 위의 책, 권 22, 경상도 영천군 고적 고읍성.

적과 대치하여 항진함에 있어 최후의 보루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는 것,¹⁸⁵⁾ 여러 차례 왜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영천에서 서쪽 2리 부근에 읍성을 수축함으로써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이를 격퇴하였던 것,¹⁸⁶⁾ 왜구를 피하려 일선군을 비롯한 인접의 인동·개령·성주 등지의 주민들이 모여 모두 병졸이 되었던 금오산성의 존재¹⁸⁷⁾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안지방에서는 경주로의 진출에 발판이 되었던 蔚州에서 찾아지는 고읍성의 존재,¹⁸⁸⁾ 왜구의 침입으로 고을의 물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의 피해를 보았지만 읍성의 준공으로 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주위의 황폐한 전답이 없게 되었던 迎日縣의 읍성,¹⁸⁹⁾ 왜구의 피해로 관리와 주민들이 타읍으로 이주하였지만 성이 축조됨으로써 고을이 재건되고 여러 고을이 편안함을 얻게 되었던 寧海의 石城¹⁹⁰⁾ 등의 존재가 찾아진다.

내륙지방에 위치하였던 대구도 같은 내륙지역인 경주·영천·상주·성주·선산 등지에 읍성이 축조되거나 존재하였던 양상¹⁹¹⁾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없어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대구를 둘러싼 인근 지역의 읍성들이 방어체제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읍성을 축조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왜구방어체제로서의 축성은 왜의 침입이 내지로 확대된 우왕대에 이르러 내지의 산성과 연해지역의 산성들이 주민의 입보용으로 수축을 보게 되었지만 우왕대 후기로 갈수록 연해 읍성의 축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공양왕대 까지 이어졌다. 그것은 왜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고려가 그간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騎船軍을 증강시켜 연해안 방어력을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⁹²⁾

185) 許興植編, 〈경주왜구격퇴사실기〉 《한국의 고문서》, 1988.

18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2, 경상도 영천군 고적 고읍성.

187) 위의 책, 권 29, 경상도 선산도호부 고적 금오산성.

188) 위의 책, 권 29, 경상도 울산군 고적 고읍성.

189) 위의 책, 권 23, 경상도 영일현 성곽 읍성.

190) 위의 책, 권 24, 경상도 영해도호부 누정 서루.

191) 車勇杰, 앞의 논문, pp. 13~27.

192) 車勇杰, 위의 논문, pp. 33~34.

第4章 高麗의 文化와 大邱

第1節 佛教思想의 變化와 大邱地域의 佛教文化

I. 佛教思想의 變化

고려초에는 禪宗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고려 태조는 지방세력과 결합된 유력한 고승들과 관계를 맺어 禪僧과 지방세력의 결합으로 형성된 山門을 고려에 흡수하려고 하였다. 곧 개경주위의 사원으로 초치하거나 사후에 탑비를 세워 그들의 문도를 회유하려 하였으며, 통일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방사원을 전략적 거점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많은 포섭이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경에 10개의 사찰을 위시한 다수의 사원을 건립하여 신라말 이래 지방으로 분산되어 독자적 기반을 가진 각 학파의 불교세력을 宗派로 인정하여 개경에 그 각자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불교의식을 분담시킴으로서 신라의 경주중심의 일원적 통제를 불교계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의 개경중심으로 재편성하려 하였다.¹⁾ 이러한 고려 태조의 불교정책으로 고려초에는 선종이외의 종파에 대한 배려가 컸음에도 다분히 선종이 주도하였다.

광종대에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교종이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교종을 특히 화엄종 중심으로 정리하려 하였다. 특히 후삼국기에 분립된 해인사의 南岳派(후백제 지원)와 北岳派(고려 지원)를 북악파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華嚴宗이 크게 부각되는 데는 광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화엄사상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광종은 그의 재위 14년에 歸法寺를 창건하고 均如로 하여금 주지하게 하였다. 균여는 화엄사상안에 법상종을 융화한 性相融會思想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군소토호를 통합하는 이념이고 전제성에 유리한 사상이었다. 균여를 이어 주지를 지낸 坦文도 화엄종 승려였다. 그런데 이 화엄종은 다분히 신비적이고 민중지향적이었다. 귀법사는 이러한 화엄종의 근거로 중요시되었다.²⁾

고려초의 사상계의 경향은 禪敎融合적인 면을 보였다. 하나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사상을 포용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사상을 포용하려는 것이었다. 전자의

1)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大丘史學》22, 1983.

2) 金龍善,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경향을 대표하는 승려들은 玄量, 利嚴, 慶猶, 迴微, 麗嚴 등이다. 후자는 坦文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호족연합체제에 부응하는 면이 있지만, 균여나 탄문의 사상은 광종대의 전제주의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이었다. 광종말에 전제주의가 퇴색하면서 法眼宗이 점차로 성행하였다. 慧炬, 釋超, 英俊, 智宗 등의 법안종 승려가 활동하였다. 이 법안종은 선종사상을 주체로 하지만 화엄사상과 법상종사상을 아우려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³⁾

성종대에는 崔承老의 시무책이 거의 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정치이념으로서 유교가 부각되고 불교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⁴⁾ 이는 광종대의 왕권강화를 위해 불교를 이용한 정치이념의 실현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 것이며, 그동안의 왕권의 비호속에 드러난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종대에 이르러 문벌귀족사회의 확립과 더불어 교종인 유가종과 화엄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현종이 玄化寺를 창건하고 유가종의 고승을 주지로하면서 후원하였다.⁵⁾

그리고 특히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가진 경원이씨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 李子淵의 5자인 韶顯이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고, 이자겸의 아들 義莊도 유력한 인물이었다.⁶⁾ 소현은 전국의 법상종사찰을 잘 통어하기위해 繕理宮을 설치하고 석가여래 및 현장 窺基 二師와 海東六祖象을 그려 각사에 주어 안치하게 하였다.

한편 화엄종에서도 靈通寺의 爛圓 문하에서 문종의 4자인 義天이 나오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종시에 興王寺가 창건되어 그 중심 사찰로 하여 현종대에 창건된 현화사를 중심한 유가종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 홍왕사에는 義天, 樂眞, 澄儼, 冲曦, 寥一 등이 주지하면서 종세를 유지하였다.⁷⁾ 의천은 균여의 화엄사상을 배척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을 저술하여 당시까지의 불전이나 고승의 章疏를 정리하는 작업에서 균여의 저술을 하나도 신지않았다. 이는 균여가 義相系 화엄학의 전통을 이었다면 의천은 중국 法藏系 화엄사상을 접하였던 차이점에 기인 하는 것이다.⁸⁾ 의상의 맥락을 이은 균여가 고려초기 사회의 특수한 측면인 토착적 神異를 주장했다면 의천은 중국법장사상의 맥락을 이으면서 보편적 측면에 더 흥미를 가졌다. 또한 중국에 들어가 천태종의 정통파인 山家派의 사상에 친숙하였다. 그는

3) 金杜珍, 〈高麗時代思想의 歷史의 特徵〉《傳統과 思想》,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4) 金哲坡,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教史學論叢》1965.

5)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1.

6) 金潤坤, 〈李資謙의 勢力基盤에 대하여〉《大丘史學》10, 1976.

7) 韓基汶, 〈高麗中期 興王寺의 創建과 華嚴宗團〉《鄉土文化》5, 1990.

8) 崔柄憲,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中心으로—〉《韓國史研究》30, 1980.

통일 신라이래의 會三歸一의 法華思想이 유행한 사상적 풍토에서 천태종의 사상을 일으켰다.

마침내 숙종 6년(1101)에는 의천이 규칙을 정하고 배움이 뛰어난 100명을 봉은사에 모이게 하고, 중심되는 경론 120권에서 출제하여 현량한 자 40여명을 뽑았다. 그리고 중앙의 중심사원인 國淸寺도 건립되었다. 이로써 중심사원과 승과가 개설되어 제도적 성립을 보게 되었다.⁹⁾ 의천의 천태종의 창설은 화엄, 유가, 선종의 삼종파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그는 화엄사상 뿐 아니라 선종사상까지 융합하려는 教觀并修를 주장했다.

고려중기에 위의 정통종파 불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불교조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居士佛敎로 불리워진다.¹⁰⁾ 귀족사회에서 문인관료는 거의 모두 불교와의 관계를 갖지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거사로 일생을 보내거나 아예 출가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특히 거사로서 유명한 사람은 李資玄, 李敖, 尹彦頤, 郭璵 등이다.

이들은 문벌귀족사회의 비리를 예견하고는 그것으로 성립된 교종불교에서 벗어나려고 선종속으로 빠져들지만 거기에서 미련없이 떠나가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진 과도적인 불교 사상을 가졌다.

12세기말 13세기초에 崔忠獻은 집권이후 그의 확고한 세력을 확보하기위해 여러 왕을 갈아 세우면서 자신을 정점으로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들 瑬에게 실권을 넘겨준 1219년에는 무신집권에 반대하던 개경의 세력들은 거의 해체되었고, 때로는 지방에서 약간의 반란이 일어나는 이외에는 어느정도 소강상태를 확보하고 있었다.

개경의 문벌과 결탁되었던 교종세력도 최씨집권시대에는 거의 제거되었고, 상대적으로 조계종과 천태종은 불교계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미 문벌중심의 개경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실망한 승려들에 의해 지방에서 결사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¹¹⁾ 知訥에 의해 성립된 定慧結社는 대표적 결사의 하나였다. 지눌은 1200년 公山 居祖寺에서 松廣山 吉祥寺로 그 근거지를 옮겼다. 여기에서 지눌은 지방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1204년에는 修禪社로 사액을 받아 그 존재가 부각되었다. 慧謨대에는 최씨정권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무신정권과 밀착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

백련결사는 了世에 의해 1216년 康津 萬德山에서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요세의 불교 사상은 懺悔行과 彌陀淨土信仰을 실천방향으로 강조하여 13세기 전후 혼란상에 처해있던

9) 許興植, 〈天台宗의 形成過程과 所屬寺院〉《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10) 崔柄憲, 〈高麗中期 李資玄의 禪과 居士佛敎의 性格〉《金哲坡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11) 韓基斗, 〈高麗佛敎의 結社運動〉《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련사도 1230년대에 항몽과정에서 최씨정권의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13세기를 전후하여 불교계는 대몽항쟁기를 거치고 무신정권이 붕괴되면서 원지배기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는 원지배라는 정치적 현실속에 타협하고 온존하려는 경향, 다른 하나는 13세기 전후의 신앙결사계통을 계승하면서 당시의 보수적 성격을 비판하려는 경향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수선사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부각된 迦智山門, 백련사의 성격을 변질시키면서 그 계승을 표방한 妙蓮社系統, 또 주로 원에 사경승을 파견함으로써 부각된 법상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무신란이후의 최씨집정기에 수선사, 백련사계통의 인물들이 대부분 국사, 왕사로 책봉 또는 추봉된 것에 비해 충렬왕대 이후는 대체로 가지산문, 묘연사계통, 법상종출신들이 국사, 왕사로 책봉된 사실과 관련 된다.¹²⁾

이들 중 대표적인 교단세력은 가지산문이었다. 이러한 가지산문은 一然의 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연이 국존으로 책봉됨에 따라 부각된 가지산문은 원지배기의 보수세력의 지원에 의해 그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일시적으로 묘연사 계통과 교권장악을 위해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고려말에 太古普愚, 懶翁惠勤 등이 출현할 정도로 불교계의 중심세력으로 존속되었다.¹³⁾

이러한 보수세력에 의해 불교계가 장악되고 있을 때 이들과 대항하면서 불교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 일련의 인물이 출현하고 있었다. 그중 백련사계통의 사상적 경향을 계승한 雲默無寄를 들 수 있다. 그는 《釋迦如來行蹟頌》에서 당시 사회를 末法시대로 인식하고서 원지배기의 참담한 현실 속에 처해있던 대다수의 민중에게 염불을 통한 공덕을 강조함으로써 실천신앙으로서 정토신앙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權門들과 願堂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탁하고 있던 당시 불교계의 보수적 경향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이들의 민중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와 불교계의 제문제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불교의 사회적 기능 중 실천신앙적인 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한계성으로 남는다. 이는 불교의 사회적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게 되고 신앙결사단계에서 소수문벌로부터 지방사회의 향리층 독서층이 획득한 사상사의 주도권을 朱子性理學이 대신하게 되었다.¹⁴⁾

12) 蔡尚植, 〈高麗後期 佛教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歷史教育》35, 1984.

13) 蔡尚植, 〈一然의 출현과 迦智山門의 추이〉《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14) 蔡尚植, 〈14세기 전반기 佛教界의 경향〉위의 책.

이러한 불교의 사회적 기능면외에도 불교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종파간의 특성이 지양되고 서로 접근되는 경향을 나타낸 점이라 하겠다. 종파간의 고승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교리상으로도 상호 교류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일연이 선종출신으로 《三國遺事》를 저술하지 않고 모든 종파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서술을 보였다는 점이나, 華嚴宗僧인 覺訓이 거의 선사와 비슷할 정도로 修禪과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는 것, 조계종에서 선사를 만나 이루어지는 心印에 의한 전수가 아닌 고승들의 어록인 偈頌을 통하여 간접적인 전수에 의하여 득도하는 看話禪이 유행되었던 점에서도 나타난다. 간화선은 단순성과 실천성, 그리고 통합성의 특징이 있지만 분석적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파의 이론적 고유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상의 도전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불교계의 각 종파가 이론상의 특성을 잃고 일원화됨으로서 이론적 뒷바침이 없는 종파는 세속적인 갈라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¹⁵⁾

이상의 불교 사상의 변화에서 대구지역과 관련되는 것은 문벌 귀족사회에 대한 모순의 극복을 위한 결사운동, 몽고 압제기의 가자산문의 등장, 법상종의 존재 등이다. 이는 다음의 항에서 대구지역의 불교문화와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II. 大邱地域의 佛教文化

대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서 고려시대 불교문화와 관계가 깊은 것은 琵琶山과 八公山을 들 수 있다. 이항에서는 시기별로 이들 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승려들의 행적, 사상 그리고 사원,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琵琶山은 包山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고려 성종원년에 신앙결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신라 때 觀機와 道成이라는 두 성사가 있었고 특히 도성이 수도한 道成巖의 아래에 절을 지었는데 고려 성종 원년(982)에

승 成梵이 처음으로 이 절에 내왕하여 萬日彌陀道場을 열고 精勤 50여년에 누차 특이 한 祥瑞가 있었다. 그 때 玄風의 신자 20여인이 해마다 結社하여 香木을 주어 절에 바칠새, 매양 산에 들어가 향을 채취하여 쪼개고 씻어 발위에 놓아 두었던바, 그 나무가 밤에 촛불과 같이 빛을 발하였다. 이로부터 郡人이 그 향도들에게 시주하여 빛을 얻는 해라 하여 하례하였다. 이는 二聖의 영감이요 혹은 岳神의 所造이었다. 神名은 靜

15) 許興植, 〈禪宗의 復興과 看話禪의 展開〉《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 〈僧政의 紊亂과 宗派間的 葛藤〉 위의 책.

聖天王이니 일찌기 迦葉佛때에 佛囑을 받았는데, 그 本誓에 하였으되 산중에 일천인의 출가를 기다려 餘報를 받는다고 하였다. 지금 산중에 九聖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사적이 자세 치 않으나, 觀機, 道成, 槃師, 師, 道義, 子陽, 成梵, 今勿女, 白牛師 등이었다.《三國遺事》 권 5, 神呪 6, 〈包山二聖〉)

라 하여 비슬산은 신라 이래 불교의 성지였고 도성암의 아래 절은 상당한 영험이 있어서 신도 조직이 있었고 이 신도조직에 郡人들의 시주가 있었음이 전하고 있다. 또한 이 산의 聖師를 아홉명을 들고 있는데, 이들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지만, 이곳이 불교의 성지로서 일연이 주목하고 이곳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이곳은 일연의 탄력적인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이 포산에는 고려후기 迦智山門을 중흥한 一然이 1227년에서 1248년까지 22년간을 보낸 곳이며 이곳의 사상적 분위기속에서 일연의 사상적 경향이 형성되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고 자체가 탄력적일 수 있는 20대의 수학기를 지낸 현풍 비슬산의 사상적 경향이 그의 사상적 경향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비슬산은 다양한 신앙형태가 공존했던 지역인데, 신라통일기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인 玉泉寺가¹⁶⁾ 존재했다든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려 성종때 阿彌陀信仰을 바탕으로 한 결사조직이 결성되었다든가 또 慧謚에게 수학한 바가 있는 白蓮社의 2세인 天因이 유력차 이 곳에 머문 적이 있었다.¹⁷⁾ 일연이 1227년에 머물면서 ‘心存禪觀’한 적이 있던 寶幢庵은 고려말에 중창하면서 法華經 禮懺이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와 같이 비슬산은 역대로 다양한 신앙이 존재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일연이 22년간을 보낸 시기는 정치적으로 崔瑀가 정권을 담당하던 시기로 대몽항전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불교계의 동향은 修禪社와 白蓮社가 주축을 이루어 최우와 밀착되고 한편으로는 최씨정권의 비호와 통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대몽항쟁차원에서 활약한 것 같다.¹⁹⁾ 이러한 당시 사회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일연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일연의 비문에 보면,

丙申年 가을에 兵亂이 있어 師가 피하고자 하여 文殊五字呪를 念하며 感應을 기대하니 홀연히 벽속에서 文殊菩薩이 현신하여 이르기를 ‘無住庵’에 居하라고 하였다.《一然碑文》)

16) 《三國遺事》 권 4, 義相傳 教.

17) 《東文選》 권 83, 〈靜明國師詩集 序〉

18) 위의 책, 권 111, 〈寶幢庵重創法華三昧懺〉

19) 蔡尚植, 〈信仰結社의 유행과 주도세력〉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이는 1236년에 몽고의 침입이 있을 때 일연이 피하면서 남긴 경험담이다. 이로 보아 백련사에서 白蓮結社文을 채택 반포한 것이나, 修禪社를 중심으로 대장경의 판각이 주도되던 분위기와 비교하여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 포산에서 일연이 활약한 사실은 일연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丁亥年(1227) 僧科에 응시하여 上上科에 올랐고 그뒤 包山の 寶幢庵에 머물면서 마음을 禪의 觀照에 두었다. 丙申年(1236) 가을에 병란이 있어(중략) 다음해 여름에 다시 이 산에 있는 妙門庵에 있었다니 암자의 북쪽에 無住라는 蘭若가 있어 스님이 곧 전일의 기억을 되살려 이 암자에 머물렀다. (중략) 元宗5年(1264) 가을에 (중략) 얼마 아니있어 仁弘社 講主 萬恢가 스님에게 강주자리를 양보함에 學徒가 운집하였다.(중략) 스님이 仁弘社의 주지로 11년이 되었는데 창건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 殿宇가 모두 쓰러지려 하며 또한 땅이 습하고 비좁아서 스님이 다 거둬 새롭게 하여 넓혔다. 이어 조정에 상주하여 仁興社라 개명하니 왕의 친필로 액호를 써서 내렸다. 또 包山の 동쪽 기슭에 있는 湧泉寺의 지붕을 다시 이어 佛日社라 하였다.((一然碑))

위에서 일연이 머물거나 주지하거나 수리한 곳은 寶幢庵, 妙門庵, 無住庵, 仁弘社, 湧泉社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일연이 11년간이나 머물면서 《歷代年表》를 간행한 곳으로 유명한 인흥사를 수리하고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내고 있다. 인흥사는 신라말에 건립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仁興寺址의 3층석탑의 존재로 미루어²⁰⁾ 창건시기는 신라말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일연이 수리하고 난뒤는 일연이 속한 가자산문에서 중요한 사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인흥사에서는 1275년에 《法華經普門品》을, 1290년에는 《人天寶鑑》이 인흥사에서 활약한 禪麟에 의해 書寫되거나 板刻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三國遺事》의 초간본도 이곳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²¹⁾ 따라서 13세기 후반에 인흥사에서 많은 불교서적이 출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포산은 고려 초기부터 여러 신앙과 사상이 공존하고 특히 일연의 사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영향을 준 곳이고, 이곳의 인흥사가 중수되어 13세기에는 중요한 불교전적이 다수 출판된 지역이었다.

비슬산 못지 않게 중요한 불교문화를 안고 있는 곳이 八公山이다. 팔공산은 신라때 五岳의 하나로 중요시한 곳이다.²²⁾ 고려시대에는 符仁寺에 대장경이 봉안되었었고, 華嚴宗의 고승 戒膺이 머물렀고 비도 남겨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居祖寺는 知訥에 의해 定慧結社文이

20) 李鍾恒, 〈傳 仁興寺址 三層石塔 移基에 關한 報告〉《慶北大論文集》4, 1960.

21) 蔡尚植, 〈仁興社刊歷代年表와 三國遺事의 刊刻기반〉《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1991. p. 170.

22) 慶北大學校·大邱直轄市, 《八公山》, 1987.

발표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桐華寺는 고려 후기 法相宗을 부각시킨 惠永이 하산한 곳이다. 따라서 팔공산은 고려불교계의 화엄종, 조계종, 법상종단이 함께한 명산이다.

먼저 시기적으로 고려중기 화엄종단의 움직임은 부인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고려 현종대부터 玄化寺를 중심으로 瑜伽宗이 부각되고 점차 외척에 의해 장악되자,²³⁾ 문종대부터 화엄종단이 興王寺를 중심으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두 종단은 점차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 당시 최대 문벌인 仁州李氏에 의해 장악된 유가종의 압박이 점증하자 지방사원으로 퇴거 하여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²⁴⁾

화엄종의 義天의 嫡嗣로 알려진 戒膺은 名利를 버리고 태백산에서 화엄학을 연구하여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破閑集》에도 의천의 적사로서 예종의 경앙을 받았으나 여러번 간청하여 태백산으로 들어가 손수 覺華寺를 창건하고 법시를 여니 사방의 학자가 폭주하여 날마다 천명은 되니 法海龍門이라 했다고 한다.²⁵⁾ 이는 龍壽寺의 開創記에도 확인이 되고 용수사도 계응의 법손에 의해 개창이 추진되고 있다.²⁶⁾ 또한 부인사에도 계응의 비가 세워졌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오늘날 팔공산에 있는 이 사지에 碑片이 수집되어 경북대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 비편에는 井間이 있고 硬直된 歐陽詢體에 변화가 일어난 고려중기로 추정되고 둘째 행은 ‘無애智’로 판독되는데 무애지는 계응이 틀림없으므로²⁷⁾ 이 비는 계응과 관련되며 따라서 부인사는 계응이 머물렀거나 그의 下山所가 된 사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응은 태백산의 覺華寺와 夫人寺에 이르는 곳에 화엄종단의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계응이 대장경의 간행을 추진했던 의천의 적사였음을 생각할 때 대장경이 이 부인사에 봉안된 것은 계응의 역할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천이 홍왕사를 중심으로 화엄종단을 주도한 것은 1091년 홍왕사에 敎藏司를 두고 대장경을 출판한 것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이에 관한 사정은 靈通寺 大覺國師의 비에,

신미년 봄에 (1091)남쪽으로 내려가 찾아서 얻은 책이 무려 4000여권이었으나 모두 먼지가 끼고 종이 먹어서 책장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는데 다 거두어 껍짝에 넣어 가지고 돌아와서 주청하여 홍왕사에 敎藏司를 두고 善知識을 불러서 잘못되고 빠진곳을 바로 잡아 출판하게 하니 몇 해동안 문적이 크게 갖추어져서 학자들이

23) 註 5) 참조.

24) 註 7) 참조.

25) 《破閑集》卷中, 〈太白山人戒膺〉

26) 許興植, 〈龍壽寺開創記〉《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27) 許興植, 〈禪宗9山派說의 批判〉, 위의 책, p. 157. 註 34) 참조.

기뻐하며 우러러 힘입게 되었다.(<靈通寺大覺國師碑>《韓國金石全文》 pp. 578~579.)

《圓宗文類》 권 1의 간기에 나타난 교정자의 인명을 볼 때 모두 의천과 동학이거나 문도이며 화엄종승려가 틀림이 없다.²⁸⁾ 따라서 이 시기의 대장경관계는 화엄종단에서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의천의 사후 그의 적사로 알려진 계응 등 화엄종단의 노력에 의해, 현종대부터 간행되어온 대장경이 문종의 興王寺 창건과 大藏殿의 완성 그리고 봉안 이후 어떠한 경로와 사정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夫人寺로 移藏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사에 대장경의 판본이 소장되었고 모두 불타버린 사정은 李奎報의 글에서 알 수 있다.

달단군 兵患은 잔인 흉포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佛像, 佛經할 것없이 모두 불살랐으니 夫人寺의 소장 大藏經板本도 또한 모두 태워 남음이 없으니, 아! 적년의 공이 하루 아침에 재가 되었으니 나라의 大寶를 잃었도다.(李奎報, <大藏刻板君臣祈告文>《東國李相國集》卷25)

顯宗때의 板本이 壬辰 蒙兵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高麗史> 권 24, 世家, 高宗 38년 9월 壬午.)

위에서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은 현종때의 초조대장경이었음과 몽고의 2차 침입이 있는 1232년에 불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인사의 대장경 소실의 원인은 몽고병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로 몽고가 침입한 1232년에는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전사하여 퇴각하였기 때문에 소백산맥을 넘지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²⁹⁾ 이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 천책이 1244년에 쓴「遊四佛山記」에 의하면 尚州에 1244년 이전에 두번의 兵火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아³⁰⁾ 1232년과 1235년 그리고 1237년의 침입 李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이 작성된 1237년과 1235년의 두번일 가능성이 높아 壬辰年의 몽고에 의한 대장경소실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尚州의 兵火가 이곳 부인사로의 침략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주는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을 경유하지 않고는 들어오는 길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그렇다면 위의 기록은 어떻게 남겨진것인가. 崔氏政權이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곧 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국왕을 협박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최우가 정권의 안보와 정통성을 확립하고, 고려의 민의를 수렴하고 국론을 통일하고자 사재를 기울여 대장경구조사업을

28) 註 7) 참조.

29) 《高麗史》 권 102, 列傳 金允侯.

30) <遊四佛山記>《湖山錄》《韓國佛教全書》 6, p. 207.) “尚州古沙伐國 屬郡縣雖多 唯此邑溪山清勝 雖再經兵火”

31) 金潤坤, <蒙古軍의 慶北地域 侵略과 그 被害>《慶北義兵史》, 慶尚北道·嶺南大學校, 1990.

단행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민의 대 몽고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몽고군이 불태웠다고 선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²⁾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불타게 되었는가. 몽고의 침입이전인 신종 5년(1202)에 부인사의 승도가 雲門山の 농민군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고,³³⁾ 신종 6년에 부인사승이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된 일이 있다.³⁴⁾ 이 때의 부인사의 승병과 최씨정권의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절을 지키려는 승군과 약탈하려는 농민군에 의해 우발적으로 失火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몽고군에 의한 소실로 보기보다는 고려인에 의한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팔공산은 대장경이 봉안되었던 곳이지만, 曹溪宗의 결사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결사운동은 고려 귀족문벌사회와 밀착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기위한 불교개혁운동이다. 結社는 뜻을 같이하는 道伴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하여 맺은 단체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모임의 사원은 寺가 아닌 社라고 불렀다. 그 중 修禪社는 知訥이 편 불교혁신운동과 더불어 개창된 것이다. 그는 25세 되던 명종 12년(1182)에 승과에 합격한후 개경의 普濟寺에서 개최된 談禪法會에 참석하였다가 10여명의 동지와 함께 名利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결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³⁵⁾ 그후 지눌은 수행에 전념하다가 명종 20년(1190)에 이르러 公山 居祖寺에서 이전의 동지 몇 명과 함께 마침내 定慧社를 결성하고 〈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하였다. 그 중요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행적을 돌이켜본즉, 佛法을 빙자하여 자기를 꾸며서 남과 구별하고는 구차스럽게 利養의 길을 도모하고 風塵의 世事に 골몰하여 도덕을 닦지 않고 衣食만 허비하니 비록 出家하였다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아! 무릇 三界를 떠나려하면서도 俗世와 끊으려는 수행이 없으므로 한갓 남자의 몸이 되었을 뿐, 장부의 뜻은 없도다. 위로는 道를 넓히는데 어긋나고, 아래로는 衆生을 이롭게 하지 못하며, 중간으로는 四恩을 저버렸으니 부끄럽다. 知訥은 이를 크게 탄식하여 온지가 오래 되었다.(중략)이 모임(明宗12年の 普濟寺 談禪法會)이 과한 연후에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山林에 은둔하여 同社를 結成하고 항상 禪定을 익히고 智慧를 고루하기에 힘쓰며, 禮佛과 讀經을 하고 나아가서는 勞動하기에도 힘을 쏟자. 각기 所任에 따라 경영하고 因緣에 따라 心性을 수양하여 한 평생을 자유롭게 지내며, 멀리로는 達士와 眞人の 高行을 좇는다면 어찌 채하지 않으리요. (《韓國佛教全書》4, 〈勸修定慧結社文〉)

32) 文暉鉉, 〈高麗大藏經彫造의 史的 考察〉《佛敎와 歷史》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1991.

33) 《高麗史節要》권 14, 神宗 6년 12월.

34) 위의 책, 神宗 6년 3월.

35) 蔡尚植, 〈修禪結社 성립의 사회적 기반〉《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1991.

위에서 지눌은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비판 겸 반성을 하고,名利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세속에 물들지 말 것이며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기에 힘쓰고, 예불과 독경 및 노동까지도 스스로 담당하면서 심성을 수양하여 불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 가기로 기약하였다.

知訥은 〈定慧結社文〉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더욱 수행에 정진하였다. 자기 나름의 선 사상체계인 頓悟漸修, 定慧雙修와 함께 惺寂等持門, 圓頓信解門, 徑截門의 세 수행문을 세웠다.

그는 1200년에 定慧社를 順天의 松廣山 吉祥寺로 옮기게 될 때 까지 이곳 公山の 居祖寺에서 10년간 수선사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것이다.³⁶⁾ 따라서 공산 거조사는 고려 시대 결사운동의 남상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公山에는 오랜 瑜伽宗의 고찰인 동화사가 있다. 고려시대 원의 압제기에 침체한 유가종은 부각시킨 惠永이 이곳에 하산하여 입적하였고 그의 비가 남아 있다.³⁷⁾ 또한 그뒤 慈靜國尊 彌授도 이 동화사에 머문적이 있어서³⁸⁾ 동화사는 고려후기 유가종의 중심사원 중의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惠永은 고려후기에는 선종과 천태종에서 국사와 왕사가 독점되던 시기에 유가종의 승려로서 처음으로 1292년에 국존에 임명이 되었다.³⁹⁾ 그의 생애와 활동을 그의 비문에서 보면, 그는 1228년에 태어나 1294년에 입적하였다. 원의 압제하에서는 각종의 貢納의 형태로 고려의 물자가 원에 수탈되었듯이 원의 불교장엄을 통한 권위의 확보와 관련되어 고려의 대장경과 金字寫經僧들이 대거 원으로 징발되어 원 왕실의 장엄에 기여하였다. 사경승이 징발되는 사례는 충렬왕때부터 빈번히 나오고 있다. 충렬왕 16년(1290)에 惠永은 寫經僧 무리 100員을 이끌고 원의 수도 大都에 이르러 金字法華經을 幣帛으로 삼아 세조를 배전하였고 다음해에 金泥로 대장경을 사경하는 일을 마치자 제가 예물을 두텁게 내리고 사자로 하여금 본국으로 오는데 수행하게 하였다. 이점이 고려되어 1292년에 國尊으로 책봉된 것으로 생각된다. 彌授도 충숙왕대에는 懺悔府를 세워 僧官印을 주조하여 僧政을 專管하여 교권을 장악한 유가종의 실권자였다. 그가 이동화사에 머문점으로도 공산의 동화사는 고려 후기 유가종의 중심지의 하나로서의 불교사적 위치를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大邱를 둘러싼 비슬산과 팔공산은 고려중기부터 고려후기에 이르기까지 불교계의 중심적 사상을 형성하고 주도한 高僧을 배출하였다. 고려중기 화엄종의

36) 崔柄憲, 〈定慧結社의 趣旨와 創立過程〉《普照思想》5·6합, 보조사상연구원, 1992.

37) 〈桐華寺弘眞國尊碑〉《韓國金石全文》, 1984, p. 1078.

38) 〈法住寺慈淨國尊碑〉《韓國金石全文》 p. 1154.

39) 許興植, 〈國師 王師制度和 그 機能〉《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주도로 현종대에 판각된 초조대장경이 봉안될 정도로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普照國師 知訥이 고려 불교계의 혁신을 선언한 〈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하고 이를 주도할 修禪社의 사상을 형성한 居祖寺가 있으며, 고려후기 迦智山門을 주도하고 교권을 장악한 일연의 사상을 형성한 비슬산의 다양한 불교신앙의 전통이 있는 곳이다.

第2節 儒學思想의 變化와 그 文化

I. 儒學思想의 變化

고려초 유학사상의 성립은 신라말의 渡唐留學生의 활동과 관련되고 있다. 즉 崔致遠, 崔彥撝, 崔凝, 崔知夢 등 인데 최치원을 제외하고 태조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으로 태조의 訓要에 정치적 이념으로 반영되어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최언위는 일찌기 당에 유학하여 그곳에서 급제하여 귀국하여 신라의 執事侍郎, 瑞書院學士 등을 역임하고 王建이 즉위하자 來歸하여 太子師傅와 文翰을 맡았다. 고려의 宮院額號가 그에 의해 찬해졌고, 그의 국초의 정책과 관련된 그의 글이 碑文으로 전하는 것이 많다. 崔凝은 弓裔政權下의 大相이던 崔祐達의 아들이며 五經에 통하여 文柄을 잡고 있었다. 왕건 즉위후 元鳳省事 廣評郎中을 거쳐 內奉卿에 이르렀다. 그의 열전에 “학문이 높고 治道를 겸하여 알고 있어서”라하여⁴⁰⁾

유교적 정치 이념을 모색한 인물이 틀림없다. 《補閑集》에 왕건에게 六德을 닦을 것을 권하고 있는 기사도 있다. 崔知夢은 후백제에서 왕건에 來附하였는데 經史에 博涉하고 天文·卜筮에까지 정통하였다.

고려초에의 유교정책은 왕건이 스스로 지어 반포한 《政誠》1卷, 《誠百僚書》8篇에 잘 나타나겠지만, 현전하지 않는다. 그가 자손에게 남긴 훈요십조에 고려 유학의 방향과 편린을 알 수 있다. 9조에 “諸侯와 群僚의 祿은 나라의 크고 작음을 보아 제정하지 함부로 증감하지 않는 법이다.” 10조에 “널리 經史를 보아 옛일을 거울삼고 오늘을 경계하라” 하여⁴¹⁾ 훈요에서는 봉건제가 아니라 祿俸制가 준수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유교적 집권화가 시도되었다.⁴²⁾

40) 《高麗史》 권 92, 列傳 崔凝.

41) 위의 책, 권 2, 世家, 太祖 26년, 4월.

42) 尹南漢, 〈儒學의 性格〉 《한국사》, 국편위, 1975.

光宗9年(958)에 武勳功臣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실시로 시험과목, 시험절차의 제도화로 유교경전의 보급과 확산이 되었다. 그러나 응시자의 신분이 향리층에 하한을 두고 있어 기층민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했다.

성종대에는 崔承老의 시무28조, 5朝政績評에 유교정치이념의 구현을 추구하여 이를 받아들인 성종에 의해 籍田禮 등 유교의 五禮를 시작하고 宋으로부터도 太廟堂圖, 文宣王廟圖, 祭器圖, 72賢贊記를 받아드렸으며,⁴³⁾ 國子監을 중수하고 12牧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전국적으로 孝子, 順孫을 찾아 표창하여 효사상을 勵行하였다.⁴⁴⁾ 최승노는 성종에게 “임금은 신하를 禮로서 쓰고, 신하는 임금을 忠으로 섬깁니다. 바라건대 성상은 날마다 하루를 삼가하여 스스로 교만하지말며 신하를 접함에 공손함을 생각하며 설사 혹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그 經重을 모두 法대로만 논하면, 태평의 대업을 가히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여⁴⁵⁾ 중앙집권체제를 이루면서 귀족정치를 성립시켜 가려고 했다. 또 이시기에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재해를 군왕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려는 사상이 보다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천인합일사상에 의한 자연관이 유교의식으로 발현된 소치이다. 때문에 祈禳對策에 있어서도 군주의 責己修德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선정이 베풀어지게 되었다.⁴⁶⁾ 곧 군주의 避正殿, 減常膳을 비롯하여 형정의 완화, 토목공사의 중지, 왕정을 비판하는 상소의 요청 등이 거의 상례적으로 시행되었다. 성종 7년(988) 2월에는 李陽이 봉사를 올려 《禮記》月令에 따라 정사를 베풀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 천인합일의 자연관과 밀착된 유교의례의 勵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 가장 심한 비판을 가했던 최승노조차 상소문에서 “불법을 숭상하는 것이 비록 옳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이라 하여 당시의 유교사상이 지니는 한계성 내지는 儒, 佛의 병립적 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⁴⁷⁾ 그러나 성종기가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현종은 신라의 유학자였던 崔致遠과 薛聰을 각각 孔子廟庭에 從祀하고 이어서 전자를 文昌侯, 후자를 弘儒侯로 추봉하였다. 이것은 유교부흥을 위한 자의식의 표현으로 東國 道統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고려유학은 海東孔子라고 칭송을 들은 崔冲의 활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43) 朴贊洙, 〈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鄭在覺古稀紀念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

44) 李熙德, 〈高麗時代 孝思想의 展開〉《高麗儒教政治思想의 研究》, 一潮閣, 1984.

45) 《高麗史》권 93, 列傳 崔承老.

46) 李熙德, 앞의 책.

47)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p. 290.

맞게 되었다. 그는 목종 8年(1005)의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인재로서 덕종~문종년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치사한 후에는 文憲公徒라 불린 私學을 연 것으로 유명하다. 최충은 그의 사학을 樂聖, 大中, 誠明 등의 명칭이 붙은 九齋學堂으로 편성하여 九經 三史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⁴⁸⁾ 그의 유학이 구재학당의 명칭이나 구경 등의 교과 과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漢唐의 訓誨學에서 탈피하여 철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가미된 宋代 儒學에 접근되어 있었다고도 한다.⁴⁹⁾ 이로 보아 고려시대 유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최충의 私學에 자극을 받은 학자 11명도 각기 학교를 열었으므로 이들을 통털어 私學12徒라고 부르는데 이로써 유학이 더욱 발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학은 예종과 인종조에 한층 성황을 이루게 된다. 유학의 진흥을 위해 몇가지 시책이 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진흥책을 들 수 있다. 예종은 사학의 발달에 발맞추어 국학에 周易을 전공하는 麗澤齋, 尚書를 전공하는 待聘齋 등의 7齋를 두었는데 이 중 여섯이 儒學齋이며 하나가 武學齋로서 유학과 다른 무학이었다. 이는 7종의 전문강좌로서 관학을 부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종대에는 京師 六學이 정비되어 유학교육에 진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왕의 주재하에 경학에 대한 강론이 자주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처음은 예종 원년(1106) 12월에 왕이 임석한 가운데 文德殿에서 尹瓘이 《書經》無逸篇을, 그리고 吳延寵이 《禮記》를 강론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려에서 경연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경학의 강론회는 그뒤 궁궐내에서 清燕閣과 寶文閣을 설치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이에 관해 金緣은 “날마다 老師 宿儒와 더불어 선왕의 도를 토론, 천명하였으며”, “三綱 五常의 教와 性命 道德의 이치가 사방에 충만하였다.”고 하였다.⁵¹⁾

金守雌도 “임금이 大司成 金富轍에게 앞자리에 나와 無逸篇을 講하고 그 의미까지 설명하게 하였다. 주상께서 책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으며 兩府, 백관과 제생에게도 명하여 청강하게

48) 朴性鳳, 〈海東孔子 崔冲 小考—高麗時代 儒學史의 一部—〉《史叢》1, 1955.

49) 金忠烈, 〈性理學傳來 以前の 高麗儒學〉《高麗儒學史》, 高大出版社, 1984.

尹南漢, 〈文治主義와 儒學思想〉《韓國民族思想史大系》2, 亞細亞學術研究會, 1973.

——, 〈儒學의 性格〉《한글사》6, 국편위, 1975.

尹絲淳, 〈朱子學以前の 性理學導入問題—崔冲의 九齋와 關聯하여—〉《崔冲研究論叢》, 慶熙大傳統文化研究所, 1984.

50) 權延雄, 〈高麗時代의 經筵〉《慶北史學》6, 1983.

51) 《東文選》권 64, 〈清燕閣記〉

하니 임금과 백관 제생의 얼굴이 지척도 떨어지지않았다.”라 하여⁵²⁾ 경학의 강론 모임이 진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많은 서적이 편찬되고 저술이 나왔다는 점이다. 고려는 송에서 서적을 수입하였지만 때로는 역수출할 정도로 많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었다.⁵³⁾ 그러한 전적의 편찬에 힘을 기울인 왕은 숙종이었는데 書籍鋪의 설치로 나타났다. 저술들도 나와 유학에 관한 대표적인 것만 하여도 尹彥頤의 《易解》와 金仁存의 《論語新義》 그리고 崔允儀의 《詳定古今禮》 등을 들 수 있고, 또 유교사관에 입각한 김부식의 《三國史記》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당시 유학의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유학이 절정에 이르면서 점차 尊經風에서 詞章風으로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다.

문사의 풍은 예종대 부터 조짐을 보였으나 의종대에 이르러 시문사장을 숭상하는 풍이 일어나 浮華에 빠지고 말았다.⁵⁴⁾ 게다가 무신집권은 관인에게 타격을 주었으므로 이들에게서 존재하던 고려유학에 대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유학적 문풍은 문벌사회에 결탁되어 있던 교종사원에 숨어든 문벌자제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최씨집권이후 정치적 소강상태와 더불어 정치적 여유를 과시하고 민심을 얻기위하여 과거를 계속하였다. 국내의 제도운영과 외교상 문한관 확보를 위한 필요성도 있었으며, 일반관인을 충원하기보다 극소수의 文翰官만 등용하였다. 문한관은 극소수의 급제자에게만 등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수 학과정이 갖추어진 교육제도나 학자들을 이어서 인적 학통을 형성하지못하고 사원의 승려로부터 미사여구를 외우고 사장에 필요한 이른바 彫蟲之徒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에 그 들에게서 유학의 심화란 거의 찾을 수없었고, 유학은 현실에 적응하기위한 실용문을 익히는 교양으로서 존재하였던데 불과하였다.

II. 性理學의 傳來와 普及

性理學은 宋代에 이르러 종래 字句의 해석에 주력하던 漢唐의 訓詁學風에서 벗어나 경학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新儒學을 말한다. 이 새로운 학문은 발생한 시기가 참작되어 宋學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주론, 인성론을 주로하는 신유학의 단서를 연 것은 北宋의 周敦頤였는데 그 뒤를 이어 程顥, 程頤 형제 등이 한층발전시키며 다시 남송의 주희가 그것을 종합하고

52) 앞의 책, 〈幸學記〉

53) 金庠基, 〈宋代에 있어서의 高麗本의 流通에 對하여〉 《李相殷華甲紀念論叢》, 1965.

54) 金忠烈, 《高麗儒學史》, 高麗大出版部, 1987, p. 129.

체계화시켜 집대성한 것이다.⁵⁵⁾

고려에 전래된 시기는 고려중기 北宋流의 성리학의 도입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고려 유학계에 계승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완성된 신유학으로서의 朱子 性理學이 새로이 고려에 정식으로 전래된 것은 송이 멸망한 얼마뒤인 충렬왕대에 元으로부터였다.

고려에서 성리학을 가장 활발하게 수용한 계기는 왕정복고후 元을 통한 유학의 부흥이라는 면이 있지만, 元 世祖가 漢人을 통치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남송의 성리학자를 중용함으로써 고려도 외교상 교류과정에서 이들과 접촉하게 된것이다. 고려의 충렬왕은 원 세조 및 성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왕실 통혼을 통하여 국가를 유지하였고, 고려학자들과 원에 등용된 강남 학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었으며, 安珦도 원의 유학보급을 담당한 征東行省儒學提舉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다음의 충선왕은 원의 代宗을 즉위시킨 정치세력으로 원에 중요한 존재였고 고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지만 원의 수도 燕京에서 고려를 조종하고 있으면서, 萬卷堂을 설치하여 고려의 신진사대부인 李齊賢을 불러 강남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서 본격적인 성리학의 수용이 가능해졌다. 이 때 이제현은 충선왕에게 유학을 진흥시키고 불교승려에 의해서 유지된 詞章學을 극복하고 실학을 내세웠다.

실학이란 이제현이 성리학의 사상체계를 가진 경학으로서 현실에 요긴한 학문이라고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리학을 수용할 주도적 계층의 존재는 곧 戶長層에서 과거로 상승한 신진사대부였다.

이들의 생활기반과 朱子를 중심한 南宋의 성리학자들과의 동일한 생활태도에서 동질성을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치에서 실권을 가지지않은 재야지식인으로 재지기반을 가진 점에서 고려의 호장층에서 入仕身分으로 상승한 자들과 상통하며, 이때문에 고려의 신진사대부들은 그들의 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념으로 성리학을 수용하지 않았는가 한다.

고려후기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소백산맥의 남쪽 기슭의 분지에서 신분상승한 호장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들은 在地中小地主로서 생활기반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남송성리학자들의 생활기반이 福建, 江蘇地域의 산간분지였던 점과 자연지리적 환경이 상통하는 바가 있다. 고려 전기와는 달리 고려후기에 호장에서 신분상승한 신진사대부들은 그들의 재지적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성리학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성리학은 사회윤리를 강하게 수반하였으므로 새로운 윤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의 형성과

55) 金忠烈, 〈麗末 性理學의 輸入과 形成過程〉《高麗儒學史》, 高麗大出版部, 1984.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신집권과 몽고의 침입으로 거주지와 本貫이 분리되고 천민집단이 존재하던 지역적 신분편제가 무너지므로써 본관을 중심한 지역적, 혈연적 집단이 크게 분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변동으로 같은 지역에 많은 姓이 혼재함으로서 성리학적 친족윤리가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불교계 자체의 부패로 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사상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고려불교가 고려후기에 들어와 蒙古의 僧政이나 승려의 영향을 받아 국사, 왕사가 僧政權을 갖게되고 세속적인 우대를 받게되자 불교자체의 승정을 둘러싼 종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승려의 생활에 있어서도 元末의 퇴폐적인 라마교의 생활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정변이 심하여 정치의 주도세력이 변함에 따라 정치와 야합한 성격이 강한 불교계의 자체의 분열도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크게 약화됨으로써 후에 성리학을 닦은 학자의 비판을 막아낼 단합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성리학이 사상적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결정적 기회였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구세력에 의해 비대해진 경제적 기반이 불교와 관련이 있었고 겹친 내우외환에서 군비를 보충하고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원경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이다. 군인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어야 될 재정력의 결핍으로 결국 이러한 군인들의 불만을 이용하는 개혁파의 학자관료와 이를 지원하는 무장출신인 李成桂는 사전과 함께 寺院田을 軍人田으로 확보함으로써 군인과 무장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하였다. 나아가 왕 조변혁과 함께 성리학을 국교로 하는 조선왕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⁶⁾

뿐만아니라 주자성리학이 전래될 수 있었던 것은 종래 유학계가 관심을 베풀었던 심성문제가 이미 儒家의 손에서는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으로 무신정권기에 결사운동 등을 주도하며 크게 활약하는 禪僧들의 사상과 융합 조화되어 그 내부에서 성숙을 이룸으로써 기반이 마련되어 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벌써 유학은 침체를 면치 못하였으나 그의 심성론과 같은 사상체계는 修禪社의 知訥이 말하는 眞心과 결부되고 있으며, 또 그의 후계자인 慧諶은 유불일치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白蓮社를 이끈 天因과 천책도 본래는 과거를 거친 유학자로서 이들이 佛門에 뛰어든 뒤에도 계속하여 기존의 여타 유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시의 사상계는 儒·佛의 融合現狀이 한 조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 속에서 유학계는 주자성리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자체 성장과정을

56) 許興植, 〈性理學的 受容과 佛教的 社會構造的 變化〉《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pp. 36~40.

거침으로써 이것이 곧 새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배경과 사정 밑에서 고려에 들어오는 주자성리학을 처음으로 전한 이는 安珣, 白頤正으로 알려졌다. 安珣(1243~1306)은 교육의 진흥을 위해 섬학전을 설치하고 국학의 大成殿을 신축하였고 박사 金文鼎을 중국에 보내 孔子와 70子の 화상 및 제기, 악기와 六經 諸子史의 서적을 구하여 오게하였다. 만년에 항상 晦庵先生의 眞影을 걸어놓고 경모하여 자기호를 晦軒이라 하였으며, 그가 元에 들어가기 몇달 전에 征東行省의 儒學提舉로 임명받은 사실로 미루어 성리학 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⁸⁾

白頤正은 안향의 뒤를 이어 실제로 성리학을 배워 가지고 돌아와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高麗史》에 “그 때에 정주학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행하여졌으나 동방에는 미치지 못했었는데, 正이 元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배워 가지고 돌아오니 李齊賢, 朴忠佐가 제일 먼저 師受하였다.”고 하였다.⁵⁹⁾ 《櫟翁稗說》에도 “白彝齋 頤正이 忠宣王을 따라 원도에 10년간 머물면서 많은 程朱性理의 서적을 구해 돌아 왔으며, 나의 장인인 정승 權公(權溥)은 四書集註를 얻어 간행하여 널리 전파하였으므로 배우는 자들이 또한 도학이 있음을 알게되었다.”⁶⁰⁾고 하여 백이정이 성리학 연구의 길을 열었음을 전하고 있다.

權溥는 《四書集註》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는데 큰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禹卓은 《高麗史》에 “經史에 정통하고 특히 易學에 깊어 卜筮에 밝지 않음이 없었다. 程子の 易傳이 처음으로 동방에 왔을 때에 능히 아는 자가 없었는데 卓이 문을 닫고 월여 동안 탐구하여 해득하고는 생도들에게 교수하여 理學이 비로소 행하여졌다.”고 한 바와 같이⁶¹⁾ 난해한 《周易》을 이해시키는데 공로를 세우고 있다.

백이정의 정주학은 이제현과 박충좌 등에게 전수되었다. 이제현은 충숙왕 원년(1314)에 28세의 한창 나이로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그가 원도에 세운 萬卷堂으로 가서 한족 출신의 일류 문사들로 詩·書뿐 아니라 朱子學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姚燧 및 趙孟頫, 虞集 등과 교유하여 한층 깊은 학술과 경륜을 쌓게 되는 것이다. 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중국대륙을 여행하여 안목을 넓히기도 했던 그는 10여년만에 귀국하지만, 따라서 어떤 학자는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그것을 고려의 신지식으로 소화 흡수케

57) 文喆永, 〈麗末 新興士大夫들의 新儒學 수용과 그 특징〉 《韓國文化》 3, 1982.

58) 《高麗史》 권 105, 列傳, 安珣.

59) 위의 책, 권 106, 列傳, 白文節 附 頤正

60) 《櫟翁稗說》 前集2, 〈國家伐叛耽羅〉

61) 《高麗史》 권 105, 列傳 安珣.

한 것은 이제현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하였다고도 한다.⁶²⁾

이제현의 문인인 李穀, 李穡父子에 이르러 한단계 높은 발전을 이룩한다. 이곡은 원나라의 制科에까지 급제한 후 그곳에서 벼슬을 하며 고려인의 文名을 드높이고 본국의 유학발달에도 일정한 공로를 하지만, 아들인 이색 역시 성균관에서 장원을 한 뒤에 원으로 들어가 그곳 국자감에서 3년간 재학하여 성리학의 정통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많은 인재를 길러내어 우리 성리학을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색은 성균관이 중영된 공민왕 16년(1367)에 判開城府事로서 성균대사성을 겸한 그가 학식을 고쳐 생원수를 늘리고 학술이 깊은 金九容과 鄭夢周·朴尚衷·朴宜中·李崇仁 등으로 하여금 모두 교관을 겸직케 한 후 한 과목씩 나누어 강의와 토론을 맡게 함으로써 정주성리학을 크게 진흥시켰다고 한 그의 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⁶³⁾ 이 밖에 鄭道傳·權近 등 당시의 비중있는 성리학자들 중에 이색 밑에서 학업을 닦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색의 제자 가운데 鄭夢周는 “東方 理學의 祖”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더욱 뛰어났었다.

그러나 성리학 관계의 저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 뒷날 성리학자로 높이 평가 받았던 것은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와 명분을 버리지 않았던 義理學으로서의 성리학의 실천적 측면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⁶⁴⁾

고려말에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독자적 논술을 낸 것은 鄭道傳과 權近에 이르러서였다. 정도전은 親明을 표방하고 排佛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主理的 우주론을 내세웠다. 權近에 이르러 성리학은 더욱 심화되어 《入學圖說》을 통해 천인심성의 합일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성리학은 새국가인 조선을 건국한 그들의 정치철학이요 행동윤리였다.

오히려 신진사대부로 이어지는 이들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성리학은 도입되어 실천적 의미를 크게 지니고 뿌리를 내려갔다.

이상의 성리학의 도입과 보급 그리고 연구에 따른 결과는 불교식 禮制의 유교식 禮制로의 변화와 그에 부수되어 친족제도의 변화를 가져왔고, 性理學者의 排佛思想의 형성을 가져왔다.

먼저 유교식 예제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유교식 예제에서 출생의 의미는 불교의 윤회설이나 환생설과는 달리 父系의 수직적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발달한 宗法意識에서 기원하며 여자는 제사상속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62) 鄭玉子, 〈麗末 朱子性理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李齊賢을 中心으로—〉《震檀學報》51, 1981.

63) 《高麗史》권 115, 列傳, 李穡

64) 朴鐘鴻, 〈東方理學의 祖로서의 鄭圃隱〉《韓國思想》11, 1974.

아들을 보기 위해 蓄妾, 入養이 생김으로써 여자를 비참하게 하는 집을 예고하는 요소였다.

婚禮는 불교식 보다 경건성이 강화되었다. 혼례를 4禮의 하나로 들었고, 부계 친족과는 百代라도 금지하였다. 喪制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佛教式 火葬과 百日 短期喪制를 버리고 삼년상으로부터 점차 감쇄된 상복제를 따르는 사례가 생기게 되었다. 성리학적 死生觀과 불교의 死生觀은 큰 차이가 있으며, 불교식 장법은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을 불교의식으로서 단기화시킨 셈이 되지만, 성리학에서는 완만하게 생에서 사자와 생자와의 관계가 좁아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리학이 불교보다 철저한 來世觀을 갖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심리적 초월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제례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불교식 제례는 사원에서 행해졌지만 성리학적 예제는 가묘가 그 기반이 되었다. 가묘의 특징은 사원에서 주관하던 제례를 가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5대조를 봉사하려면 적어도 고조를 같이하는 부계친족이 모이게 되고 자연 장자를 중심한 가문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朱子의 저술이 소개되고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고려후기의 유학교육을 부흥시키는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지만 朱子家禮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변혁, 가족, 친족 등 사회기반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약간 늦게 이루어지고 있었다.⁶⁵⁾

원의 성리학은 남송에서 완성된 朱子學 본래의 성격인 형이상학적, 사변적 경향과는 좀 달리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학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에 들어온 성리학 역시 그같은 경향을 띠어 의리론, 명분론이 그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그로써 이론적 무장을 한 성리학자들은 현실적인 사회윤리를 강조하면서 불교의 비본연적, 비현실적 사고와 행위를 공격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리학은 당시 매우 抵抗의 意味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排佛運動은 정치세력과 결부되면서 한층 과격하게 되었다. 고려말에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류가 여러가지 정치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어 있었지만 불교는 주로 전자와, 그리고 성리학은 주로 후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불교문제는 새 세력의 더욱 심한 배척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⁶⁶⁾

이 같은 배경속에서 진행되는 불교배척운동은 崔瀝와 安珦, 李齊賢 등이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들의 입장은 불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의 폐단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온건한 斥佛論은 그 뒤의 李穡에게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가 공민왕 원년에 올린 소문은 그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예이다. “부처는

65)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社會構造〉《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pp. 40~44.

66) 李相佰, 〈儒佛兩敎 交代의 機緣에 대한 一研究〉《朝鮮文化史研究論考》, 乙酉文化社, 1947.

大聖人”이라느니 또는 “至誠, 至公하다.”고 말하면서 그를 섬겨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역시 온건, 정중하게 불교의 폐단을 혁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그러나 鄭夢周에 이르면 척불의 입장은 상당히 철저해진다. 그는 “유자의 도는 모두 일용 평상의 일이니, 음식이나 남녀관계는 사람이면 모두가 같은 바로서 지극한 理가 그속에 있습니다. (중략)저 佛氏는 그렇지 않은 즉 친척을 떠나고 남녀 관계를 끊으며, 홀로 바위굴에 앉아 草衣 木食하면서 觀空寂滅하는 것으로 宗을 삼으니 이 어찌 평상의 道라 하겠습니까.”라 하여⁶⁸⁾ 유학의 실천윤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현실과 유리된 불교 자체의 비윤리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면 배불운동은 절정에 달하는데 그 중심인물은 정도전이었다.

그의 배불론은 조선시대에 가서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心氣理篇》과 《佛氏雜辨》의 저술로 나타났다. 鄭道傳에 이어 成均大司成 金子粹, 成均博士 金紹의 斥佛疏가 있다. 김초의 상소는 불교를 아예 말살해 버리도록 촉구하는 매우 과격한 것이었다.⁶⁹⁾ 이에 金瑬과 鄭士倜가 불교 옹호론을 폈고 이에 자극된 成均館 生員 朴礎의 장문의 격렬한 廢佛疏가 있었다. 척불논의는 고려왕조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조선조로 넘겨지게 되어 정도전과 權近에 의해 성리학은 마침내 불교를 제치고 조선왕조의 관학이요 지도이념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第3節 教育·科學制度와 大邱

I. 教育制度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國子監과 12徒, 그리고 지방에는 鄉校가 있었다. 이 가운데 국자감과 향교는 官立이었고 12徒는 私立이었다.

먼저 국자감에 대해 살펴보자. 국립대학격인 국자감의 창설과정을 보면, 개경에는 건국직후부터 이미 신라의 國學을 이은 국립대학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그리고 그 명칭도 여전히

67) 註 63)과 같음.

68) 《高麗史》권 117, 列傳, 鄭夢周.

69) 《高麗史節要》권 35, 世家 恭讓王 3년 5월.

국학이었던 것 같으며, 늦어도 성종 때는 이 안에 國子學, 太學, 四門學의 구분도 되어 있었던 듯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종 11년(992)에 국자감의 창건이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종래의 국학이 국자감으로 개편 정비된 사실 내지는 단순한 국자감 건물의 창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고려의 국립대학은 오랜동안 국자감이란 이름으로 불리어 오다가 충렬왕 원년(1275)에 國學으로 개칭되었으며 다시 충렬왕 24년(1298)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成均監으로 바꾸고, 또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成均館으로 개칭하였다. 물론 그후에도 몇번 더 명칭이 바뀌면서 조선조로 이어진다. 이 국자감안에는 어느 때인가 잘 알 수 없으나 國子學, 太學, 四門學 등의 유학부 이외에 書學, 算學, 律學 등의 기술학부가 추가되어 적어도 文宗朝에는 京師6學이 갖추어져 있었다.⁷⁰⁾

이러한 편제의 정비에도 국자감은 재정상의 어려움과 崔冲의 文憲公徒 등 사학이 발달함으로써 위축되었다. 예종과 인종의 적극적인 관학부흥책이 있어 국자감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예종의 부흥시책중 먼저 최충의 9齋를 모방하여 국학내에 새로이 7齋를 설치한 점을 들 수 있다. 7齋란 7종의 전문강좌로서 周易을 공부하는 麗澤齋, 尚書를 공부하는 待聘齋, 毛詩를 공부하는 經德齋, 周禮를 공부하는 求仁齋, 戴禮를 공부하는 服膺齋, 春秋를 공부하는 養正齋, 武學을 공부하는 講藝齋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자감 학생은 종래부터 있어온 일반 국학생과 齋生으로 분립되었으며 여기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후자였다. 또한 예종14년 7월에 설치한 養賢庫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는 일종의 장학재단으로서 그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인종의 관학진흥은 學式의 詳定으로 나타났다. 학식은 지금의 학칙과 같은 것으로 경사6학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먼저 입학자격을 보면,

國子學; 文, 武官 3品이상의 子, 孫, 勳官 2品으로 縣公 이상을 띤 사람과 京官 4品으로 3品이상 勳封者의 子.

太 學; 文, 武官 5品 이상의 子, 孫, 正, 從 3品の 曾孫 및 勳官 3品이상 有封者의 子.

四門學; 勳官 3品이상 無封, 4品 有封 및 文, 武官 7品 이상의 子.(《高麗史》 권 74, 選舉志 2, 學校)

범법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때 유학 3부의 입학이 학과별에서가 아니라 신분의

70) 閔丙河, 〈高麗時代의 教育制度－특히 國子監을 中心으로－〉, 《歷史教育》 2, 1967.

申千湜, 〈高麗前期 學制 成立과 教育理念〉 《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1983.

차이에 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기술학부인 율학, 서학, 산학의 입학자격은 8품 이하의 자 및 서인과 7품 이상의 자 중에서 원하는 자로 되어 있어 역시 신분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은 학식에 국자학, 태학, 사문학에 각 300인 재학하였다고 하여 전체 인원은 900명이었던 듯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합 300인으로 3학의 전체 전원이 300명 정도였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고 한다.⁷¹⁾ 율학은 40명 내외, 서학과 산학은 각기 15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⁷²⁾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에 대해 고찰하여 보면 율학부의 경우,

孝經과 論語는 공통필수과목으로 1년을 수업연한으로 하여 누구나 이수해야 하며, 尚書 公羊傳·穀梁傳의 수업연한은 각기 2년반으로 그 중 一經을 택하여 이수한다. 周易, 毛詩, 周禮, 儀禮의 수업연한은 각기 2년으로 그중 一經을 택하여 이수한다. 禮記, 左傳의 수업연한은 각기 3년으로 그중 一經을 택하여 이수한다. (《高麗史》권 74, 選舉志 2, 學校)

위의 교과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하는 규정이라면 그것을 전부 이수하는 데는 8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국자감생은 3년만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다. 이런데서 국자감생의 능력별 졸업제도 같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8년 6개월은 국자감생의 최장이수기간에 대한 규정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략 국자감 율학생의 재학기간은 3년~9년으로 정리된다. 기술학인 잡학의 경우 율학에서는 律·令을, 서학에서는 고문 등의 8書 그리고 산학에서는 산술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의 학생도 3년~6년 동안 재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⁷³⁾

學官으로는 율학부에는 경학에 뛰어나고 언행이 독실하여 師範이 될만한 인물을 박사, 조교로 삼아 각 경서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율·서·산학에도 각기 박사를 두어 전공분야를 담당시켰다. 운영직관으로는 처음에 提學, 判事 등이 있었으나 모두 겸관이어서 실제로는 종삼품인 國子祭酒가 총장격이었다. 예종 11년에 判事が 大司成(종삼품)으로 개칭되면서 총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祭酒는 부총장이 되었다. 그 밑에 각종의 일을 담당하는 여러 직관이 소속하여 있었다.⁷⁴⁾

71) 朴性鳳, 〈國子監과 私學〉《한국사》6, 국편위, 1975.

72) 閔丙河, 〈高麗時代 成均館의 成立과 發展〉《大東文化研究》6·7합, 1970.

73) 朴龍雲, 〈貴族社會의 教育과 文化〉《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p. 373.

74) 申千湜, 〈高麗 國子監의 教育職官 變遷〉《高麗教育制度史研究》, 螢雪出版社, 1983.

국자감은 무신정권이 서고 몽고의 침입까지 겹쳐 교육은 전반적으로 위축을 당하게 되었다. 충렬왕 때 經史敎授都監의 설치와 贍學錢의 설치 국학의 대성전 신축 등의 조처와 공민왕시의 성균관 중영, 5경 4서재의 分設, 그리고 李穡, 金九容, 鄭夢周, 李崇仁 등의 명유들이 학관을 담당하여 국학은 다시 부흥되었다. 이와 함께 국학에서는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서로 분리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공양왕 원년 10학교수관이 설치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⁷⁵⁾ 樂學은 典義寺, 율학은 典法寺, 字學은 典校寺, 의학은 典醫寺 등과 같이 특수분야의 교육은 해당관서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성균관은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변하게 되었다.

문종대는 국운이 융성한 시기이지만 재정상의 어려움과 학관의 무능, 불성실로 국학이 부진하였다. 또한 고려 문벌귀족사회의 난숙기로서 자제의 교육을 담당해줄 새로운 기관을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사학을 일으킨 사람은 崔冲이었다. 최충은 문종원년에 門下侍中이 된 이래 72세가 되는 문종9년에 致仕할 때까지 수상을 9년간 지냈다.⁷⁶⁾ 그는 관직에 있을 때부터 후진의 교육에 뜻을 두고 있었으므로 치사와 동시에 私塾을 연 것 같다. 그가 죽은 뒤에는 시호를 따라 文憲公徒라 불리었다.

최충은 松岳山의 紫霞洞에 학당을 마련하여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大和, 待聘 등의 9齋로 나누고 각각 전문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 각 재명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과정도 구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⁷⁷⁾ 여기에서는 9經, 3史를 중심으로하고 시부 사장도 공부시켰다. 당시 최공도가 얼마나 번성했는가는 “무릇 응거하는 자제들은 반드시 徒中에 속하여 배웠다.”라 한데서 알 수 있다.

최충의 이와 같은 교육사업은 유학계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각 유신들도 사숙을 열어 徒를 세운 것이 개경에만도 11개나 되었다.⁷⁸⁾ 12도는 문종9년을 기점으로 하여 문종말에는 거의 창립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설립자들은 한결 같이 고관출신임을 뿐아니라 과거의 고시관인 知貢擧를 지낸것이 확인된다. 이로보아 사학 설립자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대학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의 귀족자제들은 관학인 국자감보다 사학으로 물리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학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사학12도의 변화를 살펴보자.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는 동안 관, 사학을

75) 宋春永, 《高麗時代의 雜學敎育研究》, 曉星女子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1.

76) 《高麗史》 권 95, 列傳, 崔冲.

77) 朴晴湖, 〈高麗時代의 儒學發達과 私學十二徒의 功績〉 《史叢》 2, 1957.

78)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私學.

막론하고 침체되었다. 그러나 사학 12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명종대 활약한 李勝章, 李奎報 그리고 회종대의 林得侯가 12도에서 교육을 받고 급제한 사실에서 12도의 교육사업이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학 12도는 교육과정상 국가감과 대체적으로 비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공민왕대에 이르러서 12도는 국학의 예비과정으로 전락하는 한편 사학적 성격도 많이 상실한 것으로 추측된다.⁷⁹⁾ 그후 恭讓王 3年(1391)에 停罷되었다.

이상에서 중앙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지방교육에 대해 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을 주로 담당한 것은 향교였다. 향교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성종대였다고 생각된다.

성종은 처음에 주군의 자제 260명을 서울로 뽑아 올려 학업을 닦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별 효과가 없자 왕 5년 7월에 207명의 학생에게 고향에 돌아갈 것을 허락하고 이어 6년 8월에 그들의 교육을 위해 12州牧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인씩 파견하는 조처를 취하였다.⁸⁰⁾

이때에 향교가 발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미 통일신라기부터 淸州를 비롯한 중요지방에 學院이라는 명칭의 학교가 존재하여 왔다는 사실이 있고 각 지방의 학원은 나말여초에는 호족의 지배하에 있었다.⁸¹⁾ 그 학원들이 성종조에 들어와 지방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경학박사 등이 파견되는 것을 계기로 중앙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학교로 개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교는 자제를 교육하는 교학기능과 先聖인 孔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을 제사지내는 봉사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향교에는 이를 위해 明倫堂과 文廟가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향교는 이러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것 같다. 李穀이 〈寧海府新作小學記〉에서 “본국 향교의 제도는 문묘와 학당이 같은 건물안에 있어 외람되다. 더구나 동자들이 들어와 大成殿 뜰에 모여서 떠들썩하니 외람됨이 더욱 심하다.”라 한 데서 알 수 있다.⁸²⁾ 향교는 사당과 강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廊무도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⁸³⁾

향교의 입학자격은 인종 때 정해진 학식에 명시되어 있듯이 8품 이하의 庶人, 그리고

79) 위의 책, 學校, 恭愍王 元년 4월. 李穡이 올린 상소에는 “지방에서는 鄕校, 서울에서는 學堂에서 그 才藝를 시험하여 12徒로 올리고, 12도에서는 또 통털어 시험보여 成均館으로 올리자.”라 하였는데서 추측된다.

80) 위의 책, 권 74, 選舉 2, 學校.

81) 金光洙, 〈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韓國史研究》7, 1972.

82) 《稼亭集》권 5, 〈寧海府新作小學記〉

83) 朴贊洙, 〈高麗時代의 鄕校〉《韓國史研究》42, 1983.

7품 이상의 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향교의 학생들 역시 과거가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 과거의 양대업은 향리층까지에게만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이 주류를 이룬 것은 이들 향리층의 자제였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 일부 하급관료의 자제와 잡업을 목표로 하는 서인의 자제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교과 내용 역시 과거와 관련되는 과목들이 중심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향교의 교수로는 우선 성종 때 파견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들 수 있다. 예종은 지방의 수령으로 과거를 거친 사람에게는 학사까지 관장토록 조치하고 있다.⁸⁴⁾ 이로부터는 수령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학식을 닦은 師長, 儒師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맡게 하였다. 고려후기에는 사립의 書齋가 지방에 널리 조성되어 과거 준비교육기관으로 존재하였다.⁸⁵⁾

II. 科擧制度와 大邱地域의 及第者

우리나라에 과거라는 시험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은 광종 9년(958)으로 이는 호족연합적 형태를 띠고 있던 당시의 무훈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⁸⁶⁾ 이 제도가 실시된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였다.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학생과 지방출신의 鄉貢을 막론하고 예비시험 단계를 거침이 없이 직접 본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기반이 잡히고 관료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과거제에도 여러가지 복잡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다. 현종 15년(1024) 12월에는 향공의 숫자를 州縣의 크기에 기준하여 3~1人씩(1000丁 이상 州縣은 3人, 500丁 이상 州縣 2人, 그 이하 州縣 1人)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들은 반드시 界首官이 주관하는 界首官試를 거치도록 한 후, 다시 서울의 國子監에서 재시험을 치러 합격한 다음에야 본시험인 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덕종 즉위년(1031)에 이르러 모든 응시자들은 본시험에 앞서서 예비시험으로 생각되는 국자감시를 치르도록 법제화되었던 것 같다. 이어서 덕종 2년(1033)에는 국학생들에게 입학 후 3년이 되어야 본 감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는 까다로와졌다.⁸⁷⁾

84) 《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學校, 睿宗 即位 制.

85) 李秉然, 〈麗末鮮初의 科擧教育—書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67, 1975.

86) 姜喜雄, 〈高麗初 科擧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韓國의 傳統과 變遷》,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87) 《高麗史》 권 73, 選舉 1, 科目 1.

예비시험인 국자감시는 成均試, 南省試라고도 하는데 중앙의 일반 국학생과 12도생 가운데 선발된 貢士 및 界首官試를 거친 鄉貢 등이 응시할 수 있었다. 일단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國子進士, 太學進士, 明經進士, 鄉貢進士 등의 進士 칭호를 얻게 되고 본과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함께 士로서의 대우를 받았다.⁸⁸⁾ 본 시험인 예부시는 東堂監試 이외에 禮闈, 春官試, 春闈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다. 여기에는 제술, 명경업에서 선발된 자로 다시 국자감에 3년 재학한 사람과 仕宦하여 300일이 된자, 西京의 留守官試를 거쳐 選上된자, 界首官試를 치른 鄉貢으로 절차를 밟은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었다.⁸⁹⁾ 예부시는 최종고시의 성격이 강하였다. 전기의 예종때까지는 예부시 뒤에도 왕권이 개입하여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覆試가 간간히 시행되었고, 그 중에는 국왕이 스스로 고시하는 親試도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은 상례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인조이후에는 거의 폐지되었다.⁹⁰⁾ 따라서 고려의 과거는 국자감시와 예부시체제로 일관되었다고 해도 좋다. 공민왕18년(1369) 元의 鄉試, 會試, 殿試와 같은 科擧三層法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과목은 試, 賦 중심에서 경서중심으로 옮겨지고 동시에 과거에서 국왕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고시관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과거는 시험과목에 따라 제술업과 명경업 그리고 明法業, 明算業, 明書業, 醫業, 呪禁業, 地理業 등 雜業의 셋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술업의 국자감시인 제술업감시에서는 賦와 六韻, 十韻詩로 간단히 시험을 치르고 이어서 예부시제술업에서 詩, 賦, 訟, 시무책 및 論, 經學 등의 과목을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시험하였다. 삼장에서 모두 합격하여야 급제가 되는데 이를 三場連卷法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여타의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문직을 선발하는 잡업에 비해 주로 문예와 경전에 능한 교양인을 뽑는 제술업과 명경업을 兩大業이라 하여 중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제술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 이 시험의 급제자는 그 성적에 따라 甲科, 乙科, 丙科, 同進士로 나뉘었다. 곧 갑과는 폐지되고 乙科3人, 丙科7人, 同進士23人 모두 33人을 뽑는 것이 보통이었고 급제자만이 진출할 수 있는 文翰官은 제술업 급제자들이 대부분 차지하였다.⁹¹⁾

과거 응시자의 신분은 어떠한가. 제술업과 명경업의 경우 副戶長이상의 孫이나 副戶正

88) 許興植, 〈高麗의 國子監試와 이를 통한 鄉吏의 身分上昇〉《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89) 《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睿宗 5년 判文.

90) 許興植, 〈高麗 科擧制度의 成立과 發展〉《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91) 許興植, 〈高麗 禮部試의 諸業別 出題와 及第者の 進出〉 위의 책.

이상의 子로 한정된 것으로⁹²⁾ 보아 양대업은 향리 중에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중에서도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 제술업에 일반 양인이 제외되고 일정한 신분층 이상만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제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다.

과거급제자들은 합격증서로 紅牌를 받고 또 登科田이라는 명목의 토지까지 지급받아 경제적 혜택도 누렸다.⁹³⁾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후보자들인 셈이었다. 이들이 실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吏部의 銓注와 臺諫의 署經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고려 전기의 예부시는 등용고시의 성격이 강했다. 후기로 들어와서는 비록 급제자라 하더라도 오랜동안 대기하였다가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취임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관직에 취임하는 경우도 처음에는 중앙의 文翰官이나 지방의 書記, 判官 등으로 진출하다가 얼마 후에는 으레껏 외직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初仕職을 얻거나 그 뒤의 승진에 있어서 가문의 정도가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⁹⁴⁾

과거의 正·副考試官은 각기 知貢舉와 同知貢舉라 하였다. 당년에 급제한 사람들은 이들을 座主라 부르고 자기들은 그 좌주의 門生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맺어진 양자의 관계는 父子와 같아서 일생을 통하여 서로 도와 갔다고 한다. 같은 해 급제자끼리도 同年會를 만들어 형제 같이 친밀하게 지내었다. 이와 같은 좌주와 문생 및 동년회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폐단도 있었지만, 과거가 지니는 사회적 기능의 또 다른 면이다.⁹⁵⁾

地方에서 국자감시의 가장 중요한 제술업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들로는 界首官試에서 선발된 鄉貢이었다. 향공은 地方吏 가운데 副戶正 이상의 자제로 가장 광범위한 지역과 응시자로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과거를 통한 지방에서 신분이 상승되는 유동관계를 알 수 있다.

地方吏는 크게 둘로 나누어 향공이 될 수 있었던 목, 주, 부, 군, 현, 진의 吏와 鄉貢이 될 수 없었던 향, 소, 부곡, 역, 關, 津의 吏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다음에 그 중에 吏만이 개인 신분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庶人 이상의 집단에서 吏의 과거로의 진출은 奴婢按檢, 鄉職改編 등 신분제의 정비작업이

92) 《高麗史》 권 73, 選舉志 1, 科目, 文宗 2년 10월 判.

93) 姜晉哲, 〈田柴科制度의 制定 및 그 內容〉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94) 許興植, 〈高麗 科擧制度의 成立과 發展〉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張東翼, 〈高麗時代의 官僚進出(其一)－初仕職－〉 《大丘史學》 12·13합, 1977.

95) 許興植, 〈高麗의 科擧와 門蔭과의 比較〉 《高麗科擧制度史研究》, 一潮閣, 1981.

이루어지던 광종 이후부터 활발하여 성종중기까지 계속되었다. 중기에 가까울수록 지방리의 진출은 어려워졌고 중앙문벌자재의 독점물이 되었다. 이것은 고려초에 과거가 지방토호를 중앙의 入仕職으로 재편성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중기이후는 과거를 통하여 진출했던 인물들이 문벌을 이루어 사회신분의 유동을 폐쇄시킨 결과였다.

무신집권으로 중앙문벌은 제거되고 몽고와의 투쟁기에는 전반적으로 신분유동이 활발했으며 몽고에 굴복한 다음에도 과거를 통한 신분유동은 활발하게 계속되었으며 차차 중앙문벌이 다시 형성되어 과거를 통한 신분유동은 다시 폐쇄성이 짙어졌다. 이 때문에 무신집권이후 地方吏의 신분상승이 계속되었고 신분하강이 없었으므로 品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添設職을 남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증가된 품관은 그들 스스로 과거를 독점함으로써 지방리의 진출은 어려워졌다.

고려후기로 접어들면서 지방리출신은 장원급제자를 몇명씩 내었고 급제자가 정치, 문화, 사상계의 새로운 주도자로 등장하였으나, 고려말에는 吏의 자손들이 급제한 예가 아주 드물어졌고, 조선초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신분상승만이 존재한 사회에서는 상승하지 못한 신분층은 사실상 신분하강이 일어나는 셈이며, 제한된 지역사회에 나타난 신분유동의 한 형태를 고려후기에서 찾을 수 있다.⁹⁶⁾

이와 같은 地方吏 출신의 과거를 통한 신분상승의 예를 대구지역의 급제자를 통해 살펴보자. 대구지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간 지배세력은 신라말, 고려초에 형성된 土姓인데, 고려시대 이래 대구지역은 대구현, 수성속현, 하빈속현, 해안속현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대구현지역의 토성은 白, 夏, 裴, 徐, 李 등의 다섯 성씨가, 수성속현지역은 賓, 羅, 曹, 嵇 등의 네 성씨가, 하빈속현지역은 申, 李, 宋 등의 세 성씨가, 해안 속현지역은 金, 全, 白 등의 세 성씨가 각각 존재하고 있었다.⁹⁷⁾ 먼저 대구현지역의 徐氏와 裴氏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吏族으로서 고려시대부터 향리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서씨는 고려후기에 서울에 올라가 관료로서 사환 하면서 士族과 吏族으로 분화되었고 사족은 거주지에 따라 다시 京派와 鄕派로 분화되어 갔다. 또 조선왕조초기까지 오늘날의 달성공원 일대가 徐氏의 소유지였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서씨는 대구지역과 밀접한 지연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씨의 경우 고려시대에 두드러진 인물은 고려말에 신흥사대부층으로 진출했던 徐均衡과 徐彌性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96) 註 88) 참조.

97) 《世宗實錄》권 150, 地理志, 慶尚道, 大丘.

진출하여 명문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속현의 성씨 중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이는 경우는 수성속현의 賓氏인데 원 압제하에서 元의 制科에 급제하여 翰林에 임명된 賓于光을 들 수 있다.⁹⁸⁾

《大丘邑誌》와 〈科試 設行과 製述科 及第者〉에 나타난 급제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⁹⁹⁾

賓于光－魁科, 元 制科, 官이 翰林에 이름
 徐均衡－恭愍朝 登第, 官이 政堂文學에 이름
 徐坐－徐均衡의 아들, 副令에 이름
 朴允文－麗朝 登第, 官이 大提學에 이름
 朴彥孚－麗朝 登第, 官이 侍中에 이름
 朴孝臣－麗朝 登第, 官이 侍中에 이름
 朴文彬－麗末 登第, 吏曹正郎 太祖朝에 大司成拜授 不仕
 卞仲良－麗末 等第, 密城承旨, 朝鮮朝 判中樞, 龍飛御天歌를 擇함.
 全伯英－麗末 登第, 官이 判書에 이름

위에서 이력이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은 賓于光과 徐均衡이다. 빈우광은 생몰년은 미상이지만, 고려후기의 문신이고 수성현에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고 문한관에 임명되었다.

그후 정동행성의 향시를 거쳐 동료 2명과 함께 원에 파견되어 會試를 통과하고 庭試에 합격하였다. 원의 관직인 한림에 이르렀으나 곧 귀국하여 山林에 은거하였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이익과 영달을 구하지 않고 산수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그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또 그의 필법은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¹⁰⁰⁾

徐均衡은 언제 출생한 것인지는 미상이나 1391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려말기의 문신으로 1366년에 左正言이 되었다. 1379년 평소 洪仲宣과 사이가 좋지않았는데 나하추가 요동을 침입할 때 홍중선이 출병하지 않으므로 諫官으로서 탄핵하여 유배시켰다. 1380년 국자감시를 관장할 때 禍王이 시험문제를 보려하자 누설을 문제 삼아 거절하였다. 承宣을 역임하고 1386년에 提調에 올랐고 1388년 門下評理로 密直副使 俞光祐와 함께 明에 使臣으로 다녀왔다. 1390년 藝文館大提學으로 趙浚, 李至 등과 함께 世子의 師傅가 되었으며 1391년

98) 張東翼, 〈大邱地域－人物－〉《八公山》續集,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1991, p. 558.

99)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研究》, 一志社, 1990, pp. 325~557.

100)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6, 大邱都護府, 人物.

楊廣道都觀察使가 되었다.¹⁰¹⁾

徐坐는 徐鈞衡의 아들이며 副令(從4品)까지 승진한 인물이다.¹⁰²⁾

全伯英은 齋生이었고 공민왕 17년(1368)에 升補試를 거쳐 左司議大夫에 오른 인물이다.¹⁰³⁾

이외의 인물은 확인할 문적이 없다.

第4節 風水地理說과 民間信仰

I. 風水地理說과 大邱

風水地理는 都邑, 宮宅, 陵基 등 땅을 卜相하는데 쓰이는 觀相學이기 때문에 地相學 또는 相地學으로 불린다.¹⁰⁴⁾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들어와 있었다. 삼국이 국도를 건설하는 과정이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있으며, 현전하는 삼국시대 능기의 자리가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비추어 明堂에 해당되는 곳이 많다. 풍수지리설은 도읍, 궁택의 形法的인 지리에 陰陽五行의 형이상학적 이론의 근거를 부여하고 그 밖에 천문, 방위 등의 사상을 첨가하여 유가의 윤리사상과 결합하여 일층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¹⁰⁵⁾

풍수지리설은 일종의 인문지리적 지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신라 하대에 오면 크게 유행했다고 한다. 나말여초에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게되는 이유를 禪宗의 성행과 연결시켜 설명되기도 한다. 스승을 찾아 여러 사원을 두루 찾아다닌 경험이 선종승려로 하여금 풍수지리적인 사상을 갖게했다고 한다.¹⁰⁶⁾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은 桐裏山派의 선승인 道誥이었다. 그가 유포시킨

101) 《高麗史》권 41, 世家恭愍王 15년 4월.

위의 책, 권 46, 世家恭讓王 3년 5월.

위의 책, 권 111, 列傳, 洪仲宣.

위의 책, 권 117, 列傳, 姜淮伯.

위의 책, 권 134, 列傳, 辛禔.

위의 책, 권 137, 列傳, 辛禔.

102) 朴龍雲, 앞의 책, 1990, p. 525.

103) 《高麗史》권 74, 選舉2, 科目2, 升補試, 恭愍王 17년 8월.

朴龍雲, 위의 책, p. 500.

104)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105) 李丙燾, 위의 책.

106) 崔柄憲, 〈道誥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韓國史研究》11, 1975.

풍수설은 지형과 수세를 강조하는 江西法이어서 그의 이론은 묘지의 선정 내지 陰宅風水보다 전국토의 지리적 조건을 판단하거나 도성이나 궁실의 자리를 선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그의 풍수설은 미래를 예언하는 도참설과 연결되기도 하여 송악을 중심으로 한 고려왕조의 건국을 예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의 풍수지리설은 신라말기라는 사회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국토공간의 중심적인 위치를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친 경주로부터 중부지방의 송악으로 옮기고자 했던 국토계획안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도선의 풍수지리설은 고려왕조를 건국한 왕전에 의해 받아들여져 개경을 ‘藏風之局’의 명당으로 서경을 ‘得水之局’의 명당으로 설명함으로써 고려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도선의 풍수지리설은 고려태조의 훈요에 잘 반영되어 있다. “諸寺院은 모두 道誡이 추점한 산수의 順逆에 따라 개창하라,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정한 외에 망령되이 창조한 즉 지덕을 손상하게 하여 朝業이 길지 못할 것이다.’고 했으니 짐은 후세의 國王, 公侯, 后妃, 朝臣들이 각각 願堂이라 칭하면서 더욱 창조하여 간다면 크게 우려할 바라 생각한다.”¹⁰⁷⁾ 도선에 의해 산수의 순역에 따라 어느 곳 산수는 순하고 어느 곳 산수는 역하니까 사찰은 어느 곳에 세우라고 추정해 둔 만큼 이는 전 국토의 순역형세가 정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裨補寺塔說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지리적 조건의 부족함을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고 결함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지기가 왕성하고 순한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맥이 약한 곳이거나 산형이 험흉한 곳에 사찰을 짓거나 탑을 세움으로써 불력에 의해 힘있고 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權近의 기록에도 이와 같은 비보사탑설이 설명되고 있다. “고려 왕씨가 삼국을 통합한 초기에 率用無替하여 密佑하는 자본으로 삼아 이에 중외에 寺社를 많이 설치하였다. 소위 裨補가 바로 이것이다.”¹⁰⁸⁾ 풍수설에서 일단 陽基로 결정되어 定地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속성을 지녀서 결국 비보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¹⁰⁹⁾ 이는 과감한 변혁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방호족세력을 해체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일국가를 이룩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 비보사상에 머물지 않고 도참사상과 결합하게 되었고, 地氣衰旺說도 대두하였다.

107) 《高麗史》 권 2, 世家 太祖 26년.

108) 權近, 〈演福寺塔重創記〉《東文選》 권 78.

109)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4, p. 255.

地理와 圖識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도참은 장래의 일 특히 인간생활의 길흉화복과 성쇠득실에 대한 예언이나 징조를 범칭하는 것인데¹¹⁰⁾ 신비한 측면에서 풍수지리와 서로 통하는 것이어서 정치, 사회 및 일반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기쇠왕설은 지기 즉 토지 자연의 힘은 왕성하기도 하며 쇠퇴하기도 하는데 지기가 왕성할 때는 그곳에 자리 잡은 왕조나 사람은 흥성하고 반대로 쇠퇴할 때는 멸망한다는 것이다. 또 지기의 쇠왕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유리한 곳 좋은 곳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나 왕조도 그에 따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기 쇠왕설의 유행에 따라 고려중기 이후에는 개경의 지기가 쇠하였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나 국왕이 일정기간 지기가 왕성한 곳으로 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일어났다.

위와 같은 풍수사상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문제로 제기된 사례를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정종의 西京遷都計劃을 들 수 있다. 이는 개경의 정정에 불안을 느낀 정종이 주로 서경을 명당이라는 풍수설을 이용하여 추진한 운동이었다. 그뒤 성종과 현종 때에 동경이 설치되는데 이 역시 지리도참설에 연유하는 바가 컸던 것 같다. 개경, 서경에 이어 다시 동경을 둔 것은 일종의 참서인 《三韓會土記》에 “고려는 3京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므로 그에 의거하여 새로이 설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¹¹¹⁾

문종조에 이르면 지리도참사상의 전형을 이루는 사례가 있다. 문종 10년에 연기설을 좇아 예성강 강변에 長源亭을 지은 것이 그 하나이다. 이는 도선의 이른바 《松岳明堂記》라는 秘記에 태조가 전국을 통일하는 936년으로 부터 120년 즉 2回甲이 되는 丙申 해에 강서변의 명당에다 이궁을 지으면 국업이 연장된다는 설에 따른 것으로서 그후 왕은 자주 이곳으로 巡駐하였다.¹¹²⁾ 문종 21년(1067)에 南京을 설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남경을 둠으로써 종래의 開京과 西京을 한데 묶어 새로운 3경제가 이루어져 행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는 지리도참설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숙종원년에 남경을 다시 두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 지리도참사상이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음양가 관료인 金謂禪는 도선의 《踏山歌》, 《三角山明堂記》, 《神誌秘詞》를 인용하여 송도의 지기가 쇠하였다는 점과 삼각산 남, 木覓山 북쪽의 평지가 명당이라는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3경을 저울에 비기어 개경, 서경과 함께 남경을 두어야 평형이 이루어져 국가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110) 李丙燾, 앞의 책, 1980, p. 16.

111) 李丙燾, 〈成宗 顯宗의 東京建置와 그 意義〉《高麗時代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112) 李丙燾, 〈高麗 文宗王과 長源亭 創構〉《震檀學報》6, 1936.

설명하면서 새로이 남경을 세우고 순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숙종 4년(1104)에 남경 건설이 시작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예종대에는 음양, 지리, 도참에 관한 책으로 생각되는 관찬의 《海東秘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太史官의 松都地衰說 및 延基觀念에 따른 건의에 의해 서경에 용언궁을 창건하고 있다는 것 등이 주목된다.¹¹³⁾

인종대에는 지리도참설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묘청일파의 西京遷都運動이었다. 인종이 즉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야기된 이른바 이자겸의 난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궁궐이 거의 불타버린 위에, 밖으로부터는 금의 압력이 가중되어 오는 분위기 속에서 妙淸, 鄭知常 등은 지리도참설을 앞세워 서경으로의 천도를 획책하게 되었던 것이다. 계룡산 정도를 예언한 《鄭鑑錄》같은 것이 조선후기에 만들어져 때때로 정치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들은 소를 올려 “서경의 林原驛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大華勢의 곳입니다. 만약 여기에 궁궐을 세우고 移御하시면 가히 천하를 합병할 수 있고, 金國이 幣帛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國도 모두 臣妾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왕을 설득하였다. 인종도 마음을 움직여 그곳에 대화궁을 짓고 그 궁성안에 八聖堂을 세우는 등 설비를 갖추고 자주 巡御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서경천도운동은 정치적인 면에서 묘청, 정치상 등의 서경세력이 자기네 출신지역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중흥공신이 되어 정권을 잡으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金富軾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 보수귀족들의 맹렬한 반대가 뒤따랐다. 이에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묘청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지만, 지리도참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¹¹⁴⁾

명종대에도 延基宮闕로 三蘇宮을 경영하고 있는 것에서 지리도참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三蘇는 白岳山의 左蘇와 白馬山의 右蘇 및 箕達山의 北蘇로서 좌소 백악산은 지금의 경기도 長湍의 白鶴山에 비정되며, 우소 백마산은 경기도 開豐郡 大聖面에 있는 산명이고 北蘇 箕達山 역시 황해도 新溪郡 촌면에 있는 산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도의 鎭山이며 수호신산인 송악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3鎭山으로서 이곳에 궁궐을 조성하고 순주하여 국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한 것이다.¹¹⁵⁾

113) 李丙燾, 〈睿宗朝의 地理秘錄의 編纂과 龍堰創起 및 其他〉《高麗時代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114) 李丙燾, 〈仁宗朝의 妙淸의 西京遷都運動과 그 叛亂〉 위의 책.

115) 李丙燾, 〈明宗의 世와 三蘇造成〉 위의 책.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성립된 사회에서 합리적인 유교가 유행되어 가는 속에서 한편으로 지리도참사상이 성행하였다. 그것은 고려시대 정치세력의 등장과 함께 그들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리도참사상이 더 심층적인 발전을 보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흐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풍수지리설은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고 마침내 한양에 정도하는 과정에서 주목되었다. 그러나 裨補寺塔說 같은 것은 불교가 국교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유교가 새로운 지도이념이 된 조선왕조에서는 그대로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선왕조에 와서는 비보사탑설 대신 흙을 북돋우어 지맥을 보강하거나 바윗돌을 깎아 냄으로써 지리적 조건을 보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形勢法에 속하는 지기쇠왕설도 쇠퇴하게 되고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도참설의 경우 정씨왕조의 출현을 예언했지만, 조선왕조는 도참설을 흑세무민하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금압했던 만큼 민간에서 부패한 현실을 부정하는 말세적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대신 조선시대에는 방위법 내지 종묘법이 유행되면서 묘자리 선정에 대한 것이 풍수지리설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이상에서 고려시대에 풍수지리설이 정치표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컸음을 보았다. 大邱와 관련되어서도 풍수지리의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려시대에 나온 地方志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形勝을 설명하기를 “땅의 형세가 평탄하고 넓다. 겹친 산봉우리가 둘러있고 큰 내가 꾸불 꾸불 얹혀 있으니, 사방에서 모이는 곳이다.”라 하였다.¹¹⁶⁾ 이는 金鉉의 〈琴鶴樓記〉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지만 풍수상의 입지가 좋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山川에서도 “連龜山은 府의 남쪽 3리에 있는데 鎭山이다. 세상에서 정하기를 ‘邑을 창설할 때 돌거북을 만들어 산등성이에 남으로 머리를 두고 북으로 꼬리를 두게 묻어서 地脈을 통하게 한 까닭에 連龜라.’고 일컫는다고 한다.”라 하여¹¹⁷⁾ 대구읍이 만들어 질 때 풍수지리에 입각한 배치와 지맥을 고려한 점이 전해지고 있다.

II. 民間信仰과 大邱

고려시대의 민간신앙에서 샤머니즘은 매우 우세하였다. 왕조의 각종 儀禮나 종교적 행사에

11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6, 大丘都護府, 形勝. 樓亭.

117) 위의 책, 大丘都護府, 山川.

있어서도 巫俗行事가 공적으로 시행되었던 만큼 일반 대중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속이 차지했던 비중도 클 수 밖에 없었다. 趙浚은 “國都에서부터 郡縣에 이르기까지 무릇 집이라고 있는 자는 모두 신사를 세우고 이것을 衛護라고 하니 이래서야 家廟없는 처지에 부모의 靈을 어디다 모실거냐”고 한탄하고 있다.¹¹⁸⁾ 이로부터 고려사회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과장해 말할 만큼 무속적인 신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子粹도 그의 상소에서 “은 나라 안에 巫堂집을 짓고 別祈恩의 곳이 열을 넘고, 四時 祭를 지낼 뿐아니라 무시로 행하는 別祭까지 이루 해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¹¹⁹⁾

고려 태조 王建의 신앙관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의 기저에는 巫敎적인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집은 三韓山川의 陰佑에 힘입어 大業을 이룩하였다.¹²⁰⁾

집이 원하는 비는 燃燈과 八關에 있다. 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까닭이고, 八關은 天靈과 五岳, 名山, 大川, 龍神을 섬기는 까닭이다.¹²¹⁾

우리나라에는 山水靈奇가 방방곡곡에 퍼져 있어 백성들의 習性이 佛, 神을 좋아하여 그로써 福利를 얻고자 하였다. 아직 兵火가 그치지 않은 때를 당하여 佛, 神의 도움과 山水의 靈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장차 국가의 理念으로 삼을 생각은 없으나 우선은 그 效能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¹²²⁾

제자는(王建) 머리를 조아려 虛空의 法界에 두루계시는 十方의 三世一切 諸佛과 諸會菩薩, 羅漢聖衆, 梵釋四王, 日月星辰, 天龍八部, 岳鎮海瀆, 名山大川 등 一切靈祇에 歸依합니다.¹²³⁾

위에서 천신과 산신 그리고 龍神에 대한 토착신앙이 왕건의 전체사상의 바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와 함께 샤머니즘에 기대어 그의 군사활동과 건국과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佛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은 불교수용이전의 자연신이 종속적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조 이후 巫覡의 직능은 국가차원에서 수행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었다. 즉 명산대천의

118) 《高麗史》 권 118, 列傳, 趙浚.

119) 위의 책, 권 120, 列傳, 金子粹.

120) 《高麗史》 권 2, 世家, 太祖 26년 4월.

121) 위의 책, 太祖 26년 4월.

122) 위의 책, 太祖 10년 12월.

123) 崔滋, 〈開泰寺華嚴法會疏〉《東人之文四六》 권 8, 佛疏.

神祇에게 국가수호를 기원하는 別祈恩이나 도성에서의 祈雨祭와 같은 국가의 攘災招福을 기원하는 國行祭를 巫覡이 주관하였다. 인종2년 당시의 巫風을 말하는 기사가 있다. “日官이 알리기를 ‘근래에 巫風이 크게 성행하고 淫祀가 날로 성하니 청컨대 有司로 하여금 巫堂의 무리를 멀리 내쫓도록 하소서’ 하자 왕은 그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당들은 이를 조심하여 재물을 모아 銀瓶 백여개를 거두어 권귀고관에게 뇌물을 바치었다. 이에 고관들은 왕에게 알리기를 ‘鬼神은 형체가 없고 그 虛와 實을 알 수 없음이 두렵습니다. 따라서 일체 이를 금하는 것은 불가하겠나이다.’ 하니 왕은 이 말이 또한 그렇겠다 하여 그 금지하는 것을 완화하였다.”¹²⁴⁾ 의종 때 登州城隍神이 무격을 통해 국가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것이나, 충숙왕 16년(1329) 5월에 旱魃을 祈攘하기 위한 聚巫祈雨는 무려 6일 동안 계속하였는데 이에 고통을 이기지 못한 무당들이 모두 도망쳐 숨었으므로 이들을 수색하여 체포하는 자가 거리에 연달았다고 하였다.¹²⁵⁾ 공민왕 때 義城의 巫覡이 고려의 멸망을 예언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역대 왕들은 샤머니즘적 원리에 따라 적어도 王政의 일부를 수행한데 힘입어 巫俗이 고려 사회의 중요한 종교가 되었다.

일반 민간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李奎報는 〈老巫篇并序〉에서 巫堂과 神祠를 소상하게 묘사하고 성황을 이루었음을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무당은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이미 반백인데 스스로 그 몸에 神이 내렸다고 한다. 몸을 솟구쳐 뛰어 머리가 대들보에 부딪치도록 굽을 하며 帝釋神과 七星神을 그린 그림을 모셨다고도 묘사되어 있다. 이 무당집에 남녀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언제나 만원사례의 지경이었다 한다.¹²⁶⁾

巫敎의 제의를 산천제, 기우제, 城隍祭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먼저 산천제를 보기로 하자. 산악에는 산신이 있는 곳이라 믿었고 또한 산악 가운데는 死者의 靈도 동식물의 신도 함께 있는 곳으로 신성시 되었다. 고려시대의 산천신앙은 당대에 크게 풍미한 풍수지리설이나 도참사상과 복합되어 더욱 성하였다. 일정한 명산대천을 영험처로 정해 놓고 산신을 모시는 신사가 많았던 것이다. 산악의 주신이 산신이라면 大川, 江海에도 각각 그 주신이 있어서 무한의 영력을 가지고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변이나 재앙이 있을 때는 흔히 산천제를 행하여 이를 祈攘하려 하였던 것이다. 명산대천을 제사한 경우는 祈雨, 祈子, 祈兵捷 및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기우와

124) 《高麗史》 권 16, 世家, 仁宗 9년 8월.

125) 《高麗史節要》 권 24, 忠肅王 16년 5월.

126) 《東國李相國集》 권 2, 古律詩, 老巫篇.

함께 祈晴, 祈雪을 위한 산천제도 볼 수 있는데 매양 旱災와 水災가 있을 때는 松岳溪上에서 百神에게 제사하는 川上祭가 있기도 하였다. 또 원종 14년(1273)과 충렬왕 3년(1277)에 각각 탐라에서 삼별초를 토벌한 것은 無等山神과 錦城山神이 음조한 영험이 있었다고 하여 춘추로 致祭토록 하고 특히 금성산신의 음조에 대해서는 소재관으로 하여금 매년 致米 5石을 그 제사에 바치도록 하였던 것이다.¹²⁷⁾ 그리고 산천신의 음조가 있었다고 보는 명산대천이나 그 영험을 기대해 보는 명산대천의 神祇에게는 加封하거나 神號를 加上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산천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 음조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異跡이 없는 신사는 헐어 버리기도 하였지만, 영험이 있는 곳은 새로이 祀典에 올려 제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¹²⁸⁾ 그리고 신사가 있는 명산은 신성시되어 때로는 연료를 채취하거나 나물 캐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¹²⁹⁾ 송충이 성할 때는 禁中에서 諸臣을 이끌고 親醺를 설행하거나¹³⁰⁾ 五方의 산신과 해신에게까지 蟲災를 祈攘하는 제사를 행하였던 것이다.¹³¹⁾ 대구의 산신신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는 李奎報가 쓴 公山에 산신제를 지낸 글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이규보가 무신정권시대 경주민의 항거를 진압하는 과정에 崔忠獻이 파견한 招討處置兵馬中道使 金陟侯를 수행하여 兵馬錄事兼修製로서 참가하면서 지은 것의 하나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 저 頑民들이 이를 갖고 피를 빨아 사람을 마구 죽여 비린내를 풍기면서 평민을 동요시켜 놀란 사슴처럼 날뛰게 만들어 지나는 곳마다 城邑을 모두 함락시키고 취락에 들어가 불지르고 노략질하여 모든 집이 잿더미로 변하니 죄악이 진실로 가득차으므로 이치에 당연히 가서 정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명을 받아 삼가 天罰을 행하려고 하는데 들으니 우리 公山은 사방에서 흠모하고 추앙하는 곳으로써 나라의 血食을 누린지 오래라고 합니다. 국가가 神에게 이미 영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 일이 있어 비는 것은 예에 어긋나지 않으며 신 역시 국가의 제사를 받은지 오래니 갑자기 변란이 있는데 어찌 차마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薄薦이나마 마련하여 급히 信使를 파견합니다. 나야 불초하니 설령 도와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야 저버릴 수 없으니 끝내 버리시겠습니까? (《東國李相國集》권 38, 〈祭公山大王文〉)

이 제문은 현재 대구의 八公山の 산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다. 팔공산은 신라때 五嶽중 中嶽으로 中祀에 편입되었던 지역이다. 이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국가적 제사의 대상이었음을

127) 《高麗史》 권 63, 志 17, 禮 5, 雜祀.

128) 위의 책, 권 99, 列傳, 咸有一.

129) 위의 책, 권 6, 世家, 靖宗 5년 5월.

130) 《高麗史節要》 권 6, 肅宗 7년 5월.

131) 위의 책, 肅宗 7년 6월.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란군을 토벌하여 국가를 수호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신이 수호신적인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우제에 대해 보자. 농경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은 농사요, 비는 그 농사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기우제는 농경민의 중심제례의 하나이다. 5월을 전후하여 한국에는 가뭄이 온다.

따라서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5월을 전후하여 몇 차례의 기우제가 있기 마련이다. 고려시대 기우제의 한 특성은 신라말경부터 가무제사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무격들로 하여금 기우제를 주관하게 했다는 데 있다. 旱雨는 천지신명과 산천제신이 좌우하는 것이며 가뭄은 신령이 내리는 제앙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기우제에는 근신할 뿐만 아니라 신령의 뜻을 알고 그들과 교제하여 자비를 청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신령과의 교제를 능히 할 수 있어 비를 내리게 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곧 巫覡들이었다. 그러므로 현종이후 기우제에는 무당을 모아 제사케하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었다. 무풍이 성행하던 인종 때에는 무당 300여인을 모아 성대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때로는 흙으로 龍을 만들어 놓고 무당들이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다. 龍神은 비를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¹³²⁾

城隍信仰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기 고을을 방어하기위해 구축된 방어시설에 신격을 부여하여 수호해주기를 바란데서 비롯되었다. 성황신과 관련된 성황당이 처음 보이는 것은 성종대이다. 즉 태조의 아들이었던 安宗 郁이 자신이 죽으면서 泗水縣의 성황당 남쪽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종 9년(1055)에 오면 고려의 변경인 宣德鎮의 새로운 성에 성황신사를 설치하고 춘추로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변방의 새로운 성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방어를 위한 수호신적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城隍祠에 배향된 인물을 분석해 보면 무신 내지 장군이거나 고을의 방어를 위해 전투에 참가한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 성황신이 고을에 대한 수호신적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황당은 성 근처에 있었다. 그리하여 성황당이 있는 성이름을 성황석성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형지세로 인하여 산성이 발달하였으므로 성황당도 높은 산위에 위치한 것이 많았다. 성황신앙은 그 기능이나 성격면에서 재래의 산악신앙과는 별개의 것으로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 하겠다. 고려초기에 중국에서 전래된 성황신앙은 인종, 의종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무신정권기에는 집권무인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산천신 등과 더불어 더욱 숭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 말기에도 계속되면서 때로는 불교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록은 그러한

132) 柳東植, 〈祈雨祭〉《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出版部, 1975, p. 127.

예의 하나이다. “胡僧 指空이 延福亭에서 戒律을 설법하니 士女들이 달려와 경청하였다. 鷄林府司錄 李光順도 역시 無生戒를 받고 任地에 갔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성황제에 고기를 쓸 수 없게 하고 민간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을 금하기를 심히 엄하게 하였다. 그러자 주인들이 하루에 그 돼지들을 다 죽여버렸다.”¹³³⁾ 이것은 불교를 신봉한 수령과 성황신을 숭배하고 있던 경주인들의 충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 건국후에도 명의 영향력하에서 성황신앙은 국제로 정착하는 한편 널리 보편화, 민간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초기의 성황사는 지방세력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을 성황신으로 배향함으로써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때로는 이 성황사가 몇몇 지방민에 의해 반란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성황신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반란세력을 결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국가에서는 성황사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성황사를 직접 설치하는 한편 그 제사도 지방관이 직접 담당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吏職者들은 성황신에 대한 제사권을 놓지 않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는 이직자들이 성황사의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관의 빈번한 교체와 더불어 지방관이 없는 속군·현이 많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¹³⁴⁾

그외 질병과 관련된 五溫神祭가 있다. 이는 溫疫을 기양하기위한 제사였다. 고려시대에는 봄이면 기근과 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밀어 닥쳤던 것이다. 여기에 온역자가 많아 병사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온역을 물리치기 위한 갖가지 巫祀가 번다하였다. 국가적으로는 五溫神祭가 설행되었다.¹³⁵⁾ 徐兢의 《高麗圖經》에 “고려의 옛 풍속은 사람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귀신을 섬길 줄만 알아 呪呪하여 이겨내기를 일삼는다.”고 하여¹³⁶⁾ 巫儀에 주로 의지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고려인을 멸시하려는 중국인의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지만 巫儀가 질병 치료에도 많이 행해진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상의 무의가 國行祭의 성격을 많이 띠고는 있지만 불교나 유교에 비해 기층민의 의식에 가장 접근할 수 있으므로 민간신앙으로써의 의의가 있다. 또한 대구지역의 민간신앙도 농경과 병화 그리고 질병과 관련하여 산천제, 기우제, 성황제 그리고 五溫神祭 등이 행하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133) 《高麗史》 권 35, 世家, 忠肅王 15년 7월.

134) 金甲童, 〈高麗時代의 城隍信仰과 地方統治〉 《韓國史研究》 74, 1991.

135) 李世賢, 〈麗代의 雜祀와 그 信仰性에 대한 研究〉 《群山大 論文集》 7, 1984.

136) 徐兢, 《高麗圖經》 권 16, 藥局.

第5節 大邱의 遺物·遺蹟과 人物

I. 大邱의 遺物

대구의 고려시대 유물은 佛敎遺物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를 전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1) 石造浮屠; 보물135호로 지정되어 있고 경북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다. 높이는 2.74m, 지대석 폭은 1.57m이며 재료는 화강석이다. 대구시내에 거주하던 일본인 소창무지조(小倉武之助)의 사택에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옮겼으며 조형으로 보아 신라이래의 八角圓堂型의 양식을 따르면서 고려시대의 특징이 발휘된 걸작이다. 地臺石 위에 下臺, 中臺, 上臺가 있으며 하대석과 중대석에서 가장 잘 고려시대의 특색이 나타나 있다. 하대석은 方形으로 각면에 6瓣式 24瓣의 伏蓮이 조각되었는데 각 우와 각 면 중앙의 蓮瓣은 정면을 향하고 남은 蓮瓣이 각면 중앙 蓮邊을 중심으로 좌우로 斜形으로 표현하며 복련위에 角形과 弧形을 겹드린 3단의 물딩이 있다. 1단의 굴곡을 둔 위에 甲石形의 받침이 있으며 중대석은 8각으로 거의 원에 가까운 표면 전체의 雲文이 양각되고 전후에 정면한 용과 좌우에서 이 용을 향한 二龍式이 두드러지게 양각되었다. 중대석 위에 8각 2단의 괴임이 있어 상대석을 받게되고 상대석에는 16판의 仰蓮이 周廻되었다. 8각 탑신 각隅에는 우주형이 있고 전후 양면에는 호형이 모각되고 좌우에는 四天王立像이 양각되고 좌우 양면에는 조각이 없다. 옥개 또한 8각으로 옥상에는 8조의 隅棟이 뚜렷하고 급한 경사의 여세를 빌어 귀꽃이 있는듯하나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옥개에는 2단의 괴임이 있을 뿐이다. 옥륜에는 蓮花가 조각된 步輪形一石이 있고 탑신이나 옥개에 비해 기단부가 비대하여 경쾌함이 없다. 안정되고 장중한 감을 준다.¹³⁷⁾

2) 石造浮屠; 보물 제258호로 지정되었으며 경북대학교에 소재하고 있다. 이 석조 부도의 크기는 2.39m 대폭 전면 1.6m측면 1.56m로서 백색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이 석조 부도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소창무지조의 집에 있던 것을 1958년에 현재의 위치에 옮겼다. 원 소재지는 알 수 없고 누구의 부도인지도 알 수 없다. 八角圓堂形의 형식을 따른 부도로서 방형지대석위의 기단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었다. 널찍한 사각 지대석에 각출된 이중의 팔각 괴임이 있고 그 위에 하대석이 있는데 각면에 모두 형태가 다른 獅子를 양각하였다.

137)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中, 1977, p. 45.

大邱直轄市, 《郷土文化遺蹟》, 1988. p. 433.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p. 373.

팔각으로 된 甲石 밑에는 副緣이 있는데 윗면에는 웅혼한 솜씨의 운문이 거의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마치 밑에서 하늘로 솟아 오르는 형상이다. 그 안에 팔각으로 된 높은 일단을 두고 다시 낮게 이단의 물딩을 조각하여 중대석을 받았다. 낮은 중대석은 각을 죽인 가운데 각면에 고려시대 특유의 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각각 飛天像을 양각하였다. 상대석 밑에는 素大한 單瓣蓮華八葉을 돌려 仰蓮形을 조각하였는데 瓣 안에는 花形을 곁들였다. 그 위에 띠를 돌리고 16판의 伏連을 돌려 仰伏을 겹했으며 다시 탑신을 받치기 위한 물딩을 두었다.

탑신 또한 비교적 낮은 편으로 각각 우주형이 있다. 각 면에는 앞뒷면에 戶形과 門輪이 모각되었고 좌우의 사면에는 四天王像이 있고 남은 좌우 양면에는 菩薩立像이 각각 양각되었다.

넒찍한 옥개석 아랫면에는 탑신위의 괴임을 중심으로 좌우에 桌上的 香爐를 모각하였고 앞뒤에 삼체식 육체식의 비천상을 우아하고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여기에서 추녀를 향하여 이중의 緣木을 촘촘히 모각하였다. 낙수면은 팔조의 굵은 隅棟이 내려왔는데 그 끝에는 원래 귀꽃이 있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정상에는 蓮華紋으로 주위를 돌렸으며 그 위의 사면에는 迦陵頻伽를 조각한 웅대한 나뭇이 엮혀있다. 그 이상은 결실되었다. 옥개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상륜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각부의 조각이 웅혼하고 상하가 아름다운 비례를 보이고 있다. 이 부도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결각으로 손꼽아야 한다.¹³⁸⁾

3) 石佛 臺座; 이 석불 및 대좌는 현재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星州郡 修倫面 白雲洞 法水寺址에서 수습하여 1963년에 현 위치로 이치하였다. 고려시대에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는데 頭部가 없고 臺石의 일부도 파손되었다. 규모는 全高 88cm, 佛高 66cm, 肩幅 54cm, 膝高 15cm, 幅75cm, 胸幅32cm, 臺石高 22cm, 臺石經 86cm이다.¹³⁹⁾

4) 石佛像背; 현재 경북대학교에 보존되어 있다. 星州郡 修倫面 白雲洞 法水寺址 서북방 1km지점에서 수습하여 현 위치로 옮겼다. 석불상 光背는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재질은 화강암이다. 전면에는 寶相花紋이 후면에는 불상이 부각되어 있다. 상부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모는 全高 83cm, 幅 75cm, 背面的 佛高 68cm, 佛膝幅 41cm, 佛肩幅 34cm, 頭光幅 33cm, 佛頭高 19cm이다.¹⁴⁰⁾

5) 三層石塔; 현재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인 이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탑의 일반형을

138) 大邱直轄市, 《鄉土文化遺蹟》, 1988, p. 436.

139) 위의 책, p. 411.

140) 위의 책, p. 412.

보여주고 있는데 풍화가 심한 편으로 上輪部가 全缺되었다. 석재는 화강암으로 全高는 228cm, 地臺石 幅은 156cm, 下臺底石 高 16cm, 幅 108cm, 上臺中石 高 36cm, 幅 71cm, 上臺甲石 8cm, 幅 88cm의 규모이다. 본래 대구시 동문동의 소창무조지조의 집에 있던 것을 1958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¹⁴¹⁾

6) 三層石塔;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삼층석탑은 화강암재로 조성된 고려초기의 것이다. 地臺石은 2枚의 板石으로 되어 있으며 地臺甲石上에 1塔身 및 屋蓋로 되어 있다. 규모는 全高 175cm, 地臺石幅 135cm, 第1塔身高 52cm, 幅 50cm, 第2塔身高 12cm, 幅 40cm, 第1屋蓋石幅 90cm, 第2屋蓋幅 66cm, 第3屋蓋幅 60cm의 크기인데 1964년 慶山郡 安心面 內谷洞 절골에서 현위치로 移置하였다.¹⁴²⁾

7) 第1塔身石; 第1塔身石만 남아 있는 이 석조물은 화강암으로 된 고려시대의 것으로 사면에 四天王像이 부조되어 있다. 全高는 48cm, 사면의 한신단의 幅은 58cm정도인데 본래 大邱市 東門洞 小倉家에 있던 것을 1958년 현 위치로 옮겼다.¹⁴³⁾

8) 麻紙銀泥首楞嚴經卷第十; 보물 제271호로 지정되었으며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30.1cm, 가로 11.2cm이다. 고려 공민왕5년(1356)에 만들어졌다. 고려 시대 불교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불경을 토박 토박 정성들여 써서 교본으로 했다. 이 때 글을 먹으로 쓰는 경우와 銀金을 갈아서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불경은 紺色麻紙에 銀을 갈아서 쓴 책이다. 원래 30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표지가 없어져서 지금은 29장만 남아 있다. 은색의 글씨는 오래되어 그 빛깔이 변하여 약간 검은 빛으로 되어 버렸다. 뒷 표지는 배접한 두꺼운 면에 銀泥로 보상화문을 그려두고 있다. 본문에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十’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 끝에는 功德主華嚴海印寺住持大師性聰 至正十六年正月日 星山前直講李邦翰爲亡母 李氏書라 써여 있어서 고려 공민왕 5년에 이방 한이라는 분이 썼음을 기록하고 있다. 원래는 10권을 모두 썼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1권만 전한다. 이 책은 정성들여 은니로 썼다는 점과 현재까지 전하는 불경가운데 그 연대가 기재된 것으로는 가장 오랜 점에서 가치가 있다.¹⁴⁴⁾

9) 八公山新武洞磨崖佛坐像; 동구 신무1동에서 부인사를 잇는 길을 따라가면 약200m 되는 지점의 논 속에 큰 화강암 盤石이 있고, 이 반석의 동남쪽에 얇게 판 감실과 좌불상을

141) 앞의 책, p. 425.

142) 위의 책, p. 429.

143) 위의 책, p. 430.

144) 《대구의 향기》, p. 376.

새겨 두고 있다. 반석의 주위에는 깊은 계곡이 바로 옆에 흐르고 있으며 반석 외에는 아무런 절터의 흔적이 없는 벌판이다. 반석은 가로 세로가 약 4m 내외이고 높이는 2.5m이며 앞게 판 감실은 폭이 1.2m 높이가 1.4m이다. 불상은 육계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은 채 나발로 되어 있고 얼굴 모습은 원만하면서 길죽하고 귀는 얼굴 길이와 거의 같다. 미간에는 백호를 상감했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목은 짧고 三道가 있으며 어깨는 당당히 벌어졌으며 손의 모습은 오른손을 가슴옆에 올려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고 왼손은 하복부에 얹은 형태이다.

가부좌한 모습은 몸윗 부분에 대하여 다리부분이 비대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法衣는 通肩衣 이고 배부분에는 裙衣의 매듭이 보인다. 법의를 나타내는 주름 표현은 뺏뺏하며 위엄이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대좌는 가운데 횡선을 두고 伏蓮과 仰蓮을 아래 위에 새겼으며 仰蓮瓣 속에는 花文을 두어 장식하였다. 광배는 舟形으로 되었고 내부에는 화염문을 부각하여 돌렸고 頭光은 唐草文을 조각하여 돌렸다. 불상은 구도에 있어서 도식화한 느낌을 주며 조각미도 뺏뺏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신라적인 것에서 벗어난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추측되어진다. 크기는 불상 높이가 89cm, 어깨폭이 41cm, 머리길이가 17cm, 배광폭이 77cm, 배광 높이가 120cm, 두광의 지름이 42cm, 연화대석의 높이가 24cm, 연화석의 폭이 103cm이다.¹⁴⁵⁾

10) 新武洞三星庵址磨崖佛立像; 부인사에서 팔공산의 서쪽 정상을 향하여 1.5km가량 올라 가면 철거된 삼성사지가 있고 이 사지의 북쪽 능선을 따라 조금 더 올라 가면 가파른 경사면에 솟아 있는 큼직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의 동쪽 면에 조각된 藥師如來像이 있다.

불상주위는 불단을 마련할 정도의 빈터가 있을 뿐이며 다른 건물이 들어설 터는 없다.

약사여래상은 바위의 동쪽 평면을 이용하여 조각하였던 것이나 풍화가 심하여 조각이 선명하지 못하다. 불상은 소발에 큰 육계와 넓은 얼굴, 길다란 귀, 가느다란 눈, 둥글게 그어진 눈썹, 오탁선 코 등의 얼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내려 天衣를 감고 왼손은 가슴아래로 올려 寶珠形 약그릇을 들고 있다. 법의는 통견의로 가슴을 많이 노출시켰다. 가슴아래에서 하복부까지는 u자형의 주름을 넣어 입체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리부분의 裙衣는 풍화된 탓도 있으나 윤곽만을 나타내었으며 발도 윤곽 표현에만 그쳤다.

전체 모습은 당나라 풍의 여운이 엿보이나 衣褶의 표현은 정적이고 도식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윗몸에 비하여 아랫몸이 더욱 도식화된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려전기의 작품이라

145) 《대구의 향기》, p. 445.

大邱直轄市, 《郷土文化遺蹟》, 1988. p. 167.

생각케 한다.¹⁴⁶⁾

11) 念佛庵磨崖佛像; 동화사에서 팔공산 주봉을 향하여 약 30분 정도 올라가면 부도암이 있고 여기서 다시 40분 정도 올라가면 염불암에 이른다. 동화사에 속한 이 염불암은 조그마한 법당 두채와 막사 한채로 가람을 이룬다. 법당 뒤의 큰 바위에는 남, 서 양측면에 각각 1구의 거대한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거대한 암석의 남면에 조각된 불상은 仰蓮花座 위에 걸가부좌한 보살상으로서 앞게 조각하거나 선각으로 되어 있다. 연꽃 봉오리를 잡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머리에 보관을 쓰고, 네모꼴에 가까운 얼굴, 가느다란 눈, 어깨까지 내려온 귀, 사실적인 기법이 아니면서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법의는 왼쪽 어깨에 걸쳐 복부와 걸가부좌한 무릎까지 덮고 있다. 보살의 조각 높이는 6.4m, 무릎폭은 3.27m로서 거상이다. 암석 서면에 조각된 불상은 거의 음각으로 된 불상이다.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양손을 하복부 앞에 모아 묘관찰지인을 하고 있다. 길상좌의 아미타불이다. 머리는 삭발하고 얼굴은 네모꼴에 가깝고 이마에 백호가 있으며 눈, 코, 입이 굽은 선으로 조각했다. 법의는 복부에만 나타나 있다. 불상의 전체 높이는 6.3m 무릎 폭은 4.67m이다. 고려초기에 조성된 불상이라 추측되며 팔공산내에 조각된 불상 가운데 巨像의 하나라 하겠다.¹⁴⁷⁾

12) 念佛庵靑石塔; 이 청석탑은 고려시대의 것으로서 탑신부는 결실되었고 屋蓋만이 남아 있는데 이 옥개를 3단의 화강암지대석 위에 올려 놓고 있다. 상륜부는 조성시의 것이 아닌듯 탑재의 석질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졌다. 방형의 옥개석은 10층까지 남아 있으나 하부 3층과 상부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파손이 극심하여 각층마다 낙수면에 돌을 고여서 옥개석 파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이 탑은 흑색 粘板巖으로 조성되었는데 지대석 이외에는 기단이 없으며 蓮瓣 등의 아무런 조각도 없다. 이 옥개마다 2단의 받침이 角形으로 되어 있고 상면에는 1단의 탑신 받침이 있다. 옥개의 두께가 얇고 낙수면은 平薄하고 네귀통이의 轉角은 邊轉이 심한 편이며 옥개석은 체감율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넓은 지대석 위에 놓여진 소탑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¹⁴⁸⁾

13. 童子石像; 현재 대구 구남여중 교정에 있는 이 동자석상은 한쌍으로 1기는 두부가 없으며 좌측의 것은 완형이기는 하나 두부만 형상화되어 있고 몸통의 아랫부분은 조형의 흔적이 없

146) 《대구의 향기》, p. 447.

大邱直轄市, 《鄉土文化遺蹟》, 1988. p. 179.

147) 《대구의 향기》, p. 448.

148) 《鄉土文化遺蹟》, p. 196.

다. 그 조성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규모는 높이 135cm 폭 40cm(한쌍 중 완전한 것)정도 인데 본래 達城郡 花園面 柳谷洞 강능골에 있던 것을 1945년에 반입하였다.¹⁴⁹⁾

II. 大邱의 遺蹟

고려시대 대구의 유적은 초조대장경이 봉안되었던 夫人寺址와 고려 태조 王建의 행적과 관련된 곳이 다수 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夫人寺; 부인사에 대해서는 地表調査와 두차례의 發掘이 있었다. 먼저 문헌자료에 반영된 부인사에 대해 살피고 지표조사와 발굴의 성과에 나타난 부인사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부인사 사명이 전해진 자료는 《고려사》에 명종 9년(1179) 큰 비가 내려 東京 符仁寺 北山에 큰 물이 솟아나 漂沒된 寺屋이 80여간이고 溺死者는 아홉 사람이었다.”라 하여¹⁵⁰⁾ 80여간의 사옥이 홍수에 잠길 정도의 큰 사찰이었다. 《고려사절요》에는 1202년“慶州別抄軍은 永州와 본래 원한이 있었다. 이 달에 雲門의 적과 符仁寺 桐華寺 두 절의 중을 이끌고 永州를 쳤다.”라 하여¹⁵¹⁾ 符仁寺가 팔공산 동화사 부근의 절임을 명시하고 있다. 《三峯集》에도 “팔공산의 주지로 삼았다. 그 절은 실로 큰 사찰이었다.”고 표현 하였으며,¹⁵²⁾ 《동국이상국집》에는 符仁寺에 소장된 초조대장경판본이 蒙古의 침입으로 불타버렸음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¹⁵³⁾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夫人寺는 공산에 있다.”고¹⁵⁴⁾ 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부인사는 팔공산에 있는 사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夫人寺라 표기한 사명은 보이지 않고 符仁寺라는 寺名만이 등장하고 반대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록에서는 초기부터 符仁寺로 표기된 사명은 보이지 않고 夫人寺라는 사명만이 보인다. 夫人寺라는 사명이 조선시대에 등장한 사원이 아니라 이전에 거찰이었던 것이 점차 쇠퇴하여 지금의 사역으로 축소되고 夫人寺로 표기된 것이다. 또 지표조사에서 채집된 기와 가운데 고려시대의 平瓦에 夫人銘이 있는 기와편을 몇개 발견하였고 고려나 조선기의 유물에 符仁銘이 있는 자료는 한점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자면 符仁寺 夫人寺가 같은 山에 있고 刹로서의 부인사지에 비정될 수 있는 곳이 현 夫人寺

149) 앞의 책, p. 362.

150) 《高麗史》 권 35, 志 7, 五行 1, 明宗 10년 6월.

151) 《高麗史節要》 권 14, 神宗 5년 12월.

152) 《三峯集》 권 3, 〈送華嚴宗師友雲詩序〉.

153) 《東國李相國集》 권 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

15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6, 大丘大都護府, 佛宇.

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異字이나 同音이라는 점에서 夫人寺가 곧 符仁寺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¹⁵⁵⁾ 현 지표상에 노출된 초석과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석조물들로 보아 팔공산내에서는 제일 큰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발굴조사에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대규모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부속건물과 함께 대규모 건물을 세운 이유는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經板庫址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창건 당시의 부인사는 지금 남아 있는 동서 탑과 그 남쪽에 동서로 길게 쌓여진 석축대를 미루어 추단할 때 탑의 정북쪽에 대웅전이 위치하였고 그 좌우에 관음전 등의 건물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고 그후 고려시대에 초조대장경을 옮겨 온 시기에 원 사역의 남쪽에 또다른 석축대를 쌓고 경판고를 신축하면서 사역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 건물지에서 발견된 고려전성기의 정형화된 魚骨紋系의 암기와는 이 건물이 고려시대의 遺構라는 사실을 뒷바침한다고 한다.¹⁵⁶⁾ 2차 부인사지 발굴조사는 현 대웅전의 서편과 북편 그리고 중문지 일대였다. 부인사 가람배치가 雙塔一金堂式인 점을 감안하여 대웅전 서편에서는 부속건물지, 북편은 금당지, 축대 남쪽에는 중문지가 유존할 것이라는 추정하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명확히 들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2차 발굴에서도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토기편에서 조선시대의 자기편까지 넓은 시간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⁵⁷⁾ 앞으로 발굴의 범위를 확대하면 부인사의 창건시 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역과 사원 규모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龍水洞瓦窯址; 와요지가 발견된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大邱市 東區 龍水洞 山 59, 田 123번지이며 팔공산 남쪽의 한 계곡 옆에 위치한다. 와요지의 위치는 지금 집단시설 지구내에 설치된 곤도라리프트 승강장이 되어 있는 곳이나, 이전에는 쟁이골이라 불려왔던 작은 골짜기였다. 지금의 집단시설지구는 산을 깎고 계곡을 메워 서 넓은 평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동화사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되기 전에는 10여가구가 모여 살았던 太亭마을 이었고 마을 남쪽의 문전에는 사방 100m가량의 넓은 산간 대지가 있어서 계단식의 경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태정마을과 窯址 사이에는 지금 평지로 되어 100m정도의 거리 밖에 되지 않으나 원래는 작은 산이 가로 놓여 있어서 고개를 넘어 다니거나 돌아 다녀야 했다. 태정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골짜기는 염불계곡에 속하며 이 일대를 절골이라 했고 마을 바로 뒤쪽 작은 계곡은 탐골이라는 지명이 붙어 있으며 또 서쪽의 작은 골짜기는 쟁이골이라는

155) 慶北大學校 博物館·大邱直轄市, 《夫人寺地表面調査報告書》, 1986 pp. 20~21.

156) 大邱大學校博物館, 《符仁寺址一次發掘調査報告書》, 1989.

157) 大邱直轄市·大邱大學校博物館, 《符仁寺址二次發掘調査報告書》, 1991.

이름이 붙어 있는 등 사찰과 관계되는 지명이 많다. 그래서인지 마을 주변의 여러 골짜기는 텃지와 암자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 마을에서 염불암계곡을 따라 약 200m가량 올라가면 신라 민애왕의 願刹인 毘盧寺가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나직한 능선을 넘어서면 동화사가 있다. 이렇듯 가까운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찰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마치 태정마을은 고대 중세기에 사찰간의 통로중심지 역할을 해 왔던 느낌을 준다. 와요지가 사용된 시기와 폐기된 시기를 추정해 본다. 이 곳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魚骨紋의 경우 이것은 13세기 이전인 고려 전기에 유행했던 문양이고 또 線條文은 신라시대에서 성행하다가 고려시대에 소멸하는 종류이다. 그리고 唐草文과 忍冬文의 형태로 보아서는 고려의 전기에 유행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명문에 있는 桐蔭의 지명은 문헌상으로 신라시대에서 고려초기까지 나타났다가 고려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한다면 이 곳 골짜기의 와편은 신라말에서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登窯의 형태에서 비록 지표상의 窯體壁이 없어졌으나 바닥에서 정연하게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火口에서 시작하여 연소실 계단식의 燒成室을 갖추었다는 것은 고대 登窯를 충실히 답습하던 때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곳 登窯는 破瓦의 제작시기와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다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팔공산의 남쪽에는 고대부터 많은 사찰이 있었다. 이들 사찰의 개와는 멀리서 운반하기에는 비경제적이고 또 가까운 곳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입지이므로 이 지역에 고대부터 瓦窯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곳 요지의 골짜기가 지방민이 쟁이골이라 한 쟁이는 匠人을 뜻하는 말로서 고대 장인들이 거주했거나 工房이 있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고대 중세를 통해서 장인의 직종은 많았으나 산중에 공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까이에 수요되는 제품이 될 것이며 개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곳 쟁이골은 개와공방전용의 골짜기로 이름이 남아 있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¹⁵⁸⁾

3) 大德山城; 이 성은 안지랭이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능선을 이용한 包谷形의 산성이다. 600m가 넘는 고지에 축성한 것을 보면 전투능력이 발달된 시대에 조성했다고 하겠다.

또 경사가 심하고 암괴가 노출되어 자연의 석벽으로서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올라올 수 있는 곳에만 割石으로 성벽을 쌓았다. 이는 완전한 산성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해 쌓은 성이라 하겠다. 《大丘府誌》에 의하면 “成佛山有古城 今無”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유래는 알 수 없다. 안지랭이 계곡을 혼란기에 “산채”로 이용했다는 口傳과 더불어 일시적 필요에 의해

158) 大邱直轄市, 《大邱龍水洞瓦窯址調查報告書》, 1986.

축성했다는 추측을 통해 볼 때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조성했으리라 본다. 성은 해발 250~580m에 위치하며 주위 둘레는 3000여m에 이른다. 현재 앞산공원으로 개발되어 능선상의 지형이 많이 파손되었다. 또 할석으로 축조한 성벽은 완전 붕괴되었다.¹⁵⁹⁾

4) 申崇謙將軍遺蹟;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있다. 시 기념물 1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고려 태조 開國功臣壯節公申崇謙將軍이 순절한 곳이다. 신숭겸장군은 泰封의 騎將으로 있으면서 裴玄慶 등과 포악한 弓裔를 몰아내고 왕건을 받들어 고려를 개국하였다. 후에 대장군이 되어 태조 10년(927) 왕건과 신라를 도와 후백제를 공격할 때 대구 공산 싸움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태조가 위기에 빠지자 자신이 태조를 가장하여 태조를 숨기고 대신 전사하였다.

태조는 장군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고 그의 시신을 거두고 光海州(현재의 春州)에 예장하고 이곳에 殉節壇과 智妙寺를 세워 그의 영정을 모시고 명복을 빌게하고 一品田地 三百畝를 하사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선조 40년(1607)에 慶尙道觀察使 柳永詢이 폐사가 된 지묘사 자리에 表忠祠를 지어 공을 모시도록 하였으며 그후 조정에서는 현종 13년(1672)에 이 서원에 사액을 내리어 관리토록 하였다. 고종 8년(1871)에 서원 철폐령으로 표충사가 훼손된 뒤부터는 후손들이 齋舍를 신축하여 지켜오고 있다.¹⁶⁰⁾

5) 獨坐巖一人石; 獨坐巖은 독지바우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봉무동 노인회관 북쪽 5M지점의 개천가에 있다. 이는 고려 태조 왕건이 지묘동에서 견훤에게 참패당하고 王山으로 달아나서 八公山の 念佛庵 옆 一人石에 앉았다가 다시 파군재를 넘어 봉무동에 있는 이 바위에 홀로 앉았다는 데서 獨坐巖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智妙1洞 뒷산인 왕산을 지나 왕건은 동화사 뒤 염불암으로 피신했다. 여기에 일인석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왕건이 거기 숨어 앉아 있으니 수도하던 도승이 첫눈에 왕건인줄 알고 그의 자백을 받기 위해 던지시 묻기를 “이 자리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그대는 누구인가, 내려 오너라” 했더니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자백했다. 그러자 도승은 절을 하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후 염불암 옆의 그 바위를 왕건이 혼자 앉아 있었다 하여 일인석이라 부른다고 전한다.¹⁶¹⁾

6) 나발고개, 王山, 破軍재;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있다. 나발고개에 얹힌 전설에 의하면, 후백제의 침입으로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라의 원병 요청으로 太祖 王建은 후백제와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왕건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대구시 北區 西邊洞을 지나 研經洞 智妙3洞 방

159) 《鄉土文化遺蹟》, p. 385.

160) 위의 책, p. 269.

161) 위의 책, p. 350.

향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서변동 일대를 지날 때 왕건이 군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 하지말라(無怠)”고 당부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 지방은 속칭 無怠라고 불린다. 그리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와 왕건이 감탄한 마을이라 해서 硯經이라 불려진다고 한다. 진군을 계속하면서 지금의 지묘3동에서 지묘1동으로 가는 고개에서 적군을 향해 진군의 나발을 불었다. 그래서 나발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甄萱의 군사가 왕건의 군사를 둘러싸고 쳐들어가며 나발을 불었다고 해서 혹은 왕건의 군사를 깨뜨린 견훤의 군사가 이 고개를 넘으며 나발을 불었다 해서 나발고개라 한다. 이 나발고개를 넘은 고려군은 드디어 후백제의 견훤 군사와 접전하였는데 고려군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다. 이 때 충신 신숭겸이 王建을 살리기 위해 袞龍袍를 입고 왕건의 모습과 비슷하게 꾸며 후백제군의 눈을 속였다. 이 틈을 타서 왕건은 지묘1동 북쪽에 있는 산으로 무사히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이로 인해 이 산이 왕건을 살렸다는 뜻에서 王山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왕을 보낸 고려군은 신숭겸을 중심으로 끝까지 항거를 계속했다. 지묘2동에서 파계사로 넘어가는 뒷산을 뚫고 위장전술을 폈으나 사기 충천한 견훤의 군사에게는 역부족이었으며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오른쪽 동화사 고갯길로 활로를 개척했으나 숨어 있던 적의 군사에게 비참한 희생을 겪고 지묘동 앞 냇물을 간신히 건넜다. 왕산을 배후에 두고 싸웠으나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군사들은 발바닥에 사마귀가 있는 왕건을 잡으려고 형안이 되어 있었기에 신숭겸은 팔공산 어느 자락에 숨어 있을 왕건이 잡힐까 두려워 자기 발바닥에 상처를 내어 먹물로 검은 점을 만들었다. 장군과 더불어 마지막 남은 고려군사는 견훤군의 칼날에 쓰러져 팔공산을 붉게 물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신숭겸의 군사가 제1차로 파해서 흩어진 곳을 “아랫파군재”라 하고 제2차로 파한 곳을 “윗파군재”라 불려지고 있다.¹⁶²⁾

7) 半夜月; 고려태조 왕건이 견훤과 팔공산 싸움에서 패하자 신숭겸장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해 지금의 不老洞마을 앞에 가서야 비로서 얼굴을 펴 수 있었다는 데서 이곳을 옛날에 解顔縣이라 하였다. 여기서 다시 가다가 하늘을 보니 한밤중이고 달이 떠 있었다고 해서 半夜月이라 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다.¹⁶³⁾

8) 隱蹟寺; 이 절은 大德山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동남향으로 280m 大成寺에서 산으로 난 길로 6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의 창업을 도모하던 중 난을 피하여 현재의 은적사 위치에 은신하여 난을 피하였으므로 태조18년(936) 이를

162) 앞의 책, p. 352.

163) 위의 책, p. 356.

기념하여 영조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창건 당시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¹⁶⁴⁾

III. 大邱의 人物

대구의 인물에 대해서는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팔공산의 桐藪戰鬪와 관련된 인물, 고려시대 대구출신 官人과 孝子, 琵琶山地域의 불교와 관련된 인물, 그리고 팔공산지역의 불교와 관련된 인물로 나눌 수 있다.

1. 高麗建國期 桐藪戰鬪와 關聯된 人物

1) 甄萱(?~935); 920년 공산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을 대패시킨 인물이다. 본래 성은 李氏였으나 뒤에 甄氏라 하였다. 아버지 阿慈介는 尚州 加恩縣의 농민출신으로 뒤에 장군이 되었다. 古記에는 光州의 북촌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딸이 지령이와 교혼하여 낳았다고 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가문이 광주지역의 호족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그는 성장하면서 체모가 남달리 뛰어 났으며 뜻을 세워 종군하여 경주로 갔다가 서남해안의 변방비장이 되었다. 이때는 신라왕실의 권위는 추락하여 지방은 호족들에 의해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경주의 서남주현을 공격하니 이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마침내 892년에 武珍州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900년에 完山州(全州)에 순행하여 그곳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왕이라 칭하였다. 이듬해에 大耶城(陝川)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910년에 王建이 羅州를 정벌함에 노하여 步騎 3천인을 거느리고 이를 포위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그뒤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하자 견훤은 一吉粲 민각을 파견하여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고려와 후백제는 잦은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920년 견훤은 步騎 1만인으로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眞禮城으로 옮겼다. 이에 신라 경명왕은 金律을 고려에 파견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924년에 견훤은 아들 須彌强을 파견하여 曹物城을 공격하였으나 성중의 병사들이 굳게 지킴으로 이기지 못하였다. 이듬해 왕건과 화친하고 서로 인질을 교환하여 화해를 맺었다. 그러나 불모로 간 眞虎가 925년 고려에서 병으로 죽자 왕건이 보낸 王信을 죽이고 군사를 내어 공격함으로서 일시적인 화해는 깨어졌다.

견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하여지자 신라는 왕건과 연합하여 대항하고자하였다. 이에 927년

164) 앞의 책, p. 388.

近品城을 공격하고 高鬱府를 습격하였다. 이어서 경주로 진격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살해하고 왕의 종제인 金傳를 왕으로 세웠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왕건의 고려군을 公山에서 맞이하여 대패시키고 신승검과 김락을 죽였다. 이듬해 康州를 공격하여 3백인을 죽이고 또 缶谷城을 공격하여 1천인을 참살하였다. 그러나 막강하였던 그의 세력은 929년 古昌郡戰鬪에서 8천인의 사상자를 내는 패전으로 점차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932년에는 충실한 신하였던 襲職이 고려에 투항하여 버렸다. 934년에는 運州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대패하였다.

전횡은 많은 아내를 두어 10여인의 아들을 두었다. 그중에서 네째 아들인 金剛을 특별히 사랑하여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려고 하였다. 이에 금강의 형인 神劍, 良劍, 龍劍 등은 이를 알고 근심하며 지내다가 양검을 康州都督으로 용검을 武州都督으로 삼고 신검을 홀로 그의 곁에 두자 이에 신검은 伊絜 能紈으로 하여금 사람을 강주, 무주 등으로 보내어 음모를 꾸며 935년 3월에 전횡을 金山寺에 유폐시키고 금강을 죽였다. 금산사에 석달 동안 있다가 그해 6월에 막내 아들 能父 딸 衰福, 첩 姑比 등과 함께 羅州로 도망하여 고려에 사람을 보내 의탁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왕건은 유금필을 보내 맞이한 뒤 백관의 벼슬보다 높은 尚父의 지위와 楊州를 식읍으로 주었다.

그뒤 후백제는 점차 내분이 생겨 국력이 쇠약해졌고 드디어 936년 一善郡 一利川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 패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전횡 또한 우울한 번민에 싸인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燕山 佛寺에서 죽었다.¹⁶⁵⁾

2) 王建(877~943); 아버지는 金城太守 隆, 어머니는 韓氏로 하여 송악에서 출생하였다.

후삼국시대에 궁예가 한반도 중부지방을 석권하여 鐵圓에 도읍을 정하자 궁예의 명령으로 군대를 이끌고 군사활동을 하여 큰 공을 세웠다. 900년에는 廣州, 忠州, 淸州, 唐城, 槐壤 등의 군현을 쳐서 이를 모두 평정하여 그 공으로 阿絜이 되었다. 903년 3월에 함대를 이끌고 거쳐 후백제의 錦城郡을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그 부근 10여군현을 쳐서 빼앗아 羅州를 설치한뒤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돌아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왕건은 궁예와 주위의 신망을 얻게 되었다. 이 해에 그동안 쌓은 전공으로 關絜으로 승진했고 913년에는 波珍絜에 올라 시중이 되었다. 그 뒤 궁예의 실정이 거듭되자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 등의 추대를 받아 918년 6월에 궁예를 내쫓고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 철원의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165) 《三國史記》 권 50, 列傳, 甄萱.

慶北大學校·大邱直轄市, 《八公山》續集, 1991.

高麗, 연호를 天授라 하였다. 태조가 즉위초부터 가장 역점을 둔 국내정책은 민심 안정책이었다. 따라서 신라말기 이래 크게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 잡고 궁예이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였다. 取民有度の 표방은 그 구체적 예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라말기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호족세력을 회유 포섭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갔다.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였으며 각 지방의 호족 및 그 자제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태조는 후삼국시대의 지배세력인 궁예나 견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정치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짧은 기간동안에 어느 정도 새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역량때문이었다. 그리하여 919년 정월에 개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신라 후백제 고려의 후삼국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920년 정월부터였다. 태조는 신라에 대해 친화정책을 썼다. 927년 10월에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자 친히 군대를 이끌고 공산에서 싸웠으나 대패하여 신승겸, 김락 등의 분투에 힘입어 구사일생으로 귀환하기도 하였다.

이후 후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후백제와 결전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신라와 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후백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전 양면정책을 썼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 후백제와의 미묘한 관계속에서 새왕조의 안정과 국력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체로 후백제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고려는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후백제는 고려와 신라의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일원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로서도 이 지역을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930년 태조는 古昌 戰鬪에서 견훤의 주력부대를 대파함으로써 비로소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935년 후백제의 왕실내분으로 왕위에서 축출된 견훤을 개성으로 맞아들여 극진하게 대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신라왕의 자진 항복을 받게되었다. 이로써 후삼국 통일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936년 후백제와 一善郡의 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최후의 결전을 벌여 후백제를 멸하고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태조는 통일직후 《政戒》1卷과 《誠百僚書》8篇을 친히 저술하여 반포하였다. 《訓要十條》를 저술하여 그의 후계자들이 귀감으로 삼도록 부탁하였다.¹⁶⁶⁾

166) 《高麗史》 권 2, 世家 太祖 19년 秋9월 및 26년 夏 4월.

慶北大學校·大邱直轄市, 《八公山》續集, 1991.

3) 申崇謙(? ~ 927) ; 927년 공산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고 전사한 인물로 대구시 동구 智妙洞에 그의 祠堂인 表忠祠가 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그는 본래 전라도 谷城縣 출신으로 태조가 平山으로 賜姓하였다고 하였으며, 《고려사》 열전에는 그를 光海州(春川)사람이라 하였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春川都護府 人物條에 그가 수록되어 있고 또한 그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본래 곡성출신으로 뒤에 춘천에 옮겨와서 살게되어 그의 무덤도 여기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몸집이 장대하고 무용에 뛰어나 궁예말년에 홍유, 배현경, 복지검 등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 건국때 큰 공을 세웠으며 이로 말미암아 개국일등공신에 봉해졌다. 고려 태조가 즉위한 뒤 7~8년 동안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긴장관계는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견훤이 신라에 대하여 공세를 펴게 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어 마침내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927년 견훤이 高鬱府를 습격한 뒤 신라 왕도로 쳐들어가 경애왕을 죽이고 약탈을 하였다.

고려 태조는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신라에 보내 조문하는 동시에 친히 정기 5000을 거느리고 대구의 公山 桐蘂에서 견훤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후백제군으로 포위되어 태조가 위급하게되자 이 때 신숭겸은 대장이 되어 元甫 김락과 함께 힘써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로써 태조는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태조는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여 시호를 壯節이라 하고 그의 아우 能吉과 아들 甫를 모두 元尹으로 삼고 智妙寺를 창건하여 신숭겸과 김락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¹⁶⁷⁾

4) 金樂(? ~ 927) ; 927년 공산전투에서 신숭겸과 함께 전사한 인물이다. 918년 고려가 건국되자 개국일등공신이 되었다. 927년 元甫 在忠과 더불어 大良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후백제의 장군 鄒許祖 등 30여인을 사로 잡았다. 같은 해 견훤의 군사가 신라를 쳐서 경애왕을 자살하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태조가 5000여명의 기병을 이끌고 견훤의 군사와 공산 전투에서 크게 싸울 때 대장 신숭겸과 함께 위급해진 태조를 구하고 전사하였다. 태조는 智妙寺를 세워 신숭겸과 그의 명복을 빕었으며 아우 철을 원윤으로 삼았다. 1120년 예종은 그와 신숭겸을 추도하여 향가 〈悼二將歌〉를 지었다.¹⁶⁸⁾

167) 《高麗史》 권 92, 列傳, 洪儒 附 申崇謙.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6, 春川都護府, 寓居.

慶北大學校·大邱直轄市, 《八公山》續集, 1991.

168) 註 166)과 같음.

2. 高麗時代 大邱出身 官人과 孝子

1) 裴廷芝(1259~1322) : 고려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대구, 초명은 公允, 자는 瑞漢, 호는 琴軒이다. 아버지는 民部典書를 지낸 瑩이다. 10세에 禁衛에 들어가 都知가 되었다. 1270년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때 나이 11세로 말고삐를 잡고 왕을 호종하였는데 그 공으로 隊正이 되었다. 1291년에 別將으로 萬戶 印侯를 따라 哈丹敵을 燕岐에서 크게 무찔렀다. 이 때 流矢가 턱뼈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전하여 전과를 거둠으로서 中郎將에 특진하였다. 그 뒤 인후를 따라 원에 들어가 원의 세조로부터 勇士라는 칭호를 받고 백금을 하사받았다.

뒤에 충청, 전라의 察訪이 되어 지방의 관기를 바로 잡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였다. 충선왕 때 護軍이 되었으며 司農寺와 有備倉의 일을 관장하였다. 1318년 大護軍으로써 耽羅存撫使가 되어 성주와 왕자를 추방하고 반란을 일으킨 제주민 使用, 金成, 嚴卜 등을 토벌하였으며 돌아와 密直副使가 되었다.

1321년 옥사가 일어나 일시 귀향했다가 풀려나온 뒤에는 거문고와 바둑으로 여생을 보냈다. 그는 체구가 크고 무락이 뛰어났다. 羅州의 草洞祠에 제향되었다.¹⁶⁹⁾

2) 裴天慶(생몰년 미상) : 고려후기의 문신, 본관은 대구, 아버지는 원종의 호종공신인 廷芝이다. 1321년 옥사가 일어나 아버지가 竹林防護로 杖流당하게 되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刑을 받기를 주청하다가 마침내 함께 향리로 돌아 갔다. 1354년에 체제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되었을 때 達城君에 봉해졌다. 1356년 同知密院事를 거쳐 知樞密院事에 올랐는데 이 때 동북면이 수복되어 그 경영이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東北兵馬使에 특차되었다. 그 뒤 判樞密院事를 거쳐 東京府尹에 임명되었다.¹⁷⁰⁾

3) 賓于光(생몰년 미상) : 고려후기의 문신. 수성현에서 출생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문한관에 임명되었다. 그 후 정동행성의 鄉試를 거쳐 동료 2명과 함께 원에 파견되어 會試를 통과하고 廷試에 합격하였다. 원의 관직인 翰林에 이르렀으나 곧 귀국하여 산림에 은거하였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이익과 영달을 구하지 않고 산수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그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또 그의 필법은 당사에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¹⁷¹⁾

4) 徐均衡(? ~1391) : 고려말기의 문신. 본관은 達城. 증조부는 달성군 版圖判書 晉, 할

169) 《高麗史》 권 108, 列傳, 裴廷芝.

〈裴廷芝墓誌〉《韓國金石全文》, p. 1123.

170) 위와 같음.

17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6, 大丘都護府, 人物.

아버지는 佐郎 奇俊, 아버지는 贊成事 穎이다. 1366년 右正言이 되었다. 1379년 평소에 贊成事 洪仲宣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하추가 요동을 침입할 때 홍중선이 출병하지 않으므로 간관으로서 탄핵하여 유배시켰다. 1380년 국자감을 관장할 때 禍王이 시험문제를 보려하자 누설을 문제삼아 거절하였다.

承宣을 역임하고 1386년 提調에 올랐고 1388년 門下評理로서 密直副使 俞光祐와 더불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389년 政堂文學으로 재직시 왕명을 받아 폐왕 우왕을 강릉에서 죽였고 1390년 藝文館大提學으로 趙浚, 李至 등과 함께 世子의 師傅가 되었으며, 1391년 楊廣道都觀察使가 되었다.¹⁷²⁾

5) 夏光臣(생몰년 미상) : 고려 무신집권기인 明宗 때의 孝子. 어머니를 섬기기에 孝를 지극히하고 廬墓살이를 3년하였다. 원 압제하인 泰定 癸卯年에 旌閭하였다.¹⁷³⁾

6) 曹希參(생몰년 미상) : 壽城縣 사람인데 관직은 軍器少尹에 이르렀다. 1382년에 어머니를 부축하고 왜란을 피하였는데 京山府 加里縣에 이르러 강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었는데, 적이 쫓아오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늙고 병들었으니 죽어도 후회가 없다. 너는 말을 달려 피하는 것이 옳다.” 하니 희삼이 말하기를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그 어머니와 더불어 밭사이에 엎드렸는데 적이 칼을 뽑아 그 어머니를 치려하거늘 희삼이 몸으로 가려서 적에게 죽고 어머니는 죽음을 면하였다 한다.¹⁷⁴⁾

7) 金閑(생몰년 미상) : 解顔縣 출신으로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늘 그 상례를 다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더니 그 어머니가 죽자 廬墓를 3년 동안 하고서 그 아버지의 무덤을 어머니의 무덤 근처로 이장하고서 또 다시 3년 동안 려묘를 하였다. 나무로 부모의 모습을 새겨서 두 무덤사이에 두고 큰 상자를 만들어 그 앞에 놓고 그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어느날 호랑이가 한마리 상자부근에 왔으나 그를 보고서도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그를 해치지 않고 돌아갈 정도였다고 한다.¹⁷⁵⁾

8) 蔡順(생몰년 미상) : 壽城縣 출신으로 어머니가 죽었으나 늙고 병든 아버지가 살아 계셔 여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되자 3년동안 廬墓살이를 하고서 그 다음해에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이장을 하고서 또 다시 3년동안 여묘살이를 하여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

172) 註 101) 참조.

173)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6, 大丘都護府, 孝子.

174) 위와 같음.

175) 위와 같음.

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¹⁷⁶⁾

3. 八公山地域의 佛教와 관련된 人物

1) 知訥(1158~1210) : 曹溪禪風을 크게 떨쳐 한국선에 큰 영향을 끼친 스님. 洞州사람으로 속성은 鄭氏, 諱는 知訥, 自號는 牧牛子이다. 8세 때 조계종 宗暉禪師에게 머리를 깎고 具足戒를 받은 뒤 일정한 스승이 없이 구도에 힘쓰다가 25세에 僧選에 합격하였다. 동지 몇사람과 定慧結社를 기약하고 남으로 유행하여 昌平 淸源寺에 머물던 어느날 六祖壇經의 한 귀절을 보고 크게 깨친바가 있었다. 3년뒤 下柯山 普門寺로 자리를 옮겨 대장경을 열람하던 중 李通玄 長者의 華嚴論을 보고 禪과 教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신심을 더했다. 得才라는 친구가 公山 居祖寺에 있으면서 청하므로 그곳에 가서 옛날 기약했던 정혜사를 맺고 정혜를 닦았다. 39세 때 智異山 上無住庵에 은거하여 內觀에 힘쓰다가 大慧語錄에서 여러가지 情見을 떨쳐버릴수가 있었다. 41세 때 정혜사를 松廣山 吉祥寺로 옮겨 그곳에서 52세로 입적할 때까지 11년동안 독창적인 曹溪禪의 선양에 헌신하였다.¹⁷⁷⁾

2) 混丘(1251~1322) : 淸風郡사람으로 속성은 金氏, 諱는 混丘, 字는 丘乙, 舊名은 淸玢, 自號는 無極老人이다. 10세 때 無爲寺 天鏡禪師에게 머리를 깎고 九山禪 上上科에 올랐다. 一然에 從學하여 일연의 유업과 추모사업을 주도하였다. 충렬왕이 大禪師를 내렸고, 충선왕이 즉위하여 兩街都僧統의 직을 내렸다. 충숙왕은 왕사로 책봉하였다. 公山の 松林寺에서 입적하였다.¹⁷⁸⁾

3) 惠永(1228~1294) : 속성은 姜氏, 聞慶郡人, 11세에 冲淵首座에 나아가 南白月寺에서 승려가 되었고 1244년 王輪寺 選佛場에 합격하고 興德寺에 머물렀다. 1259년 三重大師에, 1263년 首座에, 1269년에 僧統에 각각 임명되었다. 이 시기에 당시의 재상인 柳敬이 白衣禮懺의 풀이를 요청하므로 경문을 인용하여 解1卷을 지어주었는데 전하여 귀감이 되었다.

1274년에 불국사에 옮겼고 이후 通度寺를 거쳐 여러 사원을 돌아 다니며 주석을 하다가 국왕의 요청으로 개성에 나아가 重興寺에서 9년 동안 머물면서 왕실과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그후 瑜伽寺로 옮겼다가 1290년 寫經僧 100명을 거느리고 원나라에 가서 원의 세조를 만났고 이어서 慶壽寺에 머물면서 장경을 사경하였다. 2년 후에 귀국하여 유가사에 머물렀는데 이해에

176) 위와 같음.

177) 金君綏, 〈松廣寺普照國師碑銘〉《東文選》권 117.

178) 李齊賢, 〈瑩源寺寶鑑國師碑銘〉《東文選》권 118.

충렬왕이 그를 國尊으로 봉하였다. 이어서 五教都僧統으로 임명하고 公山 桐華寺에서 주지를 하게 하였다. 1294년 동화사에서 입적하였는데 세속의 나이는 67세이고 승려의 나이는 56세였다.¹⁷⁹⁾

4) 彌授(1240~1327) : 속성은 金氏,諱는 子安 또는 彌授이다. 1252년 元興寺의 宗然스님에 나아가 머리를 깎고 具足戒를 받았으며 경론을 익혔다. 1258년 選佛場의 上品科에 올라 國寧寺에 머물렀다. 1268년 三重大師가 되어 唯識論을 강의하는 주장이 되었는데 宗門의 老師 碩德이 모두 경을 가지고 座下에서 회대의 인재가 젊은 나이에 박학으로 宗乘을 짊어지는 일식의 표준이 되었다고 탄복하였다고 한다. 이는 삼중대사로 주법이 된 것은 일찌기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후 首座, 僧統이 되었고 속리산 법주사에 머물면서 경론의 풀이를 찬술하였는데 모두 92권이였다. 충선왕이 원에 있으면서 그를 부르자 원에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원의 여러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경론을 논하였는데 원의 승려들이 모두 그의 박학함에 탄복하였다고 한다. 1309년에 崇敎院 敎學이 되었고 1315년 왕이 그를 위하여 懺悔府를 세우게 하였고 특별히 銀印을 주조케 하여 僧政을 주관하게 하였다. 1321년 공산 동화사로 옮겼는데 그 3년 후에 국존에 임명되었다. 다음해에 속리산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년후에 입적하였다.

속세의 나이는 88세이고 승려의 나이는 75세였다.¹⁸⁰⁾

4. 琵琶山地域의 佛教와 관련된 人物

1) 天因(1205~1248) : 萬德山 白蓮社 2世. 燕山郡 사람, 속성은 朴氏,諱는 天因. 만덕산 백련사의 圓妙國師 了世에게 득도하였다. 송광산 수선사의 慧謚에게서 조계선의 요령을 습득한 뒤 다시 돌아와 蓮經을誦하였다. 普賢道場이 개설되자 그곳에 머물기 2년, 다시 智異山, 琵琶山 등에 옮기면서 정진하여 스승의 天台敎觀을 이어 받았다. 了世가 입적하자 부득이 院門을 계승하였으며 문인 圓院에 법을 전하고 입적하니 세상 나이 44세이고 승려나이 24세였다.¹⁸¹⁾

2) 一然((1206~1289) : 속성은 金氏, 처음의 法名은 見明, 뒤에 一然으로 고쳤다. 字는 晦然, 自號는 曉庵이다. 경주의 속현인 章山郡에서 金彦鼎의 아들로 태어났다. 1214년에 海陽 無

179) 〈桐華寺弘眞國尊碑〉《韓國金石全文》, p. 1078.

180) 〈法住寺慈淨國尊碑〉《韓國金石全文》, p. 1154.

181) 林桂一,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序〉《東文選》 권 83.

量寺에서 학문을 닦았고 1219년 설악산 陳田寺에 들어가 출가하여 고승 大雄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여러 곳의 선문을 방문하면서 수행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추대로 九山門 四選의 으뜸이 되었다고 한다. 1227년에 僧科의 選佛場에 응시하여 장원인 上上科에 합격하였다.

그후 대구의 남쪽 비슬산의 寶幢庵에 거주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참선에 몰두하였다. 1213년이래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자 이의 해소를 위해 文殊의 五字呪를 읊하면서 감응을 빌었다고 한다. 이 때 문수가 현신하여 ‘無住에 있다가 다음해 여름에 다시 이 산의 妙門庵에 거처하라’고 하자 보당암의 북쪽인 無住庵에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그곳에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국가로부터 삼중대사에 임명되었고, 1246년에 다시 선사에 임명되었다. 3년후 參知政事 鄭晏의 요청을 받아 南海의 定林社로 옮겨가 3년간 머물면서 대장경 제작에 참가하였다.

1256년 輪山の 吉祥寺에 머물면서 《重編曹洞五位》2卷을 지었고, 3년후 大禪師에 올랐다. 1261년 왕명에 의해 수도인 강화도로 옮겨가 禪月寺에 머물면서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지눌의 사상을 계승하려 하였다고 한다. 3년후 왕에게 남쪽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여 경상도 영일군의 雲梯山으로 돌아 갔다가 대구의 비슬산 仁弘社의 주지가 되었다.

1274년 仁弘社를 중수하자 왕이 仁興이라는 이름의 친필 편액을 내려주었다. 또 이시기에 비슬산의 湧泉寺를 중창하고 그 이름을 佛日社로 개명하기도 하였다. 1277년 왕명에 의해 淸道の 雲門寺에 거주하면서 선풍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1281년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국왕이 이를 사열하기 위해 경주에 행차하자 일연도 왕을 수종하였고 다음해에는 개경에 머물면서 궁궐내에서 국왕과 국가를 위해 설법하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에 國尊에 책봉되어 圓徑冲照라는 호를 하사 받았다. 그렇지만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국존을 사양하고 군위의 麟角寺에 들어 갔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수리하여 토지 100결을 하사하여 下山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일연은 선문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九山門都會를 두차례나 개최하였고 《三國遺事》의 집필에 몰두하였다. 1289년 6월에 입적하였다.¹⁸²⁾

182) 閔漬, 〈麟角寺普覺國尊碑銘〉《韓國金石全文》, p. 1067.

